

국립국어원 2009-01-52

발간 등록 번호
----------

11-1371028-000140-14
----------------------

# 2009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연구 책임자 : 곽 충 구

연구 보조원 : 김 수 현, 박 용 대

조사 지역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국립국어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9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및 전사 용역”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  
여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19일

연구책임자 : 곽충구(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2009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이 보고서는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포들로부터 조사한 구술발화(4시간 분량), 음운, 어휘, 문법 자료를 수록하였다. 이 조사는 2009년 7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 시간은 총 58시간 49분이다. 이 자료는 키르기스스탄의 한인들이 말하는 한국어(고려말)의 실체를 잘 보여 줄 것이다. 또한 고려말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서남부에 있는 공화국으로 동으로는 중국, 북으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인접하고 있다. 이곳에는 약 2만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한인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하여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온 사람들로써 이주 초기에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다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키르기스스탄의 한인들은 수도인 비슈케크와 그 인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키르기스 한인들은 자신들을 ‘고려사람’이라 부르고 자신들의 모국어를 고려말이라 부른다. 70세 이상의 한인들은 유창하게 모국어를 구사하지만, 그 아래 세대는 고려말을 구사하지 못한다. 60대는 모국어 구사가 가능하지만 매우 서툴며 고려말로 말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 한다. 러시아어를 모르는 한국어 화자를 만나면 떠듬떠듬 고려말을 구사하지만 고려사람과는 언제나 러시아어를 구사한다. 50대 이하의 거의 모국어를 상실하여 일상적으로 러시아어를 구사한다. 노인들은 자신들끼리 모이면 대체로 고려말로 대화를 한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자손들이 러시아어를 쓰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쓴다.

조사자는 비슈케크에 거주하는 6인의 한인을 면담하고 그 중 3인을 제보자로 삼았다.

주제보자 안따샤 씨의 선대는 함북 온성군 남양면으로 육진방언권에 속하고, 부제보자 박옥순 씨의 선대거주지는 함북 부령으로 육진방언권과 비육진방언권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박표트르 씨의 선대 거주지는 함북 길주로서 사읍방언권에 속하지만, 위 3인이 말하는 고려말은 원적지의 방언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이 세 제보자가 말하는 고려말은 함북의 하위 지역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것으로서 코이네적인 성격이 강하다. 종결어미는 대체로 함북 육진방언형이나 음운체계나 그 특징은 동북방언(비육진방언)과 비슷하다.

주요어: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이주, 고려사람, 고려말, 육진방언, 동북방언

# 2009년도

##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 목 차

1. 조사 과정 .....	3
2. 전사 원칙 .....	9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 발화 .....	12
제 2 편 어     휘 .....	123
제 3 편 음     운 .....	175
제 4 편 문     법 .....	205
4. 제출 자료(별첨)	
(1) 지역어 현지 조사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 전량	
(2) 전사된 지역어 조사 질문지 원본 및 제보자 조사표	
(3)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4)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5) 보존용 48,000hz 웨이브 파일, 작업용 16,000hz 웨이브 파일, 전사 trs 파일	
(6) 지역어 조사 사진 파일(제보자 및 보조제보자 얼굴과 전신, 조사장면, 조사 장소, 마을 전경, 조사 항목 등)	
(7) 보고서 100부 및 원본 파일	
(8) 구술 발화 발간용 파일	



# 1. 조사 과정

## 1.1. 조사 지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Кыргызстан) 공화국 비슈케크(Бишкек)시 피쉬펙스카야(Пишпекская) 디미트라바 28번지.

## 1.2. 조사 지점 개관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서남부에 있는 공화국으로 동으로는 중국, 북으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인접하고 있다. 목축을 하고 곡물 면화 생산을 한다. 수도는 비슈케크이다. 비슈케크는 이전에 푸룬제라 하였으나 독립국가연합 출범 이후 이름을 바꾸었다. 중앙아시아의 대도시가 그렇듯이 오래된 가로수들이 거리에 즐비하다.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다. 이 나라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처럼 다인종국가이다. 이곳에는 약 2만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한인은 대체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당초 한인들이 집거하는 곳이나 집단농장에서 조사하기로 하였으나 그런 곳이 없어 비슈케크에서 조사하게 되었다. 한인들은 비슈케크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그 자손들은 대체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살고 있다. 이주 초기에 한인 집단농장이 만들어진 바가 없어 한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없다 한다. 또한 비슈케크 내에서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키르기스스탄에는 7, 8개의 고려노인단이 있었으나 4개의 노인단이 통합하여 '무궁화'라는 새 노인단을 만들고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별반 활동이 없다 한다.

## 1.3. 조사 지역의 고려말과 그 사용 현황

한국어(고려말)은 대체로 70세 이상이 사용한다. 노인들은 자신들끼리 모이면 대체로 고려말로 대화를 한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자손들이 러시아어를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어를 쓴다.

조사자는 비슈케크에 거주하는 6인의 한인을 면담하였다. 3인은 한국교육원의 조영식 원장이 소개한 분들이고 3인은 현지 선교사 방시몬 목사와 고려인협회 총무 남파말라 씨가 소개한 사람들이다. 남자가 4인 여자가 2인이다. 이들 노인은 모두 비육진방언을 구사하였는데, 1인(남자)은 표준어 종결어미를 썼다. 6인 중에서 3인을 제보자로 삼았는데 주제보자 안파샤 씨는 선대 거주지가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면이며(남편의 선대거주지는 함북 부령군), 보조 제보자 박옥순 씨의 선대거주지는 함경북도 부령군, 또 다른 보조제보자 박표트르 씨는 함경북도 길주군

이다. 안따샤 씨의 선대는 육진방언권, 박옥순 씨의 선대거주지 함북 부령은 육진방언권과 비육진방언권의 경계 지역, 박표트르 씨의 선대 거주지는 전형적인 사읍방언권(길주, 명천, 학성 등)이지만 세 제보자는 모두 전형적인 고려말 화자였다. 종결어미는 대체로 육진방언형이나 음운체계나 그 특징은 함북 남부 지역어(비육진방언)와 같다.

주제보자인 안따샤 할머니는 함께 동거하는 손녀 내외와는 러시아어를 쓴다 한다. 그러나 이따금 고려말을 쓰기도 하였는데, 어린 증손녀는 언제나 러시아어로 말하였지만 할머니의 고려말을 이해하는 듯하였다. 안따샤 할머니의 아들과 딸은 모두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며 이들은 일상적으로 러시아어를 구사한다. 그러나 키르기스의 어머니를 만나면 고려말로 대화한다 한다. 부제보자인 박을가 할머니의 자손은 육십 초반 이하지만 고려말을 몰라 어머니와는 러시아어로 대화를 한다. 부제보자인 박표트르 할아버지도 사정은 같다. 요컨대, 70세 이상의 고려인들은 고려말을 쓰지만 60대 이하는 일상적으로 러시아어를 쓴다. 대체로 60 이하의 모국어를 상실해 가고 있다.

## 1.4. 조사 기간 및 조사 진행 과정

2009. 7. 6.~ 2009. 7. 16.(출장 기간: 2009. 7. 2.~7. 17.)

7월 2일 : 인천 공항 출발(17시),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 도착(현지 시간 21시 35분)

7월 3일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마나스 공항 도착(현지 시간 3시 5분). 오전에 방시몬 목사의 안내로 고려인 협회 총무 남따마라 할머니(68세) 댁에서 제보자 면담. 오후에 비슈케크 한국교육원 조영식 원장의 소개로 3인을 면담. 박표트르(84세)씨를 제보자로 정함.

7월 4일 : 조사 준비 및 휴식.

7월 5일 : 박표트르씨가 건강 문제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 하여 새로 제보자를 모색함. 오후에 방시몬 목사의 소개로 안따샤(81세) 할머니 댁을 방문하여 면담 후 제보자로 선정함.

7월 6일 : 구술 발화 조사.

7월 7일 : 제보자의 고려 노인단 모임 참석으로 오후부터 구술 발화 조사.

7월 8일 : 구술 발화 조사, 어휘 항목 조사. 조사를 마친 후, 보조 제보자 선정을 위해 제보자 안따샤 씨가 소개한 강릉 김씨(85세)를 면접하였으나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치아 결손이 많아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까닭에 보조제보자 선정을 포기.

7월 9일 : 어휘 항목 조사.

7월 10일 : 어휘 항목 조사.

7월 11일 : 어휘 항목 조사, 음운 항목 조사.

7월 12일 : 제보자의 종교 행사 참석으로 조사가 어렵게 되어 박표트르씨를 모시고 구술 발화, 어휘 항목, 구술 발화 및 어휘 항목 보충 조사 실시.

7월 13일 : 음운 항목 조사.

7월 14일 : 음운 항목 조사, 문법 항목 조사.

7월 15일 : 문법 항목 조사.

7월 16일 : 제보자의 시누이 박옥순 할머니(84세)를 모시고 구술 발화 조사.

7월 17일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마나스 공항 출발(현지 시간 4시 5분)

## 1.5. 제보자

### (1) 주 제보자

- 이름 : 안 따샤
- 성별 : 여
- 나이 : 81세(1929년, 3월 6일생)
- 출생지 : 러시아 연해주 수이훈 관구 하마탕수두거
- 거주지 : 강제 이주 전 : 연해주 수이훈 관구 하마탕수두거, 구루몰레(농평동)  
현재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 레닌스키 마라따 25번지
- 선대 거주지 : 함경북도 온성군(穩城郡) 남양면(南陽面). 조부모 때 이주함.
- 직업 : 없음
- 경력 : 농업, 극장 매표원
- 학력 : 4학년 수료
- 병역 : 해당 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 현지에서 목회 활동하는 방시몬 선교사가 소개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음성이 낭랑하고 맑은 편.

### (2) 보조 제보자 1

- 이름 : 박 표트르
- 성별 : 남
- 나이 : 84세(1926년, 음력 12월 20일생)
- 출생지 :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 거주지 : 강제 이주 전 :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현재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
- 선대 거주지 : 함경북도 길주군(吉州郡). 조부모 때 이주함.
- 직업 : 없음
- 경력 : 운동 선수



- 학력 : 초등학교 졸업
- 병역 : 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 한국교육원의 조영식 원장이 고려노인단의 추천으로 소개.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발음이 명료한 편이나 몸이 불편하여 맑지 않음.

### (3) 보조 제보자 2

- 이름 : 박 옥순
- 성별 : 여
- 나이 : 84세(1926년생)
- 출생지 :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 거주지 : 강제 이주 전 : 러시아 연해주  
현재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
- 선대 거주지 : 함경북도 부령군(富寧郡)
- 직업 : 없음
- 경력 : 농업
- 학력 : 초등학교
- 병역 : 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 제보자 안파샤의 손위 시누이. 안파샤의 소개로 만나서 구술발화(원  
동에서의 생활사, 이주로부터 중앙아시아 정착 과정)을 조사.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음성이 흐린 편이나 발음이 비교적 정확하며 크고 우렁참.

## 1.6. 조사자

- (1) 이름 : 박충구(서강대학교 교수)/ 김수현(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 (2) 조사 일시 : 2009년 7월 6일~7월 16일
- (3) 조사 장소 : ①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Кыргызстан) 공화국 비슈케크(Бишкек)시  
피쉬펙스카야(Пишпекская) 디미트라바 28번지(조사자의 숙소).  
②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Кыргызстан) 공화국 비슈케크(Бишкек)시  
레닌스키 마라파 25번지(주 제보자의 집).
- (4) 조사 내용
  - ① 구술발화 파일(8개): AUZ\_TS\_01~AKZ\_TS\_08
  - ② 어휘 파일(9개): AUZ\_TS\_09~AUZ\_TS\_17
  - ③ 음운 파일(4개): AKR\_BS\_20~AKR\_BS\_23
  - ④ 문법 파일(3개): AKR\_BS\_24~AKR\_BS\_26
  - ⑤ 보충 조사 파일(2개): AKR\_BS\_18(구술 발화, 어휘 보충), AKR\_BS\_19(구술 발화 보충)

연번	파일	녹음 시간	조사 항목	주 제보자	조사자	조사일
1	AKR_BS_01	2:55:08	구술 발화 (이주사, 구술 발화 항목 전반)	안파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6.
2	AKR_BS_02	2:21:09	구술 발화 1.1.~1.7.1.	안파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6.
3	AKR_BS_03	22:45	구술 발화 1.7.1.~1.7.2.	안파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6.
4	AKR_BS_04	2:51:22	구술 발화 1.3.~1.8.	안파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7.
5	AKR_BS_05	49:26	구술 발화 1.6.	안파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8.
6	AKR_BS_06	53:54	구술 발화 1.8.3.	안파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8.
7	AKR_BS_07	1:26:52	구술 발화 이주사	박표트르	곽충구 김수현	2009. 7. 12.
8	AKR_BS_08	2:38:58	구술 발화 이주사	박옥순 /안파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16.
9	AKR_BS_09	1:14:51	어휘 20101~20211-0-2	안파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8.
10	AKR_BS_10	3:28:24	어휘 20212~20842	안파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8.
11	AKR_BS_11	3:20:54	어휘 20901~21244-3	안파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9.
12	AKR_BS_12	3:34:31	어휘 21245~21719	안파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9.
13	AKR_BS_13	1:57:44	어휘 21720~21937	안파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10.
14	AKR_BS_14	2:18:43	어휘 22001~22258	안파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10.
15	AKR_BS_15	2:32:19	어휘 22301~22514	안파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10.
16	AKR_BS_16	3:29:12	어휘 22515~23027	안파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11.
17	AKR_BS_17	3:08:30	어휘 23101~23441	박표트르	곽충구 김수현	2009. 7. 12.
18	AKR_BS_18	38:10	구술 발화, 어휘 보충 조사	박표트르	곽충구 김수현	2009. 7. 12.
19	AKR_BS_19	26:00	구술 발화 보충 조사	안파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11.
20	AKR_BS_20	30:09	음운 31001~31022	안파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11.
21	AKR_BS_21	4:26:07	음운 31023~32090	안파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13.
22	AKR_BS_22	1:34:11	음운 32091~32174	안파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13.

23	AKR_BS_23	5:00:36	음운 32175~32362	안따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14.
24	AKR_BS_24	1:52:53	문법 40101~40230	안따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14.
25	AKR_BS_25	1:59:02	문법 40231~40502	안따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15.
26	AKR_BS_26	2:48:05	문법 40601~41116	안따샤	곽충구 김수현	2009. 7. 15.
합계		58:49:10				

## 1.7. 전사

(1) 1차 전사(2009년 7월~8월, 조사지에서 전사, 8월-9월 전사)

구술발화 : 곽충구

어휘 : 김수현

음운 : 김수현, 박용대

문법 : 김수현, 박용대

(2) 1차 점검(2009년 10월)

구술발화 : 곽충구

어휘 : 곽충구, 김수현, 박용대

음운 : 곽충구, 김수현, 박용대

문법 : 곽충구, 김수현, 박용대

(3) 2차 점검(2009년 11월)

구술발화 : 곽충구

어휘 : 곽충구, 김수현, 박용대

음운 : 곽충구, 김수현, 박용대

문법 : 곽충구, 김수현, 박용대

(4) 3차 점검(2009년 12월)

구술발화 : 곽충구, 김수현

어휘 : 곽충구, 김수현, 박용대

음운 : 곽충구, 김수현, 박용대

문법 : 곽충구, 김수현, 박용대

## 2. 전사 원칙

###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하였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형태음소 전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형, 활용형, 파생어, 합성어 내부의 형태소 경계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단, 형태소 내부는 음소 전사를 하였다.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발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 안에 한글 또는 음성 기호로써 발음을 표시하였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주 제보자), '#1'(보조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실물은 존재하나 러시아어로 답변한 경우, 조사지역의 방언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 ⑧ 조사지역에서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어형을 제시하고 그 쓰임을 확인한 후 그 방언형 앞에 ‘→’ 표시를 하였다.
- ⑨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신), (+구)로 표시하였다.
- ⑩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다),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⑪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⑫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ɯ]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이’와 ‘으’의 중간음은 ‘-’로 전사하였다. 예: 끄래, 끄별. 그러나 본래의 음가를 지닌 경우도 있다. 예: 짐식(짐승-이)
- ③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④ 상승조, 하강조, 저장조를 동반하는 긴 소리는 동일 모음을 반복 표기하였다. 예: 해애했다(하애했다).
- ⑤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 3. 전사 자료

## 제1편 구술 발화

### 1. 이주 전의 원동 시절, 중앙아시아에서의 삶

- 10201 @ 아매! 그러면 저 원동 얘기를 좀 여쭙보겠습꾸마.{할머니! 그러면 저 원동(遠東) 시절의 이야기를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 10201 # 아, 원동[vəndon]에서는 내 어: 그 하마탕쑤두거라는 데서 내 탄생했지.{아, 원동에서는 내가 그 하마탕쑤두거라는 데서 태어났지.}
- 10201 # 기래 거기서 우리 아, 아버지는 그 저기 재비농새르, 재빌르 이래 농새르 해서는 먹구 살구.{그래 거기서 우리 아버지는 저기 자작농(自作農)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고.}
- 10201 # 이렇기 그랬지.{이렇게 그랬지.}
- 10201 # 그 답에느 거기서 어따(əto) 하마탕쑤두거 수이푼스끼 라이온(Суифунский рай он)에서는 내 네 살 땡땡어.{그 다음에는 거기서 음 하마탕쑤두거가 있는 수이훈 관구(管區)에서는 내가 네 살이 되었었어.}
- 10201 # 네 살 땡는데 예떠(əto) 하, 예떠(əto) 기계 구루물레 구루물레라구서리 그렇기 얘:기르 우리 아매 한 한어머니 내가 얘:기르 하지.{네 살이 되었는데 음, 하마탕쑤두거, 음 그 기계 구루물레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말씀을 하지.}
- 10201 # 그런 구루물레라는 데르 삼십삼년도에 네 살 땡지.{그런 구루물레라는 데에서, 1933년도에 내가 네 살이 되었지.}
- 10201 # 그때 모::지리 승년이 들었지.{그 때 몹시 흉년이 들었지.}
- 10201 # 기래 그 거기서 떠나서 구루물레서 떠나서 하아, 저기 거기로 왔지.{그래 거기 (하마탕쑤두거)에서 떠나서 구루물레서 (하마탕쑤두거를) 떠나서 저기 거기로 왔지.}
- 10201 # 예따(əto) 저기 구루, 어따(əto) 하마탕쑤두거라는 데서 떠나서 구루물레라는 데르 왔지.{음 저기 구루물레, 음, 하마탕쑤두거라는 데를 떠나서 구루물레라는 곳으로 왔지.}
- 10201 # 기래 와서 어, 거기 와서 거기서는 꼬호쭙(қолхоз)데, 기래 거기서는 꼬호즈(қолхоз) 일하기만 하무, 강제질두 하구 그담에 예따(əto) 싸하르(сахар) 잇자?{그렇게 와서 거기 와서, 거기는 집단농장이데, 그래 거기서는 집단농장에서 일을 하기만 하면 감자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음 설탕 있지?}
- 10201 @ 음.{음.}
- 10201 @1 예.{예.}
- 10201 # 사하르(сахар)질두 하구.{사탕수수 농사도 짓고.}
- 10201 # 기래무 가슬이 임하무 강제두 타구 어 싸하르(сахар)두 커우대들이르 커우대르 한 커우대씨 두 커우대씨 이렇기 타지.{그렇게 농사를 지어 가을이 되면 감자도 타고 설탕도 자루 들이로 자루로 한 자루씩 두 자루씩 이렇게 타지.}
- 10201 # 기래구 강제느 동삼 먹을 거 타구.{그리고 감자는 겨울에 먹을 것을 타고.}

10201 # 갈그, 채밀이 저어서 채밀 갈그두 이래 주지.{가루를, 밀 농사를 지어서 밀가루도 이렇게 주지.}

10201 # 우리네 원도서 그런 에따(это) 입쌀으 못 봤어.{우리네 원동서 그런 음 입쌀을 못 보았어.}

10201 # 어 피난으, 피난으 아오?{어 피, 피를 아오?}

10201 @ 네! 아오.{네! 아오.}

10201 # 어 피난으 먹구 살았어, 그 쌀, 밥우 먹구 살았지.{어 피를 먹고 살았어, 그 찰쌀, 피밥을 먹고 살았지.}

10201 # 기래 그 구루물레라는 데 와서는 꼬호즈(кохоз) 들어서 거기 와서 살았짐.{그래 그 구루물레라는 데 와서는 집단농장에 들어서 거기 와서 살았지 뭐.}

10201 # 기래 사는데 거기는 저쪽에 네레가서느 초이지만해두 우리네는 이쪽에 올, 산변죽덱이에 올라와서느 어: 다스 호이 살았됐어.{그래 사는데 거기는 저쪽에 내려가면 촌이지만 우리네는 이쪽에 올라와 산기슭에 올라와서느 다섯 호(戶)가 살았어.}

10201 # 다스 호이 사는데 다스 호에 선새임이 한내 살구 그담에 우리 내 우리 빠빠 아버지 누비 동새애 둘이 살구.{다섯 호가 살았는데 선생이 하나 살고 그 다음에 우리 나 아버지, 누이 동생 둘이 살고.}

10201 # 기래구 한 분네느 누긴지 내 기억지 못하겠어.{그리고 한 분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겠어.}

10201 # 기래 다섯 분이 살았됐어.{그래 다섯 분이 살았었어.}

10201 # 기래구 어: 거기서 또 네 해 살았지.{그리고 어 거기서 또 네 해를 살았지.}

10201 # 네 해르 살았됐어.{네 해를 살았었어.}

10201 # 네 해르 살구 삼십칠년도에 이기르 둘온다::구 그러지.{네 해를 살고 1937년도에 여기로 들어온다고 그러지.}

10201 # 기랜데 내 그때 여들살[여듭쌀] 때 맺됐어.{그런데 내가 그 때 여덟 살 때였어.}

10201 # 그 때느 우리 해~이 잇엇됐어.{그때는 우리 형이 있었어.}

10201 # 우리 한어머니 잇구 우리 빠, 아버지 어머니 잇구 해~이 잇구 내 잇구 우리 동새:오래비 잇엇됐어. 동새:..{우리 할머니가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있고 형이 있고 내가 있고 우리 남동생이 있었어. 동생.}

10201 @ 동새:오래비.{남자 동생.}

10201 # 오 오래비 잇어…….{동, 동생이 잇어…….}

10201 # 기래 거저 여섯이 맺됐어.{그래 그저 여섯이 되었어.}

10201 # 기래 여섯이 대서 거기서 어 사연 잇다가 네 해르 거기서 살구.{그래 여섯이 되어서 거기서 웅 4년을 잇다가 네 해를 거기서 살고.}

10201 # 그래다가 우리 이 여기르 싹 다 온다구서르 그렇게 말하지.{그러다가 우리 이 여기로 싹 다 온다고 그렇게 말하지.}

10201 # 기래 그때 우리네 한어머니랑 모:지리 울엇됐어.{그래 그때 우리는 할머니와 몹시 울었어.}

10201 # 거기 떠나니까데 야~. 이러짐.{거기를 떠나니까 웅. 이러지 뭐.}

10201 # 아이 이 노시아르 둘온단 말 아이하구 야~ 이 까자흐스탄으로 둘온다구 그렇기 그러짐.{아니, 이 러시아로 들어온다는 말을 안 하고 웅 이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온다고 그렇



게 그러지 뭐.}

10201 # 끄래 그때 우리 한어머니 얘:기르 하지.{그래 그 때 우리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하지.}

10201 # 어디메르 가는가: 하이까데 어디메르 간다구 아이 하구서리 떠날 적에는 아무 데두 간단 말 아이 하구 싹 우리 조선사람덜으 싹긴다구.{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어디로 간다고 안 하고서, 떠날 적에는 아무 데도 간단 말을 안 하고 싹 우리 조선사람들을 차에 싹린다고.}

10201 # 이렇기 말하지.{이렇게 말하지.}

10201 # 끄래 차츰차츰 오다가서리 그것두 우리 한어머니 말하는 게구 내 들ᄁ다나이.{그래 차츰차츰 오다가, 그것도 우리 할머니가 말하는 것이고 내가 그 말을 듣다 보니.}

10201 # 끄래 그러지.{그래 그러지.}

10201 # 어 그렇게, 이 죽, 이거 중아민, 중아~이라구 하오? 여기르? 그래구.{어 그렇게, 이거 중아아시아라고 하오? 여기를 그러고.}

10201 @ 중아아시아.{중아아시아.}

10201 # 중아아시아로 들어온다구 이렇기 말하이 우리 한어머니 그렇기 얘:기 하지.{중아아시아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하니, 우리 할머니가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지.}

10201 # 그래서 우리 여길 들어와서, 들을 적에 모:지리 메 우리 영감 알았짐.{그래서 우리 여기를 들어와서, 들어올 적에 몹시 (고생한 사실을) 우리 영감이 잘 알았지.}

10201 # 뭇 해 뭇 달 들어온 온 거 싹. 거저 어느 날 어트리 들온 거 싹 알지.{어느 해에 어느 달에 들어온 것을 싹. 그저 어느 날 어떻게 들어온 거 싹 알지.}

10201 # 나는 그거 들ᄁ구두 기억이 못했단 말이지.{나는 그거 듣고도 기억을 못했단 말이지.}

10201 @ 어릴 때라.{어릴 때라.}

10201 # 아이! 이기 와서.{아니! 여기 와서.}

10201 @ 아, 여기서.{아, 여기서.}

10201 # 여기와서. 저기 소강추이가 얘:기르 하는 거 내 들으메서두 그거 기억치 못했단 말이. {원동이 아니고 여기 와서. 저기 내 남편이 소강춘 교수와 이야기하는 것을 내 들으면서도 그거 기억하지 못했단 말이오.}

10201 # 우리 들을 적에 뭇 달 메출으 들어오구 한 그런 거. 메출으 들어왔다는 거 어 소강추이가 얘:기 하지.{우리가 원동에서 중아아시아로 들어올 적에 뭇 달 며칠을 들어오고 한 그런 것. 며칠을 들어왔다는 것을 (남편이) 소강춘 교수와 얘기를 하지.}

10201 # 기래두 내 그거 기억지 못했단 말이지.{그래도 내 그거 기억하지 못했단 말이지.}

10201 # 그러나 나는 뭇 달 메출 들어온 거 나는 모르겠어.{그러나 나 자신은 원동에서 여기로 몇 달 몇 일 동안 들어왔는지 나는 모르겠어.}

10201 @ 그러면은.{그러면은.}

10201 # 들을 적에 들어올 적에는 차에 오는데 정말 바빠 들어왔어.{들어올 적에 들어올 적에는 차에 싹려 왔는데 정말 힘들게 들어왔어.}

10201 @ 그건 이따 여쭙 보구요.{그건 이따가 여쭙어 보고요.}

10201 # 어~.{응.}

10201 @ 그러면은 그때 아매 원도에 계실 때.{그러면은 그때 할머니가 원동에 계실 때.}

10201 # 어~.{응.}

10201 @ 예, 원동에 계실 때 그 마을은 어티기 생겼습둥?{예, 원동에 계실 때 그 마을은 어떻

게 생겼었습니까?)

10201 # 마을으는 이룽기 생겼어.{마을은 이렇게 생겼어.}

10201 # 다스 호이 사는데 산변죽택이 이룽게 사~이지.{다섯 호가 사는데 산기슭에, 이렇게 산이지.}

10201 # 사인데 이룽기 보기마 하무 사~이 이룽기 이 이룽기 평든::한 사이 잇는데 야 이 산변 죽택이에 따이 잇지.{산인데 이렇게 보기만 하면 산이 이렇게 이 이렇게 밋밋한 산이 있는데 응 이 산기슭에 땅이 있지.}

10201 # 거기다가서리 코~오 시무구 감자 시무구 옥수꾸 시무구, 옥수끼 무시 한국에서는 옥수꾸 무시기라 하오?{거기다가 콩을 심고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옥수수는 뭐 한국에서는 옥수수를 무엇이라 하오?}

10201 @ 옥수끼라 하압꾸마.{옥수수라 합니다.}

10201 # 옥수끼 아, 옥수꾸 시무구.{옥수수 아, 옥수수를 심고.}

10201 # 그래 그저 그러한 채소덜으 심어서 배채랑 까지랑 고초랑 싱거, 심어서.{그래 그저 그러한 채소들을 심어서 배추랑 가지랑 고추랑 심, 심어서.}

10201 # 그 산벤죽택이 비오무 그저 농새질해서 그래.{그 산기슭에 비가 오면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10201 # 채빋거 따아 파선 그래선 먹구 살구.{자기 땅을 파고 그래서는 먹고 살고.}

10201 # 기래구 우리 어: 원도에서 살 적에는 세 한 마리 잇엇뎌어.{그리고 우리 원동에서 살 적에는 소가 한 마리 있었어.}

10201 # 어, 젓으 짜는 쉼 잇구.{어, 젓을 짜는 소가 있구.}

10201 # 야~이 다숫 마리 잇엇어.{양(羊)이 다섯 마리가 있었어.}

10201 # 기래구 어 그런거 우리 아버지 타구 땡기는 말이 한 마리 잇엇뎌어.{그리고 어 그런 거, 우리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말이 한 마리 있었어.}

10201 @ 아아! 그렁슴둥?{아! 그렁습니까?}

10201 # 말이 잇엇뎌어.{말이 있었어.}

10201 # 기랜거 그 세랑 말이랑 둘을 적에 그 사름덜이 짝 가져갑데.{그런데 그 소랑 말이랑 여기로 들어올 적에 그 사람들이 짝 가져가데.}

10201 # 우리 말이두 가져가구 세두 가져가구 야~이두 가져가구 짝 가져갑데.{우리 말도 가져가고 소도 가져가고 양도 가져가고 짝 가져가데.}

10201 # 기래구 그거는 우리 한어머니 그러는 게, 에 돈으 주더라지.{그리고 그거는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에 돈을 주더라지.}

10201 # 기래 우리 한어머니 내가 얘기르 하는데 이러지 머.{그래 우리 할머니 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지 뭐.}

10201 # 돈으 열세천을 여기르 둘을 적에 열세천으 돈으 이 허리에 띠구 왔다йка데 영계 사름덜 그러지 들어와서 우리 사름덜 이룽기 말하지.{돈을 13,000루불을 여기로 들어올 적에 13,000루불의 돈을 이 허리에 차고 왔다고 하니까 여기 사람들이 그러지,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10201 # 야! 그거 돈으 마이 가지구 왔다구서리.{야! 거 돈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10201 # 기래 말이랑 세이 야~이 잇다나이.{그래 말이랑 소, 양이 있다 보니.}

10201 # 야아! 오리랑 닭이랑 많았어.{야! 오리랑 닭이랑 많았어.}

10201 # 대애지는 그: 노시앗사름덜이 잡아서 통재다가서리 싹 절거서 간 이룽기 불에다가서리 야~ 그렇게 기래서 어 통재다 열어서 저어서 그래 그거 가지구 여기 들어와서 그거 우리 먹엇댓어.{돼지는 그 러시아사람들이 잡아서 통에다가 싹 절이어서 이렇게 불에다가 응 그을려서 통에다 넣어서 저서 그래 그거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그거 우리 먹엇어.}

10201 @ 그러면은.{그러면은.}

10201 # 그래 한 한어머니 기렇게 애:기르 하지.{그래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10201 # 들어와서 칠년도에 들어와서 그 동삼으느 국 팔십, 칠십 어저느 칠십 어따(это) 삼십 칠년도에 들어와서 삼십팔년도에는 기래두 일없게 살앗다구.{여기로 들어와서 1937년도에 들어와서 그 겨울은 칠십 이제는 칠십 음 1937년도에 들어와서 1938년도에는 그래도 괜창게 살았다고.}

10201 # 원도서 가지고 들어온 돈에, 먹을 거에 가지구 들어와서 이룽기 살앗다지.{원동서 가지고 들어온 돈에, 먹을 것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살았다지.}

10201 # 기래구 구연도부터는 별:어야 살지.{그리고 1939년부터는 별:어야 살지.}

10201 # 기래 우리 아버지 조끔씨 벌어서.{그래 우리 아버지 조금씩 벌어서.}

10201 # 기래 가지고 온 돈이 그렇게 마:이 모자란다지.{그래 가지고 온 돈이 그렇게 많이 모자랐다지.}

10201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01 # 우리 한아버이, 한어머니 기래구 애:기르 하지.{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10201 # 기래 그 돈으 가지구서리 살다가 우리 아버지 조끔씨 일해서 벌어서 우리 오기는, 크즐오르다르 들어왔댓어.{그래 그 돈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아버지 조금씩 일해서 벌어서, 우리 오기는 크즐오르다로 들어왔엇어.}

10201 @ 아! 까자끄스탄.{아! 카자흐스탄.}

10201 # 아, 거기르 들어와서 경계와서 어: 출나바리크라구서리 그런 게 또 잇엇됐소.{거기로 들어와서 거기에 와서 음 출나바리끄라고 그런 데가 또 있었소.}

10201 # 고로드(Город)서 조끔 나가서.{도시에서 조금 나가서.}

10201 # 기랜데 우리 그게 \*\*살로에 들어오다나이 가매서리 아 부리우지.{그런데 우리가 그게 살로에 들어오다 보니 기차가 지나가면서 사람을 부리지.}

10201 # 칠리(Чилли)다 부리우구.{칠리(Чилли)에다 부리고.}

10201 # 어, 그담에 바이비치다가 부리우구.{어, 그 다음에 바이비치에다가 부리고.}

10201 # 그래 부리우메서리 가서 우리네느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가서리 뿔 바곤(вагон)으 네레와 논 거느 내 기억지 못하겠어.{그렇게 부리면서 가서 우리네는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에다가 (부렸는데) 객차 몇 량의 사람을 내려놓았는지 내가 기억을 못하겠어.}

10201 # 기래 여기 아는 사름덜이 그거 아는 사름덜이 노인단으 가기만 하무 잇소.{그래 여기 아는 사람들이 그거 아는 사람들이 노인단에 가기만 하면 잇소.}

10201 # 기래 엇그제 노인단으 가이까데 한아버지 한내 그래 애:기르 하지.{그래 엇그제 노인단에 가니까 할아버지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10201 # 에따(это) 우리네두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에 와 네렛다구.{음 우리네도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에 와서 내렸다고.}

10201 # 그래구 애:기르 하지.{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10201 # 그 사람덜으느 내보구 한내라두 이새~이다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영감가 동궐이다나 이 알지.{그 사람들은 나보다도 한 살이라도 손위이다 보니, 우리 아버지 우리 영감과 동갑이다 보니 알지.}

10201 # 기래 우리네는 그래 와서 출나가리크라는 데는 마악 쓸어 열었단 말이지. 사름덜으. {그래 우리네는 그렇게 와서 출나가리크라는 데는 막 쓸어 넣었던 말이지. 사람들을.}

10201 # 그저 정말 즘시이르 쓸어 열는 거 처리 쓸어 열었됐어.{그저 정말 짐승을 쓸어 넣는 것처럼 쓸어넣었어.}

10201 # 거기 사름덜이 마:이 죽었어.{거기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10201 # 우리네는 아매 잇다나이 한어머니 잇다나이 인, 그 크줄오르다 어 사범대학이라는 그런 게 잇었됐어.{우리네는 할머니가 있다 보니 할머니가 있다 보니, 그 크줄오르다 사범 대학이라는 그런 곳이 있었어.}

10201 @ 아압꾸마.{압니다.}

10201 # 아, 아오?{아, 아오?}

10201 @ 예.{예.}

10201 # 아아! 그 사범대학이 깔린도리(коридор)에서 살았됐어.{아! 그 사범대학 복도에서 살았됐어.}

10201 # 그 이룽기 들어가는 카이. 이룽기 어 사람 그 청년덜으느 글으 이르구 들어오메서두 그 청년덜이 글 이르는 청년덜이. 나아 먹은 거느 우리 영감이 말하는 게 어 큰일으 조 쯔 하는 거느 썩 붙들어 가져갔다는 게지. 들어오매서리. 기래구 우리 나이 어리구 그런 사름덜으느 그렇기, 우리 아버지랑 무식하지, 우리 아버지랑, 기라다니까데 그저 아이 붙 들어갔지, 아무데두. 그래 거저 여기 들어와서두 고상 모지 했어 모지. 우리네는 원도, 원 도에서두 원동 변강에서도 잘 사지는 못했어. 잘 사지는 못했어.{그 이렇게 들어가는 칸. 이렇게 어 사람 그 청년들은 공부를 하고 원동에서 들어오면서도. 그 청년들이 공부하는 청년들이. 나이를 먹은 사람은 우리 영감이 말하는데 어 큰일을 조금 하는 것들은 썩 붙 들어 갔다는 게지. 원동에서 이곳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우리처럼 나이가 어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아버지랑 무식하지, 우리 아버지랑, 그렇다 보니 그저 안 붙들어 갔지, 아무 데도. 그래 그저 여기 들어와서도 고생을 몫시 했어 몫시. 우리네도 원동, 원 동에서도 원동 변강(邊疆)에서도 잘 살지는 못했어. 잘 살지는 못했어.}

10201 @ 그럼 아매!{그럼 할머니!}

10201 # 응.{응.}

10201 @ 그 원동에서.{그 원동에서.}

10201 # 응.{응.}

10201 @ 예, 그 어저께도 쯔 여쭙 봤었는데 그 까레이(Корея) 어디에서 언제 뉘기 원동으르 왔슴둥?{예, 그 어저께도 조썩 여쭙어 보았는데 그 한국 어디에서 언제 누가 원동으로 왔 습니까?}

10201 # 우리 한어머니, 한어머니가 한아바지 왔지.{우리 할머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왔지.}

10201 @ 음, 어디서?{음, 어디서?}

10201 # 어:, 한북 북동 내메라는 데서. 내메라는 데서 왔지. 한국 북동 내메라는 데서 왔지. 우리 한어머니가 한아바지. 거기서 들어왔지. 기래 들어와실 적에, 그때 한국북도에서 우

리 아버지 낫지. 기래 우리 아버지르 한나 업구 여길 들어왔지. 한나 업구.{어, 함경북도 남양(南陽)이라는 데서. 남양이라는 데서 왔지. 함경북도 남양이라는 데서 왔지.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 거기서 들어왔지. 그래 들어왔을 적에, 그때 함경북도에서 우리 아버지 태어났지. 그래 우리 아버지를 하나 없고 여기를 들어왔지. 하나 업고.}

10201 @ 한나 업고 원동으로 들어오셨지.{하나 업고 원동으로 들어오셨지.}

10201 # 원도으르 들어왔지. 기래 들어와서 우리 어 한어머니, 예: 한아버지 잇구. 그 담에, 한, 우 우리 아버지 예 잇구, 우리 아버지 누비 잇구 동새애 잇구 그 담에 또 누비 둘이 잇엇댜어. 그 동새 아랴르 누비 또 두울이. 그래 다숫이, 다숫이 댜댜어. 누비 둘에 동새애. 그래 잇어 다숫이 댜지. 다숫이 데구. 기래구서리 그 노시아로 들어왔지. 그 들어와서 거기 와서 그 하마탕쭈두거라는 데르.{원동으로 들어왔지. 그래 들어와서 우리 할머니, 예 할아버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있고, 우리 아버지 누이가 있고, 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이가 둘이 있었어. 그 동생 아래로 또 누이 둘이 있었고. 그래 다섯이, 다섯이 되엿엇어. 누이 둘에 동생. 그렇게 잇어서 다섯 호가 되엿지. 다섯이 되고. 그리고서 러시아로 들어왔지. 들어와서 거기 와서 그 하마탕수두거라는 데로.}

10201 @ 아까 말씀하셨죠.{아까 말씀하셨죠.}

10201 # 어, 어 그 하마탕쭈두거라는 데르 들어왔지.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구루물레라는 데르 와서 우리, 우리 아버지 하마탕쭈두거서 장가르 갔어. 우리 어머니는 어디메 비 비쩍이라구, 번도에서 비쩍이라는 고로드(город) 빈쩍이라는데. 그래 우리 한어머니 애:기르 하이 내 들엇지. 기래두 우리 헤이두 이 애:기르 자서:히 못하재이오? 나느 한어머니가 그양: 같이 잇다나이 내 이거 자서:니 들엇지. 우리 헤인, 상세났어. 우리 오형제요. 아 아들이 한난 게 우리 어마니 아들이 한난게 상세나구. 우리 오형제 이때까지 사다가 헤이가 넷째 동새 상세났어. 게 우리 서이 시방 있어. 갠데 내 한내 여기 잇어. 개구 둘우느 까프까즈(Капказ)에 잇어.{어 그 하마탕수두거라는 데를 들어왔지.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구루물레라는 데를 와서 우리, 우리 아버지 하마탕수두거에서 장가를 갔어. 우리 어머니는 어디 비쩍이라고, 원동에서 비쩍이라는 도시, 비쩍이라고 하데. 그래 우리 할머니 얘기를 하니 내가 들엇지. 그래도 우리 형도 이 얘기를 자세히 못하는데, 나는 할머니와 계속 같이 있다 보니 내 이거 자세히 들엇지. 우리 형은 돌아가셨어. 우리 오남매요. 아들이 하나인데 우리 어머니 아들이 하나인데 돌아가고. 우리 오남매 이때까지 살다가 형과 동생이 돌아갔어. 그래 우리 셋이 지금 있어. 그런데 나 하나가 여기 있어. 그리고 둘은 카프카즈에 있어.}

10201 @ 까프까즈(Капказ)에.{카프카즈에.}

10201 # 어, 까프까즈(Капказ)에 살다가.{어, 카프카즈에 살다가.}

10201 @ 어째 멀리 가셨습둥?{어째 멀리 가셨습니까?}

10201 # 그렇기 이새르 해애 갔지, 우리 어머니. 기래구서리 예 내 아래 동새: 내보구 일곱 해 야늬해 지해오.{그렇게 이사를 해 갔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예 내 아래 동생이 나보다 일곱 해, 여덟 해 아래오.}

10201 @ 오래비라구 그러셨지.{오라비라고 그러셨지.}

10201 # 아이 동새.{아니, 여동생.}

10201 @ 남, 남자.{남, 남자.}

10201 # 여자!{여자!}

10201 @ 아, 여자.{아, 여자.}

10201 # 야~. 기래 야들 해[야드패] 지해 동새애 시방 원동서 들을 적에 탄생해서 두 달인가 들어왔지 여기르. 개 그제 일흔 두 살. 일흔 두살 데오. 기래구 영계 들어와서 한내 또 낫됐어. 기래 난 게 그거느 예순 둘이. 예순 둘이. 어저느 그 까프까즈(Кавказ) 잇다가서 리 모스크바르 갔어. 모스크바 가서 거기 가 일 벌:어서. 어어 기게 어디메라던가? 경계 다가 집우 싸구 시방 거기서 모스크바 거기서 사오. 거기서 사오. 기래 드문:드문 전화르 하오. 기래 들으무 내 가슴이 그렇게 좋재이오. 난 또 여기 한내다나이.{응. 그래 여덟 해 아래 동생이 지금 원동에서 들어올 적에 탄생해서 두 달인가 되어서 여기로(중앙아시아)로 들어왔지. 그래 지금 72세. 72세 되오.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 또 낫지. 그래 난 것이 예순 두 살. 예순 두 살. 이제는 그 까프까즈에서 잇다가 모스크바로 갔어. 모스크바에 가서 거기 가 일을 해 벌:어서. 어 그제 어디라던가? 거기다가 집을 사고 지금 거기서 모스크바 거기서 사오. 거기서 사오. 그래 드문드문 전화를 하오. 그래 목소리를 들으면 내 가슴이 그렇게 좋지 않소. 난 또 여기 (혼자) 하나이다 보니.}

10201 @ 뭐 전화를 하시무 데지요 뭐.(뭐 전화를 하시면 되지요, 뭐.)

10201 # 그래 전화르 하지. 야~ 전화르 하오. 기래 거저 우리 형제간으느 그래 다숫이 거저 잇다가 형두 나이 잇어 상세났어. 야든 여섯, 이른 여섯에 상세났어, 해~이. 해~이네 자식 두 여기 잇소.{그래 전화를 하지. 응 전화를 하오. 그래 그제 우리 형제간은 그렇게 다섯이 그제 잇다가 형도 나이가 잇어 돌아가셨어. 여든 여섯, 이른 여섯에 돌아가셨어, 형이. 형이네 자식도 여기 잇소.}

10201 @ 이쪽에?{이쪽에?}

10201 # 어~.{응.}

10201 @ 끼르끼즈스탄에?(키르기스스탄에?)

10201 # 어~.{응.}

10201 @ 아. 그럼 아매 원동에 계실 때에 어: 그 아매가 사시던 하마탕쑤두거 그 주변 지역에는 우리 한인들이 사는 한인촌이 없었습둥? 다른 마을이 없었습둥?{아. 그럼 할머니 원동에 계실 때 어 그 할머니가 사시던 하마탕수두거 그 주변 지역에는 우리 한인들이 사는 한인촌이 없었습니까? 다른 마을이 없었습니까?}

10201 # 다른 마을이 없구, 거기서 지나가무 어: 그런 어 그거 우리네느 하마탕쑤두거라지마내 두 거기느 또 지나가서 우리 삼추이랑 경계가서 글으 일겼어. 그 거기…….{다른 마을이 없고, 거기를 지나가면 응 그런 어 그거 우리는 하마탕수두거라고 하지만도 거기는 또 지나가서 우리 삼촌이랑 거기에 가서 공부를 했어. 그 거기…….}

10201 @ 어디가서?{어디가서 공부를 했습니까?}

10201 # 어…….{어…….}

10201 @ 블라디보스토크?{블라디보스토크?}

10201 # 원동서 야 우리 하마탕쑤두거르 지나가기마 하무 타두거라 하압데, 타두거라구. 그 타두거란 데 가서 어어 우리 삼추이랑 글으 일겼됐어. 그 담에 글으 이르다가서리 우리 삼추이느 우리네르 떠나서 어디메르 왔는가:이 예따 우리집에서 나와서 우리 아매랑 잇는 데 서방두 아이가구 어디메르 갖는가이, 예따(это) 기게…… 그제 어디메라 하던가 기억치 못하겠다……. 칸다로쨌노브까(кондратеновка)라구 했어. 칸다로쨌노브까(кондратеновка)! 그 칸다로쨌노브까(кондратеновка)느 기게 예따(это) 아…… 우스리스크(уссу

рий ск)요.{원동에서 응 우리 하마탕수두거를 지나가기만 하면 타두거라 하느 곳이 있데, 타두거라고. 그 타두거란 데 가서 응 우리 삼촌이랑 공부를 했어.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우리 삼촌은 우리를 떠나서 어디로 왔는가 하니, 음 그제…… 그제 어디라 하던가 기억하지 못하겠다……. 칸다로제노브까(кондратеновка)라고 했어. 칸다로제노브까(кондратеновка)! 그 칸다로제노브까(кондратеновка)는 음…… 우스리스크(уссурийск)요.}

10201 @ 아이구! 위인데.{아이구! 그곳은 블라디보스토크 위인데.}

10201 # 야~ 우스리스크(уссулийск). 어 거기 그러 우리 삼촌이네는 거기서 살았지. 기래구 장가르 가서 아덜 서, 둘으 데리구 여기르 들어왔지. 우리 삼촌이랑으는 어 아덜 둘이 싹 일찍이 상세나구. 시방 내 제:일 오래: 사오. 내 제일 오래 사오.{응 우스리스크(уссулийск). 어 거기 그리고 우리 삼촌네는 어 거기서 살았지. 그리고 장가를 가서 아이들 셋, 둘을 데리고 여기 중앙아시아로 들어왔지. 우리 삼촌네는 어 아이들 둘이 싹 일찍 죽고. 시방 내가 제일 오래 사오. 내가 제일 오래 사오.}

10201 @ 음. 그러면은 아매 그 원동에 계실 때에 그:: 다른 그 친척은 없었습둥?{음 그러면 할머니 그 원동에 계실 때 그 다른 친척은 없었습니까?}

10201 # 친척은 톨리, 톨리꼬(толико) 그제 우리 음 어 삼촌이 잇구 어 그제 아버지 누비 두 우 서이 잇구. 아 그제 그래 잇었지. 그래구서 그제 친척이 그래 사다가 그래 사다가서리 그 친척이 다아 같이 들어왔지.{친척은 오직 그제 우리 삼촌이 있고 그제 아버지 누이가 둘 셋이 있고. 아 그제 그렇게 있었지. 그러고서 그제 친척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 친척이 다 같이 중앙아시아로 들어왔지.}

10201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01 # 다아 같이. 그러나 삼촌이 딸루 들어왔어. 어 삼촌으는 그런 거 우스리스키(уссулийск) 잇다나йка더 딸루 들어와서 어. 우리네는 크즐오르다 네리구, 삼촌이네 까르막치라는 데. 거기 가서 조금 더 가서 네렸지.{다 같이. 그러나 삼촌은 따로 들어왔어. 어 삼촌은 그런 거 우스리스크에 있다 보니 따로 들어와서 어. 우리네는 크즐오르다에서 내리고 삼촌은 까르막치라는 데서 내리고. 거기 가서 조금 더 가서 내렸지.}

10201 @ 거기가 우즈벡스탄임둥?(거기가 우즈베키스탄입니까?)

10201 # 까자끄스탄. 크즐오르다(ҚЫЗЫЛОРДА)에서 조곰 더 지나가서. 그래 네렸지.{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ҚЫЗЫЛОРДА)에서 조금 더 지나가서 까르막치가 있지.}

10201 @ 그러면은 그 아매 어마니는 그 까레이(Корея) 어디서 들어오셨습둥? 어마니쪽은?{그러면 그 할머니 어머니는 그 한국의 어디서 들어오셨습니까? 어머니쪽은?}

10201 # 우리 어 엄 내 어마이 그 그쪽에서는 어디메서(+[ədimesə]) 어: 비쩍이라는 데서.{우리 어 엄 내 어머니 그 쪽에서는 어디서인가 하면 어 비쩍이라는 데서.}

10201 @ 비쩍.{비쩍.}

10201 # 우리 마마는 열내매[열래매]. 열내매[열래매]오. 열내맨데[열래맨데] 들어오기는 어디르 들어왔는가 하이 이 카자흐스탄 알마타 잇재오?, 알마파, 저, 저기, 그 알마파서 그제 어디멘가 우슈토베라는 데르 왔어.{우리 어머니는 10남매. 10남매이오. 10남매인데 들어오기는 어디로 들어왔는가 하니 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있잖소?, 알마티, 저, 저기, 그 알마티서 그제 어디인가 하면 우슈토베라는 데로 왔어.}

10201 @ 그렇지. 아아! 우슈토베.{그렇지. 아아! 우슈토베.}

10201 # 짝 우리 이 사름덜이 싁게서 짝 까자흐스탄으로 들어오구 우즈벡스판으르 들어왔지. 기앤데 우리네는 짝 까자흐스탄에서 네렸다. 우리 어 어머니 형제간두 열내매[열래매] 짝 우슈토베서 짝 네렸단 말이오. 그래두 우리 어머니는 재비 동새가는 못찾았덜어. 못 찾구 잇다가서리 그 담에 우리 삼추이, 내 삼추이 우리 어머니르 찾게 댜지. 개 찾아서 그 사름덜이 짝 정게르 싁게서 음 우슈토베르 왔다가 그 사름덜이 짝 까프까즈(Кавказ)르 들어갔어. 짝 까프까즈(Кавказ) 가서 우리 삼촌네 거기서 짝 상세났어. 기래두 마감에 마마르 어 육십육년도에 마마르 데레다가서리 거기가서 우리 마마르 상세났지.{짝 우리 사람들이 차에 실려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오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왔지. 그런데 우리네는 짝 카자흐스탄에서 내렸다. 우리 어머니 형제간도 열 남매(인테) 짝 우슈토베에서 짝 내렸단 말이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자기 동생과는 못 찾았어. 못 찾고 잇다가서 그 다음에 우리 삼촌이, 내 삼촌이 우리 어머니를 찾게 되었지. 그래 찾아서 그 사람들이 짝 거기서 실려서 음 우슈토베로 왔다가 그 사람들이 모두 카프카즈로 들어갔어. 모두 카프카즈로 가서 우리 삼촌네는 거기서 짝 돌아가셨어. 그래도 마지막에 어머니를 어 1966년도에 어머니를 데려갔는데 거기 가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10201 @ 그럼, 그 아까 여쭙밧었는데, 그 아매 그 마마 있재임둥? 마마는 아까 말씀하시기르 까레이:::(Корея).{그럼, 아까 여쭙어 보았는데, 그 할머니 어머니가 있잖습니까? 할머니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국…….}

10201 # 우리 마마네는.{우리 어머니네는.}

10201 @ 까레이(Корея) 어디라구 그러셨지?{한국의 어디라고 그러셨지?}

10201 # 모르지. 우리 우리마마네 패덜으느 나는 한나투 모르지. 기래구 우리 빠빠(папа)네 패덜으느 우리 애매 말하다나이 그게 기억이 댜단 말이지.(모르지. 우리 우리 어머니쪽 패들은 나는 하나도 모르지. 그리고 아버지 패들은, 우리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다 보니 내가 그게(선대 거주지) 기억이 댜단 말이지.}

10201 @ 다(да), 다(да).(예, 예.)

10201 # 우리 마마네 패덜두 그전에 이 원동 변강에서 아이 살구 짝 저 조선에서 잇다가서리 들어왔겠지.{우리 어머니 패들도 그전에 이 원동 변강에서 안 살고 짝 조선에서 잇다가 들어왔겠지.}

10201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01 # 응. 그러나 그 우리 마마 그짜 할미덜은 내 모르다나니 내 그 우리 마마 나르 나서, 나르 나서 어, 그 마마집으르 갓다와서 갓다오구 그 담에는 종무소식이 데구, 이 싁게 들어와서 알앗다지. 싁게 들어와서 알앗다지. 어디메르 온 거 알앗다지. 기애구 우리, 그래두 그때는 우리 이 빠스쁘르뜨(паспорт)르 아오?{응. 그러나 그 우리 어머니 그쪽 할머니들은 내가 모르다 보니 내 그 우리 어머니 나를 나서, 나를 나서 어, 그 어머니 집에 갔다 와서 갓다 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종무소식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 중앙아시아로 실려 들어와서야 알앗다지. 실려 들어와서 알앗다지. 어디로 온 거 알앗다지. 그리고 우리, 그래도 그때는 우리 이 신분증이라는 것을 아오?}

10201 @ 네! 빠스쁘르뜨(паспорт).{네! ‘빠스쁘르뜨(паспорт)’가 무엇인지 압니다.}

10201 # 빠스쁘르뜨(паспорт)르 우리네르 아이 쫘오. 어느 해꺼지 우리네게 빠스쁘르뜨(паспорт) 없었는가 야~, 어: 내 저 까프까즈(Кавказ) 우리 마마 가실 적에 그게 칠십년도이 댜어. 칠십년도에 대서 내 거기서 나오자 하니까데, 바꾸(Баку)라는 데 기게 바꾸(Баку).



{신분증을 안 주었오. 어느 해까지 우리네에게 신분증이 없었는가 하면 응, 어 저 카프카즈 우리 어머니 갔을 적에 그게 1977년도가 되었어. 77년도가 되어서 내가 거기서 나오자 하니까, 바쿠라는 데, 그게 바쿠.}

10201 @ 음.{음.}

10201 # 거기서 나오자 하니까데 빠스पोर्ट(паспорт) 찾짐. 우리네는 도꾸멘트(документ) 없다구. 기레문 못 간다구. 가진 것지만두 나 못 온다지. 이쪽으 따시겐트 못 나온다지. 기레 내 이랬지. 내 그때 노시아 말으 몰랐어, 지내. 기레 노시아말으 모르다나이, 어 아이 나느 니 말해두 내 모른다구. 그 밀리쯔(милиция) 잇재오? 밀리쯔(милиция) 붙들어서 나르 데레가지. 기레 니 말해두 내 모 알아듣는다구. 나느 조선말르 내 이래지. 니 말해두 내 모 알아듣는다구. 무슨 말인거. 나느 이 내 말밖엔 나느 더는 모른다구. 기애니까데 기렘 가라구. 기애 어딜 가는가구. 따시겐트 간다구. 기레 빌레트(билет)르 주라구서 리 글으 써줍데. 기래서 그 비행길 사 나와서 비행기 글으 떼가지구서르 게 따시겐트르 왔지. 기래 거저 모른다는 게 똑 제일이더라 말이지. 아 나는 너어 말으 하나투 모른다구. 조선말르 그래지. 너어 말으 모른다구. (웃음) 기래 나르 보내짐. 그래구서리 내 그때 몇 살 댕는가이 마흔 다섯 살 댕어. 마흔 다섯 살 댕어. 칠십년도이까데, 네에트(нет)!, 내 그 칠십년도이 마은 다섯살이 어::, 일흔 아홉해에 내 쉰: 살이 댕지. 기래니까데 시 마흔 한 살이 댕땀어 그때. [x칠십x]도에 마흔 한 살이 댕땀어.{거기서 나오자 하니 신분증을 보이라고 하지 뭐. 우리네는 문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못 간다고 하지. 가기는 했지만도 못 나온다지. 이쪽을, 타슈켄트로 못 나온다지. 그래 내가 이랬지. 내 그때 러시아 말으 몰랐어, 아주. 그래 러시아 말으 모르다 보니, 어 ‘아니! 나는 네가 말해도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그 경찰이 있잖소? 경찰이 붙들어서 나를 데려가지. 그래 네가 말을 해도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했지. 나는

조선말로 그러지. 너희 말을 내가 모른다고. 무슨 말인 것을. 나는 이 내 말밖에는 더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럼 가라고. 그래 어디를 가는가 하고 (경찰이 묻지). (그럼 나는) 타슈켄트 간다고 (하지). 그래 비행기 표를 주라고서 글으 써 주더군. 그래서 그 비행기 항공사에 가서 비행기 증명서를 떼어 가지고서 그래 타슈켄트로 왔지. 그래 그거 모른다고 하는 게 똑 제일이더라 말이지. 아 나는 너희 말을 하나도 모른다고. 조선말로 그러지. 너희 말을 모른다고. (웃음) 그래 나를 보내지 뭐. 그리하고서 내 그때 몇 살이 되었는가 하면 마흔 다섯 살이 댕어. 마흔 다섯 살이 댕어. 1970년도이니까, 아니!, 내 그 마흔 다섯 살 어, 1979년에 내가 쉰 살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마흔 한 살이 댕었어 그때. [x70년x]도에 마흔 한 살이 댕었어.}

10201 @ 마흔한살.{마흔 한살.}

10201 # 야~. 기애 내 나느 말으 모른다구 기래니까데 나르 건네와 놓더라지. 비행기 빌레트(билет)르 떼라고 글자 주니까데 그거 가지구 가서 비행사 가서 글으 떼가지구 집우르 왔지. 내 마마집으 갔다가. 나느 따쉬겐트에 살구 마마느 까프까즈에 살구. 어, 기래서. 마마 불라갓다가서리 기래 그거 그렇게 왔지.{응. 그래 내 나는 (너희) 말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를 건네놓더군. 비행기 표를 끊으라고 (경찰이) 글으 써 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비행기 항공사에 가서 증명서를 떼어 가지고 집으로 왔지. 내 어머니 집에 갔다가. 나는 티슈켄트에 살고 어머니는 카프카즈에 살고. 그래서. 어머니 보러 갔다가 그래 그거 그렇게 왔지.}

10201 @ 잘 하셨죠, 그래두. 그럼 아매.{잘 하셨죠, 그래도. 그럼 아매.}

10201 # 기래구…….{그리고…….}

10307 @ 음. 예, 아매! 그러면은 그 어 원동에 게실 때에 예 하마탕수두거에서 사람들이 주로 어떤 걸 많이 심었습둥?{음. 예, 할머니! 그러면 그 원동에 게실 때에 예 하마탕수두거에서 사람들이 주로 어떤 걸 많이 심었습니까?}

10307 # 경계서두 피난으 시무지.{거기서도 피를 심지.}

10308 @ 음. 그거 어터게 농사를 짓습둥 피난으?{음. 그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피를?}

10308 # 나느 모르게. 피난으 어떻게 하는, 징는지두 모르지. 그게 아무래 예: 내 이쪽으 구루물레라는 데서 와서 그거 농새질하는 거 보니 그때는 벌써 내 어전으 다섯 살이 대엿겠지. 다섯살 대실 적에, 네 살에 떠났지. 다섯 살 대애실 적에 농새질 하는 걸 보니 싹 빌루 하던구마느.{나는 모르지. 피농사를 어떻게 하는(지), 짓는지도 모르지. 그게 아마도 예 내 이쪽 구루물레라는 데서 와서 그거 농새질하는 거 보니 그때는 벌써 내 이젠 다섯 살이 되었겠지. 다섯 살 되었을 적에, 네 살에 떠났지. 다섯 살 되었을 때 농새질하는 것을 보니 싹 비로 하던구먼.}

10308 @ 뭐?{무엇으로?}

10308 # 비, 빌루. 그 예따(əTo) 비 오재이오? 비 오기마 하무 농새 데구 비 마이 오무 농새르 아이 데지. 그렇기 농새질의 해서 그 피난으 먹었지.{비, 비로. 그 음 비가 오잖소? 비가 오기만 하면 농사가 되고 비가 많이 오면 농사가 안 되지.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그 피를 먹었지.}

10919 @ 음. 그러면은 인제 음: 그때:는 사냥 같은 건 아니 했습둥?{음. 그러면 이제 음 그때는 사냥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10919 # 무시기?{뭐라고?}

10919 @ 그 산에 가서 이룽기 총을 쏘서 짐스으 잡는 거.{그 산에 가서 이렇게 총을 쏘서 짐승을 잡는 거.}

10919 # 그런 건 난 모르오. 야 모르지. 그런 거느 우리 아버지 모르더라.{그런 건 난 모르오. 응 모르지. 그런 것은 우리 아버지 할 줄을 모르더라.}

10102 @ 그 아매 구루물레 근처에 머 높은 산이나 이 레까(лека).{그 할머니 ‘구루물레’ 근처에 뭐 놓은 산이나 이 강.}

10102 # 야~.{응.}

10102 @ 그런 것들은 없었습둥?(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10102 # 물으느 예따(əTo) 그저 삼치 네레가압데. 삼치물이. 기래 네레가는데 그제 어디메르 네레가는지. 기래 네레가는데 그 삼치물으 받아서 우리 먹지. 삼치물으 받아서 그렇기 먹구.{물은 그저 샘물이 내려가데. 샘물이. 그래 내려가는데 그제 어디로 내려가는지.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 샘물을 받아서 우리 먹지. 샘물을 받아서 그렇게 먹구.}

10201 # 기래구서리 어: 그전에는 우리 원동에 이실 적에는 어 노시앗사름이 잇어두 저쪽에 네레가서 잇구 그래두 그 사름덜가 같이 대면해 말두 못하구. 모 해밧어. 우리 빠빠(папа)는 그 사름덜가 같이 일하지. 일하다나이. 기래 우리 빠빠(папа)는 기래 노시앗말으 하지. 그 사름덜가 같이. 기래두 우리네는 아매 같이 잇다나йка데 노시앗말이라는 거 모 해밧지. 그래 다스호이 잇다나이, 다스 호이. 그저 이룽게, 우리네두 이룽기 찻질이[차질이] 멀엇댓어. 기래구나 이 차라는 거 아이 배왓댓어. 이래 이견 사이 땡: 돌과 이게 끼

르끼즈처리 사이 빵: 돌가 잇구 이룽기 그 산벵죽대기에[상벵죽때계] 사다나이 네리바다 보무 그 아래는 그저 평안:한 그런 따입데. 우리 내 아아 때 보니. 기래 우리 마마 꼬호즈(колхоз) 일할 적에 감제질하구 그럴 적에는 감제르 다아 질구, 사하르(сахар), 그런 그런 무꾸, 사하르(сахар)무꾸 질지. 기래 무꾸 질기만 하무 그 무꾸 저어서는 거 어드메 실어가는지 실어가선 사하르(сахар) 커우대들이르 해에서 주짐. 켜데 싸하르(сахар) 싹 이런 게란 말이오. 주먹대 같은 싸하르(сахар)오. 시방으는 갈기싸하르(сахар) 애이오? 켜데 그전에는 주먹대 같은 싸하르(сахар)지. 기래 거저 그런 거 타 주구. 기래구 피난으, 성매르 아오? 성매르{그리고 어 그전에는 우리 원동에 있을 적에는 어 러시아인이 있어도 저쪽에 내려가서 있고. 그래도 그 사람들과 같이 대면해 말도 못 하고. 못 해보았어.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지. 일하다 보니. 그래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러시아 말을 하지. 그 러시아사람들과 서로. 그렇지만 해도 우리네는 할머니와 같이 있다 보니 러시아말이라는 것을 못 해 보았지. 그래 다섯 호가 있다 보니, 다섯 호. 그저 이렇게, 우리네도 이렇게 찾길이 멀었댔어. 그리고 차라는 것은 안 배웠었어. 이렇게 이건 산이 빵 둘러서 이게 키르기스처럼 산이 빵 둘러 있고 이렇게 산 가장자리 언덕에 살다 보니 내려다보면 그 아래는 그저 평편한 땅이데. 우리, 내가 아이 때 보니까. 그래 우리 어머니가 집단농장에서 일할 적에 감자 농사를 짓고 그럴 적에는 감자를 다 짓고, 설탕, 그런 사탕무, 사탕무 농사를 짓지. 그래 무 농사를 짓기만 하면 그 무 농사를 지어서는 거 어디로 실어가는지 실어가서는 설탕을 부대에 넣어서 주지 뭐. 그런데 농사는 싹 설탕 같은 것이란 말이오. 주먹덩이만한 사탕무이오. 시방은 가루설탕이 아니오? 그런데 그전에는 주먹덩이 같은 설탕이지. 그래 그저 그런 거 타서 주고. 그리고 피, 연자방아를 아오? 연자방아?}

10201 @ 아압꾸마.{압니다.}

10201 # 우리네는 그전에는, 시방 이래 메르니짜(мельница)서 가르, 갈그두 내구 쌀두 내구 이러지? 그전에는 우리 재비 성매 잇었댔어. 기래 말으 메와서 그 성매다가서리 그 피난으 쫓짐. 기래 그 피난으 찌어서는 우리 거저 밥우 그렇기 먹구. 치우라 우리네는 뻥으 먹었어. 그거 어 우리 마우재덜이 집우 징인 게 두 칸으 살았어. 기래 한 칸으는 이마:이 이래 크구 거기다 구들의 농구, 온돌의 농구. 한 칸으는 장판 이룽기 농구. 거기 이래 뻘치(печь), 그거 그거 한국사람들은 뭐라구 말하는지 모르게. 거기 뻘치(печь)에다가서리 야. 그런데다가서 떡으 굽소. 뻥으 굽짐. 거기다가서르 불우 때기마 하무 거기 이룽기 예 따 구들처리 따따:사구, 기래 우리네 아매 한어머니 예: 헤~이 내 거기서 그렇기 자구. 거 우리 아버지 내 오랍야는 그 구들에서 자구 이룽기 야~. 그룽기 그룽기 살았댔어, 우리.{우리네는 그전에는, 시방 이렇게 제분기(製粉機)을 가지고서 가루도 내고 쌀도 내고 이러지? 그전에는 우리 자기 연자방아가 있었어. 그래 말을 메워서 그 연자방아에다가 그 피를 쫓지 뭐. 그래 그 피를 쫓아서 우리 그저 밥을 그렇게 먹고. 대부분 우리네는 빵을 먹었어. 그거 우리 어 러시아 사람이 집을 지은 것인데 두 칸 방을 가지고 살았어. 그래 한 칸은 이만큼 이렇게 크고 거기다 구들을 놓고, 온돌을 놓고. 한 칸은 장판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 이렇게 빵을 굽는 난로?, 그거 한국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를 게 야. 거기 빵굽는 난로에다가 웅. 그런데다가 빵을 굽소. 빵을 굽짐. 거기다가 불을 때기만 하면 그게 이렇게 음 구들처럼 따뜻하고, 그래 우리네 할머니, 예, 형, 내가 거기서 그렇게 자고. 거 우리 아버지 내 남동생은 그 구들에서자고 이렇게 웅. 그렇게 그렇게 살았

어, 우리.}

10605 @ 그러면 그 때 (기침) 그, 이 밥우 하는 데 있대임둥?{그러면 그때 (기침) 그, 이 밥을 하는 곳이 있잖습니까?}

10605 # 밥우느 가매애다 하압데.(밥은 솔에다 하데.)

10605 @ 가매애다 하죠.{솔에다 하죠.}

10605 # 가매애다 밥우 하구.{솔에다 밥을 하고.}

10605 @ 그러면 이 불으 때는 뭐라구 했슴둥?{그러면 이 불을 때는 곳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0605 # 불으 [x때르느x] 구들에서 불으 때지. 이 구들이 [x인따무x] 거기다 불우 때이구서르 끓이지. 낭그느 사선낭기라구 하압데. 그 우리 한어머니 그렇기 말하지. 사선낭그 그 밭 씨 가솔이무 그거 지우지. 그거 제에 지와서느 그거 가져다가서느 야아! 많이 가리우 그거. 기래구 불우 때구서리 기래구 잇는게. 집우느 차갑재았어. 아이 차갑아. 기애 집우느 무스거 쥔었는가이. 노시앗사름덜이 좇인 집인게 야 이 밑을르 이렇게 이 토맥이르 이렇기 해서 이렇기 높우기 했습데. 기래구서리 썩 집이 이렇소. 무티집인게, 무티집인게, 안으느 썩 바람질하구, 한질르느 낭그 잎 낭기 썩 베구 그렇기 살았았어.{불을 때는 것은 방바닥에서 불을 때지. 이 방바닥이 있다면 거기다 불을 때고 밥을 짓지. 나무는 '사선낭기'(장작)이라고 하데. 그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지. 장작을, 벌써 가을이면 그거 베어서 넘기지. 그거 지고 와서는 그거 가져다가 야! 많이 쌓아 놓소 장작을. 그리고 불을 때고서 그래고 있는데(방에 있는데). 집은 차갑지 았았어. 안 차가워. 그래 집은 무엇으로 지었는가 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짓은 것이 응 이 밑은 나뭇토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게 했데. 그리고서 썩 집이 이렇소. 통나무집인데, 통나무집인데, 안은 썩 벽을 흙으로 바르고, 한테는 나뭇잎, 나무를 썩 베고 그렇게 살았았어.}

10605 @ 그럼 이렇기 불을 때는 데느 무스거라구 했슴둥? 부수깨라구 했슴둥?{그럼 이렇게 불을 때는 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수깨'라고 했습니까?}

10605 # 부수깨라구.{부수깨'라고.}

10605 @ 뵤어깨라구 했슴둥?{뵤어깨'라고 했습니까?}

10605 # 부수깨라 했어. 야~ 뵤어깨라 아이하구 부수깨라구서. 그렇기 말했, 야~ 그렇기 말했어.{부수깨'라고 했어. 응 '뵤어깨'라고 아니 하고 '부수깨'라고 했어. 그렇게 말했, 응 그렇게 말했어.}

10605 @ 그러면 이렇기 불우 때면은.{그러면 이렇게 불을 때면.}

10605 # 거기다가서 가매르 걸었지.{거기다가 솔을 걸었지.}

10605 @ 가매르 걸었지.{솔을 걸었지.}

10605 # 가매르 걸구 거기서느 어 밥두 하구 장물두 하구 그렇기, 그렇기 하구. 야~ 그렇기 기래구 호박이랑 찌재이오?{솔을 걸고 거기서느 어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응 그렇게 그리하고 호박을 찌잖소?}

=아매!{할머니!}(+제보자의 증손녀)

# 아!{어!}

=모쥬노 꾸샤찌(можно кушать)!{와서 식사하세요!}(+제보자의 증손녀)

# 아! 나는 먹었다.{아! 나는 먹었다.}

=무이 하쥔 꾸샤찌(мы хотим кушать).{우리 밥 먹고 싶어요.}(+제보자의 증손녀)

# 아, 먹어라! 먹어라!{아, 먹어라! 먹어라!}

=꾸이 류끄(Куи Люк).{잡수세요.}(+제보자의 증손녀)

# 아, 아매 잡소라구 하재이오?{아, (증손녀가) 할머니 진지를 잡수시라고 하잖소?}

@ 잡수라구.{잡수시라고.}

# 야~, 꼭 이래 시격간 시격 때 돌아오무. 아이 내 물으 대기마 하무, 아이 ‘다바이 꾸샤찌(давай кушать)!', ‘빠이쑤 꾸샤찌(пойдем кушать)!’ 이라고. (웃음) 기래매 기래오.{꼭 이렇게 끼니때가 돌아오면. 아니 내가 손에 물을 대기만 하면, ‘아이 식사하세요! 와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말하오. (웃음) 그러며 그러오.}

10605 @ 음. 그러면.{음. 그러면.}

10605 # 그렇기 살았어.{그렇게 살았어.}

10605 @ 예. 그러면은 예: 이제 사선낭그 이만한 거 갖다 때 불으 때이구 예 그러면은 그 때면은 이 이 불길이 이렇게 지나가가지구.{예. 그러면 예 이제 장작을 이만한 것을 갖다 불을 때고 예 그러면 불을 때면 이 불길이 이렇게 지나가서.}

10605 # 구들이 다아 따따::사지 그룽기.{방바닥이 다 따뜻하지 그렇게.}

10605 @ 따따사쥬.{따뜻하지요.}

10605 # 응.{응.}

10605 @ 그러구 나서 인제 저 집 뒤에 뭐가 이렇게 막 나오재임둥?{그리고 나서 인제 저 집 뒤에서 무엇이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10605 # 야~ 그래.{응 그래.}

10605 @ 그걸 뭐라구 함둥? 내굴이라구 함둥?{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굴’(연기)이라고 합니까?}

10605 # 그런 내굴이 나가는 데는 구새라 했어.{그런 연기가 나가는 데는 ‘구새’(굴뚝)라고 했어.}

10605 @ 아, 구새라구.{아, ‘구새’(굴뚝)라고.}

10605 # 어, 구새라 했어, 어.{응, ‘구새’(굴뚝)라 했어, 응.}

10605 @ 그럼 아매 고 집에서 구새두 있구: 고담 아까 말씀하신 부수깨두 있구.{그럼 할머니 고 집에 굴뚝도 있고 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엌도 있고.}

10605 # 야~.{응.}

10605 @ 또 구들두 있재임둥?{또 방바닥도 있겠습니까?}

10605 # 야~. 기래.{응. 그래.}

10605 @ 그거 말구 이제 그 이름 좀 가르쳐 주옵소. 뭐 부수깨다 온, 구들이다 이렇게 될 집…….{그거 말고 이제 그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부수깨’(부엌)이다, ‘구들’(방바닥)이다 이렇게 될 집…….}

10605 # 야~. 우리네는 에따(это) 구들에다 불으 때애지 어 부수깨애다 불우 때문 구들이 다 아 온돌이 따따:사지. 온돌이 따따:사구. 기래구 그 어간에 빠치(печь), 그것두 그거 노서 아 사름덜은 빠치(печь)라지. 조선사람덜으는 무시기라구 내 말하는지…….{응. 우리네는 음 구들에다 불을 때지 부엌 아궁이에다 불을 때면 방바닥이 다 온돌이 따뜻하지. 온돌이 따뜻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난로, 그것도 그거 러시아 사람들은 폐치카(벽난로)라 하지. 조선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내 모르고…….}

10605 @ 그게 원래 없습꾸마. 우리 조선사람들에게는.{그게 원래 없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

에게는.}

10605 # 없지. 그런 빠치(печь) 마우재 빠치(печь)지. 그런게, 그것두 또쥬(тоже) 불우 때기마 하루 온돌처르 따따:사지. 그 우이, 그 우이 이룽기 크우. 그 빠치(печь)두 크지. 기램 거기다 불우 때기마 하루 감자두 꺾아서 어: 그런 추 시……, 시방으느 우리네 여기서느 추 그나(чугна)라 하지. 그런 가매라구. 가매. 가매애다 그거 감제르 꺾아서 그 우에다 달에 놓기만 하루 기계 물, 물우 붓어서 거기다 놓기만 하루 그제 제재빌르 끓어서 게 싹 익는단 말이지. 호박두 물두 아이 붓구 물으 아이 붓구 호박으 그 빠치(печь)다 달에놓지 아왕겠어. 기래무 그렇기 잘 굵어진단 말이지. 그렇기 우리네. 원도선 여기서느 이래 그 저 고, 고기랑 이룽기 먹구 살지. 원도서느 거저 재비 대애지르 잡우무 먹지, 에 어 고기르 어디가서 바. 여기서느 바자르(базар)라 하재이오? 자~이라 하지. 한국사름덜은 자~이라 하지 냐~. 그거 바자르(базар) 냐~ 자~이라 하지. 우리네느 그전에는 그 자~에 가서 싸오는 법이 없구 집에서 재래와선 닭두 잡구 닭으두 잡구 오리두 오리두 잡구. 기래 먹기 싶우무 야~아 잡아서 먹구. 그래 먹지 재래와서는 야~, 기래지 에따(это) 자~에 가서 싸오는 법으 없짐.{없지. 그런 난로 러시아 사람 난로지. 그런 거, 그것도 역시 불을 때기만 하면 온돌처럼 따뜻하지. 그 위, 그 위가 이렇게 크오. 그 난로도 크지. 그럼 거기다 불을 때기만 하면 감자도 꺾아서 그런 철제 솥……, 시방은 우리네 여기서느 ‘추구나’(철제 솥)라 하지. 그런 솥이라고. 솥. 솥애다 그거 감자를 꺾아서 그 위에다 들이어 놓기만 하면 그제 물, 물을 부어서 거기다 놓기만 하면 그제 제 스스로 끓어서 그제 싹 익는단 말이지. 호박도 물도 안 붓고 물을 안 붓고 호박을 그 난로에다 들이어 놓지 않겠어? 그러면 그렇게 잘 굵어진단 말이지. 그렇게 우리네 해 먹고 살지. 원동에서는 여기서느 이래 그저 고, 고기랑 이렇게 먹고 살지. 원동에서는 그저 자기 돼지를 잡으면 그때서야 고기를 먹지, 어 어디서 고기 구경을 해. 여기서느 ‘바자르’(시장)라 하잖소? 장이라 하지. 한국사람들은 장이라 하지 응. 그거 ‘바자르’ 응 그것을 ‘장’이라 하지. 우리는 그전에는 그 장에 가서 사오는 법이 없고 집에서 길러서 닭도 잡고 닭도 잡고 오리도 오리도 잡고. 그래 먹고 싶으면 양(羊)을 잡아서 먹고. 그래서 먹지, 길러서는 응. 그리하지 음 장에 가서 사오는 법은 없지 뭐.}

10605 @ 없지.{없지.}

10605 # 없짐.{없지 뭐.}

10201 @ 그러면은 예. 음:. 그 원동에, 원동에서요. 원동에서 아매 그 동미들은 없었슴둥?(그러면 예. 음. 그 원동에, 원동에서요. 원동에서 할머니 동무들은 없었습니까?)

10201 # 동미덜으느 우리 사촌덜은 잇었지. 우리 사촌덜 음, 음, 어따(это) 우리 어: 빠빠(папа) 누비 딸이. 우리 헤~이 제일: 어어: 이십륙년 육년새: 거저 이십칠년새:나 데오. 게 우리게 제일 나이 잇었지. 기래구 또 우리 아버지 누비 딸이 이십팔년새:.. 베라라구 했어. 우리 헤~이느 순옥이라구 하구. 기래구 우리 만아재 만아재 우리 빠빠(папа) 만누베 딸으느 아들으느 을세[을씨]이라 했어. 그래 이십칠년새:..{동무들은 우리 사촌들은 있었지. 우리 사촌들이 음, 음 우리 아버지 누이 딸이. 우리 형이 제일 위인데 음 1926년, 26년 생이거나 그저 1927년 생이 되오. 게 우리 중에서 제일 나이가 있었지.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누이 딸이 1928년 생이고. 이름을 ‘베라’라고 했어. 우리 형은 순옥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만고모 만고모 우리 아버지 만누이 딸은 아들은 을성이라 했어. 그렇게 1927년 생.}

10201 @ 을?{을?}

10201 # 을세[을쎄]. 기래구 어 또 둘째 아들이는 청새라구 했어. 기래 그 사람우는 어: 이십육년새:, 어: 청새. 기래구 을세는 이십칠년새구 이거는 이십 육년새:구. 기래구 우리 해~이느 이십육년새:구. 연연새:오. 그 그래서 우리 사촌찌리 이래 놀지. 어:: 남우 아들이는 없었, 다스 호인테 남우 아들이는 없었됐어 나~. 그랬됐어.{을성이.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은 청성이라고 했어. 그래 그 사람은 1926년 생, 청성. 그리고 을성은 1927년 생이고 이거는 1926년 생이고. 그리고 우리 형은 1926년 생이고. 연년생이오. 그 그래서 우리 사촌끼리 이렇게 놀지. 남의 아이들은 없었, 다섯 호인테 남의 아이들은 없었됐어 응. 그랬됐어.}

10804 @ 그럼 무스거 하구 놀았습둥?{그럼 무엇을 하고 놀았습니까?}

10804 # 아이, 거저 낮이무 거저 갔다 왔다. 그런 무시기 그전에는 어 바꿈재놀음하재두, 시바은 별란게 다아 잊지, 그전에는 옥수끼 잊재이오? 옥수꾸 먹구서느 옥시괘애기 잊재이오. 고거 이롭게 실으 이롭게 빼서서 머리르 맨들어서 꾸꼴라(кукла)르 해서르 그래 가지구 놀구. 어 그런거 낭그 깎아서느 여름에는 낭그 깎아서느 그래 그거 가지구서리 에 못, 그런 거 따에다가서르 못치기르 하메서리.{아이, 그저 낮이면 그저 갔다 왔다. 그런 뭐 그전에는 소꿉질을 하려고 해도, 지금은 별난 것이 다 있지만, 그전에는 옥수수가 있잖소? 옥수수를 먹고서 옥수수자루가 있잖소. 고거 이렇게 실을 이렇게 빼서 머리를 만들어서 인형(人形)을 해서 그거 가지고 놀고. 그런 거 나무를 깎아서느 여름에는 나무를 깎아서 그래 그거 가지고서 에, 그런 거 땅에다가서 못치기를 하면서 놀고.}

10804 @ 못치기.{못치기.}

10804 # 야~. 그렇게 하메 놀구. 고거 나이 어리다나이 거저 그래구서리 야~ 놀았지. 그래 고 때 그게 기억이 텐단 말이지. 고 그전에는 어디메서 그 시방 가지고 노는 놀음감이 있어! 없:지 무슨. 기래구서리 어 동삼이무 거저 기래구서리 놀구.{응. 그렇게 하메 놀고. 고거 나이가 어리다 보니 그거 그렇게 하고 응 놀았지. 그래 고 때 기억이 난단 말이지. 고 그전에는 어디서 그 시방 가지고 노는 그런 장난감이 있어! 없지 뭐. 그리고 겨울이면 그저 그렇게 하고 놀고.}

10201 # 그담에 여름에 나가서느 고 산변죽택이 풀덜이 많지. 에따(это) 그런 달리두 엔: 일찍이 달리 나암니. 그 달리두 가서 켈라 갔다가 산으르 갔다가 오기마 하무 우리 동상아들이 기래짐. 어이구! 산으르 갔다 온 거르 하늘에 갔다왔다지. 어 하늘에 갔다오이까데 배고푸다구. 기래 그게 어느 해겠는가이, 에: 삼십, 삼십오연도에 텃됐어. 기애 그때두 삼년도에 먹을 게 없다나이. 송년이 드다나이 어: 사연도에 오연도애두 먹을 게 없어서 무스거 먹었는가 하이 시태라구서리 아오? 시태라구.{그 다음에 여름에 나가서느 고 산 가장자리 언덕에 풀이 많지. 음 그런 달래도 가장 일찍 달래가 나오지. 그 달래도 가서 캐러 갔다가 산으로 갔다가 오기만 하면 우리 동생 아이들이 그러지 뭐. 어이구! 산으로 갔다 온 것을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지. 하늘에 갔다 오니까 배고프다고. 그래 그게 어느 해이겠는가 하면, 에 삼 십 1935년도가 됐됐어. 그래 그때도 1933년도에도 먹을 것이 없다 보니. 흥년이 들다 보니 1934년도 1935년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었는가 하니 '시태'[나맥(裸麥)]라고 아오? '시태'라고.}

10201 @ 모르겠습꾸마.{모르겠습니다.}

10201 # 그런 거 찌서. 기계 뚫지. 뜯 것두 그거 떡으 해서 그거 우리네 먹었지. 그 해느 어

동삼에느 먹을 게, 여름에느 나가무 호박 시무구 무스거 심어서느 그거 먹지. 그러나 동삼에느 먹을 게 없어서 그래 그 시대갈기랑 그래 먹었지. 치우라 쌀으느 입쌀으느 없구 그저 조이가 그저 갈그 먹었됐어, 우리네.{그런 거 찌서. 그제 땀지. 뜬 것도 그거 떡을 해서 그거 우리네 먹었지. 그 해는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어, 여름에는 나가면 호박도 심고 무엇을 심어서는 그거 먹지. 그러나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나맥의 가루랑 그런 것을 먹었지. 대부분 쌀은 입쌀은 없고 그저 조와 그저 가루를 먹었됐어, 우리네.}

10201 @ 아매 그 시대는 무스거 무스 무스거 가지구 만듬둥?(할머니 그 '시대'는 무엇 무엇을 가지고 만듭니까?)

10201 # 그것두 이룽기 아 자라오. 채밀이 잇재이오? 채밀이쳐르 자라옵데.{그것도 이렇게 밭에서 자라오. 밀이 있잖소? 밀처럼 자라데.}

10201 @ 음.{음.}

10201 # 기밀이, 시대, 아 유밀이. 그런 게 있어. 유밀이라는 거느 어 기밀이 유밀이느 말으 벵 입데, 그전에. 기래 기래두 일찍이 하마탕쭈두거서 이쪽으로 구루물레라는 데르 오이 기래두 머거리 잇엇단 말이지. 기래 우리 동상아덜이 이룽기 산에 갓다오기마 산에 갓다오무 그제 썩다 자자부레 우리 자자부르했지. 기래 하늘에 갓다왔다지. 산으르 산에 갓다오기마 하무 우리 하늘에 갓다오이 배고푸다구. (웃음) 기래 우리 한어머니 기래구 애:기르 하지 또. 기래 애:기르 하지. 기래 우리 내 그거 들지. 기래무 그 시 시대갈그 뜬 거 먹으무 또 먹을 적에느 그룽기 맛있게 먹지. 그러나 아 먹기마 하무 아덜이 데서 속이 아이 좋아서 썩 게우짐. 게 먹구. 그렇기 우리 구차하게 살았어. 옛:날이 우리 모:지리 구차하게, 내 나서 잘 산 때 없엇됐어. 내 살아서느 잘 산 때 한번두 없엇됐어.{귀리, 호밀, 나맥(裸麥). 그런 것이 있어. 나맥이라는 것은 음 귀리, 나맥은 말에게 먹이데, 그전에. 그래 그래도 일찍 하마탕쭈두거에서 이쪽으로 구루물레라는 데로 오니까 그래도 식량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 우리 동생 아이들이 이렇게 산에 갓다 오기만 하면 산에 갓다 오면 그제 썩 다 자질구레하지. 그럼 하늘에 갓다 왔다 하지. 산으로 산에 갓다 오기만 하면 우리 하늘에 갓다 오니 배고프다고. (웃음) 그래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 우리 내 그 말씀하는 것을 듣지. 그러면 그 호밀 가루를 뜬 것을 먹으면 또 먹을 적에느 그렇게 맛있게 먹지. 그러나 먹기만 하면 아이들이 되어서 속이 안 좋아서 썩 게우지 뒹. 그거 먹고. 그렇게 우리는 구차하게 살았어. 옛날 우리는 몹시 구차하게, 내 나서 잘 산 적이 없엇됐어.}

10201 @ 직금 직금은 아매.{지금 지금은 할머니.}

10201 # 아이구!{아이구!}

10201 @ 잘 살재임둥?(잘 살잖습니까?)

10201 # 지금도 잘 못 사오다.{지금도 잘 못 삽니다.}

10201 # 그담에느 이 원동서 들어와서 여기 들어오이까데 우리 아버지 그담에느 집질했어. 집우 찢어서 어전으 원동서 들어와서는 어전으 더 애:기 없구. 여기 들어와서느 어 야들 살에 들어와 크즐오르다에 네레서 그래 우리 아버지 좀 (기침) 가지고 온 돈 다아 먹구. (기침) 기래 아버지 벌:어서 조끔씨 살았지. 기래 사다나이 (기침) 들어와서두 거저 먹을 거느 부족아구. 이 옷이 썩:이 바쁜 게 이 옷이 땀됐어. 그전에는 상점에 형겅이 그림았됐어. 기래 원동서 들어올 적에 형겅이, 이부자리두 해애 가지구 오구. (기침) 원동에서



들어올 적에 그 원동 소캐는 좋은 게 댕땀어. 어떤 소캐든지 거기 소오느 그게 어디메 소인지 모르나 소이불 해에서 가지구 들어온 게 (기침) 그래 우티는 우리 마마 구루물레 농평이라는 데 가서는 어 대애지두 잡아 가지구 가구 싸하르(caxap)두 가지구 가구 그래 가지구 가서 팔아 가지구 와선 형겅으 싸가지구는 거기서 아무래 기계 삼점이 있던 모애 이야. 기애 거기가서 상점에서 형겅으 싸가지구 온 거 입구서리 원도으르 들어왔지. 원도 서 여기르 들어왔지. 게 그 형겅이 옷이 조끔 잇었지.{그 다음에는 이 원동에서 들어와서 여기 들어오니까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는 집을 짓는 일을 했어. 집을 지어서 이제는 원 동에서 들어와서는 이제는 더 할 얘기가 없고. 여기 들어와서는 여덟 살에 들어와 크즐 오르다에서 내려서 그래 우리 아버지 줌 (기침) 가지고 온 돈을 다 쓰고. (기침) 그래 우리 아버지 벌어서 조끔씩 살았지. 그리해서 살다 보니 (기침) 들어와서도 그저 먹을 것은 부족하고. 이 옷이 사기 힘든 것이 이 옷이 땀땀어. 그전에는 상점에 천이 없어서 아쉬웠 었어. 그래 원동에서 들어올 적에 천이, 이부자리도 해 가지고 오고. (기침) 원동에서 들 어올 적에 그 원동 숨은 좋은 것이었었어. 어떤 숨이든지 거기 숨은 그게 어디에서 난 숨인지는 모르나 숨이불을 해서 가지고 들어온 것이 (기침), 그래 옷은 우리 어머니 구루 물레 농평이라는 데 가서는 음 돼지도 잡아 가지고 가고 설탕도 가지고 가고 그리해서 가지고 가서 팔아 가지고 와서는 천을 사 가지고는 거기서 아마도 그게 삼점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 거기 가서 상점에서 사 가지고 온 거 원동에서 가지고 들어왔지. 원동에 서 여기로 가지고 들어왔지. 그래 그 천이 옷이 조끔 있었지.}

10201 @ 음.{음.}

10201 # 아! 그래 여기 들어와서는 아이 어디메서 그런 형겅이두, 여기 우리 크즐오르다서 들 어와서 말래 삼점이 잇었던지 없었던지 그것두 난 잘 기억이 아이 데오. 기래 우리 아부 지 (기침) 팔년도에는 어쨌던지 내 기억지 못하겠어. 구연도에는 우리 아버지 집질해서 구연도에는 우리 꼬호즈(кoлxoз)르 나갔어 어전으. 아아! 나오기 전에 우리 어디메서 살 았는가 하이 까르막치라는 데서 땃굴으 파구 따아 짚이 파구 원동서 들어와서 크즐오르 다서 와서 그 까르막치라는 데 와서 모도 사름덜이 따아 짚우게 짚우게 파구 거기 들어 와서 기계 어전으 팔연도이 땀땀어. 어, 삼십팔연도에 땃굴으 짚우기 파구 거기에서 살았 어. 기래 사는데 어: 거기다두 토식(тоже) 구들의 농습데. 구들의 농는데 핏재~이 어디메 잇어? 시방 이 핏자이라는 게 없지. 기래 우리 아버지 가서 깔으 빼에 왔어. 깔으느 거기 많습데. 기래 빼에다가 그 깔으 이룽기 이게서 야 흙에다 이게서 야~ 온돌으 놓는데 그 깔으 이룽기 놓구서리 그 따아 파구 그런 거 고래르, 고래르 알기오?{아! 그래 여기 들어 와서는 아니 어디서 그런 천도, 여기 우리 크즐오르다에서 들어와서 어쨌든 삼점이 있었 던지 없었던지 그것도 난 잘 기억이 안 나오. 그래 우리 아버지 (기침) 1938년도에는 어 쨌던지 내 기억을 하지 못하겠어. 1939년도에는 우리 아버지 집을 지어서 1939년도에는 우리가 집단농장으로 나갔어, 이젠. 아! 나오기 전에 우리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까르막 치라는 데서 땅굴을 파고 땅을 짚이 파고 원동에서 들어와서 크즐오르다에서 와서 그 까 르막치라는 데 와서 모두 사람들이 땅을 짚이 짚이 파고 거기 들어와서 살았는데, 그게 이제 1938년도가 땀땀어. 어, 1938년도에 땅굴을 짚이 파고 거기 와서 살았어. 그래 사는 데 거기다도 역시 구들을 놓데. 구들을 놓는데 벽돌이 어디 있어? 시방 볼 수 있는 이 벽돌이라는 것이 없지. 그래 우리 아버지 가서 갈대를 베어 왔어. 갈대는 거기 많데. 그 래 베어다가 그 갈대를 이렇게 이겨서 응 흙에다 이겨서 응 온돌을 놓는데 그 갈대를 이

렇게 놓고서 그 땅을 파고 그런 거 고래를, '고래'라는 말을 알만 하오?}

10201 @ 음.{음.}

10201 # 그 따아 파구 구들의 놓는데 고래 있어야 데지. 그 고래르 따아 짚우게 이룽기 파구 그 우에다느 어따(ᄃᆞᆫ) 깔르 흙으 이계서 그 우우 이룽기 덮짐. 그게 내 기억이 데우. 기래 하 고게 요마:나나 텃겠어 그저. 식귀 우리 서이 너이 텃지. 아매꺼지 다숫이, 여숫이, 일곱이 요런 칸에서 한칸에서 살았지. 기래 그저 구들의 놓구 그 구들에서 사는데 그 문우느 널 시 없다. 그 문으르 들어가는 문우느 이 땅밑을르 이룽기 들어가지마내두 한지르 보자무 유리, 유리차으느 그저 어: 까자끄덜인데 가서 우리 아버지 가서 얻어뵈단 말이지, 유리차야. 기래 그 유리창 이 집이 꼭대기다 유리차~아 한단 말이지.{그 땅을 파고 구들을 놓는데 고래가 있어야 되지. 그 고래를 땅을 깊게 이렇게 파고 그 위에다느 음 갈대로 흙을 이겨서 그 위를 이렇게 덮지 뭐. 그게 내가 기억을 하오. 그래 그게 요만큼이나 되엇겠어 그저. 식구 우리 셋 넷이 되엇지. 할머니까지 다섯, 여섯, 일곱이 요런 칸에서 한 칸에서 살았지. 그래 그저 구들을 놓고 그 구들에서 사는데 그 문은 널 수가 없지. 그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 땅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마는 한테를 보려면 유리, 유리창은 그저 카자흐 사람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가서 얻어왔단 말이지, 유리창을. 그래 그 유리창 이 집의 꼭대기에다 유리창을 낸단 말이지.}

10201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01 # 기래 거저 잘못 거르ᄃ기마 하무 그 집에 빠진달 쉬두 잇엇지. 용말기랑 싹 깔르 앙기 용말기랑 헛댓어. 그게 내 기억이 덴단 말이지. 고게 야 내 야들 살인데 고게 기억이 데오. 기래 그래 따꾸막에서 살다가 그담에느 구연도에 텃댓어. 구연도에 우리 아버지 집우 징구 우리 한어머니 잇다나니까데 우리 엔: 첫점울르 그 집우 짙은 데. 집두 오래: 쫓엇댓어. 우리 아버지 땡기메서리. 그 집우 오래 쫓어서 싹다 그 집우 쫓일 적에느 페르 쫓엇댓어. 잉게 흙으 이룽게 페르 맨들어서 기래 집우 쫓엇댓어. 기래 그것두 내사 보지 못하다나이 모르지. 우리 한어머니 기래구 말하지. 그 어 아버지 와서 애:기르 한다지. 그 뻐자아 쫓어서 기래 집우 한 사람이, 어간이, 집이 식기 많아무 투 칸으 주구. 식기 작으무 한 칸으 주구.{그래 그저 잘못 걸기만 하면 그 집에 빠질 수도 잇엇지. 용마루랑 싹 갈대로 이렇게 용마루를 헛댓어. 그게 내 기억이 난단 말이지. 고게 응 내 여덟 살인데 그게 기억이 나오. 그래 움집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는 1939년도가 되엇지. 39년도에 우리 아버지 집을 짓고 우리 할머니가 있다 보니까 우리 맨 첫째로 그 집을 지은 데로 갔지. 집도 오래 지엇어. 우리 아버지가 다니면서. 그 집을 오래 지었는데, 싹 다 그 집을 지을 적에는 페로 지엇어. 이렇게 흙을 이렇게 페를 만들어서 그리해서 집을 지엇어. 그래 그것도 나야 보지 못하다 보니 모르지. 우리 할머니가 그렇다고 말하니까 알지. 아버지가 와서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지. 그 뻐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을 한(=지은) 사람이, 공간이, 집에 식구가 많으면 두 칸을 주고. 식구가 작으면 한 칸을 주고.}

10201 @ 으음.{음.}

10201 # 그렇기. 우리 한어머니 잇다나이, 우리네느 엔: 첫점 그 집우르 나갓댓어. 고게 그게 어느 해겠는가 하이, 삼십팔년도에 저 쫓어서 삼십구연도에 어전으 집우루 아 거기서 먼 데르 갔소. 길로메뜨르르 말하무, 나느 엠매 길로메따르인거 기억지 못하겠어. 기래 그렇기 먼데르 가서 그 집우 촌으 맨들어서 나~ 기게 그 초이 시방두 있소. 그 초~이 시방두 있어.{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있다 보니, 우리네느 맨 첫 번째로 그 집으로 이사를 해 갔

어. 그게 그게 어느 해인가 하면, 1938년도에 집을 지어서 1939년도에 이젠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먼 데로 갔소. 킬로미터로 말하면, 나는 얼마(=몇) 킬로미터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어. 그래 그렇게 먼 데로 가서 그 집을 지어 촌(村)을 만들어서 응, 그 촌이 시방도 있소. 그 촌이 시방도 있어.}

10201 @ 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10201 # 시방 까르막치라는 데 그 크즐오르진스끼 오블라스찌(область) 까르막친스끼이 라이온(рай он). 라이온(рай он) 까르막친스끼이 라이온(рай он)으. 기랜데 그 라이온(рай он)에 우리 첫점, 내 시방 내마이 나 먹은 사람이 다아 죽다나이 영게 내 동미 남자(치음) 잇소. 가아는 기래두 가는 이림이 아 춘화라 합니. 김춘화라구. 이따가 어느 때 안또노브까에 가 있어. 가아는 내 아때 그 꼬호즈(колхоз) 들어와서 그 들어오기 전에는 가아덜 이랑 만나지 못했소. 어디에서 사는지 싹 다아 따꾸막이다나이 가아덜이랑 못 밧땀어. 괴라구 들어와서 이 꼬호즈(колхоз)르 어전 꼬호즈(колхоз) 조직이 텃땀어. 꼬호즈(колхоз) 큰 꼬호즈(колхоз), 트레치이인페르나치오날드(Третий интернационалд)라구서 그 룡기 사적에서 몰아든 꼬호즈(колхоз)라구 트레치이인페르나치오날드라구 꼬호즈 이름 정엇땀어. 그래 그 꼬호즈(колхоз) 와서 어 우리 어전은 살기 텃집. 어전 우리 아매랑. 그기 어전 기게 예:: 삼십구연도에 텃땀어. 삼십구연도에 꼬호즈(колхоз)에 들어왔땀어. {시방 까르막치라는 데 그 크즐오르다 주(州)의 까르막치 군(郡). 군(郡) 까르막치 군(郡)을. 그런데 그 군에 우리가 첫 번째로, 내가 시방 나만큼 나이 먹은 사람이 다 죽다 보니 여기에 내 동무 남자가 있소. 그 아이는 그래도, 그 아이는 이름이 춘화라 하지. 김춘화라고. 이따가 어느 때 안또노브까에 가 있어. 그 아이는 내가 아이 때 그 집단농장에 들어와서 그 들어오기 전에는 그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소. 어디서 사는지 싹 다 움집이다 보니 그 아이들을 못 뵈엇어. 그래 그 집단농장에 와서 우리 이제는 살게 되엇지 뭇. 집단농장 큰 집단농장, '트레치인테르나치오날드 콜호스'라고서, 그렇게 사방(四方)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만든 집단농장이라고 해서 '트레치인테르나치오날 콜호스'라고 집단농장의 이름을 지엇어. 그래 그 집단농장에 와서 우리 이제는 살게 되엇지 뭇. 이젠 우리 할머니랑. 그게 이젠 그게 예 1939년도가 되지. 1939년도에 그 집단농장에 들어왔어.}

10201 @ 음.{음.}

10201 # 기래 트레치이인페르나치오날, 해재~이 채정책이라구 그 만저는 어따(это) 강(姜), 강개, 깐이라구서 그양 강개, 강개 그렇기 말했땀어. 그 선새임이두 이림이 해장질하다가 이 강정책이느 부해장질 했땀어. 기게 내 기억이 땀어. 어전으 구년도에 내 열 살이 텃땀어. 열 살이라두 내 글으 모 일겄어. 한바이두 모일것소 그 열 살인데. 기게 어전으 구연도이 텃는데 기앤데 그 꼴호즈(колхоз) 들어오는데, 강표돌이, 이저 이제 기억이 땀어, 강표돌이라구서리. 예따(это) 우리 꼬호즈 해장질 했지. 기래구 부해장질으느 어: 그 채정책이 부해장질했어. 기애 그 부해재~이두 거 그게 어느 해겄는가? 사십, 이제 여기 신문사서 일하는 사람이무 신문사에서 그 사람 이림이…… 내 그거 모르겄어. 따, 그 정책이 딸으느 어 김신 예따(это) 채진하라구 했어. 그 진하 남편으느 저 책에 쓴 게 있어. 그 책에 썼어. 그 어떻게 어떻게 그 사람이 가스아바이무 그 예따(это) 그 이 책으 보무 그 책에 잇소. 기래 나느 이 꼬호즈(колхоз) 얘기르 어전으 하재:두 내가 어숙비숙한 사람이 툴리꼬(только) 안또노프까 춘하밖에 없어. 다아 상세났어. 다아 상세나구, 가: 내보구 한 살 지하오. 자아. 기래 가아는 기래두 어 어시덜이 이찍이 에미, 어: 아흔 한나에 상세

낫소. 아흔 한내. 기래 야덜이 사행제 댕는데, 야 한내 살았어. 다아 다아 상세났어. 기애 안또노프까르 가기만 하무 야, 거기 가서 내, 내 거기 가서 시방 화토르 노오. (웃음) 기래 무 가아르 만나지. 기래 애기르 하지. 니가 내밖에[내빠께] 없다. 꼬호즈(КОЛХОЗ) 사람이 다아 죽었다구 니가 내가밖에[내가빠께] 없다고. 그래 그 애:기르 하짐.{그래 트레치인테르나치오날 집단농장 회장이 차정학이라고 하는데, 그 먼저는 강(姜), 성이 강가, 강이라고 그냥 '강가', '강가' 그렇게 말했어. 그 선생님도 이름이 회장질하다가 이 강정학이라는 사람이 부회장을 했었어. 그게 내 기억이 되었어. 이젠 1939년도에 내가 열 살이었어. 열 살이라고 해도 나는 공부를 못 했어. 한 학년도 못 다녔소 그 열 살인데도. 그게 이제는 39년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집단농장에 들어왔는데, 강표돌, 이제 이제 기억이 났어, 강표돌이라고. 음 그 분이 우리 농장의 회장을 했지. 그리고 부회장직은 그 차정학이라는 분이 했지. 그래 그 부회장도 거 그게 어느 해던가? 1940년, 이제 여기 신문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신문사에서 일하는 그 사람 이름이…… 내 그거 모르겠어. 그 차정학의 딸은 음 김신 음 차진하라고 했어. 차진하 남편은 저 책에 쓴 것이 있어. 그 책에 썼어. 그 어떻게 어떻게 그 사람이 장인(丈人)이면 그 음 그 이 책을 보면 그 책에 있소. 그래 나는 이 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와 하려 해도 나와 어슷비슷한 사람이 오직 안또노브까에 사는 춘화밖에 없어. 다 죽었어. 다 죽고, 그 아이(춘화)는 나보다 한 살 밑이오. 저 아이(춘화)는. 그래 그 아이는 그래도 부모님이 일찍 에 어머니가 음 아흔 하나에 돌아가셨어. 그래 안또노브까를 가기만 하면 응, 거기 가서 나, 나는 거기 가서 지금도 화투를 가지고 노오. (웃음) 그러면 그 아리를 만나지. 그럼 이야기를 하지. 너와 나밖에 없다. 집단농장에서 살던 사람이 다 죽고 너와 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지 뭐.}

@ 기래 아매 따암둥?(그래 할머니 화투를 놀아서 돈을 땀니까?)

# 야~.{응.}

@ 화투르 놀무 따움둥 잃, 잃음둥?(화투를 놀면 돈을 땀니까? 잃습니까?)

# 아 기래무, 기래두 내 치우라 따오. 기래 난 적소. 엠매르 잃었다. 엠매르 먹었다. 싹 적소. (웃음) 기래 적어서느 기래 안죽으느 아이 잃었소. 아이 잃었소. 화투르 놀아서.{아 그러면, 그래도 내가 대부분 따오. 그래 난 적소. 얼마를 잃었다. 얼마를 먹었다. 싹 적소. (웃음) 그래 적는데 그래 아직은 안 잃었소. 안 잃었소. 화투를 놀아서.}

10801 @ 그럼 아매! 다시 원동으로 가서.{그럼 할머니! 다시 원동으로 가서.}

10801 # 원동 와서.{원동으로 돌아와서.}

10801 @ 원동으르 와서 예, 설날, 예 노보이고드(НОВЫЙ ГОД).{원동으로 와서 예, 설날, 예 설날.}

10801 # 아, 설에, 설에.{아, 설에, 설에.}

10801 @ 예. 설에 무스거 했었슴둥?(예. 설에 무엇을 했었습니까?)

10801 # 우리 여기서?(우리 여기 키르기스에서?)

10801 @ 원동에서.{원동에서.}

10801 # 원동에서 나느 설에 설날으 세는 거 난 한 번도 못 뵈어. 못 뵈어. 아! 어째 우리 한 어머니랑 설으 센다는 말이 없구 거 날방두 무슨 잘 아는 같지 않았어. 기래기라 우리 한, 내 나이 이룽기 잇다해두 정말인지 아인지 잘 모르우. 우리 그전에는 이룽기 깔린다르(календарь)라는 게 오늘 메출이오. 오늘 메출이오. 이게 난 나이르느 잇은 같재인소.

기래기라 그건 모르지. 한어머니 내가 그 애:기느 아이 했어. 우리 원동서 들어와서는 낄 씨르 딱딱 알았지. 원동에서는 그런 낄씨두 안 같지 않소. 기래기라 우리 한어머니 그렇기 말하지. 큰지 아버지 에 어따 송군이 낄다지. 큰 큰지 아즈바니 아 아 저기 우리 한어머니 기래지. 큰지 아주반님이 송군이 낄는데 아이 가아 언적에 낄던가? 기라니까데, 아니 말래, 큰집 아아아 아버지 어, 마당질한 날에 낄는데. 기래니까데 낄살으 몰라. 아, 큰지 아뵈, 아버지 언적에 마당질해엿던지 아, 그거 어떻게 알겠어. 기래다나이 가아 나아 알겠어? 가아 오느날 탄생한 거 알겠어? 그랬단 말이지.{원동에서 나는 설에 설날을 쇠는 거 난 한 번도 못 봤어. 못 봤어. 아! 어째 우리 할머니랑 설을 쇠다는 말이 없고 거 낄짜도 뭐 잘 아는 것 같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할(머니), 내 나이가 이렇게 있다 해도 (그 나이가) 정말 맞는 나이인지 아닌지 말 모르오. 우리 그전에는 이렇게 달력이라는 것이 오늘 며칠이오. 오늘 며칠이오. 이게 난 나이로는 잊은 것 같지 않소. 그래서 그건 모르지. 할머니가 나에게 그 이야기는 안 했어. 우리 원동에서 들어와서는 낄짜를 딱딱 알았지. 원동에서는 그런 낄짜도 안 것 같지 않소. 그래서 우리 할머니 그렇게 말하지. 큰집 아버지 에 어 손자가 태어났다지. 크 큰집 아저씨네 아이가 어 어떻다고 저기 우리 할머니가 그러지. 큰집 아주반님이 손자가 태어났는데, 아니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났던가?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큰집 아버지 어, 마당질할 때 낄는데. 그러니까 나잇살을 몰라. 아, 큰집 아버지 언제 마당질했는지 아, 그거 어떻게 알겠어. 그러다 보니 그 아이 나이를 알겠어? 그 아이 어느 날 탄생한 거 알 수 있겠어? 그랬단 말이지.}

10801 @ 예.{예.}

10801 # 개니까데. 한, 저 원동 변강에서는 똑똑한 사름덜으느 낄짜르 알아두 우리 한어머니랑 그 낄짜르 우리네랑 그 낄짜르 기억지 못했어. 그랬됐어. 그렇기 살았됐지. 기래니까데 거저 시발르 말하무:, 어 저어기 어 예브리덜이 사는 그 사름덜처리 뺏구 땡기는 사름덜처리 그렇기 거저 제에구 그렇기나 살았겠어 우리네. 그렇기 살았겠어.{그러니까. 저 원동 변강(邊疆)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은 낄짜를 알아도 우리 할머니랑 그 낄짜를 우리네랑 그 낄짜를 기억하지 못했어. 그랬됐어. 그렇게 살았됐지. 그러니까 그거 시방으로 말하면, 어 저기 어 유태인들이 사는, 그 사람들처럼 벗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거 겨우 그렇게나 살았겠어 우리네가. 그렇게 미개하게 살았겠어.}

10801 @ 그럼 아매!{그럼 할머니!}

10801 # 아~.{응.}

10801 @ 여기 들어와서는 설에 무스거 했슴둥?{여기 중앙아시아에 들어와서는 설에 무엇을 했습니까?}

10801 # 아, 여기 들어와서는 설으 잘 세엿데.{아, 여기 들어와서는 설을 잘 쇠데.}

10801 @ 어떻게 했슴둥? 무슨 임석으 하구 무슨 놀이르 했슴둥?{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음식을 하고 무슨 놀이를 했습니까?}

10801 # 임석으느, 그래 우리 한어머니 그러지. 기래 우리 여기서 설으 쉼 적에는 원동서 들어와서 설 쉼 적에는 그때는 아버지와 배질했지.{음식은, 그래 우리 할머니가 그러지. 그래 우리 여기서 설을 쉼 적에는 원동서 들어와서 설을 쉼 적에는 그 때는 아버지가 벼농사를 지었지.}

10801 @ 음.{음.}

10201 # 어, 어느 해부터 배질했는가 하이 에, 삼십구연도부터는 배질했지.{어, 어느 해부터 벼

농사를 지었는가 하면 예, 1939년도부터는 벼농사를 했지.}

10201 @ 아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10201 # 아~ 베질 했어. 그래 베질 해서는 밥우 먹었지. 기래구 밥우 먹구. 야아!{응 벼농사를 지었어. 벼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었지. 그리고 밥을 먹고. 야!}

10201 @ 이팝우 잡수셨겠네.{쌀밥을 잡수셨겠네.}

10201 # 이팝우. 그 때사 입쌀이라는 거 처암 밧됐어. 처암 밧됐어, 입쌀으. 기래구 어: 까자크 델이 떡으 굽어서 떡으 굽데. 그 사름덜으느 시바으느 여기다가 판드르(тандыр)라는 게 있어. 이래 불에서 굽재이오? 그전에는 아이 그러구 이롭게 이롭게 따아 파오. 따아 파구 서리 그 따에다가 나~ 재철이, 재철이르 아오?{쌀밥을. 그때야 쌀밥이라는 거 처음 보았됐어. 처음 보았됐어, 입쌀을. 그리고 어 카자흐인들이 빵을 구워서 빵을 굽데. 그 사람들은 시방은 여기다가 '판드르'라는 빵을 굽는 화덕이 있어. 이렇게 불여서 굽지 않소? 그런데 그전에는 안 그러고 이렇게 이렇게 땅을 파오. 땅을 파고서 그 땅에다가 응 쟁개비, 쟁개비를 아오?}

10201 @ 예.{예.}

10201 # 재철이르 거기다 떡으 담소. 기애무 그 대철에 꼴똑: 차기마 하무 그 재철으 세또 낭 그 아이 기래구 세또오 불우 놓소. 거기다가. 이려:하게 굴으 파구 따아 굴으 파구. 기래구 그거 세또 불우 그거 어 다아 불으무 그제 떡이 다아 뿔어 올라오무 그 재철으 거기다 놓지. 그 세또 불이 붙는 데다. 덜어내구 그 세또 불으 그 재철 우에다 또 올레놓소. 올레놓구 흙으 또 덮소. 흙으 덮어서 기래 엠매: 시가이 데기마 하무 그거 내오. 기래무 빵 그렇기 잘 텐단 말이지. 그렇기. 그렇기 굽어서 떡으느 까자크델이 그래 굽어서 우리 네르 주구. 우리네는 밥우 먹구. 그 사름덜이 떡으 가져오기마 하무. 기래 떡두 싸먹구. 버얼다 나이 그 때느 이래 일으 하기마 하무 돈으 쫓댓어. 어 돈으 쫓댓어. 기래 돈으 주무 우리 떡으 싸먹었어.{쟁개비 거기다 빵을 담소. 그러면 그 쟁개비에 가득 차기만 하면 그 쟁개비를 쇠뿔, 나무를 안 그러고, 쇠뿔 불을 놓소. 거기다가. 이렇게 굴을 파고 땅에다 굴을 파고. 그리고 그거 쇠뿔 불을 피우고 그거 어 다 불으면 그제 빵이 다 불어나 올라오면(부풀어 오르면) 그 쟁개비를 거기다 놓지. 그 쇠뿔 불이 붙는 데다. 덜어내고 그 쇠뿔 불을 그 쟁개비 위에다 또 올려 놓소. 올려놓고 흙을 또 덮소. 흙을 덮어서 그래 얼마간(어느 정도) 시간이 되기만 하면 그것을 내오. 그러면 빵이 그렇게 잘 된단 말이지. 그렇게 했지. 그렇게 구워서 빵은 카자흐인들이 그렇게 구워서 우리에게 주고. 우리네는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은 빵을 가져오기만 하면. 그래 빵도 사 먹고. 돈을 벌다 보니. 그때는 이렇게 일을 하기만 하면 돈을 주었어. 어 돈을 주었어. 그러면 돈을 주면 우리 빵을 사 먹었어.}

10801 @ 음. 그래, 그러면 여기 우리 예: 고렷사람덜이 여기 와서 설날에는 예 어떤 놀이르 하하암둥? 어떤 놀음으 하하암둥?{음. 그래, 그러면 여기 우리 예 고려 사람들이 여기 중앙아시아에 와서 설날에는 어떤 놀이를 합니까?}

10801 # 아아 놀음이 없었댓어 그때느. 그때는 우리 어, 놀웁이 없었댓어.{놀이가 없었어 그때는. 그때는 우리 어, 놀이가 없었어.}

10201 # 뽀또모 쉬또(потому что) 그때느 우리 원도서 들어와서 전, 와서 전재~이 인차 낫어. 마흔 한해에 전재~이 인차 낫댓어. 구연도에 쌀으 먹구. 어 사십일년에 사십일년에 전재이 나다나이 그: 농새르 쫓어서느 기래두 사십일년도꺼지느 우리 기래두 밥우 먹었

됐어. 밥우 먹구. 기래구 사십, 사십이연 사십이연에는 또 좀 일없었지. 삼년에는 더 말마! 내 울었됐어. 그 때느. 사십삼년에는 내 그때 몇 살인가 하이 열 네 살 땃됐어.{아 왜냐하면 그 후에 그때는 우리 원동에서 들어와서 전, 와서 전쟁이 이내 났어. 1941년에 전쟁이 이내 났어. 1939년도에 쌀을 먹고. 어 1941년에 1941년에 전쟁이 나다 보니 그 농사를 지어서는, 그래도 1941년도까지는 우리 그래도 밥을 먹었어. 밥을 먹고. 그리고 1942년, 1942년에는 또 좀 괜찮았지. 1943년에는 더 말마! 내 울었됐어. 그때는. 1943년에는 내 그때가 몇 살인가 하니 열 네 살이었어.}

10201 @ 그렇죠. 예, 예.{그렇죠. 예, 예.}

10201 # 열네살 땃어. 구연, 이십구연이이까데. 야아! 모질이 고새~: 했어.{열 네 살 땃어. 내가 태어난 해가 1929년이니까. 야! 몹시 고생을 했어.}

10201 @ 음. 그래 어떻게 하셨습둥?{음. 그래 어떻게 고생을 하셨습니까?}

10201 # 기래구 우리 아바이느 우리 빠빠(папа)느 사십일년에 그 뚜루두보이(трудоувоЙ)라는 데. 뚜루두보이(трудоувоЙ) 갔어. 거저 전재~이 나이 조선사람우르 전자~아 아이 보냈어. 한창두 아이 보냈어. 짝 뚜루두보이(трудоувоЙ) 보냈어. 거기가서 어 일하게서리 그랬지. 기래니까데 우리 어티기 구차했겠어. 버는 사람이 없지. 마마(мама) 혼자 벌지. 기래 우리 모:지리 고새~했어. 우리 아매랑. 삼년도에는 내 이룽기 군대르 우리 아매 실으, 우리 아매 옛날에 배르 찢지. 개 그 배르 짜다나이 그 씨르 잘 비뻬어. 기래 그, 그 털이르 군대서 가져오. 국가서 가져오지. 기래 가져오기마 하무 그거 우리 아매 비짐. 그 베에서 내 틀 줄 몰랐됐어 첫감에. 내 열네살 땃소 나~. 개 틀 줄 몰라서 그거 그 절에 사람게서 틀어서 배웠짐. 기래 그거 틀어서 가지가기맘 이룽기 트우. 장갑우 틀데 솟가락이 한내 이개 둘이 세 데기. 그 총메이르 하는 사람덜이 장갑 찌게서리 기래구 노스끼(носки)르 틀었지. 노스끼(носки)느 한 커레 떡으 뻬으 굽어서 한 킬로 반으 주우. 기래구 장갑우느 한 킬로르 주지. 한킬로 주지. 기래 그거 그 전에는 이 전기드이 어디메 있어, 없지. 낮에는 틀기 험지. 그거 배와서두 잘 틀었됐어. 열네살인게 잘 틀었됐어. 기래 틀어서 그래 군대르 보내무 그래 떡이 동삼에는 오구. 여름에는 세투리르 뜯어서 먹었지.{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1941년에 그 전쟁 노무(勞務)로 나갔어. 전쟁 노무로 나갔어. 그저 전쟁이 나니 조선 사람을 전쟁에는 안 보냈어. 전쟁이 한창 적일 때에도 안 보냈어. 짝 노무로 내보냈어. 거기 가서 일하게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구차했겠어. 버는 사람이 없지. 어머니가 혼자 벌지. 그래 우리 몹시 고생을 했어. 우리 할머니랑. 1943연도에는 내가 이렇게 군대를, 우리 할머니가 실을,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베를 찢지. 그래 그 베를 짜다 보니 그 실을 잘 비뻬어. 그래 그, 그 털을 군대에서 가져오오. 국가에서 가져오지. 그래 가져오기만 하면 그거 우리 할머니가 그 실을 꼬지 뭐. 그 꼬아서 (양말을) 틀 줄 몰랐어, 처음에는. 내 열 네 살이 되었소 응. 그래 양말을 틀 줄을 몰라서 그거 그 곁 사람에게서 틀어서 배웠지 뭐. 그래 그거 틀어서 가져가기만 하면 이렇게 트오. 장갑을 틀 때 손가락이 하나가 이개 둘이 셋이 되게. 그 총을 메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장갑을 끼게 그러고서 양말을 틀었지. 양말은 한 켄레, 빵을, 빵을 구워서 한 킬로그램 반을 주오. 그리고 장갑은 1킬로그램을 주지. 1킬로그램을 주지. 그래 그거 그전에는 이 전깃등(전깃불)이 어디 있어, 없지. 낮에는 틀기 쉽지. 그거 배워서 잘 틀었어. 열 네 살인 것이 잘 틀었어. 그래 틀어서 그래 군대로 보내면 빵이 겨울에는 오고. 여름에는 썸바귀를 뜯어서 먹었지.}

10201 @ 아이구!{아이고!}

10201 # 세, 여름에는 그거 아이 틀리게 하오. 그 털이 없소. 아이 기래디. 여름에는 장갑으 아이 찌구 노스끼(носки)르 아이 친구[신꾸] 그렇제이오? 그 형걸을르 어 국가서 형겅으 줘서 기래 이거 감발으 해서 신발으 친구[신꾸] 기래구서리 전자아 하지. 게 여름에는 쉼투리르 먹구 살구. 그 바에 찢 거 그런 거 이 그전에는 우리 마마랑은 야~ 점다나이 베발에서 일했댓어. 그 베르 한나투 이룩기 놓가 아이주우. 싹 국가르 덜에가지. 기래구 그 제르 이렇게 놓가주우. 그래 마감에는 그제두 없었댓어. 기래.{쌈(바귀), 여름에는 그거 안틀게 하오. 그 털이 없소. 안틀게 하지. 여름에는 장갑을 안끼고 양말을 안신고 그렇잖소? 그 천으로 어 국가에서 천을 주어서 그래 이거 감발(발감개)를 해서 신발을 신고 그리하고서 전쟁을 하지. 그래 여름에는 썸바귀를 먹고 살고. 그 방아에 쫓은 거 그런 거 이 그전에는 우리 어머니랑은 응 젊다 보니 논에서 일을 했어. 그 벼를 하나도 이렇게 안나누어 주오. 싹 국가로 들어어 가지. 그리고 그 겨를 이렇게 나누어 주오. 그래 마지막에는 그 겨도 없었댓어. 그래.}

10513 @ 그럼 아매 그 아까 그 세투리 있제임둥?(그럼 할머니 그 아까 썸바귀가 있잖습니까?)

10513 # 야~.{응.}

10513 @ 그 세투리를 어떻게 해서 잡수셨습둥?(그 썸바귀를 어떻게 해서 잡수셨습니까?)

10513 # 세투리르 어쩐 줄 아오? 첫감에는 에따(это) 채밀이 잇제이오? 채밀을르 자~아 했소. {썸바귀를 어떻게 했는지 아오? 처음에는 음 밀이 있잖소? 밀로 장(醬)을 했소.}

10513 @ 장?{장?}

10513 # 자~. 기래 그 자에다서리 메와서 기래구 우리 한어머니 에:, 그 채밀르 간장두 했소. 간자~아 해서 그 간자~에다두 메와 먹구. 자~에다두 볶아 먹구.{장. 그래 그 장에다가 무쳐서 그리하고 우리 할머니 에, 그 밀로 간장도 했소. 간장을 해서 그 간장에다가도 무쳐 먹고. 장에다도 무쳐 먹고.}

10513 @ 아, 세투리만.{아, 썸바귀만.}

10513 # 세투리, 세투리마 기래 거저 제르 제르 주무 그 제두 볶아두 닭아서 먹구.{썸바귀, 썸바귀만 그래 그저 겨를, 겨를 주면 그 겨도 무쳐도 볶아서도 먹고.}

10513 @ 어떻게 닭아서.{어떻게 볶아서.}

10513 # 그 닭아서 에따(это) 물에다 풀어서 그렇기 먹었댓어.{그 볶아서 음 물에다 풀어서 그렇게 먹었댓어.}

10513 @ 아, 제를 닭아서.{아, 겨를 볶아서.}

10201 # 사십삼년도에, 사십삼년도이오. 그때는 우리 모::지리 구차했어. 우리 빠빠(папа)두 없지. 모지리 구차했어. 기래 우리 빠빠(папа) 사십사연도에 에따(это) 동미 모::지리 앓게 데이, 내 춘화라하재엿소? 그지 아버지 우리 앓게 데이까데 보냈습데 우리 아버지르 그 달아 보냈습데. 기래 사십사연도에 야야! 우리네 먹을 고사:으느 더 말 못하게 했소. 기래 내 동미덜가 얘기르 하무 동미덜두 우오. 내 구차한 얘기르 하기마 하무 동미덜두 우오. 그렇기 구차하게 살았소, 우리네.{1943년도에, 1943년도이오. 그 때는 우리 몃시 구차했어. 우리 아버지도 없지. 몃시 구차했어. 그래 우리 아버지 1944년도에 음 동무가 몃시 앓게 되니, 내가 전에 춘화라 하지 앓았소? 그 집 아버지가 앓게 되니 우리 아버지를 달아 보냈데. 그래 1944년도에 야! 우리네 먹을 고상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했소. 그래 내 동무들과 이야기를 하면 동무들이 우오. 내 구차한 얘기를 하기만 하면 우오. 그렇게 구



차하게 살았소, 우리네.}

10201 # 기래구 어전의 사연도에 그저 풀으 뜯어먹구. 기래 어째 우리네 살라구 그러는지 버섯이두 또 잇엇댔어. 시방 그 버섯이 여기서 모:지리 비싸오. 흰 버섯이 야~ 따아 들써:: 하구 올라오무 흰 버섯이 봄날에는 그 버섯이 그렇기 잘 나왔댔어. 기래 그 버섯으 캐서 먹구. 그 세투리르 캐애먹구, 그담에는 여기는 마쉬르 맥이는, 그거는 한국사람덜이 그 크, 우리네는 여기서 클레베리(клевер)라 하오. 클레베리(клевер)라 하오. 개 한국사람덜 그거 마쉬르 맥이는 그 풀으 무시기라 할까.{그리고 이제 1944년도에 그저 풀을 뜯어 먹고. 그래 어째 우리네 살라고 그랬는지 버섯도 또 잇엇어. 시방 그 버섯이 여기서 아주 비싸오. 흰 버섯이 응, 땅을 들썩하고 올라오는 흰 버섯이 봄날에는 그 버섯이 그렇게 잘 나왔댔어. 그래 그 버섯을 캐서 먹고. 그 썸바귀를 캐서 먹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마소를 먹이는, 그것은 한국사람들이 그 크, 우리네 여기서 클레베리라 하오. 클레베리라 하오. 그래 한국사람들이 그거 마소를 먹이는 그 풀을 무엇이라 할까?}

10201 @ 클레베르(клевер), 저는 모르겠습꾸마.{클레베리, 저는 모르겠습니다.}

10201 #클레베리(клевер)라구서리. 한국사람덜이 여기와서 클레베리(клевер)질두 하오. 그 마시풀 질기두 한국사람덜이 여와. 멧 겹파르(гектар)르 가지구 작년에두 하압데. 한국사람덜이라구 하메서리 우리 손재 와 말합데. 게 그거 풀두 요리:할 적에는 그거 캐서 기계 쓰겁두대엿어.{클라베리라고서. 한국사람들이 여기 와서 클레베리를 키우는 일도 하오. 한국사람들이 여기 와 그 마소 먹이는 풀을 기르기도 하는데 몇 헥타르를 가지고 작년에 두 하데. 한국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손자가 와서 말하데. 게 그거 풀도 요리할 적에는 그거 캐서 먹어 보면 그게 쓰지도 않았어.}

10201 @ 예.{예.}

10201 # 아이 쓰겁지.{안 쓰지.}

10201 @ 아이 쓰겁쥬.{안 쓰쥬.}

10201 # 세투리는 모:지 쓰겁지.{썸바귀는 몹시 쓰지.}

10201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01 # 기래 버섯두 캐애먹구. 그거 기래. 기래 그전에는 개 채밀이 있어서 채밀두 자~아 해서 먹구 기랫지. 아 그담에는 사십사연도에는:, 내 야아! 우리 어머니랑 짝 이래 재빌르 먹구 살길래바 우리 그 넷째 동새:르 데리구 식다이르 가오. 거기 가서 일하구서리느 거기 서느 어따(это) 무스거 맥이는가이 코~오 잇재이우, 메지.{그래 버섯도 캐 먹고. 그거 그래. 그래 그전에는 그래 밀이 있어서 밀도 장을 해서 먹고 그랬지. 아 그 다음에는 1944년도에는, 내 야! 우리 어머니랑 짝 이렇게 스스로 먹고 살기에 우리 그 넷째 동생을 데리고 식당으로 가오. 거기 가서 일하고서 거기서는 음 무엇을 먹이는가 하면 쿡이 있잖소, 메주.}

10201 @ 음.{음.}

10201 # 메지 어. (한숨).{메주 응. (한숨).}

10201 @ 아까 아매 그 사십사년 고거 얘기하시다가 나가셨거든요. 예. 그때.{아까 할머니 그 1944년도 그거 얘기를 하시다가 나가셨거든요. 예. 그 때.}

10201 # 사연에 짝 우리네 헤~이느. 내 아랫동새:르 데리구 어 또가이(тугай =동물이 많은 숲)라구서리 그런 데르 갔어.{1944년도에 짝 우리 형은 내 아랫동생을 데리고 어 또가이라고서 그런 데를 갔어.}

10201 @ 또가이.{또가이.}

10201 # 또가이라구서 게 양 페르마(ферма)지. 양 페르마(ферма)라구. 야아 이렇기 자래우는 그 페르마(ферма) 가서 어 식모질으 하구 동새애르 데리구. 기래구 나는 또 딸르 가서 어따(это) 먹구 살자구서리 딸르 가서 일하지. 기래 우리 마마(мама)라는 또 다른 데서 일하구. 어 빠빠(папа)는 밭써 그때 왔다가서리 칠리(Чилли)라는 데르 도마~아 했어. 사십사연도에 도마~아 해갓지 칠리라는 데르. 기래 거기르 간 담에 우리 식귀 내 헤~이 내 동새: 그때 밭써 그 어:: 사십일년도에 우리 오래비 말고기르 먹구 쓰러 죽엇댓어. 어 그때 구차하다나йка데 말고기르 먹구서리 기래구 죽엇댓어. 기래 에 우리 어저느 여동생덜이 너이 잇지.{또가이라고서 그게 양(羊)을 키우는 농장이지. 양을 키우는 농장이라고. 양을 이렇게 키우는 그 농장에 가서 어 식모질을 하고 동생을 데리고. 그리고 나는 또 따로 가서 음 먹고 살자고서 따로 가서 일하지. 그래 우리 마마는 또 다른 데서 일하고. 음 아버지는 별써 그때 왔다가서 칠리라는 데로 도망을 했어. 1944년도에 도망을 해갓지. 칠리라는 데로. 그래 거기르 간 다음에 우리 식구가 내 형, 나, 동생이 있고, 그때 별써 그 어 1941년도에 우리 오래비 말고기를 먹고 쓰러져 죽엇어. 응 그때 구차하다 보니 말고기를 먹고서 그리고 죽엇어. 그래 에 우리 이제는 여동생들이 넷이 잇지.}

10201 @ 음. 그래, 음. 그러면은 아매 아까 그 제가 설날에 에 무스거 하셨느냐구 물어봣재임둥?{음. 그래, 음. 그러면 할머니 아까 그 제가 설날에 에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어보았잖습니까?}

10201 # 야~!{응!}

10201 @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십년대에 아주 힘든 그걸 다아 지나고 그 다음에 인제 예:: 좀 고렷사람들이 살만하게 됐을 때.{예. 그러니까 이제 1940년대에 아주 힘든 그걸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인제 에 좀 고려 사람들이 살 만하게 되었을 때.}

10201 # 어우! 오십년도까지 바빴어.{어우! 1950년도까지 힘들었어.}

10201 @ 음. 왜 무스거 또 바쁜 일이 있었습둥?{음. 왜 무슨 또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10201 # 아이 이 국가에서 그런 게 없지 무슨. 오십년도까지느 가연 바빴어. 구차한 건 모지리 구차했어. 그저 딱 그저 그런 거 월급생활해서 별무 월급생활해서 똑같이 그저. 마이 별무 마~이 타구. 작게 별무 작게 타구 그랬지.{아이 이 국가에서 그런 게 없지 뭐. 1950년도까지는 정말 바빴어. 구차한 건 몹시 구차했어. 그저 딱 그저 그런 월급생활을 해서 별면 월급생활을 해서 똑같이 그저. 많이 별면 많이 타고. 적게 별면 적게 타고 그랬지.}

10801 @ 그러문 그러무 지금까지 설날:은 없었습둥?{그러면 그러면 지금까지 설날은 없었습니까?}

10801 # 없엇지. 없엇지. 없엇지.{없엇지. 없엇지. 없엇지.}

10802 @ 그럼 유꾸치기 이런 것두 없었습둥?{그럼 윗놀이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10802 # 어이구! (쯧) 없엇어.{어이구! (쯧) 없엇어.}

10802 @ 유꾸치기는 아암둥?{윗놀이는 압니까?}

10802 # 모르우 그때는, 유꾸치구 우리네 모르우.{모르오 그때는, 윗놀이 우리네 모르오.}

10802 @ 지금두?{지금도?}

10802 # 직금두 모르우.{지금도 모르오.}

10802 @ 이렇기 던지구.{이렇게 던지고.}

10802 # 야. 모르오.{응. 모르오.}

10802 @ 아.{아.}

10802 # 그래 어, 그 시방 모르우.{그래 어, 그 시방 모르오.}

10201 # 기래구 사십사연도에 내 어떻게 구차했든지 난 딸르 가서 지금 사는데 에 그, 그전에 그 우리 부리가드(бригада) 부리가드(бригада)르 브리가드(бригада) 가서 어, 무스거 징는가이 채밀으 장소. 채밀으.{그래 시방 모르오. 그리고 1944년도에 내 어떻게 구차했든지 난 따로 나가서 지금 사는 데 에 그, 그전에 그 우리 작업반, 작업반, 작업반에 가서 어, 무엇을 농사 짓는가 하니 밀농사를 짓소. 밀을.}

10310 @ 그거 어떻게 짓슴둥?{그거 어떻게 짓습니까?}

10310 # 채밀으느 어따(это) 물으 아이 대구 물으 베퍼리 물이 없지. 그저 물으 거저 한번 대기마 하무 일리(или) 비오나 한 번 대기마 하무 거저 채밀이 대지. 기래구 지재이, 지재이르 시무구. 이랜데 내 그게 어느 달이겠는가 내 그게 기억이 텐단 말이지. 에:: 사월이 사월이 애이겠소? 사월이기마 하무 밭써 나가서 어따(это) 채밀이랑 시무오, 카자흐스탄에서느. 기래 그거 밭서리르 하지. 그거 풀으 싹 그거 거두구야 따이 매미우지. 따이 그게 밭이 대지. 그거 풀으 싹악 거더서.{밀은 음 물을 안 대고 물을, 베퍼럼 물이 없지. 그저 물을 한 번 대기만 하면 혹은 비가 오거나 한 번 대기만 하면 그저 밀이 되지. 그리고 기장, 기장을 심고. 이랬는데 내 그게 어느 달이겠는가 내 그게 기억이 된단 말이지. 에 4월, 4월이잖소? 4월이 되면 밭써 나가서 밀을 심소, 카자흐스탄에서는. 그래 그거 밭서리를 하지. 그거 풀을 싹 거두어야만 땅이 가지런히 되지. 땅이 그게 밭이 되지. 그거 풀을 싹 거두어서.}

10201 # 기래 내 그 때 사연도이까데 내 열다섯살이 땃땃어. 열다섯살인데 어 우티 형겅이 없어서 야~ 무스거 그 실으 비빈 장갑 틀구 질으무 그 실으 부베: 쓴 겉르 내 적삼이가 초매르 틀어 입엇땃어. 그 실으 부베:서 또 어 내 또 재빌르 궁니르 했소. 궁니르 해에서 에 내 이거 질은 실으 가지구서리 에따(это) 아매두 노스끼두 틀어 낫구. 기래 그저 그 저기 우리 선새임이 잇엇땃어. 고때 어 우리 고저 빠르 끌라스(первый класс) 이를 적에지. 그런 선새임이 잇엇땃어. 그 사름덜으느 개애두 조끔 일없게 살아서 에따(это) 채소질하메서리 야 그래 살아서 내 푸빠이개(фуфайка) 틀어서 주무 싸래기르 한 구르시까(кружка)씨 받으메 그래매서 내 그때 그 푸 푸빠이개(фуфайка) 틀어서 옷으 틀어서 기애 주무 개애두 싸래기 입쌀 싸래기르 한 구루시까(кружка)르 받았단 말이오. 사십, 기게 사십사연도에 땃땃어. 그담에 나두 틀어 입구 어저느 먹을 먹자구서리 어전 봄이 땃는데 싹 제식제식하오. 기래 우리 아매느 집에 잇구. 집에서 어 꼬호즈(колхоз)서 그런 거 몰로꼬(молоко)르 몰로꼬(молоко)르 반 리떠르(литр)씨 주지. 기래구 제르 주지. 기래 우리 아매느 그 제가 몰로꼬(молоко)르 잡습구. 기래구 마마두 가서 그 아깨 그분 내 말하다 말았어. 코오 갈아서 야~ 코~오 갈아서 그거 어따(это) 끓이우. 시방 대애지두 그거 먹겠는지 말겠는지 모르겠어. 거기다가서르 무스거 열는지 아오? 또 클레베르 열소. 쿡:죽에다 클레베리르 또 열소.{그래 내 그 때 1944년도니까 내 열 다섯 살이 되었어. 열 다섯 살인데 어 옷을 지을 천이 없어서 응 무슨 그 실을 끈 장갑을 짜고 남으면 그 실을 비벼서 쓴 것으로 내 적삼과 치마를 짜서 입엇땃어. 그 실을 비벼서 또 어 내 또 손수 생각을 했소. 생각을 해서 에 내 이거 남은 실을 가지고 음 할머니 양말도 짜 놓았고. 그래 그저 그 저기 우리 선생님이 잇엇땃어. 고 때 어 우리 그저 일학년 공부를 할 적이지. 그런 선생님이 잇엇어. 그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괜찮게 살아서 음 채소 농사도 하면서

응 그렇게 살아서 내가 스웨터를 틀어서 주면 싸라기를 한 컵씩 받으며 그러면서 나는 그 때 스웨터를 틀어서, 옷을 틀어서 그래 주면 그래도 싸라기 입쌀 싸라기를 한 컵을 받았단 말이오. 그게 1944년도였었어. 그 다음에 나도 (스웨터를) 틀어 입고 이젠 먹을, 먹자고서 이젠 봄이 됐는데 싹 \*제식제식하오. 그래 우리 할머니는 집에 있고. 집에서 응 콜호스에서 그런 거 우유를 우유를 반 리터씩 주지. 그리고 겨를 주지. 그래 우리 할머니는 그 겨와 우유를 잡숫고. 그리고 어머니도 가서 그 아까 그 분 내 말하다가 말았어. 그 콩을 갈아서 응 콩을 갈아서 그거 음 끓이오. 시방 돼지도 그거 먹겠는지 말겠는지 모르겠어. 거기다가 뭘 넣었는지 아오? 또 클레베리를 넣소. 콩죽에다가 클레베리를 또 넣소.}

10201 @ 클레비?{클레베리를?}

10201 # 데와서 클레베리 풀우. 데와서 그래서 거기다 열어서 요런 사발에다 마이두 아이 주오. 노르마(норма) 잇소. 요런 사발이. 고 사발에 한나씨 주오. 기래 야:르 데리구 가무 아아게두 반 사발이 자라이게두 한 사발이 그렇기 주지. 나는 또 오분할랄이 쌀으 양백그램(грамм)에, 쌀이나 쌀이우? 그: 제에 그 담에 그 싸래기 그런 거 양백그램(грамм)우 오분할랄에 그거 일하는 사람이라구 거기서 주우, 끓이우. 한자리에 두 때르 먹소. 개아침 먹구 일하라 나가지. 정스, 저녁으 들어와서 먹구 정심이라는 건 없구. 기래 그 어전 밭서리르 이래 하는데 내 우티르 뺏어서 낭구 우에다 올레났지. 기래 저 저기 우리 집안 안개 집안 아재 기래지. 야! 따샤 네 우티르 바라. 야아 기차다! 저거 니 다시 입을 갈재잉다. 아재! 어째 기래우? 야! 이라고 할, 어째 그전에 보에노이부레미야(военное время) 이 그렇기 쳄소? 이라고 할 쉬 없었됐소. 사름게 이 나느 야 열 다섯살까지 이 머리르 못 채래와밧소. 거저 싹 깎았지. 뽕:뽕이 깎았됐소. 이 너무 쳐서 야아! 기래 그거 야 그 낭게다 놓오네르 초매가 적삼우 불으 달아났소. 기래이까데 내게 우티 없지. 옷이 없짐 무슨. 기래 그전에 우리 아바이, 내 아부지 조고리 잇었됐어. 그 조고리 한나 입우 무 벨 데르 다아 땡졌어. 내 그 집우르 아이 들, 촌으르 아이 들어왔소. 그 브리가드(бригада)에서 거저 얻으매 그래구 살았됐어. 그래 그 담에느 채밀 다아 내 에따(это) 그거 채밀받으 밭갈이르 하오. 또락또르 와서 밭갈이르 할 적에 그거 내 세르 타구 땡기메서 리 걸기르 놓소 내. 기래 야! 아 때두 야 조끔 이렇게 살았어. 선스나 같았어. 그 그렇기 내 살았됐어.{데쳐서 클레베리 풀을. 데쳐서 그래서 거기다 넣어서 요런 사발에다 많이도 안 주오. 기준량이 잇소. 요런 사발. 고 사발에다 하나씩 주오. 그래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아이에게도 반 사발, 성인에게도 한 사발 그렇게 주지. 나는 또 온종일 쌀을 200그램에, 쌀이나 쌀 같은 쌀이오? 그 겨에 그 다음에 그 싸라기 그런 거 200그램을 온종일 그거 일하는 사람이라고 거기서 주오, 끓이오. 한 자리에서 두 때를 먹소. 그래 아침에 먹고 일하러 나가지. 점심, 저녁을 들어와서 먹고 점심이라는 것은 없고. 그래 그 이제 밭서리를 이래 하는데 내 옷을 벗어서 나무의 위에다 올려 놓았지. 그래 저 저기 우리 집안 안(安)가 성을 가진 집안 아주머니가 그러지. 야! 따샤 네 옷을 봐라. 야! 기차다. 저거 네 다시 입을 것 같지 않다. 아주머니! 어째 그러오? 야! 이라고 할, 어째 그전에 전쟁 시기에 이가 그렇게 쳄소? 이가 너무나 많아서 이라고 할 수 없었소. 사람에게 이 나는 응 열 다섯 살까지 이 머리를 못 길러 보았소. 그저 싹 깎았지. 뽕:뽕히 깎았됐소. 이가 너무 쳐서 야! 그래 그거 야 그 나무에다 놓으면 치마와 적삼에다 불을 놓았소. 그러니까 내게 옷이 없지. 옷이 없지 뭐 무슨. 그래 그전에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저고리가 있었됐어. 그 저고리 하나 입으면 별 곳을 다 다녔어. 내 그 집으로 아니 들, 촌(村)으로 안 들어왔

소. 그 작업반에서 그저 얻어 먹으며 그렇게 살았어. 그래 그 다음에는 밀을 다 내 음 그 거 밀밭을 밭갈이를 하오. 트랙터가 와서 밭갈이를 할 적에 그거 내 소를 타고 다니면서 씨레질을 하오 내가. 그래 야! 아이 때도 응 조금 이렇게 살았소. 머슴아이 같았소. 그 그렇게 내가 살았소.}

10201 @ 세르 땀음둥?[소를 땀습니까?]

10201 # 세르 타구 걸기르 그 밭으 대애구 놓지 무. 어전 옷은 없지. 거저 저녁이무 모기 너무 많아서. 거저 아버지 뻘(папа) 내 아버지 조고리 쓰기마 하무 거저 기라구 땀기. 기래 그 담에느 브리가드(бригада) 사름덜이 마::이 왔댓어. 그 어저느 어: 채밀이르 그거 어전으 시무는 때무 사름덜이 마:이 오오. 기래 마이 와서. 기래 일으느 어저느 야:덜 일 야:덜이 그래 내 뉘기 잇었는가이 그 브리가드(бригада)에 내 잇구 그담에 유라라구 잇었소. 유라라구. 기래 유라 잇구. 그담에 올라라구 잇었어. 이 사름덜이 다아 죽구 내 한 내 살았단 말이오. 다아 죽었어. 없어. 기래 서이서 어전으 그 거기서 지금 양백그램(грамм)씨 주구 맥이는데 그 제에 쌀으 그런 거 못 쓰는 거기 사발에 요마이 큰데다가 야~에따(это) 그거 마이 끓이다나йка데 물으느 보았댓어. 거기다가서리 야 그 에따(это) 클레베리 잇재이오? 그거 데운 거 그거 에따(это) 한 제에기씨 이룩기 요막씨 큰 제에기 주우. 기래 거기다 놔아서 먹짐. 그래 그거 할랄에 두 번씨 먹소. 기래 그담에느 우리 어전 가슬이 땀소, 어전으. 그래 가슬이 땀는데. 아이! 이래지. 브라가질 와서. 야 따샤! 너느 어전으 집우르 들어가야겠는데. 나는 어전으 마마랑 뻘(папа) 썩 칠리(Чилли)르 달아나구 없지무. 한어머니랑 썩 갔어. 기래 내 잇구 우리 헤~이 잇구 내 지하동새: 잇구. 기래 구는 없었지. 아이 나는 들어 아이 가겟다구. 내 여기 잇겟다구.{소를 타고 그 밭에다 씨레질을 하지 뭐. 이젠 옷은 없지. 그거 저녁이면 모기가 너무 많아서. 그거 아버지 내 아버지 저고리 입기만 하면 그거 그러고 다니지. 그래 그 다음에는 작업반 사람들이 많이 왔댓어. 그 이제는 어 밀을 그거 이젠 심는 때면 사람들이 많이 오오. 그래 많이 와서. 그래 일은 이젠 아이들 일 아이들이 내 누가 있었는가 하면 작업반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유라라고 있었어. 유라라고. 그래 유라 있고. 그 다음에 올라라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 하나 살았단 말이오. 다 죽었어. 없어. 그래 셋이서 이젠 그 거기서 지금 200그램씩 주고 먹이는데 그 겨[糠]에 쌀을 그런 거 못 쓰는 거기 사발에 요만큼 큰 데다가 응 음 그거 많이 끓이다 보니까 물은 보았댓어. 거기다가서 응 그 음 클레베리 있잖소? 그거 데친 거 그거 음 한 덩어리씩 이렇게 요만큼씩 큰 덩어리를 주오. 그래 거기다 놓아서 먹지 뭐. 그래 그거 하루에 두 번씩 먹소. 그래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젠 가을이 되었소, 이젠. 그래 가을이 되었는데. 아니! 이러지. 작업반에 와서. 야! 따샤 너는 이젠 집으로 들어가야겠는데. 나는 이젠 어머니랑 아버지 썩 칠리로 달아나고 없지. 할머니랑 썩 갔어. 그래 내가 있고 우리 형이 있고 내 손아래 동생이 있고. 그리고는 없었지.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내 여기 잇겠다고.}

10201 # 아 기래 일은 없지. 기래 이래짐. 브리가질, 야! 네 아춤이무 일찌가이 저 세르 개애다 맥이라구. 기래 세르 어 여섯 말으 그게 거기서 브리가드에서 일하는 게지. 여섯 말으 가지구 아춤에 일찍이 가지. 아춤에 일찍이 메기구야 어: 아춤먹을라 들어올 적은 그거 들에다가 일으 시기. 그래 아춤에 모:지리 일찍이 나가오. 기래 나가서 그 세르 네, 여섯 마리르 토로시르 서메 그담에 그거 내다 맥이메 기래구서리 거기서 죽으 얻어 먹짐. 도이나 주오? 거저 그 죽이나 한 그릇으 얻어 먹길래 거기 가서 일하짐. 그렇기 살았소. 기

래 아침 나가기만 하무 또 세르 내다놓구서리 아안게 더 해에갬어. 열다섯살인게 야~. 그 빠빠 저고리 폐놓구서리 눅우무 홀 자 버리무 세덜이 풀으 따라서 간단 말ियो. 아, 깨나 보무 세덜이 한나투 없짐.{아 그래 일은 없지. 그래 이러지 댜. 작업반 일, 야! 네 아침이면 일찌감치 저 소를 가져다 먹이라고. 그래 소를 어 여섯 마리를 거두는 것이, 그게 거기서 작업반에서 일하는 것이지. 여섯 마리를 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가지. 아침에 일찍이 먹이고서야 어 아침을 먹으러 들어올 적에는 그거 들어다다가 일을 시키지. 그래 아침에 아주 일찍 나오. 그래 나가서 그 소를 네, 여섯 마리를 나란히 세우며 그 다음에 그거 내다가 먹이며 그리하고서 거기서 죽을 얻어 먹지 댜. 돈이나 주오? 그저 그 죽이나 한 그릇을 얻어 먹기에 거기 가서 일하지 댜. 그렇게 살았소. 그래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또 소를 내다 놓고서 아이인 것이 더 뭘 해아리겠어. 열 다섯 살인 것이 응. 그 아버지 저고리를 펴 놓고서 홀 자 버리면 소들이 풀을 따라서 간단 말ियो. 아, 깨어나 보면 소들이 하나도 없지 댜.}

10201 # 그담에는 신발이 어디메 있어. 그 깔밭에서두 신발이 없이 발으 뺏구서 땡기짐. 그 세덜으 가서 얻어바서 몰구 들어오. 늦으무 들어오무 책이나 듣지 무. 기래 그거 얻어바서느 몰고 들어와서 여섯 말으 데리고 들어오오. 들어와서느 그거 또 메와서느 또 일하지 무 일꾼, 자란이덜이. 자란이덜이 일한다는 게 싹 여자덜이 일하오. 아부지덜은 한나투 없지 뜨르드보이(трудоваѣ) 가구 싹 여자덜이 일하지. 그 세르 가지구 여자덜이 싹 일하지 무. 그릉기 일했땡어. 기래 어르기 고사했는, 그릉기 먹으메서리 그릉기 살아서 어저느 기게: 가슬이 데서 야~, 나르 이래짐. 너느 어찌갬나. 마마두 없지 빠빠두 없지. 아아매두 없지, 헤이느 또가이라는 데르 가서 유가르 데리구 우리 순엑이 거기 가서 먹구 살지.{그 다음에는 신발이 어디 있어. 그 깔대밭에서도 신발이 없이 발을 벗고서 다니지 댜. 그 소들을 가서 찾아서 몰고 들어오오. 늦게 들어오면 책망이나 듣지 댜. 그래 그거 찾아서느 몰고 들어와서 여섯 마리를 데리고 들어오오. 끌어와서느 그거 또 메워서는 또 일하지 댜 일꾼, 어른들이. 어른들이 일한다는 것이 싹 여자들이 일하오. 아버지들은 하나도 없지. 노무(勞務)를 나고 싹 여자들이 일하지. 그 소를 가지고 여자들이 싹 일하지 댜. 그렇게 일했땡소. 그래 어떻게 고생했는(지), 그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서 이젠 그게 가을이 되어서 응, 나에게 이러지 댜. 너느 어찌하갬나. 어머니도 없지 아버지도 없지. 아, 할머니도 없지, 형은 또가이라는 데로 가서 유가를 데리고 우리 순옥이가 거기 가서 먹고 살지.}

10201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01 # 기래무 네 저기 저 아바이 같이 저 아바이 채밀밭에다가 물으 대구 어 그런다구. 기래무 어 거기르 네 가갬는가구. 가갬다구. 기래 나느 혼자 가라는가구. 네 저 아바이가 혼자 가라구. 야! 가갬다구 저 가서. 어 기램 거기 가서 또 맥이는 가구. 그 쌍배기만 하무 먹는 게 주재래기란 말ियो. 기애 내 가갬다구. 기래 가서 거기 가서 한 달으 내 아바이가 둘이서 잇엇소. 아바이가 둘 한 달 잇다가 아바이 그러지. 채밀이 어저느 누룽누룽: 한테 그 아바이느 그 채밀이 지키지. 그 까자끄촌이다나йка데. 그건 저 까자끄덜이 도둑질해 가두 그 아바이.{네 저기 저 할아버지와 같이 저 할아버지와 밀밭을 가서 어 물을 대고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를 네 가갬는가 하고. 그래서 가갬다고. 그래 나느 혼자 가라는가고. 네 할아버지와 혼자 가라고. 야! 가갬다고 거기서. 그럼 또 거기 가서 먹여 주는가 하고. 그 \*\*이만 하면 먹는 것을 주자 하는 것이란 말ियो. 그래 내 가갬다고. 내 가서

거기 가서 한 달을 내 할아버지와 둘이서 있었어. 할아버지와 한 달 있다가, 할아버지가 그러지. 밀이 이제는 누룽누룽한데 그 할아버지는 그 밀을 지키지. 그 카자흐촌이다 보니. 그건 카자흐인들이 도둑질해 가도 그 아바이.}

10201 # 기래 그 아바이가 둘이 있는데 아바이 가기만 하루 조금 채밀이 조금 누룽누룽:한 거 조금 더 잘 익은 거 그거, 이렇게.{그래 그 할아버지와 둘이 있는데 할아버지 가기만 하면 조금 누룽누룽한 거 조금 더 잘 익은 거 그거, 이렇게.}

@ 아매 보고 싶어서.{(제보자의 둘째 증손녀를 보며)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 콤퓨터르 놀기 못한다구. 그 놀음 이그라(игра)르 노는 거 그거 못 놀게 한다구.{(첫째 증손녀가) 컴퓨터로 놀게 못 한다고. 그 놀이, 놀이를 하는 거(컴퓨터 게임) 그거 못 놀게 한다고.}

10201 # 기래 그 아바이 그거 익은 거 이래 꼬네에서 똑:똑 이듬에서 잘 익은 거 꼬네:서. 기래서 가져다가서리 야 고거 이룽기 한데 묶어서는 야 그거 불으 달기마 하루 그 채밀 이색이 짝 이룽기 익소. 기래무 그거 나르 개애다 주짐. 이거 네 오온해르 네 어찌겠냐! 기래 그 아바이가 둘이 먹게서리 쌀으 그 제에 싸래기 그런 거 죽으 썬먹으라고서리 보낸단 말이오. 기래 그 아바이 기래지. 죽으 썬기마 하루 나르 더 먹으라 하지. 그 아바이는 좀 적게 먹구 나르 더 먹으라구 하지. 기래 한 달으. 그 채밀이 그거 우리 조선사람덜은 쌀개라구 하오. 채밀 이래 단으 묶어서 그거 불우 달기마 하루 고게 짝 익어서는 야 고게 채밀 고게 툃툃툃툃 하고 나온단 말이 야. 그거 부시와서 그거 먹소. 그래 먹다가서리 한 달 있다가서리 야 기래 막으 친 게 야 땃굴막우 친 게 거기두 이부자리라는 게 없소. 어따(это) 뱃짚우 가져오. 기래무 그 뱃짚우 이래 놓구서리 경계서 우리 내 아부지 저고리 쓰구서리 거기서 자오. 베개두 없구 그런데서 자지.{그래 그 할아버지 그거 익은 거 이렇게 툃툃 툃툃해서 잘 익은 거 꺼내서. 그래서 가져다가 고거 이렇게 한데 묶어서는 그거 불을 붙이기만 하면 그 밀 이삭이 짝 이렇게 익소. 그러면 그거 나에게 가져다 주지 뭐. 이거 네 온종일 어찌하겠냐! 그래 그 할아버지와 둘이 먹게 쌀을 그 겨에 싸라기 그런 거 죽을 썬어 먹으라고 보낸단 말이오. 그래 그 할아버지 그러지. 죽을 썬기만 하면 나에게 더 먹으라고 하지. 그 할아버지는 좀 적게 먹고 나에게 더 먹으라고 하지. 그래 한 달을 (지내고). 밀이 그거 우리 조선사람들은 쌀개라고 하오. 밀을 이렇게 단을 묶어서 그거 불을 붙이기만 하면 고게 짝 익어서는 응 밀 고게 툃툃툃툃 하고 튀어나온단 말이오 응. 그거 털어서 그걸 먹소. 그래 먹다가 한 달 있다가 응 그래 막을 친 것이 응 땃굴 막을 친 것이 거기도 이부자리라는 것이 없소. 음 뱃짚을 가져오오. 그러면 그 뱃짚을 이렇게 놓고서 거기서 우리 내 아버지 저고리를 입고서 거기서 자오. 베개도 없고 그런데서 자지.}

10201 @ 예.{예.}

10201 # 그래 내 불싸~하던 모양이야, 그 아바이. 기래, 야! 네 집우루 가겠냐 일리(или) 내 가라냐? 아:이, 나느 그 이 쉐스또이아울(шестой аул)이라구 까자꼬초이 잊지. 아우! 나느 지나 못 가겠다구. 개덜이나 많지 나느 걸어 그렇기 못 가겠다구. 나느 여기, 아바이 네일이 오겠는가구. 내 네일이 꼭 오겠다구. 기래 아바이 가라구. 기램 내 여기 잊겠다구. 아::이! 거기서 혼자 자자~이 그 미연한 벌판에 막으 하나 쳇는데 혼자 자자이 승내이두 많지. 승내이 소리두 나지. 아이! 밤우 못자겠소. 그런데서 자자이까데 못자겠습데. 기래 하룻밤우 거저 정말 아바이 오기르 지다리지. 그 기래 그 아바이는 야 그 싸래기르 또

닭우 어 얹티 마~이 가지구 풀두 뜯어 가지구 기래구서리 왓습데. 소곰도 가지구. 기래 와서 아이! 그 유라라는 여자르, 고 내 동미 데, 내보구 한 살 지하오. 아! 내가 동깁이오 가. 그런거 데리구서. 아이! 아바이 야르 어째 데리구 왓는가. 우리네 먹을 것두. 야 먹을 꺼까지 타가지구 왓다구. 노르마(норма)르 타가지구 왓다구. 너이 네 동미르 하라구 데리구 왓다구. 그래 그때 기래 가: 같이 가슬꺼지 잇어서 기래 식료도 거기서 꼬호즈(колхоз)서 보내구. 아이! 우티르 꼬호즈(колхоз)서 했:다는 게 셋하얀 야 그런 싸찌나(сатиш)라구 잇소. 좀 씨이째(ситец)보구 더 두껍운 거. 그런 걸르 초매 적삼 해서 나르 준 게 이가 어떻게 많앿던지. 그거 개엔에 물에다가 씻으니까데 야~ 돌으 놓구 돌으 놓구 그거 두두레 씻소. 이 너무:: 많아서. 그거꺼지 췌에뿌리무 내 입을 게 없짐.{그래 내가 불쌍하던 모양이야, 그 할아버지. 그래, 야! 네 집으로 가겠냐 아니면 내가 가라? 어이, 나는 그 이 '쉐스포이아울'이라고 카자흐촌이 있지. 아이구! 나는 그 마을을 못 지나가겠다고. 개들이 많지 하여 나는 걸어서 그렇게 못 가겠다고. 나는 여기, 할아버지 내일 오겠는가 하니 내 내일 꼭 오겠다고. 그래 할아버지보고 가라고. 그럼 내 여기에 있겠다고. 아이! 거기서 혼자 자자니 그 허허벌판에 막을 하나 쳤는데 혼자 자자니 승냥이도 많지. 승냥이 소리도 나지. 아이! 밤을 못 자겠소. 그런 데서 자자 하니까 못 자겠데. 그래 하룻밤을 그저 정말 할아버지 오기를 기다리지. 그래 그 할아버지는 응 그 싸라기를 또 닭의 염통을 많이 가지고 풀도 많이 뜯어 가지고 그래고서 왓데. 소곰도 가지고. 그래 와서 아이! 그 유라라는 여자르, 고 내 동무 되는, 나보다 한 살 아래오. 아 참! 나와 동깁이오 그 아이.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왔지. 아니! 할아버지 이 아이를 어째 데리고 왓는가. 우리네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아이 먹을 것까지 타 가지고 왓다고. 배급을 타 가지고 왓다고. 너 이 아이를 네 동무를 삼으라고 데리고 왓다고. 그래 그때 그래 같이 가을까지 잇어서 그래 식료도 거기서 콜호스에서 보내고. 아니! 옷을 콜호스에서 했다는 것이 새하얀 응 그런 공단(貢緞)이라고 잇소. 좀 사라사보다 더 두꺼운 거. 그런 것으로 치마 적삼을 해서 나에게 준 것이 이가 어떻게 많앿던지. 그거 냇물에다가 씻으니까 야 돌을 놓고 돌을 놓고 그거 두드려 씻소. 이가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 내버리면 내가 입을 것이 없지 뭐.

10201 @ 없지.{없지.}

10201 # 기래 그런 거 꼬호즈(колхоз)서 해에서 가져다가서리 나르 입헛뎌어. 기애 그 유라라는 아와 나르 그래 꼬호즈(колхоз)서 우티르 해 입해서 나르 둘:으 동미르 해에 잇으라구. 그래도 어똥기 이 치는지 기차지. 기래 이 머리 난 한나투, 가아두 머리 없구 나두 그랫뎌어. 가:두 어저느 열다섯살이구 나두 열 다섯 살 뎌엇어. 기란데 그렇기 이 쳐서 그 개엔에 나와서, 야! 돌에 이래 놓구 돌가 돌으 두드리오. 이래. 이런 이런 혼솔기랑 야~ 이 어똥게 치는지 그 돌가 돌으 두두레서 그 이르 다아 죽이지. 죽이기기마 하무 야~ 그 물에다 해우문 껍지 둥::두 떠내려 간단 말이지. 기래 이게 으쓸한 말이 애이오? 어떻게 으쓸한 말이오.{그래 그런 거 콜호스에서 해서 가져다가 나에게 입헛었어. 그래 그 유라라는 아이와 나를 그래 콜호스에서 옷을 해 입혀서 나를 두 사람을 동무를 해서 잇으라고. 그래도 어떻게 이가 치는지 기가 막히지. 그래 이 머리털이, 나는 하나도, 그 아이도 어리털이 없고 나도 그랫뎌어. 그 아이도 이제는 열 다섯 살이고 나도 열 다섯 살 뎌엇어. 그런데 그렇게 이가 쳐서 그 냇물에 나와서, 야! 돌에 이렇게 놓고 돌과 돌을 두드리오. 이래. 이런 이런 혼 솔기랑 응 이가 어떻게 치는지 그 돌가 돌을 두드려서 그 이를 다 죽이지. 죽이기만 하면 응 물에다 행구면 이 껍질이 둥둥 떠내려 간단 말이지.



그래 이게 께름칙한 말이 아니오? 얼마나 께름칙한 말이오.}

10201 @ 으쓱하지.{께름칙하지.}

10201 # 그래. 그렇게 내 살아갔단 말이오. 기랜게 아이! 팔십 먹도록두 내 아이 죽소. 어째 아이 죽을까? 날래 죽었으무 좋겠소 날래.{그래. 그렇게 내가 살아갔단 말이오. 그런데 아니! 팔 십을 먹도록 어째 나는 안 죽소, 어째 안 죽을까? 얼른 죽었으면 좋겠소 얼른.}

10201 @ (웃음) 아, 그때 힘들게 사셨으니까 지금 하느님이 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구 하는 거지.{(웃음) 아, 그때 힘들게 사셨으니까 지금 하느님이 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하는 거지.}

10201 # 아이구! (혀차는 소리) 내 사는데 난 요구이 없소. 내 이룽기 살아서 야야! 좋은 거 보겠는가. 좋은 거 못 보오. 무슨 좋은 거 보겠소. 내 그렇기 살아서 거기서 나~ 떠나서 어전 가슬이 땃는데, 아이구! 가슬이 땃는데 집우르 어전 오게 땃어. 가슬으 다아 하구 집우루 오게 땃어. 갠데 우리네두 헤~이두 들어오게 데엿소. 갠데 집우 주웁데. 집우 주구 어전 가슬이니까데 채밀이 잇어서 야! 채밀으 갈아서 싸래기 잇재이오? 그 싸래기르 우리네르 둘이서 죽으 씨 먹으라구 췌어. 서이서. 기래 나~ 마마라구 이새르 가구 적에 가매랑 다아 팔아먹구 거저 그런 거 예따(это) 머리태 그전에 잇엇땃어 야~. 그 머리태두 마마랑 가메서리 아무 것도 없어서 무스거 그런 줄 아오? 그 머리태 달비르 팔아 그 담에 예따(это) 마션 하나 가지구 간 거 그거 마션 떡으 이룽기 뽀 이룽기 까짜끄덜 굽재이오? 그거 두 개 마션이 그게 좋은 게 땃땃어. 그 마션으 팔아서 뽀 두 개르 싸 가지구 기래 차에 칠리르 가는데, 달아나 가는데, 우리 마마두 달아났소, 밤에. 걸어서 달아났는데. 아이구! 돈이 없지. 기래 그 마션으 팔아 달비르 팔아 기래 먹으메서리 칠리라는 데르. 또 가다가는 또바리니 마신(товарная машина) 바고니(вагон) 잇재이오 그른게. 그전에서사 객차라는 게 없지. 또와리니바고니(товарный вагон) 거쪽에 앓아 또 거기서 툇기와서느 또 네리와서느 또 거기서느 한데서 밤 자구 기래구서리 또 가지.{아이구! (혀차는 소리) 내가 사는 것이 나는 욕구가 없소. 내 이렇게 살아서 야! 좋은 거 보겠는가. 좋은 거 못 보오. 무슨 좋은 거 보겠소. 내 그렇게 살아서 거기서 응 떠나서 이젠 가을이 되었는데, 아이구! 가을이 되었는데 집으로 이젠 가게 되엇어. 가을을 다 하고 집으로 오게 되엇어. 그런데 우리네 형도 들어오게 되엇소. 그런데 집을 주데. 집을 주고 이젠 가을이니까 밀이 익어서 야! 밀을 갈아서 싸라기 잇잖소? 그 싸래기를 우리에게 둘이서 죽을 췌어 먹으라고 주엇어. 셋이서. 그래 응 어머니가 이사를 가고 갈 적에 솔이랑 다 팔아 먹고 그저 그런 거 음 머리채 다리를 팔아 그 다음에 음 재봉틀 하나 가지고 간 거 그거 재봉틀 빵을 이렇게 카자흐인들이 굽잖소? 그거 배봉틀 두 대, 그게 좋은 것이엇어. 그 재봉틀을 팔아서 빵을 두 개를 사 가지고 그래 차에 앓아 칠리를 가는데, 달아나 가는데, 우리 어머니도 달아났소, 밤에. 걸어서 달아났는데. 아이구! 돈이 없지. 그래 그 재봉틀을 팔아 다리를 팔아 그렇게 먹으면서 칠리라는 데로. 또 가다가는 화차(貨車) 잇잖소 그런 게. 그전ैया 객차라는 것이 없지. 화차 거기에 앓아, 또 거기서 췌겨나서 또 내려서는 또 거기서는 한데서 잠을 자고 또 그래고서 또 가지.}

10201 @ 그래서 아까는 예:: 마션 앙게 팔아서 예 그거 가지구.{그래서 아까는 예 재봉틀을 이렇게 팔아서 예 그거 가지고.}

10201 # 야~ 그래서 그거 팔아 가지구 칠리라는데르, 그 칠리라는 데 도시오. 그것두 또췌(то же) 까자끄스만이지.{응 그래서 그거 팔아 가지고 칠리라는 데를, 그 칠리라는 데가 도시

오. 그것도 역시 카자흐스탄이지.}

10201 @ 걸루 가셨다구 그랬지요? 거기까지 하셨습니다.{거기로 가셨다고 그랬지요? 거기까지 하셨습니다.}

10201 # 아~ 기래 거기 가서, 어 그게 사십오연도이 뻘뻘어. 사십오연도에, 야아! 세사에 구차하기두 구차했어 우리네.. 사십오연도까지 우리네 그렇게 푼푼~이 먹지 못하구 그렇게 살았뻘어. 그래구, 그래구 칠리라는 데르 우리 선달이 데~이까데. (구술자의 허리와 등을 주물러 드림) 아! 일없소. 일없소. 내 허리는 아이 아프우. 기래 에따(это) 선달이 댕는데 에 국가 저 에 꼬호즈(колхоз)서 우리네르 신발으 싸서 신기구 그 담에 옷으 싹 두껍운 옷으 싹 해에서 입히구. 기래구 어따(это) 돈으 줘서 어저느 어머니한테르 가라구서리. 기래 우리 서이서 칠리(Чилли)라는 데르 차에 앉아서 노스돈으 물구 그때느 돈으 물구 서리 기래 차에 앉아서 칠리라는 데르 왓지. 칠리인데르 와두 그런 거 아드레스(адрес)르 모르구 어디메서 마마 사는지 어디메서 어떻게 사는지 그거 모르구 기래구서리 왓지. 오~이 칠리라는 데르 오~이까데 우리 한 꼬호즈(колхоз)서 사던 사름 만났지. 스탄쯔(станция)서. 스탄쯔(станция)서 홀 내리이 그런 사름 만났단 말이지. 기래 만나서 그 사름가 어 우리 헤이 물어뵈지. 우리 빠빠란 여기르 왓는데 어 어디메서 사는지 모르겠다구. 어 너어 빠빠라느 어 저, 저기 꼬호즈(колхоз) 볼세비크라는 데서 산다구.{응 그래 거기 가서, 어 그게 1945년도였었어. 1945년도에, 야! 세상에 구차하기도 구차했어 우리네. 1945년도까지 우리네 그렇게 넉넉하게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뻘어. 그리고, 그리고 칠리라는 데를 우리 선달이 되니까. (구술자의 허리와 등을 주물러 드리니까) 아! 괜찮소. 괜찮소. 내 허리는 안 아프오. 그래 음 선달이 되었는데 에 국가 저 콜호스에서 우리들에게 신발을 사서 신기고 그 다음에 옷을 두꺼운 옷을 싹 해서 입히고. 그리고 음 돈을 주어서 이젠 어머니한테로 가라고서. 그래 우리 셋이서 칠리라는 데를 차에 앉아서 찻삿을 물고 그때느 돈을 돈을 물고서 그래 차에 앉아서 칠리라는 데를 왓지. 칠리라는 데로 와도 그런 거 주소를 모르고 어디서 어머니가 사는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그거 모르고 그래고서 왓지. 오니 칠리라는 데를 오니까 우리 한 콜호스에서 사던 사름을 만났지. 정거장에서. 정거장에서 홀 내리니 그런 사름을 만났지. 그래 만나서 그 사름에게 어 우리 형이 물어 보았지. 우리 아버지가 여기르 왓는데 어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다고. 어 너희 아버지는 어 저, 저기 콜호스 볼세비키 콜호스라는 데서 산다고.}

10201 @ 아하!{아하!}

10201 # 볼세비크, 칠리 꼬호즈(колхоз) 볼세비크라는 센테(центр)에서 산다구. 기래 거기르 아츨에 와 또 네레서 그 사름덜이 가자구. 가서 어 아츨 정습 이룽기 먹구 그담에 떠나 가라구서리. 여기서 머재이: 스탄쯔(станция)서 걸어서, 그전에는 이룽기 마서이 없었뻘어. 세술기 잇었뻘어. 세술기 잇구 말술기 잇구. 기래구 이 마시나(машина)라는 건 워시이(вообще) 없었뻘어.{볼세비크, 칠리 볼세비크라는 센터에서 산다고. 그래 거기르 아침에 와 또 내려서 그 사름들이 가자고. 가서 어 아침 점심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떠나 가라고서. 여기서 멀지 않은 정거장에서 걸어서, 그전에는 이렇게 자동차가 없었어. 쇠수레가 있었어. 쇠수레 있고 말수레 있고. 그리고 이 자동차라는 건 원래 없었뻘어.}

10201 @ 그렇습지 그 때느.{그렇지요 그 때느.}

10201 # 어 없었뻘어. 나~. 기계 어: 사십오연도에 뻘어 나~. 기계 선달 스무날이 뻘뻘어. 내 기억이 데오. 기계 잇어두 아이 지오. 기래 선달 스무날인데 그 집이 들어가서 어 아츨

삼아 정습 삼아 기래 먹구 기래구 거기서 나와서 걸어서 볼세비키라는 데르 왔지. 그래 오~이까데 우리 빠빠르 그 꼬호즈(КОЛХОЗ)서 받을 적에 그러더라지. 어:: 식새르 잘하는 가:구. 마:이 잡섯는가구 물어보더라지. 아이 어디메서 잡섯겠어. 어디메서 잇어서 무스거 잡섯겠어. 개 그 칠리라는데서느 어:: 소리르 들었지 모르지만 해두 옛날에, 기게 옛말이 잇어. 그 거기서 김만섬이라는 사람이 베질으 잘해서. 어어: 엘린 훈재르 탕다구서리, 그 룡기. 거기서느 베질으 해서 쌀으, 우리 가~이까 쌀으 먹습데, 밥우 먹습데. 우리네는 이 날 이때꺼지 싸래기 제르 먹엇땀어. 오십년도 오십 예떠(ЭТО) 사십오연도꺼지 우리네는 제르 먹다가 그 꼬호즈(КОЛХОЗ)서 떠났땀어. 아아!! 기래구 칠리라는 데르 거기서 들어오 이까데 마마랑 빠빠랑 그 꼬호즈(КОЛХОЗ) 싸에서 살구, 어디메 사는가~이 브리가드 나가서 죄에:꼬만 깔 깔뚝집이 고런데서.{어 없엇땀어. 응. 그래 어 1945년도였어 응. 그래 선달 스무날이였엇어. 내 기억이 되오. 그게 안 잊히지오. 그래 선달 스무날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어 아침 삼아 점심 삼아 그렇게 먹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걸어서 볼세비키라는 데를 왔지. 그래 오니까 우리 아버지를 그 콜호스에서 받을 적에 그러더라지. 어 식사를 잘 하는가 하고. 많이 잡수엇는가 하고 물어보더라지. 아니 어디서 잡수셨겠어. 어디서 무엇이 잇어서 무엇을 잡수셨겠어. 그래 그 칠리라는 데서, 어 소리를 들엇는지 모르지만 해도 옛날에, 그래 옛말이 잇어. 그 거기서 김만섬이라는 사람이 벼농사를 잘해서. 어 레닌 훈장을 탕다고서, 그렇게. 거기서느 벼농사를 해서 쌀을, 우리가 가니까 쌀을 먹데, 밥을 먹데. 우리네는 이날 이때까지 싸라기 겨를 먹엇땀어. 1950년도 50 음 1945년도 까지 우리네는 겨를 먹다가 그 콜호스에서 떠났어. 아! 그리고 칠리라는 데를 거기서 들어오니까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 콜호스 집에서 살고, 어디에 사는가 하면 작업반에 나가서 조끄만 갈대집 고런 데서.}

10201 @ 무슨 집?(무슨 집?)

10201 # 깔 깔르 집우 짙은 그런 데서 사압데. 브리가드 나가 우리 아매느 바이르 찌어서 덜 이대구. 우리 마마느 베밭에서 일하구. 기래 빠빠두 거기서 어 베밭에서 일하구. 기래서 브리가드서 일해서. 어 그때느 밥우 한 사름께 요런 사발이 잇소. 고 사발 대에서 한 사름께 한 사발씩. 일하는 사름우느 더 큰 사발에 주구 일 아이 하는 사름우느 작은 사발에다 주구 어, 그렇기 그때느 그렇기 기랫땀어. 기래 거기와서느 밥우 먹엇지. 기래 우리 아매 그 브리가드서 일하는 사름덜으 밥우 멕이느라구 바이르 쫓지. 바이 둘으 걸구서리에떠(ЭТО) 쫓지 뉘. 바아 쫓는 사름덜이 여래지. 기래 찌서 그 브리가드 사름덜 멕이는데. 기래 내 아매가 이랫지. 아매! 그 내백제르 보드라운 제르 아매 그거 덜에오오. 우리 님아 먹어 보시오. 야아! 사름이 입이 무섭단 말이오. 그 그 아시제르 야~ 님아서 절귀에 쫓어서 쌀눈에다가 먹던게 그 엔: 보드라운 제사 갈기 같으지. 갈기 같으지.{갈, 갈대로 집을 지은 그런 데서 살데. 작업반 나가 우리 할머니는 방아를 쫓아서 들이대고. 우리 어머니는 논에서 일하고. 그래 아버지도 거기서 어 논에서 일하고. 그래서 작업반에서 일해서. 거 그때느 밥을 한 사람에게 요런 사발이 잇소. 고 사발로 되어서 한 사람에게 한 사발씩. 일하는 사람은 더 큰 사발에 주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작은 사발에다 주고 그렇게 그때느 그랬어. 그래 거기 와서는 밥을 먹엇지. 그래 우리 할머니 그 작업반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멕이느라고 방아를 쫓지. 방아 둘을 걸고서 음 쫓지 뉘. 방아 쫓는 사람들이 여럿이지. 그렇게 쫓아서 그 작업반 사람들을 멕이는데. 그래 내 할머니에게 이랫지. 할머니! 쌀겨를 보드러운 겨를 할머니가 그 들여오오. 우리 볍아서 먹어 볍시다.

야! 사람이 입이 무섭단 말이오. 그 그 왕겨를 야! 볍아서 절구에 찼어서 쌀눈에다가 먹던 것이었으니 그 보드러운 겨야 가루 같지. 가루 같지.}

10201 @ 나백제가 그렇지.{쌀겨가 그렇지.}

10201 # 야~ 기랜게 그 제르 닦아서 밥에 놓아 먹자니 쓰겁단 말이지. 밥우 먹다가 그 제르 너무 기게 기, 기해서 그 밥에다가서리 그거 볍아서 닦아서 볍아서 먹자하이까데 씹살한 맛이 난단 말이지. 기래 내서 아매! 어째서 우리 그 두 벌 제르 닦아서 절기에 찼어서 음 그렇게 물에다 풀어 먹을 적엔 기게 고소::하고 그렇기 맛이 잊었는데. 아이 이 좋은 제 셋하얀 제 어째 닦아서 먹자이 어째 씹살한 맛이 난다구서리. 너네 밥우 먹다가 그거 먹어서 기래 그렇다구. 그렇기두 살아 밧땀단 말이오. 기래 이기 아매덜이 많소. 한어마니 덜이 많소. 내쳐르 고상한 건 이 여기.{응 그런데 그 겨를 볍아서 밥에 놓아 먹자 하니 쓰단 말이지. 밥을 먹다가 너무 (쌀이) 그게 귀, 귀해서 그 밥에다가서 그거(쌀겨) 무쳐서 볍아서 무쳐서 먹자 하니까 씹살한 맛이 난단 말이지. 그래 꺼내서 할머니! 어째서 우리 그 두 벌 찼은 겨를 볍아서 절구에 찼어서 음 그렇게 물에다 풀어 먹을 적에는 그게 고소하고 그렇게 맛이 있었는데. 아 이 좋은 겨 새하얀 겨를 어째 볍아서 먹자하니 어째 씹살한 맛이 난다고서. 너희 밥을 먹다가 그거 먹어서 그래 그렇다고. 그렇게도 살아 뵈단 말이오. 그래 이곳에 할머니들이 많소. 할머니들이 많소. 나처럼 고생한 사람은 이 여기.}

10201 @ 별루 없습지.{별로 없지요.}

10201 # 없소! 없소! 기랜게 마냐(Маня=Маша)라구 잊지. 기애 그 마냐(Маня) 우리 노인단에서 개 애:기르 하지. 애:기르 하이까데 이러오. 야아 저 따새 어째 내가 같이 그렇기 고사아 했소. 야아! 저 따새 내 그룽기 고사아 했다구. 나느 어저느 어 열두 살이 땃다구. 기랜데 형겅이 없어서 그 그게 무시기라구 말하까? 얍다:만 그 시바~으느 우리 시향세라구 하오, 그거. 그런 걸르 나르 우리 어머니 초매르 해 줏다구. 기래 이 속에 바지는 없었다구. 기애두 그런 거 입구 땁긴다구. 아이! 선스나덜이 이래지. 저거느 어째 가비르 아이 입구 땁기는가 하구. 그렇기 말했다구. 그 마냐 어찌다가 내가 같으기 구차했단 말이우. 젠데 그 마냐느 작년에 그러께 상세났어. 아: 칠십이 조금 넘어 상세났소.{없소! 없소! 그런데 마냐라고 있지. 그래 그 마냐 우리 노인단에서 이야기를 하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러오. 야아 저 따샤 어째 나와 같이 그렇게 고생을 했소. 야! 저 따샤가 나처럼 그렇게 고상을 했다고. 나는 이제는 열 두 살이 되었다고. 그런데 천이 없어서 그 그게 무엇이라고 말할까? 알파란 그 시방은 우리 '시향세'라고 하오, 그것을. 그런 것으로 나에게 치마를 해 주었다고. 그래 이 속에 바지는 없었다고. 그래도 그런 거 입고 다닌다고. 아니! 머슴아이들이 이러지. 저거느 어째 바지를 안 입고 다니는가 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 마냐 어찌다가 나와 같게 구차했단 말이오. 그런데 그 마냐는 작년 그러께에 죽었어. 아 칠십이 조금 넘어 죽었소.}

10201 @ 어째 그렇게.{어째 그렇게.}

10201 # 그래서 기래지. 나르 이렇게, 야아! 내쳐리 고상한거[고사항거]. 나느 어저느 어따 세에라구 하갇다구. 제 세에라구 하갇다구. 내쳐르 고상한 거. 그렇기 그여자 헤에 동새애 이래다가서리 그 여자 상세났소. 그여자느. 기랜게 나느 그렇게 구차하구 풀우 먹구 그래 두 안죽은 아 벼원에 내게 이 책이 없소. 벼원을 아이 가오. 아파두 아이 가우 나느. 어징가이 아파서느 벼원을 아이 가오. 야덜은 약으 먹으라구. 약으 먹으라구. 내 약으 아이

먹소. 조마네 약으 아이 먹소, 내. 기래 아프무 어디서 풀우 뜯어 먹어무 이 풀이 좋은 게라무 그 풀우 뜯어서 우레서 먹어두 약은 아이 먹소.{그래서 그래지. 야! 나에게 이렇게, 야! 나처럼 고생한 사람. 나는 이제는 형이라고 하겠다고. 자기 형이라고 하겠다고. 나처럼 고생한 사람. 그렇게 그 여자 형 동생 이러다가 그 여자 죽었소. 그 여자는. 그런 데 나는 그렇게 구차하고 풀을 먹고 그래도 아직은, 아, 병원에 내게 이 책[진료부(診療簿)]이 없소. 병원을 안 가오. 아파도 안 가오, 나는. 어지간히 아파서는 병원을 안 가오. 이 아이들은 약을 먹으라고 하지. 약을 먹으라고. 내가 약을 안 먹소. 좀처럼 약을 안 먹소, 내. 그래 아프면 어디서 풀을 뜯어 먹으면 이 풀이 좋은 것이라면 그 풀을 뜯어서 우레서 먹어도 약은 안 먹소.}

@ 아매 조금 아까 이 형겅이, 시향세라구 그러셨슴둥?{할머니! 조금 아까 이 천이 '시향세'라고 하셨습니다까?}

# 야 시향세.{시향세.}

@ 시향세.{시향세.}

# 시향세 기계 어떤 형겅인가 가만 요거 빼오. 내 가져다 베울게 잇소.{'시향세' 그것이 어떤 천인지 가만 요거 빼오. 내가 가져가다 보일 게 잇소.}

@1 아!{아!}

10801 @ 음. 으음. 그러면은 그럼 아매 예: 단옷날은 무스거 하셨습니다? 여기서. 단이, 단잇날은?{음. 으음. 그러면은 그럼 할머니 예 단옷날은 무엇을 하셨습니다까? 여기서. 단오, 단옷날은?}

10801 # 시방, 시방 단옷날이무 어:: 그 우리 예따(это) 조선사람덜이 싹 모다서 여기 예따(это) 어:: 싹보리스(сон борис)라구서리. 싹보리스(сон борис)라구 여기 예따(это) 조선 해재~이던지 어티기 난 그거 말으 하기 바뿌오. 그 우리 조선사람덜이 싹 그 사람게 거저 기래. 그 사람이 어 재비 그 더 벨리아이스(белый аист)라 하오, 그거. 기래 거기서 한 오백명씨 모두우. 어: 한 오백명씨 사적에서 와서 기래 오구 단오를 자알 세에. 기랜게 올해 단오르 못 세엿어. 작년에꺼지 그렇기 잘 세엿땀어.{시방, 시방 단옷날이면 어 그 우리 음 조선사람들이 싹 모여서 여기 음 어 손(孫) 보리스. 손(孫) 보리스라고 여기 음 조선 회장이던지 어떻게 난 그거 말을 하기 힘드오. 그 우리 조선사람들이 싹 그 사람에게 그저 그래. 그 사람이 어 자기 그 더 '벨리아이스'[=학(鶴)]이라 하오, 그거. 그래 거기서 한 오백 명씩 모이오. 어 한 오백 명씩 사방에서 와서 그래 오고 단오를 잘 쇠어. 그런데 올해 단오를 못 쇠었어. 작년까지 그렇게 잘 쇠었땀어.}

10801 @ 무스거 하구 노옴두?{무엇을 하고 놀니까?}

10801 # 기래구서 이릉기 그릇에다가서 싹 밥우 해에서 요렇기 싹, 싹 제마당 밥우 해에서 그렇기 딱 주구. 기래구 거기 해앰이랑 싹 거기다 담아서 요래 그릇에다 담아서 기래서 농가서 기래서 맥이우. 먹구. 기래구서리 물두 주우. 기래구서 선물두 주우. 선물두 예따(это) 부채랑. 그래. 작년, 작년에는 부채르 좋은 거 받았땀어. 그렇기 선물두 주구, 그래오. {그래고서 이렇게 그릇에다가 싹 밥을 해서 요렇게 싹, 싹 저마다 밥을 해서 그렇게 딱 주고. 그리고 거기 반찬이랑 싹 거기다 담아서 요렇게 그릇에다 담아서 그래서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먹이오. 먹고. 그리고 물도 주오. 그리고 선물도 주오. 선물도 음 부채랑. 그래. 작년, 작년에는 부채를 좋은 거 받았어. 그렇게 선물도 주고 그러오.}

10801 @ 그러면 이렇게 뭘 여자덜이 뭐 타는 거 있재임둥? 줄으 매구서 그런 건 아이 하암

등?{그러면 이렇게 뭘 여자들이 뭐 타는 거 있잖습니까? 줄을 매고서 그런 건 안 합니까?}

10801 # 야, 그건 그거 없어. 야~ 그거 굴기 없어.{야, 그건 그거 없어. 그거 그네가 없어.}

10801 @ 아, 굴기.{아, 그네.}

10801 # 야~ 굴기 없어. 여기 그렇기 그저 모다서는 에따(это){응 그네가 없어. 여기 그렇게 그저 모여서는 음.}

10801 @ 그 누가 하무 좋을텐데.{그 누가 그네를 매면 좋을 텐데.}

10801 # 아~.{응.}

10801 @ 이렇게 해서 굴기 때문.{이렇게 해서 그네를 매면.}

10801 # 널두 없어. 널 뛰는 게. 그전에는 야! 에 에따(это) 그 켄뜨르(центр)라는 데 있어, 이름이. 거기 조선사람들이 켄뜨르라구서리. 저 저기 뽀로샤(площадка) 징재이오? 여기 큰 뽀로샤 장소. 거기 켄뜨르 있어. 조선. 거기서 에따(это) 널두 뛰구 굴기두 매구 그랬댜어. 어느해 한 번으느. 기래구 시방은 저기 가서는 널두 뛰는 게 없구 굴기 뛰는 게 없구 그저 노래르 부루구 그저 괴랩데.{널도 없어. 널 뛰는 것이. 그전에는 야! 에 음 그 센터라는 데가 있어, 이름이. 거기 조선사람들 센터라고서. 저 저기 경기장을 짓잖소? 여기 큰 경기장을 짓소. 거기 센터가 있어. 조선. 거기서 음 널도 뛰고 그네도 매고 그랬댜어. 어느 해 한 번은. 그리고 시방은 저기 가서는 널도 뛰는 사람이 없고 그네를 뛰는 사람도 없고 그저 노래를 부르고 그거 그러데.}

10801 @ 그러면은 아매 그 초폐일이나 취석 때느 머 머 아이 했슴둥?{그러면 할머니 그 초과 일이나 추석 때는 뭐 뭐 안 했습니까?}

10801 # 치석에는, 어 치석에는 치석에는 산으르 갖다 오구 그저 그래오. 산으르 가오.{추석에는, 어 추석에는 추석에는 산소에 갔다 오고 그저 그래오. 산소를 가오.}

10801 @ 아 산으르.{아 산소로.}

10801 # 치석에는. 아, 치석에는. 한식에두 산으르 가구. 여기서느 그럼데. 응.{추석에는. 응, 추석에는. 한식에도 산소로 가고. 여기서느 그러데. 응.}

10801 @ 한식에두.{한식에도.}

10801 # 한식에두 가구 치석에두 가구 그렇기 가압데. 산으로 가오. 산으르 가기마 하무 음식 이랑 자알 채레 가지구 가오.{한식에도 가고 추석에도 가고 그렇게 가데. 산소로 가오. 산소로 가기만 하면 음식이랑 잘 차려 가지고 가오.}

10801 @ 무슨 음식을 채레가지구 가압둥?{무슨 음식을 차려가지고 갑니까?}

10801 # 임석을르 그저 밥두 해애 가지구 가구 여라가지 해앰이두 가지구 가구 어: 패실두 가지구 가구, 고기두 가지구 가구 물고기두 가지구 가구 무스거 마~이 가지구 가오. 기래 올해느 한식에 조영식이 왔습데. 조영식이 와서 우리 그저 싹 그 임석이 채린 게랑 잡소 라이까데 거저 딱 한 가지 고저 췌에 잡습구 더 아이 잡습습데. 야~ 기래 와서 사진 하나 찍었어. 찍었댜어. 우리 아들이 산에 와서 사진 찍어. 기래 우리 아바이 사망했다이까 데 아! 그 산두 가 바야 데지 하메서 기래더이. 기래 거저 우리 아바이느 딱 절역에 있다 나이까데 거저 가고 오는 사람이 다 보오.{음식으로 그저 밥도 해서 가지고 가고 여러 가지 반찬도 가지고 가고 어 과일도 가지고 가고, 고기도 가지고 가고 물고기도 가지고 가고 뭐 많이 가지고 가오. 기래 올해는 한식에 조영식 원장이 왔데. 조영식 원장이 와서 우리 그저 싹 그 음식 차린 것이랑 잡수라 하니까 그저 딱 한 가지 그저 집어 잡숫고 더

안 잡수시데. 응 그래 와서 사진 하나 찍었어. 찍었됐어. 우리 아들이 산소에 와서 사진 찍어. 그래 우리 영감이 사망했다 하니까 아! 그 산소도 가 봐야 되지 하면서 그러더니. 그래 그제 우리 영감은 딱 길가에 있다 보니까 그제 가고 오는 사람이 다 보오.}

@ 음. 거기는 그: 우리 고렷사람덜이 이렇기 쪽: 다아 모여 있슴둥?(음 거기는 그 우리 고려 사람들이 이렇게 쪽 다 모여 있습니까?)

# 싹 고렷, 조 조선사람덜이. 싹 조선사람덜이. 타국사람덜이 거기 없어. 우리 아들이 아바이 있는데는 타국 사람이 없어. 호옥시 잇구 싹 조선사람덜이. 그렇기 잇소.{싹 고려, 조 조선사람들이. 싹 조선사람들이. 타국 사람들이 거기 없어. 우리 아들과 영감이 있는데는 타국 사람들이 없어. 호옥시 있고 싹 조선사람들이 있지. 그렇게 잇소.}

@ 여기는 아매, 여기서느 고렷사람이라구 말을 많이 함둥 조선사람이라구 말을 많이 함둥?(여기는 할머니, 여기서는 '고렷사람'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까 '조선사람'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까?)

# 조선사람이라구 호옥시 하구 고렷사람이라구 치우라 하구.{조선사람이라고 호옥시 하고 '고렷사람'이라고 전적으로 하고.}

@ 치우라 하구.{전적으로 하고.}

# 아, 치우라 하구.{응, 전적으로 하고.}

@ 음.{음.}

# 아.{응.}

@ 음.{음.}

# 기라구 여기서 어: 노시아사람덜으 노시아사람이라구 아이 부르는 사람이 적소. 부르는 사람이 적소. 게 그제 마우재라 하지. 그래 마우재라구 하지. 그제 그렇기 부르오.{그리고 여기서 어 러시아 사람들은 '노시아 사람'이라고 안 부르는 사람이 적소. 부르는 사람이 적소. 그래 그제 '마우재'라 하지. 그래 마우재라고 하지. 그제 그렇게 부르오.}

@ 그럼 끼타이느 뭐라구 부름둥?(그럼 중국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 어 끼다이느 중국사람덜이라구. 기라구 일본사람덜이라 하구.{어 중국사람은 '중국사람덜'이라고, 그리고 '일본사람덜'이라 하고.}

@ 음.{음.}

# 그렇기 말하오.{그렇게 말하오.}

@ 야뽀스끼.{일본인.}

# 야~.{응.}

@ 일본사람덜이라구.{일본사람덜'이라고.}

# 야~. 일본사람덜이라 하구.{응. '일본사람덜'이라 하고.}

@ 으음.{으음.}

# 그렇기 말하오. 여기서. 기래두 우리네 쌀이 중국에서 어지서 우리 쌀이 잉게 밥우 해서 먹지. 어 중국에서 쌀이 없으무 없소. 기래구서르 까자흐스탄에서 시방 쌀이 들어오는 게 모: 지리 몹쓸 쌀이 들어오오, 거기선. 맛이 없어. 기래구 시바~으느 올부터느 노시아쌀이 둘옵데.{그렇게 말하오. 여기서. 그래도 우리네 쌀이 중국에서 어디서 우리 쌀이 이렇게 와서 밥을 해서 먹지. 어 중국에서 쌀이 없으면 없소.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시방 쌀이 들어오는 것이 몹시 몹쓸 쌀이 들어오오, 거기서는. 맛이 없어. 그리고 시방은 올부터느 러시아 쌀이 들어오데.}

@ 으음.{음.}

# 기래 우리네는 야덜이 이라지. 아매! 통쌀으 싸지 마구 싸래기르 싸자구. 야! 통쌀으 싸라! 기애두 통쌀 밥우 하재왕구 어찌 맨 그런 거 싸래기르 먹겠는가. 나야 싸래기 맛이 없다. 아매! 통쌀으 싸자무 비싸오. 통쌀은 한 커우대에 스물 다섯 킬로에 어 이천 삼백 원 내~이구. 싸래기느 신: 킬로에 일천 일백 저기 닷, 신 냥. 기래 이번에 아·들이 내 두루:두루 그저 돈으 있던 돈으 주메서리 이랬지. 기램 이거 가지구 이제 뻘씨 올라가무 다아 올라간다구. 쌀두 올라가구 기름두 올라가구 다아 올라간다구, 기래이 싸자구. 기래 아매 통쌀은 한 커우대만 싸기오. 기래구 싸래기 싸자구. 야! 싸래기 맛이 없다. 아 맛이 없어두 일없소. 우리는 좋아하오. 저네는 좋아한다지. 기래매 싸자지. 기래 싸래기 한 커우대 쌀으 한 커우대 통쌀이 한 커우대 같기 한 커우대. 기래 싸매서리 어전 이래무 우리 한해, 일년으 먹는다. 일년으 먹짐 그래구.{그래 우리네는 이 아이들이 이러지. 할머니! 통쌀을 사지 말고 싸라기를 사자고. 야! 통쌀을 사라! 그래도 통쌀 밥을 하지 않고 어찌 맨 그런 거 싸라기를 먹겠는가. 나야 싸라기 맛이 없다. 할머니! 통쌀을 사려면 비싸오. 통쌀은 한 자루에 25킬로그램에 어 2,350냥이고. 싸라기는 50킬로그램에 1,150냥이고. 그래 이번에 아이들이 내 두루 두루 그저 돈을 있던 돈을 주면서 이랬지. 그럼 이거 가지고 (사라고). 이제 연금이 올라가면 물가(物價)가 다 올라간다고. 쌀도 올라가고 기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간다고, 그러니 사자고. 그래 할머니 통쌀은 한 자루만 삼시다. 그리고 싸라기를 사자고. 야! 싸라기 맛이 없다. 아, 맛이 없어도 괜찮소. 우리는 좋아하오. 자기네는 좋아한다지. 그러면서 사자고 하지. 그래 싸라기 한 자루, 쌀을 한 자루 통쌀이 한 자루, 가루가 한 자루. 그렇게 사면서 이젠 이러면 우리 한 해, 일년을 먹는다고. 일년을 먹지 뭐 그러고.}

10203 @ 그럼 아매 그러면 좀 즐거운 얘기를 좀 여쭙 보겠습꾸마. 그럼 아매 그: 아바니를 어떻게 만나서 언제 에 저 이 결혼했습등?{그럼 할머니 그러면 좀 즐거운 얘기를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서 언제 에 저 결혼을 했습니까?}

10201 # 칠리서, 내 칠리라는 데서.{칠리서, 내가 칠리라는 데서.}

10201 @ 아까 말씀하셨죠.{아까 말씀하셨지요.}

10201 # 어 칠리라는 데서, 내 우리 삼추이 따쉬겐뜨서 살았지, 삼추이. 뽀뽀 동새애 사는데. 우리 칠리서두 잘 못 살았댔어. 기래 칠리서 살메서리 에 야! 에 우리 어 따시켄트 어: 그때 꼬호즈(КОЛХОЗ) 댕땀어. 개 꼬호즈(КОЛХОЗ)는 새아가덜이 이렇기 아이 입는다구. 우티르 잘: 입는다구 기래지. 야! 그래이 우리네는사 거기서 칠리서두 구차하다나이 우티르 잘 모 입었지. 기래 그전에 잘 모 입다나이. 내 그때 어:: 사십팔년도에 따시켄트로 왔소. 사십팔년도에 열아홉살에 땀땀어. 사십팔년도에 내 열 아홉 살이 땀어. 열아홉살에 내 봄에 왔소. 어느 달에 온거 내 기억치 못하겠어.{어 칠리라는 데서, 내 우리 삼촌이 타슈켄트에서 살았지, 삼촌이. 아버지 동생이 사는데. 우리 칠리서도 잘 못 살았댔어. 그래 칠리서 살면서 에 야! 에 우리 어 타슈켄트 어 그 때 콜호스가 되었었어. 그래 콜호스는 처녀들이 이렇게 옷을 안 입는다고. 옷을 잘 입는다고 그러지. 아! 그러니 우리네는야 거기서 칠리에서도 구차하다 보니 옷을 잘 못 입었지. 그래 그전에 잘 못 입다 보니. 내가 그 때 어 1948년도에 타슈켄트로 왔소. 1948년도에 열 아홉 살이 되었어. 1948년도에 내가 열 아홉 살이 되었어. 열 아홉 살에 내가 봄에 왔소. 어느 달에 왔는지 내가 기억하지 못 하겠어.}



10201 @ 음.{음.}

10201 # 봄에 왔소. 기래 봄에 와서 어: 우리 삼추이 이래지 머. 여기와서 벌기마 하무 어: 네 옷으느 해 입을 쉬 잇다구. 따시켄뜨는 형겅이두 많구 어: 사는 것두 어 체르 아이 먹구 쌀으 먹구 어: 갈기두 좋은 갈그 먹구 따시켄뜨서는 그래. 개 그래 옛날에 어: 그전에 우리 따시켄뜨서 살 적에 어 그릉기 말했어. 저 까자끄스탄 살적에 저 따시켄뜨는 어: 떡도 시라구. 떡이 많다나이 떡도시라구. 그릉기 이름 절엇댓어. 따시켄뜨르. 기래 가자구 나르. 내 그때 열아홉살인 거. 야! 가자 가서 네 가 잇으무 어 우리 헤~이느 시집가다나이 어 남편이가 같이 거기 쭈미나리끄라는 데서 살앗댓어. 기래 네 가자. 가서 거기 가서 니 옷으 벌이르 해라. 기래 삼춘 따라서 거기르 왔지, 열아홉살인게. 기래 집에서 입던 우티느 어: 파이난 거 입구 땡겅댓어. 파이 나서 이래 집운 것두 입구. 기래. 기래 나르 여길 온다 해서 따시켄뜨르 온다 해서 빨라찌르(Платье), 마뿌치(матрац=요, лапоть=나무껍질 신, 짚신)르 두 개르 우리 마마 해에서 기래 나르 입해서 기래 보냈지. 기래구 낡은 우티르 가지구 기래구서리 따시켄트르 열아홉살인게 왔어. 기래 와서 따시켄트 봄에 와서 그으 봄울르 어 노월지지니(Новая жизнь)라는 데르 내 갔어. 부존이라는 꼬호즈(КОЛХОЗ)로 오기는 부존이라는 꼬호즈(КОЛХОЗ)르 왔댓어.{봄에 왔소. 그래 봄에 와서 어 우리 삼춘이 이러지 댜. 여기 와서 벌기만 하면 어 네 옷은 해 입을 수가 있다고. 타슈켄트는 천도 많고 어 사는 것도 어 겨를 안 먹고 쌀을 먹고 어 가루도 좋은 가루를 먹고 타슈켄트는 그래. 그래 옛날에 어 그전에 우리 옛날에 타슈켄트에서 살 적에 그렇게 말했어. 저 카자흐스탄에 살 적에 저 타슈켄트는 빵 도시라고. 빵이 많다 보니 빵 도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어. 타슈켄트를. 그래 가자고. 내 그 때 열 아홉 살인데. 야! 가자 가서 네 가 가 잇으면 어 우리 형은 어 시집을 가다 보니 어 남편과 같이 거기 쭈미나리끄라는 데서 살앗댓어. 그래 너 가자. 가서 거기 가서 네 옷 벌이를 해라. 그래 삼춘을 따라서 거기르 갔지, 열 아홉 살인 것이. 그래 집에서 입던 옷은 어 헤어진 거 입고 다녔었어. 헤어져서 이렇게 기운 것도 입고. 그래. 그래 나를 여기르 온다 해서 타슈켄트로 온다고 해서 원피스, 신을 두 개를 우리 어머니가 해서 그렇게 해서 나를 입혀서 보냈지. 그리고 낡은 옷을 가지고 그리하고서 타슈켄트를 열 아홉 살 먹은 것이 왔어. 그래 와서, 타슈켄트를 봄에 와서 그 봄에 노보이지즈니(새로운 삶)이라는 데로 내가 갔어. 부존이라는 콜호스로, 오기는 부존 콜호스로 왔었어.}

10201 @ 부존?{부존?}

10201 # 부존이. 부존이르 와서 거기서 봄에 인차 나르 꼬호즈(КОЛХОЗ)르 데레갑데. 노호브라는 꼬호즈(КОЛХОЗ)르. 기래 데레갓는데 거기서 새아가덜이 많앗소. 우리 새아가덜이 마: 이 베질으 했댓어. 베질해서. 기랜데 내 나댕기는 우티느 하나 댕어 나~. 아 형겅은 이림이 마이라 했어. 마이라구서리. 그릉기. 그래 빨라찌르 두벌으 두울이 해 입구 왔는데, 한나 빨라찌르 입구 일할라 자꾸 땡기다나이 이 잔더리에 이게 다아 땀에 이에서 파이 나서 형겅이 그전에는 없엇댓어 나~. 집어 입재두 없엇댓어 형겅이, 어디메서. 기래 내 동미 박마르세라구 잇었지. 그 마르세 그라지. 야! 네 이제 이 처매 빨라찌 다 파이났는데 니 우리 아버지 적삼 입구 땡게라. 기래 기래문 나르 달라구. 기래 그 적삼우 야~. 어, 그 마르셀르나(марселена) 나르 적삼우 그 마르셀르나두 내가 동겅이우. 죽엇소 가아두 죽엇소. 가아느 일찍이 죽엇소. 가아느 신 살 전에 죽엇댓어. 가아느 잘 살앗댓어. 기래 나르 거저 그래 이래 무시기 잇으무 밧으두 정슴 싸가지구 가무 나르 맥이구. 나느 기래

부존이란 꼬호즈(КОЛХОЗ)르 와서 야~ 어따(əTO) 그 해재~이 나르 아매네 집에 아바이 아매 잇는 그 집에다 한 칸에다가 나르 그런 집우 주웁데. 기래 나느 그 집이서 사십 어:: 팔년도에 와서 거기에서 내 농새질으 하메 베밭에서 일하메 거기서 살았댔어. 재빌르. 에따(əTO) 그전에는 이렇기 사람이 일하지 아잉겏소? 노르마(НОРМА)르 주오. 쌀으 엠매씨 이렇기 노르마르 주오. 기래 갈그두 엠매씨 주구 노르마르 주구. 단건 없었댔어. 싸하르(сaxap)라는 건 없었댔어. 거저 갈그 주구 쌀으 주구. 어따(əTO) 그래 자이랑 이런 거느 우리 삼촌댁이 자이랑 줘. 기래 그저 무스 밥우 해두 그 자에다 거저 먹지 다른 거느 먹을 게 없었댔어. 그렇기 살았댔어, 내. 기래 아춤이무 일할라 가자무 그: 마르세랑 둘이서 베밭으 가자기마 하무 가아느 잘 사다나йка데 에 잘 먹구 가지. 나는: 그 췌인집 밭에 능금낭기 이에 잇지 야~. 이쪽:이 데오 기계. 그 능금이 셋하얀 능금이. 거기다가 떡으 한, 한 쪼배기르 가지구 그 능금 한나 떼에 먹구 기래구 일할라 가지. 일할라 갈 적에 그렇기 일할라 갓댔어. 내 그때 열아홉살이댔댔어.{부존. 부존으로 와서 거기서 봄에 이내 나를 콜호스로 데려가데. 노호브라는 콜호스로. 그래 데려갔는데 거기에 처녀들이 많았어. 우리 처녀들이 많이 벼농사를 지었댔어. 벼농사를 지어서. 그런데 내가 나다니는 옷은 하나였어 응. 아 천은 이름이 '마이'라 했어. '마이'라고서. 그렇게. 그래 원피스를 두 벌을 둘이 해 입고 왔는데, 하나 원피스를 입고 일을 하러 자꾸 다니다 보니 이 잔등에 이게 다 땀에 이래서 헤어져서 천이 그전에는 없었어 응. 기워 입자고 해도 없었어, 천이 어디서. 그래 내 동무 박마르세라고 있었지. 그 마르세 그러지. 야! 내가 이제 치마 원피스 다 헤어졌는데 네 우리 아버지 적삼을 입고 다녀라. 그래, 그래서 나를 달라고. 그래 그 적삼을 응. 어, 그 마르셀르나가 나에게 적삼을 (주었지) 그 마르셀르나도 나와 동갑이오. 죽었소 그 아이도 죽었소. 그 아이는 일찍 죽었소. 그 아이는 쉰 살 때 죽었어. 그 아이는 잘 살았어. 그래 나에게 이렇게 무엇이 있으면 밭으로 점심을 싸 가지고 가면 나를 먹이고. 나는 그래 부존이라는 콜호스로 와서 응 음 그 회장이 나를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잇는 그 집의 방 한 칸에다가, 나에게 그런 집을 주데. 그래 나는 그 집에서 1948년도에 와서 거기 와서 내 농사일을 하며 논에서 일하며 거기서 살았어. 내 스스로. 음 그전에는 이렇게 사람이 일하지 았겏소? 배급을 주오. 쌀을 얼마씩 이렇게 배급을 주오. 그래 가루도 얼마씩 배급을 주고. 단 건 없었어. 설탕이라는 것은 없었어. 그저 가루를 주고 쌀을 주고. 음 그래 장이랑 이런 것은 우리 삼촌댁이 장이랑 줘. 그래 그저 뭐 밥을 해도 그 장에다 그저 먹지 다른 것은 먹을 것이 없었어. 그렇게 살았어, 내가. 그래 아침이면 일하러 가자면 그 마르세랑 둘이서 논을 가자 하기만 하면 그 아이는 잘 사니까 에 잘 먹고 가지. 나는 그 주인집 밭에 능금나무가 있지 응. 일찍이 되오 그게. 그 능금이, 새하얀 능금이. 거기다가 빵을 한, 한 조각을 가지고 그 능금 하나 따 먹고 그리고 일하러 가지. 일하러 갈 적에 그렇게 일하러 갔었어. 내가 그때 열 아홉 살이었었어.}

10201 @ 그런데 거기서 새아가덜이 무스거 일으 했슴둥? 베밭에서?{그런데 처녀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10201 # 거저 베밭에서 썩 일하지.{그저 논에서 썩 일하지.}

10201 @ 그러니까 베밭에서 무스거 할 일이 있슴둥?{그러니까 논에서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10201 # 지슴매지. 지심이 매지.{김매지. 김을 매지.}

10201 @ 아, 지슴.{아, 김매기를.}

10201 # 야~ 지슴으 매지. 그 베밭에르 싹 심어 놓구선 지슴. 새아가덜이 그때는 많엇댓어. 열 아홉명씨 댓댓어. 그래 그 새아아덜은 나는 내 혼자구 가아덜은 어시덜 다아 잇구. 개 정 슴우는 가아덜 잘 싹 가지구 가서 나르 잘 맥이오. 개구 저녁에 올 적에는 어따(это) 짚은 임석으 나르 주우. 네 가지구 가서 저녁 먹으라 이래구서 나르 주지. 기래무 어떤 적에는 그거 먹구 자구. 이튼날 아침이무 그 능금에다가서리 떡으 한쪼배기 먹구 일할라 가구 그렇기 살앗댓어.{응 김을 매지. 그 논에서 싹 심어 놓고서 김. 처녀들이 그 때는 많았었어. 열 아홉 명씩 되었었어. 그래 그 처녀들은, 나는 나 혼자고, 그 아이들은 부모가 다 있고. 그래 점심은 그 아이들 잘 싹 가지고 가서 나를 잘 먹이오. 그리고 저녁에 올 적에는 음 남은 음식을 나에게 주오. 내가 가지고 가서 저녁을 먹으라고 이래고서 나에게 주지. 그러면 어떤 때는 그거 먹고 자고. 이튼날 아침이면 그 능금에다가 빵을 한 조각을 먹고 일하러 가고 그렇게 살았었어.}

10203 @ 음.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영감님을 만나셨습둥?{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영감님을 만나셨습니까?}

10203 # 어어, 그때는 그래구 그때 내 어전의 스물 그해 농새르 해서 쌀, 이렇게 베르 저서 쌀으 우리 삼춘택이 바이 그전에는 에따(это) 메르니짜(мельница)라는 게 없구 싹 바이다 쫘소. 기래 바이다 찢어서 나르 그 쌀으 싹 팔아서, 싹 팔아서 나르 수건두 싸라구 돈으 주구 어 신발두 싸라구 줘. 돈으 주구 그거 팔아서. 기래 그때에 내 옷이 깨까::잣댓어. 그 집운 우티 집운 우티르 입구서리 그양 땡기다. 기래 우리 동미아덜이 이래지. 야아! 어찌기 니 다른 옷이 없는가구. 기래 그 마르세르라는 옷이 잇어두 내 그때 컷어 키. 내 어찌 시방 어찌 늙으이 키 좀 작아졌어.{어, 그 때는 그러고 그 때 내가 이젠 스물, 그해 농사를 해서 쌀, 이렇게 벼농사를 지어서 쌀을, 우리 삼춘택이 방아, 그전에는 음 연자방앗간이라는 것이 없고 싹 디덜방아에다 쫘소. 그래 방아에다 쫘어서 나에게, 그 쌀을 싹 팔아서, 싹 팔아서 나에게 수건도 사라고 돈을 주고 어 신발도 사라고 줘. 돈을 주고, 그거 팔아서. 그래 그때에 내 옷이 깨끗했었어. 그 기운 옷, 기운 옷을 입고서 그냥 다니다가. 그래 우리 동무 아이들이 이러지. 야! 어떻게 너는 다른 옷이 없는가 하고. 그래 그 마르세르라는 옷이 잇어도, 내 그때 컷어 키가. 내 어찌 시방 어찌 늙으니까 키가 좀 작아졌어.}

10203 @ 쫘어들었지.{쫘어들었지.}

10203 # 야아, 작아, 기래 내 키 좀 컷지. 좀 싹했됐소. 그렇기 잘 아이 먹어도 내 이룽기 약하 재잇댓어. 기래, 기래 이래지. 야! 내 옷이 네게 맞앗으무 내 너르 아이 주갯는가구. 다른 아덜두 구차하다나이 가아덜두 그렇기 옷이 없었댓어. 이 야느 이 마르세르나는 조끔 이룽기 사다나이 옷이 잇어서 나르 입히자두 어 아이 댓단 말이오. 입힐 게 없어. 기래 재비 애비 우티르 늘상 적삼우 나르 주짐. 기래 그거 입구 일할라 땡게 밧댓어. 기래 그저어 그해 그래 벌어서 쌀으 타서 베르 타서 쫘어서 기래 옷이랑 해아서 입구. 그 담에는 내 조끔 땡갯어. 놀라랑 땡갯어. 그전에는 옷이 없다나이 어디메르 구락부랑 못 땡게밧어. 끼노(кино)랑 못 땡게밧어. 옷이 없다나이 내 무스거 입구 땡기갯어. 신발이두 없었댓어. 신발이느 우리네 무스거 신은 줄 아오? 그전에는 신발 밧으 땡구 땡갯지. 그러나 이 이제와서는 사십팔년도에 와서는 어따(это) 그런 거 어 마시나(машина) 바키 잇재이오? 마시나(машина) 바키르 그거 꺾질으 밧가서 냐~ 엔: 꺾에 꺾지르 쫘에뿌리구 그 안에 꺾지 얇은 게 잇소. 그거 그래서 도레기처리 해아서 그런 신발이 야~ 도레기처리 해

에서 그런 신발 친구 놀라 댕게두 그 신발 친구 댕기구 일하라 댕게두 그 신발의 친구 댕기구. 그래두 발바닥이 일없었어. 그 신발 친구 댕기이 발바닥이 그렇기 새카맣게엿소. 그전에는 아아 때느 이 발이나 무시기나 없었엿소 새까맣지. 그렇지. 어저느 내 열아홉살 먹으이까데 그런 신발 친구. 어: 발이 어지럽재엿됐어. 기래구 그 담에 그거 팔년도에 벌어서 신발두 싸구 어:: 옷이두 형겅으 싸서 옷이두 해 입구. 그 담에 열아홉살이 댕댕어. 열아홉살 댕는데 어저느 기계 어: 팔년도에 구연도이까데 스무살이 댕댕어. 구연도에 내 스무살 먹었어. 스무 살 먹으이 이제 완으로 목하 목하 잇재이오? 우리 꼬호즈(КОЛХОЗ)는 목하 없지. 목하 밭으르 댕기지, 먼데랑. 개 어전 스물살 대실 적에 머리 질었댕어. 어전 열 다섯에 자른 머리 어전 질어서 이려:하게 네레왔지. 야아! 그때두 이 잇었댕어. 옷으 오 온전히 이 해 입어두 옷이 이 잇었댕어. 그렇게 그 잘 입는다 해두 구차하지. 그래두 어시 없다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지 에잉구 내 혼자 사노라이 예: 스무살 대실 적에 예: 줌 우리 삼촌네 집에 이시메 이쪽에두 이시메 꼬호즈(КОЛХОЗ)는 개두 부존에 우리 삼촌 잇는 데서 이시메 동삼에느 거기가 잇구, 봄에느 또 이쪽에 와서 어: 목하밭에서두 일하구 베밭에서두 일하구. 그렇기 일해서 기애두 어 그런 거 식료랑 개두 이룩기 쫓댕어, 그래 먹으라구. 그래 기래메서두 개:두 옷으두 우리 집안 아재라구 또 잇었댕어. 원도서부터 같이 잇던 사제 그 노보즈니 와서. 그 아재 나르 이룩기 우에 우티구 주구 그랫댕어. 기래서 그 옷으 그래 입구 그래두 어: 구락부랑 댕겨 그 끼노(КИНО)랑 댕게 그래 뵈어. 기란데 우리 내 어전으 스무살 댕지 야~ 스무살 댕는데 우리 영감이 해~이 목하밭에 가서 이래짐. 야! 따사, 내 너르 제시, 그럴 적에 나느 우리 영감 못 뵈어. 우리 영감으느 어:: 그때 따시젠트서 어: 글으 일겼어. 저 그런 거 한 해짜리 에 끼노(КИНО) 켜꾸니꿈(техникум), 이 켜꾸니꿈(техникум) 아이오. 우치, 시방으느 우칠리시(училище)라구 하지 그거 우칠리시(училище)라구. 그거 끼노(КИНО)르 배우느 이 그런 글으 일것지. 기래 한 해 짜리 이르구서리 에……. {야! 작아. 내가 키가 좀 컸지. 좀 실했엿소. 그렇게 잘 안 먹어도 내가 이렇게 약하지는 았았었어. 그래 그래 이러지. 야! 내 옷이 네게 맞았으면 너에게 안 주겠는가 하고. 다른 아이들도 구차하다 보니 그 아이들도 그렇게 옷이 없었어. 이 아이는, 이 마르세르나는 조금 이렇게 살다 보니 옷이 있어서 나를 입히자고 해도 어 안 되었던 말이오. 입힐 것이 없어. 그래 자기 아버지 옷을 늘상 적삼을 나에게 주지 뭐. 그래 그거 입고 일하러 다녀 보았어. 그 해 벌어서 쌀을 타서 벼를 타서 쪼어서 그래 옷이랑 해서 입고 그 다음에는 고قم 다녔어. 놀러랑 다녔어. 그전에는 옷이 없다 보니 어디 클럽을 못 다녀 뵈어. 극장이랑 못 다녀 뵈어. 옷이 없다 보니 무엇을 입고 다니겠어. 신발도 없었어. 신발은 우리네 무엇을 신은 줄 아오? 그전에는 밭을 벗고 다녔지. 그러나 이제 와서는 1948년도에 와서는 음 그런 거 어 자동차 바퀴 있잖소? 자동차 바퀴를 그거 껍질을 발라서 응 가장 곁의 껍질을 내버리고 그 안에 껍질 얇은 것이 있소. 그거 그래서 다로기처럼 해서, 그런 신발 응 다로기처럼 해서 그런 신발을 신고 놀러 다녀도 그 신발 신고 다니고, 일하러 다녀도 그 신발을 신고 다니고. 그래두 발바닥이 괜찮았었어. 그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발바닥이 그렇게 새카맣지 았았소. 그전에는 아이 때는 이 발이나 무엇이나 구분이 없었소, 새카맣지. 그렇지. 이제는 내가 열아홉 살 먹으니까 그런 신발 신고. 어 발이 지저분하지 았았어. 그 다음에 1948년도에 벌어서 신발도 사고 어 옷도 천을 사서 옷도 해 입고. 그 다음에는 열아홉 살이 되었댕어. 열아홉 살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 1948년도에서 1949년도가 되니까 스무 살이 되었어. 1949년도

에 내가 스무 살 먹었어. 목화밭을 다니지, 먼 곳으로. 그래 이젠 스무살 되었을 적에 머리가 길었됐어. 이제 열다섯에 기른 머리가 이젠 이렇게 내려왔지. 야! 그 때도 이가 있었어. 옷을 온전히 해 입어도 옷에 이가 있었어. 그렇게 그 잘 입는다고 해도 구차하지. 그래도 부모가 없다 보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지 않고 나 혼자 사노라니 에 스무 살이 되었을 적에 에 좀 우리 삼촌네 집에 있으며 또 이쪽에도 있으며 콜호스는 그래도 부존에 우리 삼촌 있는 데서 있으며 겨울에는 거기에 가 있고, 봄에는 이쪽에 와서 어 목화밭에서 일하고 논에서도 일하고. 그렇게 일해서 그래도 어 그런 거 식료(食料)랑 그래도 이렇게 주었었어,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서도 그래도 옷도 우리 입안 아주머니라고 또 있었어. 원동서부터 같이 있던 사제 그 노보즈니 와서. 그 아주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위에 옷을 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옷을 그렇게 입고 그래도 어 클럽이랑 다녀 그 극장이랑 다녀 그렇게 해 봤어. 그런데 우리 내 이젠 스무 살이 되었지 응. 스무 살이 되었는데 우리 영감 형이 목화밭에 가서 이러지 뭐. 야! 따샤, 내가 너를 제수(弟嫂)를 삼겠다고, 그럴 적에 나는 우리 영감을 못 보았어. 우리 영감은 어 그때 타슈켄트에서 공부를 했어. 그런 거, 한 해짜리 에 영화 전문학교, 이 전문학교 아니오. 지금은 ‘우칠리시(전문학교)’라고 하지. 그저 ‘우칠리시’라고. 영화를 배우는 이 그런 공부를 했지. 그래 한 해짜리 공부를 하고서 에…….}

10203 @ 책에서 봤습꾸마. 그 얘기 제끔 있습꾸마.{책에서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10203 # 책에 있지. 그래 잇을 게오. 그 제끄니끄(техникум) 이르구 저기 우칠리시 이르구 그 답에느 어 우리 꼬호즈(колхоз)르 왔지. 거기 헤~이 잇었지. 기래 헤~이가 같이 일하자구서리 거기르 왔지. 개 우리 시헤~이 그양 이래지. 따샤! 내 너르 어따(это) 제시르 삼겠다. 우리 동새애 잇다구서리. 기래 기래두 내 옷이 없지 어디르 땡기지 못하지. 신발이 없지. 기래두 새애기 옷이 잇구 신발이 좋구 그래구야 어디르 놀라가서 기래두 어드메 총각아덜두 보구 이러지. 그래두 그때까지 내 총각아덜으 못밧밧어. 스무살 밧는데 내 총각아덜 못밧어. 한번두. 아 땡기지 앓다나이 내 어드서 보겠어. 그저 일할라 갔다 오무집이구 집에서 또 일할라 가구 그저 그랬지. 괴란데 음. 우리 영감이 쉰: 헤, 신: 해에 아 우리 시, 시헤~이 저 따샤에게르 네 꼭 가야텐다구. 따샤에게르 가애 텐다구. 새애기 착실하다구. 기래 신 해에 에이! 나는 그렇기 못간다구. 아이 가다구 내. 우리 아부지랑 저 칠리에 잇는데 내 못 간다구. 내 우리 시형가 기래지. 내 칠리르 가야텐다구. 여기서 내 에, 시가르 못간다구. 거기르 가야 텐다구. 갠데 우리 시헤~이 또 우리 영감 데리구 우리 삼촌인데르 갓단 말이지. 어 서르 대면두 못했는데. 삼촌인데르 가서 삼추이가 그러짐. 아이 이 우리 동새애르 이 따샤게르 어: 장가르 보내갓다구.{책에 있지. 그래 잇을 게오. 그 전문학교를 공부하고 저기 우칠리시 전문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어 우리 콜호스로 왔지. 거기 형이 있었지. 그래 형과 같이 일하려고 거기를 왔지. 그래 우리 시형이 그냥 이러지. 따샤! 내가 너를 음 제수(弟嫂)를 삼겠다. 우리 동생이 있다고서. 그래 그래도 내 옷이 없지 어디를 다니지 못하지. 신발이 없지. 그래도 처녀가 옷이 있고 신발이 좋고 그래고서야 어디를 놀러가서 그래도 어디 총각 아이들도 보고 이러지. 그래도 그때까지 나는 총각 아이들을 못 보았었어. 스무 살이 되었는데 내 총각 아이들을 못 보았어. 한 번도. 아! 다니지 앓다 보니 내가 어디서 보겠어. 그저 일하러 갔다 오면 집이고 집에서 또 일하러 가고 그저 그랬지. 그런데 음. 우리 영감이 1950년, 1950년도에 아 우

리 시형이 저 따샤에게로 꼭 네 꼭 장가를 가야 된다고. 따샤에게로 가야 된다고. 처녀가 착실하다고. 그래 1950년도에, 에이! 나는 그렇게 못 간다고. 안 가겠다고 내. 우리 아버지랑 저 칠리에 있는데 내 못 간다고. 내 우리 시형에게 그러지. 내 칠리를 가야 된다고. 여기서 내가 예, 시가(媳家)를 못 간다고. 거기를 가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시형이 또 우리 영감을 데리고 우리 삼촌한테로 갔단 말이지. 어 서로 대면도 못 했는데. 삼촌한테로 가서 삼촌과 그러지 뭐. 아이! 이 우리 동생을 이 따샤에게로 어 장가를 보내겠다고.}

10203 @ 음.{음.}

10203 # 아아, 저이찌리 맘:이 없는데. 나느 모른다구 우리 행님이 오무 어티기 내 이룽기 줘서 우리 행님이 미시기라 하겠는지. 나느 모르겠다구. 기래 아 네 맘이 잇으무 가가라 나르. 야! 나느 어째 그때 마음이 없습데, 저 우리 영감이. 그렇기 맘이 없습데. (웃음) 아아 기래두 우리 시혜~이 어떻게 권념하는지. 아 총각아덜으 한나투 못 맞지. 아, 어저느 나 이 어전 스물살 땃:지. 기래 거저 아즈바이 가라무 가겠다구. 아! 기래 네 가겠으무, 나느 가라구 말하겠다구. 그러나 네 맘:이 잇으무 가라구. 아이 아즈바이 가라무 내 가하겠다구. 기래 아즈바이 허락하이까데 멘목으 모른데르서리 이룽기 갓어 내. 저 영감인데르.{아, 저희끼리 마음이 없는데. 나는 모른다고 우리 형님이 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조카를 주어서 무엇이라 하겠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그래 아 네 마음이 있으면 가거라, 나에게. 야! 나는 어째 그때 마음이 없데, 저 우리 영감이. 그렇게 마음에 없데. (웃음) 아 그래도 어떻게나 우리 시형이 권하는지. 아 총각 아이들은 하나도 못 보았지. 아, 이제는 나이가 이젠 스무 살이 되었지. 그래 그저 작은아버지 가라면 가겠다고. 아! 그럼 네 가겠으면, 나는 가라고 말하겠다고. 그러나 네 마음이 있으면 가라고. 아니 작은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내가 시집을 가겠다고. 그래 작은아버지 허락하니까 면목을 모르는 데로 시집을 갓어 내가. 저 영감한테로.}

10203 @ 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10203 # 야:~!{응!}

10203 @ (웃음).{웃음.}

10203 # 잘 모르구 갓어. 영감. 거저 우리 시혜~이 잘 알았지. 기래 우리 시혜~ 우리 영감 없을 적에 밧써 자꾸 제시 삼겠다구느 말했지.{잘 모르고 갓어. 영감. 그저 우리 시형이 잘 알았지. 그래 우리 시형이 우리 영감 없을 적에 밧써 자꾸 제수(弟嫂)를 삼겠다고는 말했지.}

10203 @ 그러니까 아매: 얼굴 어제 사진 밧재임둥? 제가.{그러니까 할머니 얼굴 어제 사진으로 봤잖습니까? 제가.}

10203 # 사진두 못 맞지.{사진도 못 보았지.}

10203 @ 아니! 제가 어저께 아매 사진 밧재임둥.{아니! 제가 어저께 할머니 사진을 보았잖습니까?}

10203 # 기래.{그래.}

10203 @ 그러니까 시형이 아매 얼굴도 곱구 맘두 곱구 그래니까 붙잡아 놓은 게꾸마.{그러니까 시형이 할머니 얼굴도 곱고 마음도 곱고 그러니까 붙잡아 놓은 것입니다.}

10203 # 기래, 기래 이래짐. 아이 우리 동새애 마음이 부체 같재잉다구. 가무 산다구 산다구 이래메서리 기래지. 기래 아 모르구 기래두 갓지. 아 그래 신: 한 해에 허락해에서, 어 신 해에 허락해에서 신 한 해에 잔체르 했어.{그래, 그래 이러지 뭐. 아이, 우리 동생 마음이

부처 같지 않다고. 가면 산다고 산다고. 이러면서 그러지. 그래 아 모르고 그래도 갔지.  
아 그래 1951년에 허락을 해서, 어 1951년에 잔치를 했어.}

10203 @ 아아!{아아!}

10203 # 기래구 어 신 한 해에 저, 어: 신: 한 신 해애…… 어느게 오월이, 오월이 댕·소. 약혼  
[약·혼]이 데구. 신: 한 해 사월에 사월 예렛셋날에 잔쳐르 헛뎃어. 기래구 우리 아들이,  
그:: 신 해에느 어 잔쳐르 우리 시아바이 그러지, 잔쳐르 날이 없다구. 기래 신 한해 잔쳐  
르 하자구.{그리고 어 1951년에 저, 어 51년에…… 어느 게 5월이, 5월이 되었소. 약혼이  
되고. 51년 4월에 4월 열엿셋날에 잔치를 했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 50년에는 어 잔  
치를 우리 시아버지 그러지, 잔치를 할 날이 없다고. 그래 51년에 잔치를 하자고.}

10203 @ 음.{음.}

10203 # 기래이까데 우리 내 혼자 잇다나йка데 우리 영감이 뎡기다나йка데 내 잉태 잇어서  
큰 아르 설게 뎃지. 신 한 해애 저 큰아 낳뎃어.{그러니까 우리 내가 혼자 있다 보니 우  
리 영감이 다니다 보니 내 잉태 잇어서 큰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지. 51년에 저 큰아이를  
낳았어.}

10203 @ 아! 쉼 한 해애.{아! 1951년에.}

10203 # 신 한해애 낳소.{1951년에 낳았소.}

10203 @ 사월달에 결혼하셨는데.{4월에 결혼하셨는데.}

10203 # 신, 신 해애.{1950년에.}

10203 @ 한해?{1951년에?}

10203 # 신 해에 저기.{1950년에 저기.}

10203 @ 약혼하구.{약혼하고.}

10203 # 약혼으 어, 오월에 해앳지.{약혼을 어, 오월에 했지.}

10203 @ 오월에 하구.{오월에 하고.}

10203 # 어, 오월에 하구. 신 한 해애 삼월에, 사월에 예렛셋날에 잔쳐르 헛어. 갠데 우리 큰아  
삼월에 낳뎃어.{응, 오월에 하고. 1951년 3월에, 4월에 열엿셋날에 잔치를 했어. 그런데  
우리 큰아이 3월에 낳았어.}

10203 @ 아아!{아아!}

10203 # 아 삼월에 낳뎃어. 그래 예 잔쳐르 아아 아아 나서 잔쳐르 헛뎃어 우리. 그렇기 잔쳐  
르 헛어. 삼월 스무다섯날으 어 큰아 낳는데. 사월 열엿셋날 잔쳐르 헛지. 기래 잔쳐르  
하구 그 다음에 우리 시어마이 시아바이 내 같이 이티르 잇엇뎃어. 기래 우리 시혜~이  
자꾸 에도르 해에서 아 내 저 맏아들 붙잡구느 자꾸 에도르 해서 아무래 어 맏아들가 같  
이 잇겠다구. 우리가 같이 이티르 잇구 맏아들가 같이 잇엇어. 맏아들가 같이 잇구 그양  
잇다가 잇다가 우리 점떡 누비.{응 3월에 낳았어. 그래 예 아이를 낳아서 잔치를 했어 우  
리. 그렇게 잔치를 했어. 3월 스물다섯날에 어 큰아이를 낳았는데. 4월 열엿셋날 잔치를  
헛지. 그래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와 같이 이태를 잇엇어.  
그래 우리 시형이 자꾸 외도를 해서, 내 저 맏아들을 붙잡고느, 자꾸 외도를 해서 아무래  
도 맏아들과 같이 있어야 되겠다고. 우리와 같이 이태를 잇고 맏아들과 같이 잇엇어. 맏  
아들과 같이 잇고 그냥 잇다가 우리 막내 누이.}

10203 @ 으음. 절떡느비.{으음. 막내 누이.}

10203 # 야~ 점떡 누비두 하두 꼴이 일으 잘 해에서 기래길래 와 대학으 필헛어. 어 그런 어

이멘스끼야지끄(немецкий язык) 독일이. 그 야지끄(язык)르 그거 대학으 필했어. 그 래.{응 막내 누이도 하도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어. 그런 어 독일어 독일. 그 언어를 그거 대학을 졸업했어. 그래.}

10207 @ 그럼 아매 그: 잔चेहल 때.{그럼 할머니 그 잔치를 할 때.}

10207 # 잔चेहल 할 적에.{잔치를 할 적에.}

10207 @ 잔चेहल 할 때 무스거 입우셨슴둥?{잔치를 할 때에 무엇을 입으셨습니까?}

10207 # 아이구! 없어서 그저 우린데서 점문 여자 우티르 하는 여자 잇엇댓어. 그래 그 여자 거저 흰 겔르 거저 거저 흰 형겔을르 거저 우티르 해 입헛어. 기래구서리 거저 시집우 가구. 우리 아바이두 그저 옷이 (쯔) 못쓸거 거저 그래 남이게 빌어 아이 입을 상마:이 기래 거저 옷으 입구 기래구서리 잔चेहल 했어. 에이구! 그게랑 말하문.{아이구! 없어서 그 저 우리 사는 데서 젊은, 여자 옷을 짓는 여자가 잇엇어. 그래 그 여자 그저 흰 것으로 그저 그저 흰 천으로 그저 옷을 해 입헛어. 그래고서 그저 시집을 가고. 우리 할아버지 (영감)도 그저 옷이 (쯔) 못쓸 거 그저 그래 남에게서 빌어 안 입을 모양만큼 그래 그저 옷을 입고 그래고서 잔치를 했어. 어이구! 그걸 말하면.}

10208 @ 그래 그때 잔चेहल 어떻게 했슴둥? 그러니까 잔चेहल?{그래 그때 잔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잔치는?}

10208 # 그때 잔चेहल 이렇기 했소 야~. 옥시끼 찰옥수끼 잇소 야~. 찰옥수꿀르 어 떡으 찰떡 처리 하구. 찰옥수꿀르 과줄으 했어. 우리 마마. 과줄 하구. 입쌀이 찰, 입쌀이 없어서 찰 옥수꿀르 찰떡하구 찰옥수꿀루 가줄 하구. 기래구 돌피 잇재이오? 돌피. 돌피 입쌀이 섞인 그걸르 증편으 했댓어.{그 때 잔치는 이렇게 했소 응. 옥수수 찰옥수수 잇소 응. 찰옥 수수로 어 떡을 찰떡처럼 하고. 찰옥수수로 과줄을 했어. 우리 어머니. 과줄 하고. 입쌀 찰, 입쌀이 없어서 찰옥수수로 찰떡하고 찰옥수수로 과줄을 하고. 그리고 돌피 잇잖소? 돌피. 돌피, 입쌀이 섞인 그것으로 증편을 했어.}

10208 @ 아아! 증편을.{아! 증편을.}

10208 # 증편 했어. 그래 하구. 기래구 우리 마마 그때 어느 해애 왔는가 하이 우리 마마 우리 약호이 돼서 신:: 한 해애 예: 우리 마마 신: 한 해애 내 에 사월에 잔चेहल 하겠는데 어: 신 한 해애 선달에 왔댓어.{증편을 했어. 그래 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 때 어느 해 에 왔는가 하니 우리 어머니 약혼이 되어서 1951년에 예 우리 어머니 51년에 내 에 4월 에 잔치를 하려는데 어 51년에 선달에 왔엇어.}

10208 @ 아아!{아아!}

10208 # 기래 칠리서 올 적에 그 옥시쌀으 싹 쫑:서 어 가지구 왔어. 옥시쌀으. 찌어서 가지구 와서 그 내 약호~이 땃다하~이 그 옥시쌀으 싹 찌:서 가지구서리 기래 와서 그 옥시쌀으 어 찰떡 하자구 가지구 오구. 증편 하자구 가지구 오구. 기래구 내 벌어서 탄 쌀이 돌피 쌀이 에따(это) 입쌀 색인 거 내 땃지. 그거 싹 정미소에서 찌인 거 그런 쌀으 싹지. 기 랜게 쌀 잇은 거 가지구서리 증편하구. 옥시쌀르 찰떡하구. 그 담에 예: 옥시쌀르 증편하 구. 기래 어 우리 삼춘네 대애지 조오꼬만 게 잇엇댓지. 기래 그 대애지르 잡아서 어: 고 기르 농구 삼추이네 닭이 잇엇어. 기애 그 닭으 잡아서 닭으 잡아서 옛날처리 야~ 그 사~에다 큰사~에다 닭으 이래 채리르 채레서 고옴게 채레서 기래구 사에다 농구 기래구 사~아 받았댓어. 기래 이래지. 우리 할미, 한어머니 이래지. 잔चेहल 가줄이 잇구 어: 그런 거 닭이 잇구.{그래 칠리서 올 적에 그 옥수수쌀을 싹 쫑어서 어 가지고 왔어. 옥수수쌀



을. 찢어서 가지고 와서 그 내 약혼이 되었다 하니 그 옥수수쌀을 싹 찢서 가지고서 그 래 와서 그 옥수수쌀을 어 찰떡을 하려고 가지고 오고. 증편을 하자고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내가 벌어서 탄 쌀이 돌피쌀이 음 입쌀 섞인 거 내가 탔지. 그거 싹 정미소에서 찢은 거 그런 쌀을 샀지. 그런데 쌀 있는 것을 가지고 증편을 하고. 옥수수쌀로 찰떡하고. 그 다음에 에 옥수수쌀로 증편하고. 그래 어 우리 삼촌네 돼지 조끄만 것이 있었지. 그래 그 돼지를 잡아서 어 고기를 놓고 삼촌네 닭이 있었어. 그래 그 닭을 잡아서 닭을 잡아서 옛날처럼 응 큰 상에다 큰상에다 닭을 이래 차려서 곱게 차려서 상에다 놓고 그러고 상을 받았어. 그래 이러지. 우리 할머니, 할머니가 이러지. 잔치는 과줄이 있고 어 그런 거 닭이 있고.}

10208 @ 닭이.{닭이.}

10208 # 어, 닭이.{어, 닭이.}

10208 @ 꼭 있어야 돼지.{꼭 있어야 되지.}

10208 # 영 닭이 잇구 대애지 갈비 잇어야 댕다구. 그렇기 애:기르 하매 대애지 갈비르 농구 닭으 잡아농구 어: 가줄으 농구 개 그때느 단게랑 게 그렇기 조마네 없엇댕어. 기애 단 것두 잇으무 그릉게 좋은거느. 시방처리 어디메서 단게 잇엇겔어. 그 사타~이 또리또리 만 게 요런 게 잇엇댕어. 그 사타~아 괴래 한 가지 농구. 기래구 어:: 개실으 자~에 가서 앵기울리라는 데 가서 거기가서 개실으 우리 영감이 재빗것두 싸구 우리것두 싸구 그래 싸서 그래 개실으 기래 농구. 그렇기 사~아 받았댕어.{어 닭이 있고 돼지 갈비 있어야 된 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돼지 갈비를 놓고 닭을 잡아 놓고 어 과줄을 놓고 그래 그 때는 단 것이 그게 그렇게 좀처럼 없엇어. 그래 단 것도 잇으면 그렇게 좋은 거느. 시방 처럼 어디에 단 것이 잇엇겔어. 그 사탕이 둥글둥글한 것이 요런 것이 잇엇어. 그 사탕을 그래 한 가지 농고. 그리고 어 과실을 장에 가서 앵기 울리라는 데 가서 거기 가서 과실 을, 우리 영감이 자깃 것도 사고 우리 것도 사고 그렇게 사서 그래 과실을 그래 농고. 그 령게 하고 상을 받았어.}

10208 @ 아아! 잘 받으셨네요. 그래두.{아아! 잘 받으셨네요. 그래도.}

10208 # 야~. 그렇기 사~아 받았댕어.{응. 그렇게 상을 받았어.}

10208 @ 도투고기 잇지 닭이 꼭 있어야 닭이 잇엇지. 찰떡이 잇엇구. 예. 고 닭에 개실이 또 요렁기 갖다농구.{돼지고기 잇지, 닭이 꼭 있어야 되니 닭이 잇엇지. 찰떡이 잇엇고. 예. 고 다음에 과실을 또 요렇게 갖다 농고.}

10208 # 그렇기 해에서 사~아 받았댕어.{그렇게 해서 상을 받았어.}

10208 @ 그러면 개실은 어떤 개실이까요?{그러면 과실은 어떤 과실일까요?}

10208 # 어, 능금이 잇엇지.{어, 능금이 잇엇지.}

10208 @ 아아 능금이 잇엇구.{아아, 능금이 잇엇고.}

10208 # 능금이 잇엇지. 배: 잇엇지. 포도 잇엇지. 그랫댕어.{능금이 잇엇지. 배가 잇엇지. 포도 잇엇지. 그랫엇어.}

10208 @ 아아.{아아.}

10208 # 야~. 그렇기.{응. 그렇게.}

10208 @ 포도도?{포도도?}

10208 # 포도도 잇엇댕어. 사월인데에 그때느 따시켄트느 포도도 잇엇댕어.{포도도 잇엇어. 사 월인데 그 때는 타슈켄트느 포도도 잇엇어.}

10208 @ 아아, 따시겐트가 참 포도가 많다구 그러대요. 비노그라프. 많다구 그러대요.{아아, 타슈겐트에 참 포도가 많다고 그러대요. 비노그라프(포도). 많다고 그러대요.}

10208 # 그렇기 잊었댔어. 그렇기 사~이다 농구 기래 사~아 받았댔어.{그렇게 있었어. 그렇게 상에다 놓고 그래 상을 받았어.}

10207 @ 으음. 그러면은 그 그럼 아바이께서 어:: 아매집에서 하룻밤우 잤슴둥? 삼촌네 집에서 잤슴둥?{으음. 그러면 그 그럼 할아버지께서 어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잤습니까? 삼촌네 집에서 잤습니까?}

10207 # 예예!! 그래서 그때 선달에 우리 마마랑 오다나йка데 사월에 잔체르 하다나이 꼬호즈(КОЖОЗ)서 우리 마마르 노보지리라는데서 두 칸들이 집우 줏댔어. 그래서 집우 줘서 그 집에서 사~아 받았댔어 내. 그래구 이쪽에 삼촌네에서 아이 받구.{예예! 그래서 그 때 선달에 우리 어머니랑 오다 보니 사월에 잔치를 하다 보니 콜호스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노보지리라는 데서 두 칸들이 집을 주었어. 그래서 집을 주어서 그 집에서 상을 받았었어 나는. 그리고 이쪽에 삼촌네에서 안 받고.}

10207 @ 그렇지.{그렇지.}

10207 # 어, 기래구 노보지리서 내 시집우. 기래구 또 시형네두 노보지리에 살았댔어. 기래 내 시형네 집우르 시집우 왔댔어. 시형네 집우루. 우리 시애끼랑 싹 시형네 같이 잊었댔어. 야~ 같이 잊었댔어. 기래 그 시형네 집우르 또 시집우 그렇기 와서. 시형네는 기래두 조금 일없이 살아서 어: 참쌀르 떡하구 증편두 하구 그렇기 시형네는 어: 수율이라는 거는 어: 이렇게 고아서 수율이 잇구.{응, 그리고 노보지리에서 내 시집을. 그리고 또 시형네도 노보지리에서 살았어. 그래 내가 시형네 집으로 시집을 왔댔어. 시형네 집으로. 우리 시동생이랑 싹 시형네 같이 있었어. 응 같이 있었어. 그래 그 시형네 집으로 또 시집을 그렇게 와서. 시형네는 그래도 조금 괜찮게 살아서 어 참쌀로 떡하고 증편도 하고 그렇게 시형네는 어 술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고아서 술이 있고.}

10207 @ 직접 고아서.{직접 고아서.}

10207 # 기래구 우리네는 시 저기 시형네 수율으 주다나이 기래 수율이라는 거 우리 재빌르 아이 하구 그 시형네 수율우 몇 켤개간 줘서 기래 수율이 잊었지. 그 토지 데지. 그 토지르 고아서 기래 토질르 고아서 사~에서 그래 쓰지. 아붓님께다두 토지르 고아서 그거 수율으 이래 붓구서 어 절하구. 이 이룩기 기랬지.{그리고 우리네는 시 저기 시형네 술을 주다 보니 그래 술이라는 거 우리가 손수 아니 하고 그 시형네 술을 몇 병을 주어서 그래 술이 있었지. 그게 토주(土酒)지. 그 토주를 고아서, 그래 토주로 고아서 상에서 그래 쓰지. 아번님께다두 토주를 고아서 그거 술을 붓고 어 절하고. 이 이렇게 그랬지.}

10207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07 # 예예! 그전에사 이런 시방 같은 수율이 어디메 잇소?{예예! 그전에야 이런 지금 같은 술이 어디 잇소?}

10207 @ 으음. 그렇습지.{으음. 그렇지요.}

10207 # 그렇지. 에이그! 그룽기.{그렇지. 어이구! 그렇게.}

10207 @ 토질르 했지, 그때는.{토주로 했지, 그때는.}

10207 # 토질르 싹 기랬지.{토주로 싹 그랬지.}

10207 @ 그러면 그때 아매 그 아매 집에서 마마 계신 데서 하룻밤우 주무시구 떠나서 시형 집으로 가서.{그러면 그 때 할머니 그 할머니 집에서 어머니 계신 데서 하룻밤을 주무시

고 떠나서 시형 집으로 가서.}

10207 # 아이 그날르 잔체르 하구 그날르 인차 왔어.{아니 그 날로 잔치를 하고 그 날로 이내 왔어.}

10207 @ 인차 왔슴둥?{이내 왔습니까?}

10207 # 야~ 인차 왔어. 밤우 아이 자구.{응 이내 왔어. 밤을 안 자고.}

10207 @ 그러면, 아아! 그러면 시형네 집에서.{그러면 아! 그러면 시형네 집에서.}

10207 # 가깝았댜소.{어머니가 사는 집과 가까웠어.}

10207 @ 아아!{아!}

10207 # 우리 마마네 집, 어마이네 집가 어 우리 시형네 집이 가깝았댜어.{우리 어머니 집, 어머니 집과 어 우리 시형네 집이 가까웠어.}

10207 @ 가깝았구나!{가까웠구나!}

10207 # 야~ 가깝았어. 그래 그날르 이룽기 왓지.{응 가까웠어. 그래서 그 날로 이렇게 왓지.}

10207 @ 그러문 시형네 집이 가서 그 계시다가 삼일 삼일으 했슴둥?{그러면 시형네 집에 가서 그 계시다가 삼일, 삼일 행사를 했습니까?}

10207 # 샘일이 없소. 무스 가지구 샘일하겠어. 샘일 없지. 아! 무스 가지구 예단 놓겠어. 예단 두 없지. 이불두 우리 마마 개두 어 이불천은 어 잇었댜어 나~. 고런거 이불으 기래 한 나 하구 자리르 하구. 기래 가지구서리 기래구 왓지.{삼일이 없소. 무엇을 가지고 삼일을 하겠어. 삼일이 없지. 아! 무엇을 가지고 예단을 놓겠어. 예단도 없지. 이불도 우리 어머니 그래도 어 이불천은 어 있었어 응. 고런 거 이불을 그래 하나 하고 요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왓지.}

10207 @ 음.{음.}

10207 # 베개두 거저 한나 가지구. 개 그 베개애다느 야~ 어: 베 잇재이오, 베. 베 돌피섞인 베르 이룽기 아매 그 쓰레기 꼬스레 없게서리 찌어서 대수. 바이다 찌어서. 그래 그 베개: 다 열어서 기래 두 개르 해아서 주옵데. (웃음) 그래 그런 베개르 가지구 기래구서리 시집우 왓댜어. 그렇게 구차하게 스집우 왓소.{베개도 그저 하나 가지고. 그래 그 베개애다는 응 어 벼가 있잖소, 벼. 벼 돌피가 섞인 벼를 이렇게 할머니가 그 쓰레기로 나오는 까 꼬라기 없게끔 찧어서 대충. 방아에다 찧어서. 그래 그 베개에다 넣어서 그래 두 개를 해서 주데. (웃음) 그래 그런 베개를 가지고 그래고서 시집을 왓어. 그렇게 구차하게 시집을 왓소.}

10207 @ 그뎐 베개르 어티기 만들었으까요?{그 때에는 베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10207 # 베개르 야~.{베개를 응.}

10207 @ 응, 거기다 뭘 꽃두 놓구.{응, 거기다 뭘 꽃도 놓고.}

10207 # 아이 그런 게 없어. 이거 이것처리. 요것처리 베개르 하는데, 이 베개르 야~ 어 요기 다가서리 이래 꽃으 틀었습데.{아니 그런 게 없어. 이거 이것처럼. 요것처럼 벼개를 하는데, 이 베개를 응 어 요기다가서 이렇게 꽃을 놓았데.}

10207 @ 그렇지.{그렇지.}

10207 # 야~ 그 꽃으 틀어서 이룽기 베개르 해아서. 기래서 어 흰 형겅을르 이 잇으 하구.{응 그 꽃을 넣어서 이렇게 베개를 해서. 그래서 어 흰 천으로 이 잇을 하고.}

10207 @ 그렇지. 잇으 하구.{그렇지. 잇을 하고.}

10207 # 아, 그렇기 베개르 했댜어. 개 두 개르 해서. 기래 이불 한나에 베개 한나에 두 개애

기래 가주구서리 시집우 왔댔어.{응, 그렇게 베개를 했어. 그래 두 개를 해서. 그래 이불 하나에 베개 하나에 두 개 그리해 가지고서 시집을 왔어.}

10207 @ 아아! 그래셨구나.{아아! 그래셨구나.}

10207 # 아~.{응.}

10207 @ 예. 으음.{예. 음.}

10207 # 아~:. 기래고 그 담에느 우리 시어마이네가 같이 이티르 살구. 그담에느 딸르 살았댔어.{응:,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어머니네와 같이 이태를 살고. 그 다음에는 따로 살았었어.}

10207 @ 그래셨다구했죠.{그래셨다고 하셨죠.}

10216 # 아:. 딸르 살데 예: 우리 아바이 끼노(кино)르 놀아서 돈으 벌어서 그래서 그때 아: 한 내구. 기래 내 야~ 야:! 해마다 크 저 둘째아두 신:두해애 또 둘째 아 났어. 신 두해애 둘째아 났지. 구월에 났는데 신: 네 해에 삼월에 또 저 딸으 났어. 기래.{응. 따로 살되 예 우리 할아버지(=남편)는 영화를 상영하여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사는데, 그 때 아이가 하나고. 그래 내 응 야! 해마다 큰, 저 둘째 아이도, 1952년에 또 둘째 아이를 낳았어. 1952년에 둘째 아이를 낳았지. 9월에 낳았는데 1954년 3월에 또 저 딸을 낳았어. 그래.}

10216 @ 큰일으 하신 거지.{큰일을 하신 거지.}

10216 # 아이그!{아이고!}

10216 @ 자손을 자손을 많이 나셨으니까 큰일으 하신 거지.{자손을 자손을 많이 낳으셨으니까 큰일을 하신거지.}

10216 # 기래 내 이랬지. 아이! 우리 큰아느, 우리 시 시 시어마이 재래왔댔어. 나이 식라서(сразу) (기침) 두 번째게 나이 스라서(спазу) 가져갑데. 가져다가서 우리 시어마이 재래옴데. 두 번째 아느 내 재래우는데 나두 두 번째 아르 나두 우리마마 가챇이 잇었어. 개 우리 동상아덜이 재래우다나이 그것두 그렇기 내 그렇기 잘 아이 재래우구 또 인차 딸이 나다나이, 그 딸이 또 신, 이게 저기 신 두해애 구월에 나구, 신 세해애 또 설어서 또 신 네해애 삼월에 또 나다나이 아이 그 이 아르 또 뉘기 자래우갇어. 또 우리 마마네 또 재래우지. 기래구서리 어 신 또 신 다스해애 또 선달애 또 났어 선스나르. 야아!{그래서 내가 이랬지. 아니! 우리 큰아이는, 우리 시어머니가 키웠었어. 낳으니까 이내, (기침) 두 번째 아이를 낳으니까 이내 가져가데. 가져다가 우리 시어머니가 기르데. 두 번째 아이는 내가 기르는데, 낳아도, 두 번째 아이를 낳아도, 우리 어머니가 가까이 있었어. 그래 우리 동생 아이들이 기르다 보니 그것도 내 그렇게 잘 안 기르고 또 이내 딸이 태어나다 보니, 그 딸이 또 쉰, 이게(둘째 아들) 저기 1952년에 나고, 1953년에 또 임신해서 또 1954년 3월에 또 낳다보니 아니! 그 이 아이를 또 누가 기르겠어. 우리 어머니가 또 기르지. 그리고서 어 쉰 또 1955년 선달애 또 낳았어, 머슴아이를. 야!}

10216 @ 세번째 아드님.{셋째 아드님.}

10216 # 다스해애 너어 났댔어. 기래 내 이랬지. 야 저 두채르 시형네 사촌 시형네 아 없었댔어. 기랴 저 집우 주까? 저 아주바이네르 주자구. 기래이까데 우리 영깁이 이래오. 못 준 다구. 가르, 저 사진 어제 배우잼데? 가르 주자구 하이까데 못주갇다구 야르 못주갇다구. 저 새아가르 주라구. 그 다숫번째 네 번째 기래 나 났으이까데 새아가르 주라구. 야르 못주갇다구.{다섯 해 동안에 넷을 났어. 그래 내가 이랬지. 야 저 둘째를 시형네 사촌, 시형네가 아이가 없었어. 그래 저 집에 줄까? 저 아주버니에게 주자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

영감이 이러오. 못 준다고. 그 아이를, 저 사진을 어제 보이지 않데? 그 아이를 주지고  
하니까 못 주겠다고 이 아이를 못 주겠다고. 저 계집아이를 주라고. 그 다섯 번째, (아니)  
네 번째를 낳았으니까 계집아이를 주라고. 이 아이를 못 주겠다고.}

10216 @ 영감님이 아들 욕심이 많으셨구나!(영감님이 아들 욕심이 많으셨구나!)

10216 # 아, 기래 못주겠다지. 기래 내 우리 시혀~ 형님이 내 이랬지. 형님께! 이 이 따마라르  
가져가라고. 우리 딸 이름이 따마라우. 따마라르 가져가라고. 기래이까데 아이 아이 곱았  
어 우리 딸이. 좀 이렇게 살색이 검지. 아들덜 둘이 셋하했어. 우리 아들덜이[떨이]. 기래  
자꾸 둘째르 가지겠다지. 기래이까데 우리 영감이 애이 주짐. 기래 딸으느 신타지. 새애  
가덜 싫다구. 아 기래이까 네 번째 나이까데 제까닥 죽었단 말이야, 한주일이 데이까데.  
그거 쫓갓는 거. 어 데까닥 죽으이까데 서이 자라지. 서이 자라이 그 담에는 없었댓어.  
한번두 없시쥬구 없었댓어. 어 없시쥬구 기래 저게 서이 모로기 사다가[zadaga] 큰 게  
마흔 둘 살 먹구 죽으이까 저렇게 에 또 둘이 잇지. 기래두 이 둘채는 러시아에서 그 군  
대 군대 글으 일거서 군대서 파견쥬서 러시아르 간 게 거기서 어전의 서른 서른 세 해르  
사오. 거기서 서른 세 해르 사오. 개 그저 집우루 어 한 달에 뒤어 번씩 마이 하무 서너  
번씩 전화르 하오. 그래 어떻게 하구. 에미 죽었는가 살았는가 전화르 하오. (웃음) 개  
구 딸두 어제 저녁에 전화르 하지. 기래 하메서리 이라고. 마마! 오겠다구. 오데 저어 만  
아들이 아덜 서어 데리구 오겠다지. 그 손네덜이 서이오. 그거 서이 데리구 오겠다지. 기  
래 내 속을르 이러지. 아! 그거 데리구 와선 복잡한데 그거 데리구 와선 어찌갓는가. 내  
기래 이래지, 딸이가. 오지 말구 가슬에 빠빠 제세에 오라고. 그거 데리구 오지 말란 말  
으 하기 아이 좋더란 말이지 내게. 그거 기래무 딸이 노옴넬깨바 나~. 데리구 오지 말라  
구 그거 데리구 오기마 하무 나느 복잡해서 음 데리구 오지 말라고 하무 우리 딸이 노옴  
내지. 어 데리구오지 말라고 하기마 하무. 기래서 어 가슬에 오라고. 어 구월달에 꺼쥬(к  
онцу) 구월 달에 오라고서리. 기래이까데 에 우리 딸이 아이! 그 구월 달에두 오지 내  
시방두 오겠다구. 기래 내 그래 이랬지. 기래 어찌갓는가 오라고, 오라고. 오지 말라고 하  
무 또 노옴내깨바. 오라고. 기래 오라고.{아, 그래 못 주겠다지. 그래 내 우리 시형 형님  
에게 내가 이랬지. 형님! 이 이 따마라를 가져가라고. 우리 딸 이름이 따마라우. 따마라를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안, 안 예뻐어, 우리 딸이. 좀 이렇게 살색이 검지. 아들 둘은 살결  
이 새하했어. 우리 아들들이. 그래 자꾸 둘째를 가지겠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 영감이  
안 주지 뒤편. 그래 (그 집에서) 딸은 싫다지. 계집아이들은 싫다고. 아 그러니까 네 번째  
낳으니까 금방 죽었단 말이야, 한 주일이 되니까. 그거 줄 것을. 어 금방 죽으니까 셋이  
자라지. 셋이 자라는데 그 다음에는 아이가 없었어. 한 번도 없애지 않고 없었어. 어 없  
애지 않고 그래 저 놈들 셋이 모로기 살다가 큰놈이 마흔 두 살을 먹고 죽으니까 저렇게  
에 또 둘이 남았지. 그래도 이 둘채는 러시아에서 그 군대 군대 공부를 해서 군대에서  
파견을 해서 러시아를 간 것이 거기서 이젠 서른 세 해를 사오. 거기서 서른 세 해를 사  
오. 그래 그저 집으로 어 한 달에 두어 번씩 많이 하면 서너 번씩 전화를 하오. 그래 어  
떠한가 하고. 어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화를 하오. (웃음) 그리고 딸도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하지. 그래 하면서 이라고. 엄마! 오겠다고. 오되 제 맏아들 아이를 셋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지. 그 딸아이에게 손녀들이 셋이오. 그거 셋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지. 그래  
내 속으로 이러지. 아! 그거 데리고 와선 복잡한데 그거 데리고 와서는 어찌하갓는가 하  
고. 내 그래 이래지, 딸에게. 오지 말고 가을에 아버지 제사 때 오라고. 그거 데리고 오지

말라는 말을 하기 안 좋더라 말이지, 내게. 그거 그러면 딸이 노여워할까 봐 응. 그거 데리고 오면 나는 복잡해서 음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면 우리 딸이 노여워하지. 어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기만 하면. 그래서 어 가을에 오라고. 어 구월 달에 구월 말경에 구월 달에 오라고. 그러니까 예 우리 딸이 말하기를, 아니! 그 구월 달에도 (물론) 오구, 내 지금도 오겠다고. 그래 내가 이랬지. 그럼 어찌하겠는가 오라고, 오라고. 오지 말라고 하면 또 노여워할까 봐. 오라고 했지. 그럼 오라고.}

10218 @ 그럼 아매! 아까 그 처음 식집가셨을 때 그 시오마니하구 잠시 살았잖습둥?{그럼 할머니! 아까 처음 시집가셨을 때 그 시어머니하고 잠시 사셨잖습니까?}

10218 # 어~.{응.}

10218 @ 그때: 그 시어머니가 아매르 굉장히 곱아 하셨습둥?{그 때 그 시어머니가 할머니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까?}

10218 # 우리 시어마이 나르 곱:아했어. 기래 내 예: 스물 두 살으 먹었지 어전으, 어 큰아르 나서 스물한 살 댕지. (전화벨 소리) 스, 어찌기 자꾸 즈본이(звонить)질 하지! 가만 놔둬. 즈본이(звонить)질하다 아지? 기래 예 스물한 살에 자아르 낫는데 어전으 어 시집우들, 스물한살에 시집우 들어갔지. 들어가서 아이! 우리 할미 한어머니 잇다나이 난 이 시격간으 윙게 시격질으 내 못해밧댕어.{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사랑했어. 그래 내가 예 스물두 살을 먹었지 이젠, 어 큰아이를 낳아서 스물한 살이 되었지. (전화벨 소리) 어찌 자꾸 전화질을 하지! 가만 놔둬! '전화질하다'라는 말을 알지? 그래 예 스물한 살에 저 아이를 낳았는데 이젠 어 시댁으로 들어, 시댁으로 들어갔지. 들어가서 아이! 우리 할미 할머니가 있다 보니 난 이 밥 짓는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밥 짓는 일을 못 해 보았어.}

10218 @ 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10218 # 스물한살 먹더라두 내 시격질으 내 못해밧어. 어찌 우리 증손네는 어전 열한살이 열두살채 데는데 아 못하는 시격이 어딕어? 밥하지 아이 뜨더국두 그렇기 잘 하오.{스물한살을 먹더라두 내 밥 짓는 일을 내가 못 해 보았어. 어찌 우리 증손녀는 이제 열한 살, 열두 살째 되는데 아 못하는 끼니 음식이 어디 있어? 밥하지 아니 수제비도 그렇게 잘 하오.}

10218 @ 뜨더국으?{수제비를?}

10218 # 야~ 그렇기 잘하오. 기래 나느 이래 늙어 잇엇지. 내 시격질 아이 하오. 내 시방 야덜가 같이 잇으메 시격질 아이 하오. 기래 아, 뜨덕국으 해서, 아: 아매! 정습 잠수라구. 아무시기 잇냐? 아 뜨더국으 했다구. 아 기램 조금 먹겠다구 기래. 기래 내 나가서 먹집. 개 시격질으. 아 나느 스무 한 살이 댕는데 아 시격질으 못해 우리 어마이 그양 시격질으 했지. 시집가서두 시격질 아이 하구. 나느 거저 우리 어마이 아랑 우리 어마이 싹 거뒸댕어. 그래 우리 둘째는 스물두살에 낫댕어. 우리 두 번째 아들은. 기래 그 스물두 살에 낫어두 그저 자아 나서 우 우리어마이 에따(это) 딸루 우리 시형네 집우르 가구 내 스물 두 살에느 우리 둘이 달르 살았댕어. 야~. 그때느 우리 꼬호즈(КОЛХОЗ)서 집우 쫓댕어. 집우 싸구 팔구 그런게 없엇댕어. 꼬호즈(КОЛХОЗ)서 집이 잇으무 그집이서 살구 그렇기 그랫댕어. 그전에는 그랫댕어. 싸구 팔구 없엇댕어 그때느. 기게 오십 일년 이연 때는 그 그렇게 살았댕어, 우리. 시바~으느 집이 값이 잇소. 싸구 팔구 이래구. 그전에는 그랫댕어.{아 그렇게 잘 하오. 그래 나느 이렇게 누워 잇엇지. 내 끼니 음식은 안 하오. 내 시방 이 아이들과 같이 잇으면서 끼니밥은 안 하오. 아 수제비를 해서, 아 할머니! 점

심 잡수시라고. 아 무엇이 있나? 아 수제비를 했다고. 아 그러면 조금 먹겠다고 그래. 그래 내가 나가서 먹지 뭐. 그래 끼니밥 하는 일을 하지. 아 나는 스물한 살이 되었는데 아 끼니밥 하는 일을 못해 우리 어머니 그냥 끼니밥을 했지. 시집가서도 끼니밥을 안 하고. 나는 그저,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 우리 어머니가 짝 거두었지. 그래 우리 둘째는 스물두 살에 낳았어. 우리 둘째 아들은. 그래 스물두 살에 낳았어도 그저 저 아이를 낳아서 우리 어머니가 음 따로 우리 시형네 집으로 가고 내 스물두 살에는 우리 둘이 따로 살았었어. 응. 그때는 우리 콜호스에서 집을 주었어.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어. 콜호스에서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살고 그렇게 그랬어. 그전에는 그랬었어.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없었어, 그때는. 그게 1951년, 1952년 그 때는 그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시방은 집이 값이 있소. 사고 팔고 이리고. 그전에는 그랬어.}

10218 @ 그랬지. 그럼 아매 별루 시집살이 안 하셨네요!{그랬지. 그럼 할머니는 별로 시집살이를 안 하셨네요!}

10218 # 아~이!{아니!}

10218 @ 시어마이가 곱아하시구 그랬으니까.{시어미가 사랑하시고 그랬으니까.}

10220 # 어, 그래. 그담에느 우리 아들이 어: 서방가구 우리 아들은 그저 서바아, 딸은 시집가구 기래실 적에 어 셋째아들가 같이 있다가 어 어마이 모:지리 펜차이까데 에 그때 일혼아웁이 땃땃어. 일혼아웁에 어 우리 그 셋째메느리 어 일하메 우리 어마이르 못 거두겟다구. 기래이까데 어마이 만아들 집으, 만아들두 우리 절에 잇엇땃어. 그때는 우리 이쪽으르 왓땃소. 어: 다른 꼬호즈(колхоз)르 또 왓땃어. 노보이(Новый)지리는 아이잇구 다른 꼴호즈(колхоз)르 왓땃어. 기래 와시 적에[와시적에] 우리어마이 우리집우르 오겟다지. 기래 내 우리 어마이르 열해르 모셨어.{어 그래. 그 다음에는 우리 아들이 어 장가가고 우리 아들은 그저 장가, 딸은 시집가고 그랬을 적에 어 셋째 아들과 같이 있다가 어 어머니가 몹시 편찮으시니까 에 그때 일혼아웁이 되었어. 일혼아웁에 어 우리 그 셋째메느리 어 일하며 우리 어머니를 못 돌보겟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만아들 집을, 만아들도 우리 곁에 있었어. 그때는 우리 이쪽으로 왔었어. 어 다른 콜호스를 또 왔었어. 경작질을 아니하고 다른 콜호스로 왔었어. 그래 왔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겟다고 하지. 그래 내 우리 어머니를 10년을 모셨어.}

10220 @ 열해르?{10년을?}

10220 # 열해르 모셨어.{10년을 모셨어.}

10220 @ 오래 모셨습꾸마.{오래 모셨습니다.}

10220 # 야~ 어 야든 아웁에 상세났어. 야든 아웁에 상세났는데 일혼아웁에 와서 어 야든아웁이 대꺼지 잇는데 한 해르, 한 해르 우리 시형네 집우르 갓땃어. 내 그 때 마마네 집우르 갓지. 개 이래지. 나 어전으 죽을 대 땃는데 내 만아들 집우르 가 죽어야 텐다구. 그래메 서리 만아들 집우르 갔어. 고때 집이 가잡앗땃어 바로. 집이 가잡앗어. 기래 거기 가서 한 해르 잇다가 상세났어. 한 해두 조끔 채 못 잇엇을 게야. 그렇기 잇다가서리 가서 상세났어. 거기 가 상세났어. 여든 아웁에 상세났어.{응 어 89세에 돌아가셨어. 89세에 돌아가셨는데 79세 되던 해에 와서 어 89세가 될 때까지 잇는데 한 해를, 한 해를 우리 시형네 집으로 갓었어. 내 그 때 어머니 집으로 갓지. 그래 이러지. 내가 이젠 죽을 때가 되었는데 내가 만아들 집으로 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만아들 집으로 갔어. 고 때 집이 가 까웠어 바로. 집이 가까웠었어. 그래 거기 가서 한 해를 잇다가 돌아가셨어. 한 해도 조

끔 채 못 있었을 거야. 그렇게 있다가 (만아들 집으로) 가서 돌아가셨어. 거기 가서 돌아가셨어. 여든아홉에 돌아가셨어.}

10220 @ 아이구!{아이고!}

10220 # 야든아홉에 상세났어.{여든아홉에 돌아가셨어.}

10220 @ 장수하였네. 수하셨네 예.{장수하셨네. 수하셨네 예.}

10220 # 그렇게 상세났어.{그렇게 돌아가셨어.}

10215 @ 그러면 아메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첫, 예.{그러면 할머니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첫, 예.}

10215 # 첫생진으?{첫들을?}

10215 @ 첫생진으 어떻게 했는지 옛날하구 지금하구 다아 한번 좀 얘기해 주옵소. 어티기 했는지.{첫들을 어떻게 했는지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 한 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10215 # 아이 첫생진은 우리 아들이, 만아들이 첫생진은 우리 시에미 채렛댓어. 우리 시어마이. 채리는데 어 잘 채렛댓어. 모지리 잘 채렛댓어. 수울으 꿏구 찰떡 하구. 재빌르 찰떡 하구 재빌르 수울으 꿏구 어:: 증편하구 싹. 가줄하구 기래구 어 해앰이랑 싸악 갖추구. 기래구 고기느 싸다가 자에서 싸다가서리 기래, 고기느. 닭으느 재빌르 재래우구. 기래서 갖췄댓어. 기래. (전화벨 소리).{아이 첫들은, 우리 아들이, 만아들 첫들은 우리 시어미가 차렸어. 우리 시어머니가. 차리는데 어 잘 차렸었어. 아주 잘 차렸었어. 술을 고고 찰떡을 하고. 손수 찰떡을 하고 손수 술을 고고 어 증편을 하고 싹. 과줄하고 그리고 어 반찬이랑 싹 갖추고. 그리고 고기는 사다가 장에서 사다가서 그래, 고기느. 닭은 손수 기르고. 그리해서 갖추었어. 그래. (전화벨 소리).}

# (웃음).{웃음.}

@ 거기에, 거기에 그 얘기두 나옵꾸마. 그 이 농새르 하다가 예 내 아바이 아바 아버지한테 내 따시 따시켄트에 가서 공부르 더 공부르 하겠습꾸마. 그 끼노(кино), 그거 하겠다구 해서 그 얘기가 요만큼 나옵꾸마. 요만큼 나옵꾸마 예.{거기에, 거기에 그 예기도 나옵니다. 그 이 농사를 짓다가 예 내 할아버지 아버 아버지한테 내 타슈켄트에 가서 공부를 더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 영화, 그거 하겠다고 해서 그 애디가 요만큼 나옵니다. 요만큼 나옵니다. 예.}

# 야아! 우리 영감으느 그 글으 이르지 못해 데게 기랫댓어. 기랜게 그렇게 어시덜 구차하다나 이까데 글으 모 일것지.{야! 우리 영감은 그 공부를 못해 되게 그랬었어. 그런데 그렇게 부모들이 구차하게 살다 보니까 공부를 못 했지.}

10215 @ 그럼 아까 그 아이들 그 돌 얘기하다가 예 전화 받으러 가셨죠? 예. 그러면 아이들이 돌 상에 그 이 예: 연필이.{그럼 아까 그 아이들 그 돌 이야기를 하다가 예 전화를 받으러 가셨지요? 예. 그러면 아이들 이 돌상에 그 이 예 연필.}

10215 # 연, 연필으 놓지.{연필을 놓지.}

10215 @ 음.{음.}

10215 # 그담에 책으 놓지. 책으 놓소. (기침) 기래구 떡으 세 그릇으 놓소. 찰떡으 세 그릇으 이래 놓구 그담에 어 열코~오 한 그릇으 놓습데.{그 다음에 책을 놓지. 책을 놓소.}

10215 @ 아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10215 # 아~ 열코~오, 여기선 열코~오 한 그릇으 놓구. 그담에 에따(это) 책으 놓구. 어 연필으 놓구 가새르 놓구 실으 놓구.{응 강낭콩을, 여기선 강낭콩을 한 그릇을 놓고. 그 다음



에 음 책을 놓고. 어 연필을 놓고 가위를 놓고 실을 놓고.}

10215 @ 아아!{아!}

10215 # 아~ 실으 놓습데. 실으 오 그거 지기만 하무 오래:: 산다지. 아이구! 우리 만아들으느  
실으 지구 연필으 지구 그래두 오래 못 살았댔어. 그렇게 났어.{응 실을 놓데. 실을 응  
그것을 쥐기만 하면 오래 산다고 하지. 아이고! 우리 만아들은 실을 쥐고 연필을 쥐고 그  
래도 오래 못 살았어. 그렇게 놓았어.}

10215 @ 음, 음. 그러면은 그러면 어 책하구 연필은 이제 공부르 하겠다는 거구.{음, 음. 그러  
면 그러면 어 책하고 연필은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고.}

10215 # 어어 그렇게 말하지.{어 그렇게 말하지.}

10215 @ 실은 오래 살겠다는 거구.{실은 오래 살겠다는 것이고.}

10215 @ 그럼 열콩은?{그럼 강낭콩은?}

10215 # 열코~오느 홍진으 잘한다지. 그거 지기만 하무 홍진으 잘한다지. 그렇기 말하지.{강낭  
콩은 홍역을 잘 한다지. 그거 쥐기만 하면 홍진을 잘한다지. 그렇게 말하지.}

10215 @ 아아! 그러면 아매! 가새느?{아! 그러면 할머니! 가위는?}

10215 # 가새느 바느질으 잘한다지.{가위는 바느질을 잘한다지.}

10215 @ 아아!{아!}

10215 # (웃음).{(웃음).}

10215 @ 마선질으 잘한다.{재봉질을 잘한다.}

10215 # 아아 그래.{아 그래.}

10215 @ 아아! 음 그리구 그 날은 요기 상을 뺏기구 그래구 나서는 뭘 했습둥?{야! 음 그리고  
그 날은 요기에다 상을 차리어 주고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10215 # 기래구서는 에따(это) 시격사~아 차레서 사름덜 마:이 와서 마:이 오무 그 사~에다가  
두 돈으 놓소. 아아 사~에다가두 돈으 놓소. 기래 돈으 아아 돈우 지기만 하무 잘 산다  
지.{그리고서는 음 밥상을 차려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많이 오면 그 상에다가도 돈을 놓  
소. 아이의 상에다가도 돈을 놓소. 그래 돈을 아이가 돈을 쥐기만 하면 잘 산다지.}

10215 @ 그렇지.{그렇지.}

10215 # 으음 돈으 놔서 그 잘 산다지. 기래구 어 오는 사름마다 싹 다 돈으 가지구 와.{음 돈  
을 놓아서 잘 산다지. 그리고 어 오는 사람마다 싹 다 돈을 가지고 와.}

10215 @ 그렇죠.{그렇죠.}

10215 # 개 어 우리 만아들이 생진에 그 때 돈을르 천내~이 들어와서 천내~이 들어왔지. 기래  
천내~이 들어온 거 내 그거 가지구 어 우 우레스끄라는데, 고로도(город) 우레스크라구  
잇었어. 그래 거기 가서 음 새애지르 한나 싸가지구 왔댔어. 우리 만아들이 생진에 들어  
온 돈으 가지구. 세르, 세르 새애지르 작은 새애지르 싸가지구 왔지. 그거 기래 난 자꾸  
이게 궁니 난단 말이. 아아 생진에 어따(это) 무슨 기계르 이롭게 싸나 마사 아이 지는  
거 싸야 데는데:: 이제 와서 나아 먹구 내 궁니느, 내 뉘가던지 말하이 처암 말하오. 그거  
싼게 에 세르 싼게 그게 내 맘에 아이 든단 말이오. 그 세르 싸서 재래와서 잡우이까테  
아 저 우리 만아들이 메~이 짜른가:: 또 이렇기두 내 궁니르 한단 말이지. 그 그렇소,  
내.{그래 우리 만아들 생일에 그 때 돈으로 1,000냥이 들어와서 천 냥이 들어왔지. 그래  
천 냥이 들어온 거 내 그거 가지고 어 우레스끄, 도시 우레스끄라고 있었어. 그래 거기  
사거 음 송아지를 한 마리 사 가지고 왔어. 우리 만아들 생일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소

를, 소를 송아지를 작은 송아지를 사 가지고 왔지. 그거 그래 난 자꾸 이게 생각이 난단 말ियो. 아이의 생일에 음 무슨 기계를 이렇게 사거나 안 부서지는 것을 사야 되는데. 이제 와서 나이를 먹고 하는 생각은, 나는 (이 말을) 누구하고 말하는 것이 처음이오. 그거 산 것이 예 소를 산 것이 그게 내 마음에 안 든단 말ियो. 그 소를 사서 길러서 잡으니까 아 저 우리 딸아들이 명(命)이 짧은가 또 이렇게도 내가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 그렇소, 내가.}

10215 @ 예. 그런 생각이 드옵지.{예. 그런 생각이 들지요.}

10215 # 야~. 기래구 우리 둘째 아들으느 어: 생진으 세구 어: 무스거 썻는가이 예 그렇기 또 생진 채렛지 둘째아들으느. 그래 무스거 썻는가 하이, 에따(это) 그런 거 윤성기, 윤성기 잇재오? 그 빠찌폰(пачефон) 윤성기 노는 거 그거 썻댓어. 기래 우리 시아바이 그 윤성기르 요 추마단이 같은 게 요런 게, 요런 게. 그거 들구서느 그 이발소랑 가지 머. 그거 노느라구. 그래 그전에는 이게 그런 게 켈레비조르(телевизор)나 없엇댓어. 기래 그거 그 윤성기 제일: 거저 정말 노래랑 거저 잇구 그랬지 어~. 기래 그거 가지구서리 땡기메 우리 시아바이 가주구 놀지 무슨. 어디메 가서는. 그랬댓어. 기래구 우리 딸으느 생진 아이 채렛댓어. 아이 자꾸 낳는 거 생진 채레서 어찌겠는가구. (웃음) 기래 딸이 생진 아이 채리재엿어. 기랜데.{아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은 어 생일을 쇠고 어 무엇을 샀는가 하면 예 그렇게 또 생일을 차렸지 둘째아들은. 그래 무엇을 샀는가 하면, 음 그런 거 축음기, 축음기가 있잖소? 축음기, 축음기 가지고 노는 것 그것을 샀어. 그래 우리 시아버지 그 축음기를 요 추마단 같은 게 요런 게, 요런 게. 그거 들고서는 그 이발소랑 가지 뒤. 그거 가지고 노느라고. 그래 그전에는 이게 그런 게 텔레비전이나 그런 것이 없엇어. 그래 그거 축음기가 제일 그거 정말 노래랑 그거 잇고 그랬지 응. 그래 그거 가지고 다니며 우리 시아버지 가지고 놀지 무슨. 어디에 가서는 그랬엇어. 그리고 우리 딸은 생일을 안 차렸엇어. 아니 자꾸 낳는 거 생일을 차려서 어찌겠는가 하고. (웃음) 그래 딸의 생일은 안 차려줬어. 그런데.}

10215 @ 서분하다구 하, 하겠꾸마.(서운하다고 하겠습니까.)

10215 # 아이고! 기래 그 말으 하이까데, 마마!, 날, 이거 보오!, 나 첫생진 아이 채레줬지. (웃음) 기래 크게 아이 채레줘두 사~이사 뵈게 줬지 요래. 사~이사. 그렇기 찰떡으 놓구 이래 사~이사 뵈게 줬지. 개 크게 아이, 녀덜이 아이 뵈지 한나투. 기래 마마! 기래길래 보오. 내 쏘론(всё равно), 마흔 살 생진으 여기서 채리재오, 시방. 마흔살 생진으 채리지, 시방. 시운 살 생진두 시방 채리우, 시운살 생진으.{아이고! 그래 그 말을 하니까, 어머니!, 나를 보고, 이거 보오! 나 돌 잔치를 안 차려 주었지. (웃음) 그래 크게는 안 차려 주엇어도 돌잔치상이야 차려 주엇지 요렇게. 상이야. 그렇게 찰떡을 놓고 이렇게 상이야 차려 주엇지. 그래 크게 아니 (차려 주엇지), 남들이 안 뵈지 하나도. 그래 어머니! 그래서 보오. 내 어쨌든, 마흔 살 생일 잔치를 여기서 하지 않소, 시방. 마흔 살 생일을 차리지 시방. 쉰 살 생일도 시방 차리오, 쉰 살 생일을.}

@ 그렇습둥?{그렇습니까?}

# 기래 어 이제 마마! 이거 보오! 내 에따(это) 마흔살 생진으느 어 오래비 상세나서 내 마흔살 생진으 못 채렛다구. 그 답에는 시운 살 생진 채리재이까데 예…… 무슨 일이 잇어서 신살 생진 못채렛땡던가? 아! 기래 신 다숫살 채리자이 아바이 상세났지. 기래 생진으, 마마 이제 네 해만 마마 사오. 기래 내 육십이오. 쳇! 육십이라지. 그때꺼지 살라구. 기래 내 육십

살 생진으 내 채리갯다구.{그래 어 이제 어머니! 이거 보오! 내가 음 마흔 살 생일은 어 오라비가 죽어서 내 마흔 살 생일을 못 차렸다고. 그 다음에는 쉰 살 생일을 차리자고 하니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쉰 살 생일을 못 차렸다고 하딘가? 아! 그래 쉰다섯 살 생일을 차리자 하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그래서 생일을 (못 차렸는데), 어머니 이제 네 해만 어머니 더 사오. 그럼 내가 육십이오. 쳇! (그 나이에) 육십이라지. 그때까지 살라고. 그럼 내 육십 살 생일을 내가 차리겠다고.}

@ 음. 같이 채리무 데지.{음. 같이 차리면 되지.}

# 어인직이! 기래 마마 살아야 내 육십 생진 채리갯는데 한갑 채리갯는데, 마마 상세나무 내 육십살 생진두 못 채린다구. 제 그렇기 말하지. 야야 싹 거더치워라. 그때까지 살무 내 야든 네 살까지 살무 무시기 데야? 싫다! 일찌가이 죽어야 데지. 마마! 그렇기 사오. 그렇기 사오. 이래지.{언제! 그래 어머니 살아야 내가 육십 살 생일을 차리겠는데 환갑 잔칫상을 차리겠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육십 살 생일상도 못 차린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야! 싹 집어치워라! 그때까지 살면, 내 여든 네 살까지 살면 무엇이 되냐? 싫다! 일찌감치 죽어야 되지. 어머니! 그렇게 사오. 그렇게 사오. 이러지.}

@ 음. 아매!{음. 할머니!}

# 어~.{응.}

@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아매 구십은 틀림없이 사압꾸마.{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할머니는 구십은 틀림없이 삽니다.}

# 아이구!{아이고!}

@ 어, 먼저, 아매 마마께서 팔십구세까지 야든아홉까지 사셨구 예.{어 먼저 할머니 어머니께서 89세까지 여든아홉까지 사셨고 예.}

# 내 마마는 야든한나에 상세났소, 내 마마. 내 빠빠는 어 예순 너히 상세나구. 내 할미는 일흔 일곱에 상세났어.{내 어머니는 여든하나에 돌아셨소,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어 예순넷에 돌아가시고. 내 할머니는 일흔일곱에 돌아가시고.}

@ 음. 그뻘 그렇습지.{음. 그때는 그렇지요.}

# 어~. 그때 그렇기 상세났어. 우리 시아버지는 육십에 상세났어. 예순 한나에 상세났어. 그렇기 살았소. 한갑 채리구 이듬해 인차 상세났어.{응. 그 때 그렇게 돌아가셨어. 우리 시아버지는 60에 돌아가셨어. 예순하나에 돌아가셨어. 그렇게 살았소. 환갑 차리고 이듬해에 곧 돌아가셨어.}

@ 아, 그러면 시어머니께서 야든아홉에 상세나셨지.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켜데 지금 아매 잉게 걸어댕기시는 거 보무 젊, 젊습꾸마.{아, 그러면 시어머니께서 여든아홉에 돌아가셨지.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머니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것을 보면 젊습니다.}

# (한숨) 그렇기 살겠소? 난 아이중소.{(한숨) 그렇게 살겠소? 난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안 좋소.}

@ 아니! 건강하면은. 지금은 좋은 세상이꾸마.{아니! 건강하면. 지금은 좋은 세상입니다.}

# 아이구! (쯧) 기래두 나느 아이 중소. 나느 살기 싫소. (웃음) 살기. 아이! 천국에 가무 그렇게 좋은 일인데. 좋은데. 천국에 가무 좋은데 아 여기서 무슨 고상하메 살겠소. 천국에 가무 더 좋은데. 기래 난 아 지금 천국의 가자구서리 그런 거 게우랑 댕기는데. 기랜게 어 조끔 일찍이 댕기무 좋앗겠는거 늦어 댕기다나이 야~ 좀 아 바쁘단 말이지. 그거 어따(ᄃᆞᆫ) 개두

점머서 땡갸터무. 우리 지금 게우르 땡기는 아매 어 야든, 이른 이른 이른 일곱이 그런 아매. 어저느 열일곱해르 땡긴다지. 한 번두 핵고 마다아 못 가밧다지. 그 보에노이 브레미야 (военное время)다나이 핵고 마다아 못 가밧지. 이 이 게우서 글으 배워서 어전으 글으 완으르 잘 이르오, 그 아매느. 그 아매 글으 잘 이르오. 잘 이르구 잘 쓰구, 어전으. 어전으 열일곱해르 배우다나이. 기래 게 열일곱해르 열 해무 밧써 어 십년제르 필하재이오? 하야! 그러다나이. 열일곱해르 땡기다나이 그 아매 그렇기 어전으 글두 어전으 쓰기두 하구. 제 이름우 쓸 줄으 몰라서 용::해나 고렷글으 배워서 고려 이름우 썻 줄 알앗다오. 기래구느 노시앗글이랑은 못 써밧다우. 기랜게 어전 노시앗글르 이 책이랑 보오, 열일곱해르 땡기다나이. 게우르 땡기다나이.{아이고! (쫓) 그래도 나는 안 좋소. 나는 살기 싫소. (웃음) 살기. 아니! 천국에 가면 그렇게 좋은 일인데. 좋은데. 천국에 가면 좋은데 아 여기서 무슨 고생을 하며 살겠소. 천국에 가면 더 좋은데. 그래 난 아 지금 천국을 가려고 그런 거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 어 조금 일찍이 다녔더라면 좋았겠는 것을 늦게 다니다 보니 응 좀 아 힘들단 말이지. 그거 음 그래도 젊어서 다녔더라면. 우리 지금 교회를 다니는 할머니 어 여든, 일흔 일흔 일흔 일곱이 되는 그런 할머니가 있는데 이제 열일곱 해를 다닌다고 하지. 한 번도 학교 마당을 못 가 보앗다지. 그 전쟁 시기이다 보니 학교 마당에도 못 가 보앗지. 이 이 교회서 글을 배워서 이젠 글을 완전히 잘 읽소,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 글을 잘 읽소. 잘 읽고 잘 쓰고 이제는. 이젠 열일곱 해를 배우다 보니. 그래 그 열일곱 해를 공부하다 보니, 열 해면 어 10년제 학교를 졸업하잖소? 아! 그렇다 보니. 열일곱 해를 다니다 보니 그 할머니 그렇게 이젠 글도 이젠 쓰기도 하고. 제 이름을 쓸 줄을 몰라서 용케 고렷글을 배워서 고려 이름을 쓸 줄 알앗다오. 그래고는 러시아 글이랑은 못 써 보앗다오. 그런데 이젠 러시아 글로 (된) 이 책이랑 보오, 열일곱 해를 다니다 보니. 교회를 다니다 보니.}

@ 어디르 땡기다나니?(어디를 다니다 보니?)

# 아, 나채르사드라구. 여기 오쉬 바사르(базар) 잇재이오? 거기 나채르사드라구 잇답데. 거기르 땡기우. 그 안에.{아 나채르사드라고. 여기 오쉬 시장이 있잖소? 거기 나채르사드라고 잇다데. 거기를 다니오. 그 안에.}

@ 게울?(교회를?)

# 야~.{응.}

@ 음.{음.}

10227 @ 그럼 아매 그 옛날이나 직금이나 여기 고렷사람덜이 예 상세나무 어티기 함둥? 어티게 그.{그럼 할머니,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기 고려 사람들이 예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10227 # 장사르?(장사를?)

10227 @ 예! 어티기 모셔서. 어디다 산에다 어티게 또 모심둥? 상세나무?(예! 어떻게 모셔서. 어디에다 산에다 어떻게 또 모십니까? 돌아가시면?)

10227 # 아이 우리 아바이 우리 아들이 저:기서 그런 거 화랑소서 가져왔소. 상세나이 우리 아들이 거저 죽으이 스라스(сразу) 화랑소르 데레갸지, 길에서.{아니 우리 할아버지(=남편) 우리 아들은 저기서 그런 거 영안실에서 가져왔소. 죽으니 우리 아들이 그저 죽으니 이 내 영안실로 데려갸지, 길에서.}

10227 @ 화랑소?(영안실?)

10227 # 화랑소르 데레갸땡어.{영안실로 데려갸었지.}

10227 @ 화랑소가 뭐둥?{'화랑소'가 무엇입니까?}

10227 # 어, 그 주검 딜에가는 데르.{어 주검을 들여가는 데를.}

10227 @ 아아. 아매 그러면은 아까 그: 인제 사름이 상세나무 어떻게 하느냐구 제가 여쭙봤었  
 죠? 첨, 차암부터 얘기해 주옵소 예.{아. 할머니 그러면 아까 그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  
 게 하느냐고 제가 여쭙어 보았잖습니까?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10227 # 우리네는 상세나무 어 처암 상세나기마 하무, 어 짝 벼~원에서 와서 우티르 짝 뻗게  
 놓구 짝 썬구 소독으, 소독으 짝 합:데. 냄새 애이 나게서리. 아이 냄새나오. 그저 벼~원  
 에서 와서 해 주우. 게 옷이두 벼~원에서 입헤 주우. 짝 벼~원에서 짝 옷으 입헤 주우.  
 {우리네 사람이 죽으면 어 처음에 죽기만 하면, 어 짝 병원에서 와서 옷을 짝 벗겨 놓고  
 짝 썬고 소독을, 소독을 짝 하데. 냄새가 안 나게끔. 냄새 안 나오. 그저 병원에서 와서  
 해 주오. 그래 옷도 병원에서 입혀 주오. 짝 병원에서 짝 옷을 입혀 주오.}

10227 @ 여기서 옷은 따루 팔루 아이 만듭둥?{여기서는 옷(수의)를 따로 안 만듭니까?}

10227 # 아이!{아니!}

10227 @ 상쉬우티라구.{수의라고.}

10227 # 상쉬우티르 거저 꼬시움(КОСТЮМ)우 그저 남자덜은 쫄 입히우. 기래구 아이하오. 나느  
 상쉬우티르 내 재빌르 짝 했소.{수의를 그저 정장을 그저 남자들은 쫄 입히오. 그리고 안  
 입히오. 나는 수의를 내 스스로 짝 마련했소.}

10227 @ 하섰슴두?{하셨습니까?}

10227 # 해엿소.{했소.}

10227 @ 무스걸르 했슴둥?{무엇으로 했습니까?}

10227 # 아이, 한국 한복으.{아이, 한국 한복을.}

10227 @ 배우티, 한복을르.{베옷, 한복으로.}

10227 # 한복 우티르.{한복 옷을.}

10227 @ 곱운 걸르 하섰구나.{고운 것으로 하셨구나.}

10227 # 기래해엿어. 기래구서리 에 상세나무 영저~으, 영저~이라는 거 거기두 있어? 한국에  
 두 영저~이 있어? 글으 쓰는 게 응? 그 글으 쓰우. 기래구 이래 평풍우 치구 기래구 이  
 래 눅히구.{그렇게 했어. 그리고 에 죽으면 명정(銘旌)을, 명정이라는 거 거기도 있어? 한  
 국에도 명정이 있어? 글을 쓰는 것 응? 그 글을 쓰오. 그리고 이렇게 평풍을 치고 그리  
 고 이렇게 눅히고.}

10227 @ 그 영정에다가 무스거 쓸까요?{그 명정에다가 무엇을 쓸니까?}

10227 # 아, 영저~에다가는 어 그런 거 본으 쓰구 그 담에…….{아, 명정에다가는 어 그런 거  
 본(本)을 쓰고 그 다음에…….}

10227 @ 이름 쓰구.{이름을 쓰고.}

10227 # 이름은 아이 쓴답데. 아이 쓰구. 그렇게 쓰읍데.{이름은 안 쓰다데. 안 쓰고. 그렇게 쓰  
 데.}

10227 @ 예 김씨무 안동김씨지구 이롭게. 예, 예. 아 그렇게 하구서는 인제 산으르 어티기 모  
 시구 감둥?{예 김씨면 '안동김씨지구(安東金氏之柩)' 이롭게. 예, 예. 아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산으로 어떻게 모시고 갑니까?}

10227 # 아 산으르 갈 적에는 또 국, 에따(это) 국가서 그런 모시는 마шина(машина) 있어. 그  
 마шина(машина)다 모시지.{아 산으로 갈 적에는 또 국, 음 국가에서 그런 모시는 자동차

가 있어. 그 자동차에다 모시지.}

10227 @ 무슨 마시나(машина)라구 함등?{무슨 자동차라고 합니까?}

10227 # 그거는 까따팔까(катафалк)라 하오. 그 톨리꾸(только) 사름우 어 송장만 싹구 땡기는 게.{그것은 '영구차'라 하오. 그건 오직 사람을, 어 송장만 싹고 다니는 것.}

10227 @ 그렇지! 마우재말르.{그렇지! 러시아 말로.}

10227 # 어, 까따팔까(катафалк)라 하오.{어, 까따팔까(영구차)라 하오.}

10227 @ 까따팔까(катафалк)라구.{까따팔까(영구차)라고.}

10227 # 아아. 까따팔까(катафалк)라 하구.{응. 까따팔까(영구차)라 하고.}

10227 @ 우리 고려말은 없슴등?{우리 고려말로 부르는 말이 없습니까?}

10227 # 나느 고려말으 모르겠어.{나는 고려말을 모르겠어.}

10227 @ 상…….{상…….}

10227 # 거 고려느, 우리네 저 따시겐트느 상디라구 하오.{거 고려는, 우리네 저 타슈켄트에서는 상여라고 하오.}

10227 @ 그렇지. 상뒤라구 하지.{그렇지 상여를 '상뒤'라고 하지.}

10227 # 상디 하는 거느 들구 가오. (웃음) 어 거기선 들구 가오. 따시겐뜨서는 이리 상디르 들구 가오, 산꺼지.{상여라고 하는 것은 들고 가오. (웃음) 어 거기선 들고 가오. 타슈켄트에서는 이렇게 상여를 들고 가오, 산소까지.}

10227 @ 산꺼지.{산소까지.}

10227 # 게 여기서는 어: 이따가 산으르 가 보오. 야아! 잘했스이. 여기 산은.{그래 여기서는 어 이따가 산소를 가 보오. 야! 잘했소. 여기 산소는.}

10227 @ 여기는. 저기 한국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많이 봤으니까 여기 이.{여기는. 저기 한국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많이 보았으니까 여기 이.}

10227 # 여기꺼.{여기 것(산소).}

10227 @ 예. 찍은 거. 북망산 찍어 놓은 거 많이 봤습꾸마. 아:주 잘해놔습꾸마. 사진두 어딘 사진두 있구. 꽃도 있구. 이렇게.{예. 찍은 거. 북망산 찍어 놓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주 잘 해 놓았습니다. 사진도, 어디는 사진도 있고. 꽃도 있고. 이렇게.}

10227 # 잘 했어.{잘 했어.}

10227 @ 예. 그럼 돌아가신지 며칠 후에 산으르 모심등?{예. 그럼 돌아가신지 며칠 후에 산소로 모십니까?}

10227 # 아: 모시구 그 이튿날에 산으르 가오. 기래구 더 아이 가오.{아 모시고 그 이튿날 산소로 가오. 그리고 더 안 가오.}

10227 @ 그렇습등?{그렇습니까?}

10227 # 아, 그 이튿날 산으르 가오.{응, 그 이튿날 산소로 가오.}

10227 @ 음. 그리구 그럼 산에 언제 찾아감등?{음. 그리고 그럼 언제 찾아갑니까?}

10227 # 기래구서리는 한식에 가구 치석에 가구 더 아이 가오. 산으르 가는 날은 딱 두 번밖에. 일 년에 딱 두 번밖에 없소.{그리고서는 한식에 가고 추석에 가고 더 안 가오. 산으로 가는 날은 딱 두 번밖에 없소. 일 년에 딱 두 번밖에 없소.}

10227 @ 아아 그렇습등?{아 그렇습니까?}

10227 # 아 기래구 다른 날에는 아이 가오.{응 그리고 다른 날에는 안 가오.}

10230 @ 그럼 첫제사 때 제세 때느 무스거 함등?{그럼 첫 제사 때 제사 때는 무엇을 합니까?}

10230 # 어 첫제세는 여기서 야~ 그전에는 집에서 제세르 채렛지. 기랜게 우리네 만아들두 집에서 채렛덜어. 개 우리 정슴우 정슴 하재이오? 장 장사에 정슴은 꼭 하오. 그 사름덜이 온 사름덜의 어 싹 대접 시게 보내오. 대접 시기지. 기래 우리 만아들으느 이 집에서 싹 대접 시겿덜어. 개 우리 영감으느 그런 거 어 카페(кафе)에서.{어 첫 제사는 여기서 응 그전에는 집에서 제사를 차렸지. 그런데 우리네 만아들도 집에서 차렸었어. 그래 우리 점심을 점심 하지 않소? 장 장사(葬事)에는 꼭 점심은 꼭 하오. 그 사람들이 온 사람들을 어 싹 대접을 해서 보내오. 대접을 하지. 그래 우리 만아들은 이 집에서 싹 대접을 했어. 그래 우리 영감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런 거 어 카페에서.}

10230 @ 카페(кафе)에서.{카페에서.}

10230 # 나~ 카페(кафе)서 사름이 백에메~이 백에메~이 카페(кафе)르 가. 기래 시 시격으, 정슴으 하는데 서른 처이 도이 들었어. 도이 서른 천이 들었어. 어찌던지 장사르 파이 서른 처이 먹었어. 기래구 이사와서 우리 아바이르 소독으 싹 하구 멜리쯔(милиция) 오구 그 까따팔까(катафалк)에서 모세 가재이오? 그게 서른 처이 먹었어. 기래 구십천이 먹었어.{응. 카페에서 사름이 백 명이 백 명이 카페를 가. 그래 끼니밥을, 점심을 하는데 3만 솜이 들었어. 돈이 3만 솜이 들었어. 어찌하든지 장사 지낼 땅을 사는데 3만 솜이 들었어. 그리고 의사가 와서 우리 할아버지를 싹 소독을 하고 경찰이 오고 그 영안실에서 모셔 가지 않소? 그러는데 3만 솜이 들었어. 그래 합쳐서 9만 솜이 들었어.}

10230 @ 아이구!{아이고!}

10230 # 구십처이 먹었어. 정슴꺼지 하구 나이 구십처이 먹었어 도이. 기래이 도이 엠매. 기래 두 그 돈으 우리 아바이 싹 몰았단 말이오. 우리 아바이가. 이거 보오! 야덜 없이 야덜 없이 우리 아바이 잇으매 저 씨래기르 팔아, 자~아 팔아 이래 팔메서리 이 돈으 몰아서 재비 상세날 돈으 다아 하구. 우리 둘이서 먹구 살구 그룽기 돈으 모닷단 말이지 아~ 모닷단 말이지. 기래구 그 위에 에 올해[오래] 사월초닷셋날으 산으르 가는 날이 애이오? 그때 우리 손재, 손재 그런거 빠매질(памятник)으 어: 초르느이(чёрный) 무라마르(мрамор) 새까만 무라마르(мрамор)느 그래 한게 어 일천, 일천오백냥 먹었어. 돌랄(доллар)르. 돌랄(доллар)르 일천 오백냐~: 먹었어.{9만 솜이 들었어. 점심까지 하고 나니 9만 솜이 들었어, 돈이.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소). 그래도 그 돈을 우리 영감이 싹 모왔단 말이오.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 보오! 이 아이들 없이, 이 아이들 없이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저 시래기를 팔아, 장을 팔아 이렇게 팔면서 이 돈을 모아서 자기 장삿날 드는 돈을 다 준비하고. 우리 둘이서 먹고 살고 그렇게 돈을 모왔단 말이지 응 모왔단 말이지. 그리고 그 위에 에 올해 사월 초닷셋날은 산소를 가는 날이 아니오? 그 때 우리 손자가, 손자가 그런 거 묘표석을 검은 대리석 새까만 대리석을 한 것이 어 1,500냥 들었어. 달러로, 달러로 1,500냥 들었어.}

10230 @ 어이구! 굉장히 큰돈인데요.{어이구! 굉장히 큰돈인데요.}

10230 # 큰:: 돈이 애이구! 그렇게. 내 기래 이랬어. 야! 그:거 어찌 그렇기 나그내 그래야. 기래 집에 도이 한 글썽두 없게 어찌 살게. 야! 그거 자그마:낭게 한 오백달러르 해서 기래서 세우무 어찌 못 쓰야! 내 기래 데게 내 아이 좋아했어. 그 술한 돈 맥에서 그거 그렇게 아! 죽은 사름게다 그렇게. 기래 내 이랬지. 니 내 죽재인켓냐? 저어:기 꼴호즈(колюз) 잇다구. 그 안토노프 코호즈 거기에다가 파묻으라구. 돈두 아이들구 거기느 돈이 아이든다. 기래 거기다 파묻으라구. 나느 거저 주브르(забор) 따 밀으르 들어가무 텐다구. 빠미

찌(памятник)구 무시기구 숲다. 거저 주부르(забор) 따 밑으르 들어가무 텐다구. 기래이 까데 우리 손재 이 증손 저 손재 싸이 이래지. 아매!, 조선말르, 아매! 아매 죽은게 아오? 어티게 우리 파묻는 거. 아매 모르우. 이래짐. 기래, 글썄 내 죽은 게 어티게 알겠느냐만 해두 야! 산 것두 살아야 데지. 너:네 아바이게다 돈으 마이 열었다. (쯔). {큰 돈이 아니고 말고! 그렇게 했소. 내가 그래서 이랬어. 야! 그거 어째 그렇게 남편 상사에 그러냐. 그래 집에 돈이 한 푼도 없게, 어찌 살려고. 야! 그거 자그마하게 한 500달러를 써서 그래서 세우면 어째 못 쓰냐! 내 그래 되게 내 안 좋아했어. 그 술한 돈을 들여서 그거 그렇게 아 죽은 사람에게다 그렇게 쓰냐. 그래 내가 이랬지. 너 내가 죽지 않겠냐? 저기 콜호스 있다고. 그 안토노프 콜호스 거기다가서 파묻으라고. 돈도 안 들고 거기는 돈이 안 든다. 그래 거기다 파묻으라고. 나는 그저 무덤 울타리 안의 땅 밑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비석이고 무엇이고 싫다. 그저 땅 밑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이 증손 저 손자사위가 이러지. 할머니!, 조선말로, 할머니! 할머니 죽었는데 아오? 어떻게 우리가 파묻는 거. 할머니 모르오. 이러지 뭐. 그래, 글썄 내 죽은 것이 어떻게 알겠느냐만 해도 야! 산 것도 살아야 되지. 너네 할아버지에게다 돈을 많이 넣었다(썼다). (쯔).}

10230 @ 큰 데 했습꾸마.{큰 일 했습니다.}

10230 # 큰:. 기래 우리 또 영감은 또 벨란 성질이, 나는 좋:온 자레: 가 좋은 빠메찌(памятник)르 그룽기 집우 온저히 해 살갓다구 잃기 말한단 말이오. 아이! 죽었는데 아무데다 파묻으무 데지. 따에 들어가무 데지. 아이! 좋오무 어찌구 굿우무 어찌구 빠메찌(памятник)르 하무 어찌구. 나느 내 성질은 그렇소. 기래이 자덜이 아바이 딱 말한대르 했단 말이오. 아, 기래이 내 마음이 아이 좋더란 말이지. 아, 산 사람이 안죽은 살아야데지. 아, 죽은게다 다 돈으 거더 열구. 기래 이랜다구서 내 동미덜이 이래지. 야! 따싸 제 그렇기 말하지 마오! 어째 그렇기 말하는가구. 다아 어전으 돈으 썼는데 어째 그렇기 말하는가구. 말은 그게 공담이 아닌가구. 말하지 말라구 기래지. 기래두 어째 말이 제 재비르 나오오. 돈으 너무 마이 쓰구나이까데 말이 제 재빌르 그룽기 나간단 말이오. 동미덜가 그라구 내 말하지.{큰. 그래 우리 또 영감은 또 벨란 성질이, '나는 좋은 자리에 가 좋은 비석을 그렇게 해서 집을 온전히 짓고 살갓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오. 아니! 죽었는데 아무 데나 파묻으면 되지. 땅에 들어가면 되지. 아니! 좋으면 어떻게 굿으면 어떻게 비석을 하면 어떻게. 나는 내 성질은 그렇소. 그러니 저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딱 말한 대로 했단 말이오. 아, 그러니 내 마음이 안 좋더란 말이지. 아 산 사람이 아직한 살아야 되지. 아, 죽은 것예다가 다 돈을 거두어 넣고. 그래 이런다고서 내 동무들이 이러지. 야! 따사! 자기 그렇게 말하지 마오! 어째 그렇게 말하는가 하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다 이제는 돈을 썼는데 어째 그렇게 말하는가 하고. 말은 그게 공담(空談)이 아닌가 하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래도 어째 말이 제 스스로 나오오.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 말이 제 스스로 나간단 말이오. 동무들과 그러고 내 말하지.}

10230 @ 아매가 너무 자손들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렇지요. 산 사람들을 너무 생각하셔서 예.{할머니가 너무 자손들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렇지요. 산 사람들을 너무 생각하셔서 예.}

10230 # 아이구! 모르겠소.{아이고! 모르겠소.}

10230 @ 그래두 자식들은 자기 도리라구 생각하구 그렇기 잘 했겠지요. 아버지한테 잘 했겠지.{그래도 자식들은 자기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 했겠지요. 아버지한테 잘 했겠



지.}

10230 # 개 아덜으느 아들으느 좋다지.{그래 아이들은 아이들은 좋다고 하지.}

10230 @ 마음이 흡족하지.{마음에 흡족하지.}

10230 # 그렇기 해야 덴다지.{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10230 @ 음.{음.}

10230 # 기래문 또 나는 어 아이 좋다구 또 말하지. 죽은 데다 그룽기 돈으 열겟는가구. 기래 우리 아들이 그래지. 예:, 내가 전화르 하메서리, 마마! 아 근심하지 말라구. 살 도이 쏘론노(всё равно) 나온다구. 살 도이 나온다구. 살도이 나오무 기계 버느라무 기계 오죽하겟는가구. 아 그렇재이오? 그게 버느라무 오죽하오? 어전 나느 늙어서 버지 못한다구. 나느 그저 얻어먹는다구.{그러면 또 나는 어 안 좋다고 또 말하지. 죽은 데다 그렇게 돈을 넣어야 하겠는가 하고. 그래 우리 아들이 그러지. 예 나와 전화를 하면서, 어머니! 아 근심하지 말라고. 살아갈 돈이 어쨌든 나온다고. 살 돈이 나온다고. 살 돈이 나오면 그게 버노라면 그게 오죽하겟는가 하고. 아 그렇잖소? 그게 버노라면 오죽하오? 이젠 나는 늙어서 벌지 못한다고. 나는 그저 얻어먹는다고.}

10230 @ 그럼 아매 빠미징크(памятник) 무라모르(мрамор)에 무라모르(мрамор)르 만든 거 거기에다가 사진 열었.{그럼 할머니 비석 대리석 대리석으로 만든 거 거기다가 사진을 넣었.}

10230 # 야~ 저 사진 열었어. 어제 배우잼데? 그 사진 열었어. 그 사진 열었어.{응 저 사진 넣었어. 어제 보여 주지 않데? 그 사진을 넣었어. 그 사진 넣었어.}

10230 @ 아아. 그러면 고 밑에다 무슨거 썼슴둥?{아. 그러면 고 밑에다는 무엇을 썼습니까?}

10230 # 이름 싹 썼지. 싹 이름 썼지. 박블라지미르라구 싹 썼어.{이름을 싹 썼지. 싹 이름을 썼지. 박블라디미르라고 싹 썼어.}

10230 @ 다른 건 아이 쓰구?{다른 건 안 쓰고?}

10230 # 어째서! 그 어 로드노이(родной)들으 다아 썼소 기래. 그렇기 다아 쓰오 여기서. 기래구서리 거저 대한질에 거저 이룽기 턱 이룽기 배우. 거저 거기르 대한, 그게 질이 크오. 너르오. 그 질역 아래 턱 잇소. 조금 들어가서. 기래 이래지, 아: 조영식이. 아 내 한아부지르 가서 볼 쉬 잇다구. 볼 쉬 잇다구. (웃음) 개 질역으르 가다나무 쏘론노(всё равно) 볼 쉬 잇짐. 기래 우리 아들 사진, 아들인데 와서느 사진 싹 찍어갔어.{어째서! 그 친족들은 다 이름을 썼소 그래. 그렇게 쓰오. 그렇게 다 쓰오 여기서는. 그리고 그저 큰 길에 그저 턱 이렇게 보이오. 그저 거기를 대한, 그게 길이 크오. 너르오. 그 길 가장자리 아래에 턱 잇소. 고끔 들어가서. 그래 이러지, 아 조영식 원장이. 아 할아버지를 가서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 (웃음) 그래 길 가장자리에 가다 보면 어쨌든 볼 수가 있지 뭐. 그래 우리 아들 사진, 아들한테(아들의 산소에) 와서는 사진을 싹 찍어 갔어.}

10230 @ 그럼 아매 오래: 사시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은 그러면은 아바이 옆에 가서야 데지요 있슴둥? 거기?{그럼 할머니 오래 사시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시면 그러면 할아버지 옆에 가서야 되지요. 뭇자리가 있습니까? 거기?}

10230 # 아이구! 야덜이. 자리는 잇소. 그러나 가무 어찌구 아이 가무 어찌구. 거기느 가기만 하무 또 도이 든다구서리 가지 마르라구서리. 가 그라이까데 우리 손지 아 그래지. 아매 죽은 게 모른다구. 우리 어티기 할 거 모른다구. 죽은 다음엔. 개 아무래 거기 자리 잇소. 돈으 아이 물었소. 그거 돈으 물어야 데오. 그 자리 또 돈으 물어야 데오. 기래구서리 그

그 자리에다가서리 왕기 이런 사~아, 이래 사~아 놓구 이 앉는 상두 하구 기렸어, 자아  
덜이. 그렇기 했습데.{아이고! 이 아이들이. 자리는 있소. 그러나 가면 어떻게 안 가면 어  
떻고. 거기는 가기만 하면 또 돈이 든다고서 가지 말라고서. 산소에 가 그러니까 우리 손  
자 아이가 그러지. 할머니 죽은 사람이 모른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죽은 다  
음에는. 그래 아마 거기에 자리 있을 게오. 돈을 안 물었소. 그거 돈을 물어야 되오. 그  
자리 또 돈을 물어야 되오. 그리고서 그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런 상(床)을, 이렇게 상  
을 놓고 이 앉는 상도 하고 그랬어, 저 아이들이. 그렇게 했데.}

10230 @ 글루 가지지요 뭐 나중에.{그곳으로 가지지요 뭐 나중에.}

10230 # 아이구! 모르지 무슨. 가무 어찌구 아이가무 어찌구. 거저 나느 가서 이래 돈만 작게  
드는 데로 거저 가라구. 기래문 도, 도이 많이[마이] 든다구 자꾸 말하지.{아이고! 모르지  
뭐. 가면 어떻게 안 가면 어떻게. 그저 나느 가서 이렇게 돈만 작게 드는 데로 그저 가라  
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든다고 자꾸 말하지.}

10230 @ 음.{음.}

10223 @ 그러면 어 아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우리 이 고렷사람들이 환갑잔치는 어떻게  
함등?{그러면 어 할머니!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우리 이 고려 사람들이 환갑잔치는 어  
떻게 삽니까?}

10223 # 환갑잔치르 잘하오, 여기서. 사~아 그렇기 잘 채리우 여기서.{환갑잔치를 잘하오, 여기  
서. 상을 그렇게 잘 차리오 여기서.}

10223 @ 어터게?{어떻게?}

10223 # 우리네는 한갑우 어터게, 구십년도에 한갑우 했소. 어: 일천구백팔십년도에 어: 연에,  
아니 일천구백아흔야듭해에 야~ 우리 아바이 한갑이지. 이:, 기래 아흔야듭해에 한갑인  
데, 한갑우 아이 채렸어. 그때 내 어 어마이 마마 상세나다나이 내 마마 상세나다나이 아  
이 채리구. 기래 구십년도에, 구십년도에 한갑 채레실 적에, 그전에는 이 카페:(кафе)구  
레스토란(ресторан)이구 없엇됐어 구십년도에는. 기래 스톨로브(столовая)서 스톨로브(c  
толовая)가서 큰 스톨로브(столовая) 가서 한갑 차렷됐어.{우리네는 환갑을 어떻게 (했  
는가 하면), 1990년도에 환갑을 했소. 어 1980년도에 어 연(年)에, 아니 1998년에 응 우리  
할아버지 환갑이지. 이, 그래 1998년에 환갑인데, 환갑을 안 차렸어. 그 때 내 어 어머니  
어머니 돌아가시다 보니 내 어머니 돌아가시다 보니 안 차리고. 그래 1990년도에, 90년도  
에 환갑 차렸을 적에, 그전에는 카페고 식당이고 없엇어, 1990년도에는. 그래 식당에서  
식당에 가서 큰 식당에 가서 환갑상을 차렸어.}

10223 @ 어떻게 하셧슴등?{어떻게 하셧습니까?}

10223 # 아 거기 가서두 어 사아 이래 놓구서리 사~아 받지. 기에 동갑이 아바이 동갑이 앓구  
내 동갑이 한쪽에 앓구. 기래구 어, 우리 어 내 헤~이 내 절에 앓구. 그담에 우리 아바이  
절에 동갑이 절은 아즈바이 헤에 남제이 앓구. 기래 우리네 한갑 채릴 적에 여기선 이래  
오. 이상분네 애이갓소. 기래기만 하무 우리 시형두 그때 생존일 때 우리 시형두 우리 아  
바이 절에 앓구 동갑이 담에 시헤~이 앓구 우리 헤~이 남페이 앓구 우리 기래서. 기래  
채릴 적에 우리 시형게다 한갑사~아 받기 전에 만저 절을 함데. 어, 한국에서두 그래오?  
기에 만저 절하구 또 헤이 남페이게다두 또 헤이르 앓헤 놓구 헤이 남페이르 앓헤 놓구  
절으 하구.{아 거기 가서도 어 상을 이렇게 놓고서 상을 받지. 그래 동갑, 할아버지 동갑  
이 앓고 내 동갑이 한쪽에 앓고. 그리고 어 우리 어 내 언니가 내 곁에 앓고.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곁에 동갑이, 그 곁은 형부(兄夫), 언니의 남편이 앉고. 그렇게 우리네 환갑상을 차릴 적에 여기서는 이래오. 손윗분이 아니겠소? 그렇다면 우리 시형(시아주버니)도 그 때 생존해 계실 때여서 우리 시형도 우리 할아버지(남편) 곁에 앉고 동갑이 다음에 시형이 앉고 우리 언니 남편이 앉고 우리 그렇게 하고서. 그래 차릴 적에 우리 시형에게다, 환갑상을 받기 전에 먼저 절을 하데. 어, 한국에서도 그러오? 그래 먼저 절하고 또 언니 남편에게다도 또 언니를 앉혀 놓고 언니 남편을 앉혀 놓고 절을 하고.}

10223 @ 먼저 하구.{먼저 하고.}

10223 # 먼저 절으 하구. 그 답에 우리 앉아서 또 어 자식덜게다 절으 받구. 그렇기 그랫땀어.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앉아서 또 어 자식들에게다 절을 받고. 그렇게 그랫었어.}

10223 @ 그런데 동, 동갑이느 왜 옆에 앉힘둥?{그런데 동갑은 왜 옆에 앉습니까?}

10223 # 동갑이르 꼭 앉힘데.{동갑을 꼭 앉히데.}

10223 @ 그게 이유가 뭘까요?{그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10223 # 모르게 어찌 그런지 동갑이르. 아:, 예슬리(если) 딱 정동갑이 없재않겠소? 재치동갑이 지하동갑이두 앉힘데. 여기선 그랩데.{모르겠어 어찌 그런지, 동갑을. 아 만약 딱 맞는 동갑이 없지 않겠소? 그러면 한두 살 터울의 사람도 앉히데. 여기선 그러데.}

10223 @ 지하동갑이르.{한두 살 터울의 사람을.}

10223 # 야~ 지하동갑이두 앉힘데.{응 한두 살 터울의 사람도 앉히데.}

10223 @ 정동갑이 없으문.{나이가 똑같은 동갑이 없으면.}

10223 # 없으무. 그렇기두 하압데 여기서는.{없으면 그렇게도 하데, 여기서는.}

10223 @ 예.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옆에다 앉힐까?{예. 그러니까, 왜 그렇까 왜 옆에다 앉힐까?}

10223 # 사~아 받을 적에. 기래구서리 그 사아 디릴 적에, 그전에는 사~아 디렛지. 기랜게 시바~으느 사~아 요렇기 맨들어서 야~ 고래서는 이제 드리오. 기래 드리.{상을 받을 적에. 그리하고서 그 상을 드릴 적에, 그전에는 상을 드렸지. 그런데 시방은 상을 요렇게 만들어서 응 고래서는 이제 드리오. 그렇게 해서 드리지.}

10223 @ 거기다가서 무스거 올려놓슴둥?{거기다가서 무엇을 올려놓습니까?}

10223 # 거기다가서리 수울우 산판씨 농구 수울으 농구. 비노(виноград)르 농구. 닭으[targi] 농구. 개실으 농구 기래서 이래 광재다, 광재 잇재이오? 거기다 답아서 기래서. 동갑이에랑 어 어따(это) 시혀~이게랑, 어, 혀~어 남퍼~이게랑 그 답에 어 사돈네게랑.{거기다가서 술을 산반씩 놓고 술을 놓고. 포도를 놓고. 닭을 놓고. 과일을 놓고 그래서 이렇게 광주리가 있잖소? 거기다 답아서 그래서. 동갑과 시형에게랑, 어 언니의 남편에게랑 그 다음에 어 사돈네게랑.}

10223 @ 아, 사돈!{아 사돈!}

10223 # 사돈네두 이릉기 사~아 농구서 사돈네 앓헤 농구 사돈네게랑 그렇기 그 사~아 다아 디레. 기랩데. 우리느 그랫땀어.{사돈네도 이렇게 상을 놓고서 사돈네 앉혀 놓고 사돈네게랑 그렇게 그 상을 다 드러.}

10223 @ 예.{예.}

10223 # 시방두 다른 데루 한갑집에 가 보무 그렇기 기랩데. 기래구 한갑년에 한갑 못 채리기 만 하무 칠십주연 또 채릴 적에 한갑사~마 또 그렇기 채린 사름덜두[덜투] 잇습데.{시방

도 다른 데 환갑집으로 가 보면 그렇게 그러데. 그리고 환갑년에 환갑을 못 차리기만 하면 칠순(七旬)을 또 차릴 적에 환갑상만큼 또 그렇게 차린 사람들도 있데.}

10223 @ 음. 그러면은 그럼 처음서부터 다시 제가 여쭙보면은, 예: 인제 환갑을 맞는 분이 앉아 계시구 나그네 안까니 앉구 고담에 재치동갑이 앉구 고담에 뭐 시형이나 아즈바니 뭐 이렇게 앉구 이쪽에 사돈네 앉구.{음. 그러면은 그럼 처음부터 다시 제가 여쭙어 보면, 예 이제 환갑을 맞는 분이 앉아 계시고 남편과 아내가 앉고 고 다음에 한두 살 터울의 동갑이 앉고 고 다음에 뭐 시형이나 형부가 뭐 이렇게 앉고 이쪽에 사돈네가 앉고.}

10223 # 저:짜에 딸루 채리우 또 사~아. 이 사~에다 아이 기래구 딸루 저쪽으로 채리우.{저쪽에 따로 차리오 또 상을. 이 상에다 안 그러고 따로 저쪽으로 차리오.}

10223 @ 이제 광재애다 이렇게.{이제 광주리에다 이렇게.}

10223 # 그렇기 썩 앞에다 주루루 놓소. 이 앞에다. 이렇기 썩 광재애다 담아서 그거 곱게 그렇게 해서 고거 썩 그래서 머거리 그렇기 놓지. 기램 그거 어따(это) 빠다록(подарок) 주지 무. 그렇기 기래우. 여기서. 이따가 누기네 환갑 채릴 적에나 그릴 적에 점 보오. 기래재두 양춘 선생님이 그래재애두 이래지. 한번 잔채나 그 환갑이나 가빻으무. 아이 이따가 환갑이랑, 기래 우리 그 멘목안 동미 기래집. 야아 이번 우리 잔채에 모세갓갓는 걸 기래지.{그렇게 썩 앞에다 주욱 놓소. 이 앞에다. 이렇게 썩 광주리에다 담아서 그거 곱게 그렇게 해서 고거 썩 그래서 먹을거리를 그렇게 놓지. 그럼 그거 음 선물을 주지 뭐. 그렇게 그러오. 여기서. 이따가 누구네 환갑을 차릴 적에나 그릴 적에 좀 가서 보오. 그렇잖아도 양춘 선생님이, 그렇잖아도 이러지. 한 번 잔치나 그 환갑이나 가봤으면 하고. 아니 이따가 환갑이랑, 그래 우리 그 멘목이 있는 동무가 그러지 뭐. 야아 이번 우리 잔치에 모셔갈 것을 하고 그러지.}

10223 @ 그래 그렇기 해에서 그렇기 한 다음에 예 인제 자손덜이 와서 한내, 한내.{그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예 이제 자손들이 와서 하나, 하나.}

10223 # 썩 절하지.{썩 절하지.}

10223 @ 썩 절하쥬.{썩 절하지.}

10223 # 어, 절하지.{응, 절하지.}

10223 @ 뭇 번 함등?{뭇 번 합니까?}

10223 # 한 번으. 딱 한 번씩. 썩 한 번씩 하지. 그래 그 어 저 축하[추카]르 하오. 어터게 오래 앉으라나 어티기 하나 축하[추카]르 하오, 그 자석덜이.{한 번을. 딱 한 번씩. 썩 한 번씩 하지. 그래 그 어 저 축하를 하오. 어떻게 오래 사시라거나 어떻게 하든지 축하를 하오, 그 자식들이.}

10223 @ 아아! 자석덜이.{아! 자식들이.}

10223 # 축하르 하지.{축하를 하지.}

10223 @ 예. 절으 하구.{예. 절을 하고.}

10223 # 수울으 붓구 그담에 축하[추카]르 하구 술으 붓구 그담에 절으 하지.{술을 붓고 그 다음에 축하를 하고 술을 붓고 그 다음에 절을 하지.}

10223 @ 아아! 마지막에 절으 하는구나.{아! 마지막에 절을 하는구나.}

10223 # 그래.{그래.}

10223 @ 아아! 그러니까 예 그 ‘아버지 예 어마니 마마 빠빠 오래: 오래 앉으시오’ 이렇게 축하르 하구, 예. 그러 그렇기 순서대르 하겠지요, 맏아들이부터.{아! 그러니까 예 그 ‘아버

지 에 어머니 오래 오래 사십시오' 하고 이렇게 축하를 하고, 예. 그렇게 순서대로 하겠지요, 맏아들부터.}

10223 # 구래. 맏아들부터 둘째아들부터 그담에 딸이꺼지 그래하지. 기래구 또 어 조캐넬 또 기래 절으. 조캐넬두 이래 축하[추카]르 하매 절으 하오.{그래. 맏아들부터 둘째아들부터 그 다음에 딸까지 그렇게 하지. 그리고 또 어 조카들이 또 그렇게 절을 하지. 조카들도 이렇게 축하를 하며 절을 하오.}

10223 @ 그럼 그 아들먼저 하구 고담에 뒤에 딸이 합니까? 아니면은 그 태어난 순서대르 합니까?{그럼 그 아들이 먼저 하고 고담에 뒤에 딸이 합니까? 아니면 그 태어난 순서대로 합니까?}

10223 # 야~ 기래 그 담에느 고 조카덜이. 아이 저 손군덜이 또 절하지. 아 딸이 다음에느 손군덜이. 아 들을 적에 절에 가족 데리구 들어오오. 그 자숙덜이 재비 자숙덜 데리구 들어와서 그것덜두 다아 절하구 노래르 부르구 이래오.{응 그래 그 다음에는 고 조카들이. 아 니 저 손자들이 또 절하지. 아 딸이 다음에는 손자들이. 아 들어오는 곁에 가족을 데리고 들어오오. 그 자식들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것들도 다 절하고 노래를 부르 고 이래오.}

10223 @ 아아! 노래까지.{아! 노래까지.}

10223 # 야~ 노래꺼지 부루구 이래오.{응 노래까지 부르고 이래오.}

10223 @ 예. 그러면 그게 끝나면은 고 담엔 뭘 합니까?{예. 그러면 그게 끝나면 고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10223 # 그 담에느 어 춤두 추구 노래두 하구 이래오. 응. 기래 오래: 오래 이래 놀지.{그 다음에는 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래오. 응. 그래 오래 오래 이렇게 놀지.}

10223 @ 뭇시꺼지 놈둥? 보통.{뭇 시까지 놈니까? 보통.}

10223 # 오래 노오.{오래 노오.}

10223 @ 뭇 시에 시작해서 뭇 시에 노옴둥?{뭇 시에 시작해서 뭇 시에 놈니까?}

10223 # 어따(ᄒᆞᆫ) 그전에 우리네느 어 열두시에 시책이르 하기만 하무 그게 또 동샘이다나이 까데 네시에 글이 났어. 열두시 무시기 그저 너덜 시 뭇 시 그렇소.{음 그전에 우리네는 어 열두 시에 시작을 하기만 하면 그게 또 겨울이다 보니까 네 시에 끝이 났어. 열두 시에 시작하면 뭇 그저 너덜 시 다섯 시 그렇소.}

10223 @ 오래 하네요.{오래 하네요.}

10223 # 그래. 그렇소. 시방으느 더어 오래 노오. 시방으느 그런 구일 때무 더어 오래: 노오.{그 래. 그렇소. 시방은 더 오래 노오. 시방은 그런 큰일[大事] 때면 더 오래 노오.}

10225 @ 음. 그럼 아매는 그 환갑잔치에 가시면은 다른 사람 환갑잔치에 가시면은 본체르 얼마나 함둥?{음. 그럼 할머니는 그 환갑잔치에 가시면, 다른 사람 환갑잔치에 가시면 부조를 얼마나 합니까?}

10225 # 돈오? 돈을르 본체르 하지. 아 기래 그전에느 그저 시운 냥두 하구 거저 백냥도 하구 이랬지. 시바~으느 많이[마이] 하오. 시바으느 작게 하는 사름이 양백원 하오. 시방 작게 하는 사름이 양백원 하오. 기래구 우리 아바이 상세나서 도이 많이[마이] 들어왔댔소. (기침) 조 조꿈 집아~이나 그런 사름덜으느 돈으 천냥[천량]씨 오백냥씨. 이렇기 하오. 그룽 기 하오.{돈을? 돈으로 부조를 하지. 아 그래 그전에느 그저 쉰 냥도 하고 그저 백 냥도 하고 이랬지. 시방은 많이 하오. 시방은 작게 하는 사름이 200원 하오. 시방 작게 하는

사람이 200원 하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돈이 많이 들어왔었소. (기침) 조 조금, 집안이나 그런 사람들은 돈을 1,000냥씩 500냥씩 이렇게 하오. 그렇게 하오.}

10225 @ 오백숨.{500숨.}

10225 # 아아, 천 숨씨 이룽기. (기침) 우리 조카 아덜으느 싹 오백숨씨 그룽기.{응, 1,000숨씩 이렇게. (기침) 우리 조카들은 싹 500숨씩 그렇게.}

10225 @ 많이 하압꾸마.{많이 합니다.}

10225 # 많이[마이] 하오. 시바~으느 그래오. 나두 어디메르 부조르 하기마 하무 백냥 아이 가져가오. 양백냥씨 가져가오. 기래 이래 꼬묘르따(конверта)에 열어서.{많이 하오. 시방은 그러오. 나도 어디 부조를 하기만 하면 100냥은 안 가져가오. 200냥씩 가져가오. 그래 이래 봉투에다 넣어서.}

10225 @ 어디다 넣어서?{어디에다 넣어서?}

10225 # 꼬묘르따(конверт)에다 열소. 이래 조잇장에다 열어서. 기래 고기다 이름으 써서 기래 (기침) 기래서 가져가오.{봉투에다 넣소. 이렇게 종잇장에다 넣어서. 그래 고기다 이름을 써서 그래 (기침) 그래서 가져가오.}

10225 @ 그거느 우리 고렷사람만 그렇게 하압둥? 여기 다른 민족두 그렇기 함둥?{그것은 우리 고려 사람만 그렇게 합니까? 여기 다른 민족도 그렇게 합니까?}

10225 # 다른, 다른 민족은 나는 땡기지 앓다나이 사름덜으느, 다른 민족들으느 큰 구일하는 사름덜으느 이런 이런 꼬보르(ковёр)랑 가져오테. 이런 꼬보르(ковёр)랑 가져오테. 기래 구 이, 이 민족 사름덜으느 어 차뻔(чапан)이랑 가져오구, 우티덜이랑 가져오구 이랍데. {다른, 다른 민족은 나는 다니지 앓다 보니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큰일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런 양탄자랑 가져오테. 이런 양탄자랑 가져오테. 그리고 이, 이 민족 사람들은 어 차뻔(민속 의상)이랑 가져오고, 옷을 가져오고 이러테.}

10225 @ 차뻔{차뻔?}

10225 # 아 찻반 옷거리 우티르.{응 찻반, 옷옷 옷을.}

10225 @ 우티 이름이 차뻔임둥?{옷 이름이 '찻반'입니까?}

10225 # 야~. 그래 가져오테. 그러나 잘 보내는 사람덜이사 도이 마이 들어오겠지. 그러나 우리네느 그룽기 어디메르 부조르 많이[마이] 못하다나이 그렇기 많이[마이] 못 들어오. (기침) 그게 나가는 것마:이 들어오지. 나가는 것마이 들어오지.{응. 그렇게 가져오테. 그러나 잘 지내는 사람들이야 돈이 많이 들어오겠지. 그러나 우리네는 그렇게 어디 부조를 많이 못하고 보니 그렇게 많이 못 들어오오. (기침) 그게 나가는 것만큼 들어오지. 나가는 것만큼 들어오지.}

@ 여기 우리 고려:동포들이 끼르기즈 이쪽 사름덜하구 이룽기 잘 지냅니까?{여기 우리 고려 동포들이 키르기즈 이쪽 사름들하고 이렇게 잘 지냅니까?}

# 잘 지내는 사름덜은 잘 보내지 무.{잘 지내는 사름들은 잘 지내지 뭐.}

@ 잘 보냄둥?{잘 지냄둥?}

# 으응. 거저 우리 같은 거느 야덜이 잘 버지 못하지. 기래이 거저 우리네느 좀 바뿌지. 우리네 좀 바뿌우. 기래구 잘 버:는 사름덜으느 비지네스(бизнес) 잘 데는 사름덜으느 일없기 보내우. 이: 늑으이덜으느 이 늑으이덜으느 그저 어티기 잘 살갓소. 자숙덜 잘 살무 거기서 좀 돈으 조금 좀 기래 돕아 주무 살지. 바뿌우.{응. 그저 우리 같은 사름은 이 아이들이 잘 벌지 못하지. 그러니 그저 우리네는 좀 힘들지. 우리네 좀 힘드오. 그리고 잘 버는 사름들은 사업

이 잘 되는 사람들은 괜찮게 세월 보내오. 이 늙은이들은, 이 늙은이들은 그저 어떻게 잘 살  
겠소. 자식들이 잘 살면 거기서 좀 돈을 조금 좀 그래 도와 주면 살지. 힘드오.}

@ 그러면 아메 그 뉘기 그 식집가구 서방갈 때 그 때두 돈을 가져 가압지.{그럼 할머니 그 누  
가 그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 때두 돈을 가져 가지요?}

# 아이구! 못, 가져가재왕구.{아이고! 못, 가져가고 말고.}

@ 그 돈은 무슨 돈이라 함둥?{그 돈을 무슨 돈이라 합니까?}

# 아, 그것두 부조라 하지.{아, 그것도 부조라 하지.}

@ 부조?{부조?}

# 부조라 하지.{부조라 하지.}

@ 음. 그럼 본체는 뭐가 본체둥?{부조. 음. 그럼 본체는 뭐가 '본체'입니까?}

# 기래 그래 본체두 그제 부조나 본체나 거저 같은 말이지. 아.{그래 그래 '본체'도 그제 '부조'  
나 '본체'나 그제 같은 말이지. 응.}

@ 아아.{아.}

# 기래 그것두 그렇지. 어:: 늙으이 난 조마네, 잔체 딱 그제 가깝운 집아이나 그래무 가지 이  
내 어느 조캐딸이 시집가나 그래두 내 아이 가오. 늙으이 거기르. 아이 가오. 잔체는 난 아  
이 가오. 기래구 아아 생긴은, 아아 생긴은 가오. 잔체는 아이 가오. 기래구 한갑우느, 한갑  
우느 어 어징간한 멘목은 아이 가오. 거저 멘목이 좋:구야 가구. 아 시방으느 어째 이 근래  
느 자석덜이 이렇기 사이까데 야 칠십주이나 어 칠십오주이나 팔십주이랑 채리오. 우리 아  
바이두 어 이른 다스해 그것두 채랫댔소. 팔십주이느 어 지난해 사월 예레셋날에. 그, 그렇  
기 여기서느 채리오.{그래 그것도 그렇지. 어 늙으니까 난 좀처럼, 잔치 딱 그제 가까운 집안  
이나 그러면 가지 이 내 어느 조카딸이 시집을 가거나 그래도 내 안 가오. 늙은이가 거기를.  
안 가오. 잔치는 난 안 가오. 그리고 아이 생일은, 아이 생일은 가오. 잔치는 안 가오. 그리  
고 환갑은, 환갑은 어 어지간한 면목에는 안 가오. 그제 면목이 많이 있고야 가고. 아, 시방  
은 어째 이 근래에는 자식들이 이렇게 사니까 응 칠십 주년이나 어 칠십오 주년이나 팔십  
주년이랑 차리오. 우리 할아버지도 어 75주년 그것도 상을 차렸소. 팔십 주년은 어 지난해  
사월 열엿셋날에. 그, 그렇게 여기서느 차리오.}

10227 @ 그러면 그:: 상사 때: 누가 상세났을 때 그 때에 가지구 가는 그 돈으 무스거라구 함  
둥?{그러면 그 상사(喪事) 때 누가 죽었을 때 그 때에 가지고 가는 그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0227 # 그제 가지구 가메?{그제 가지고 가며?}

10227 @ 그 돈은 무스거라 함둥?{그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0227 # 그 돈으는, 어떤 사름으는 사~에 이렇기, 그 상세나재엿소? 그 상세나무 사~에다 갖  
추우. 우리 여기서느. 술잔으 놓구 수울으 놓구 그룽기 이 놓지. 개 그 우에다가 돈으 놓  
소. 돈으 이래 봉지다. 편지봉치처리 이래서리 여기선 거기다 놓소. 개 놓구서리 거저 절  
하지. 세 번 절하구.{그 돈은, 어떤 사람은 상에 이렇게, 그 누가 죽어잖소? 그 죽으면 상  
에다 돈을 갖추어 놓소. 우리 여기서느. 술잔을 놓고 술을 놓고 그렇게 놓지. 그래 그 위  
에다가 돈을 놓소. 돈을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서. 편지봉투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서느 기  
다 놓소. 그래 놓고서 그제 절하지. 세 번을 절하고.}

10227 @ 세 번!{세 번!}

10227 # 야~ 세 번 절하오.{응 세 번을 절하오.}

10227 @ 그때 그 돈은 그 뭐라구 함둥? 본체라구 함둥, 고렘이라구 함둥, 부조라구 함둥?(그때 그 돈은 뭐라고 합니까? ‘본체’라고 합니까, ‘고렘’이라고 합니까, ‘부조’라고 합니까?)

10227 # 부조라 하지.{부조라고 하지.}

10227 @ 가지구 가는 돈은. 아 부조라구 함둥?(가지고 가는 돈을. 아 부조라고 합니까?)

10227 # 부조라구 하지. 보죋돈으느 꼭 있어야. 이거 보오! 상세나두 부죋돈이, 잔체두 부죋돈이, 아 생진두 부죋돈이, 예: 한갑에두 부죋돈이. 싹다 그렇소.{부조라고 하지. 부죋돈은 꼭 있어야. 이거 보오! 죽어도 부죋돈, 잔치를 해도 부죋돈, 아이 생일도 부죋돈, 예 환갑에도 부죋돈. 싹다 그렇소.}

10225 @ 잔체할 때두 그렇구.{잔치를 할 적에도 그렇고.}

10225 # 야~ 잔체할 적에두 그렇기.{응 잔치할 적에도 그렇게.}

# 기래 나느 받은 게 많다나йка데. 야! 내 이 그런 거 뻔시(пенсия)르 타두 그런테르 많이[마이] 댕기우. 내 애이 빼놓구 댕기우. 내 받은 도~이 많다나이. 아이 빼놓소. 어징간한 테는 다아 댕기지. 기래 우리 노친덜이 야아! 작:작 댕게라. 기래, ‘야! 어찌갇냐. 받은게 많안게.’ 받은게 많다나이 나가는 돈두 있어야 테지. 그렇재이오? 어찌 내것만 가서 기래구 내애 애이 보내갇소.{그래 나는 받은 것이 많다 보니까. 야! 내가 이 그런 거 연금(年金)을 타도 그런 테를 많이 다니오. 내 안 빼놓고 다니오. 내 받은 돈이 많다 보니. 안 빼놓소. 어징간한 테는 다 다니지. 그래 우리 노친들이, ‘야! 작작 다녀라.’ 그래 내가 말하기를, ‘야! 어찌하갇냐. 받는 것이 많은 사람이.’ 받은 것이 많다 보니 나가는 돈도 있어야 되지. 그렇잖소? 어찌 내 것만 가서 그러고(취하고) 내 것은 안 보내갇소.}

@ 그래두 아매 이백 숨, 오백 숨, 천 숨씨 갇구 다니실라무 힘드재이오.{그래도 할머니 200숨, 500숨, 1,000숨씩 가지고 다니시려면 힘들잖소?}

# 못 가지구 댕기지.{못 가지고 다니지.}

@ 바뿌재이오?{힘들잖소?}

# 게 이번에 어찌다가 내 가깝운 동미 가깝운 동미 에따(это) 모스크바 상세낫지. 기래 가는 테르 오백숨 보냈소. 오백숨. 내 늑은이래두 오백숨 보냈소. 기래 그 사름덜이 우리 아바이 인테르 올 적에느 약 싸잡수시라메 오백숨씨 가져오구. 가져, 어저느 그래 난 오백숨 보내두 기게 작게 보냈지. 그 사람 오무 어 오백숨씨 약으 싸마시라구 하메 오백숨씨 주지. 아이, 삼백숨씨 주지. 그양: 그렇게 오무 중단 말이지. 기래 나는 이번에 상세낫다구 해서 오백숨씨 기게 작짐. 기래두 애매 보내다나йка데 기게 그 사람덜게느 큰 도이지.{그래 이번에 어찌다가 내 가까운 동무 가까운 동무 음 모스크바에서 죽었지. 그래 가는 편에 500숨을 보냈소. 500숨. 내 늑은이래도 500숨 보냈소. 그래 그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있는 데로 올 적에는 약을 사 잡수시라고 하며 500숨씩 가져오고. 가져오고 했으니, 이제는 그래 난 500숨을 보내도 그게 작게 보낸 게 되지. 그 사람 오면 어 500숨씩 약을 사서 마시라고 하며 500숨씩 주지. 아니, 300숨씩 주지. 그냥 그렇게 오면 중단 말이지. 그래 나는 이번에 죽었다고 해서 500숨 부조를 했는데 그게 작지 뭐. 그래도 할머니가 보내다 보니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지.}

@ 그렇지.{그렇지.}

# 그러, 그렇소 그저 우리네.{그러, 그렇소 그저 우리네.}

@ 그러면 아매 여기에 이 비쉬케크에 음: 고려노인협헤라는 게 있쥬?{그러면 할머니 여기에 이 비슈케크에 음 고려노인협회라는 것이 있쥬?}



# 노인다이.{노인단(老人團).}

@ 노인다이.{노인단.}

# 야~.{응.}

@ 노인다이에 그 오시는 그 아매 아바이덜으 전부 몇 분이나 텨똥?{노인단에 그 오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부 몇 분이나 됩니까?}

# 아: 어떤 적에는 우리 무궁화, 무궁화라구 노인다이 있어. 그게 무궁화 어째서 무궁화인가 하이 그전에 체목사이.{아 어떤 적에는 우리 무궁화, 무궁화라고 노인단이 있어. 그게 무궁화, 어째서 무궁화인가 하니 그전에 최 목사가.}

@ 음.{음.}

# 영겔르 목살을르 왓지. 어: 어시덜으는 어 아메리카(Америка)에 잇답데.{여기로 목사 신분으로 왔지. 어 부모들은 어 미국에 있다데.}

@ 아아!{아!}

# 기래 여기르 와서 어 몇 해간 우리가 같이 일 일하메서리 기랸땀어. 개두 우리네두 그 켄르 ㄱ(церков) 이 게후두 그 사름덜 말, 그: 목사의 애:기두 듣구. 이래매 기래. 켄데 그: 목사는 으 그 체목사이라 하는 그 사름우느 어 말이 우리랑 같으단 말이오. 이룽기 꺼드렁꺼드렁 아이하구 우리와 같이 말합데. 그런 목사이 땀땀어. 기랜게 애비 와서 말하기르 그 사름운 어디메 목사인가 하무 야~ 그 문:, 무놉스끼 무놉스끼 그런 거기오. 아미리카 큰 에따(это) 목사애 문이라는 소리 들었어? 문?{그래 여기르 와서 어 몇 해간 우리와 같이 일 일하면서 그랬었어. 그래도 우리네도 그 교회, 이 교회도 그 사람들 말, 그 목사의 이야기도 듣고. 이 러며 그래. 켄데 그 목사는 그 최목사라 하는 그 사름운 어 말이 우리랑 같단 말이오. 이 령게 말이 까다롭지 않고 우리처럼 말하데. 그런 목사였었어. 그런 사람이 아비가 와서 말하 기를 그 사름운 어디 목사인가 하면 응 그 문, 무놉스끼 무놉스끼 그런 소속이오. 미국 큰 음 목사애 문이라는 소리 들었어? 문?}

@ 음, 문선명?{음, 문선명?}

# 문선사이.{문선생.}

@1 예, 문선명.{예, 문선명.}

# 문선명이. 옳소! 문선명이란 그런 그 그으 앞을루 그 사름이 왓땀어.{문선명이. 옳소! 문선명 이란 그런 그 사름을 앞세우고 그 사름이 왔었어.}

@ 아아!{아!}

# 기래서 어 우리 처음우 노인단 열 적에 무궁화라구 저었어. 기래 한국에 꽃이 무궁화라지. {그래서 어 우리 처음에 노인단을 열 적에 무궁화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게 한국에 꽃이 무 궁화라지.}

@ 아아.{아아.}

# 그래 그 사름이 차암 우리 노인단 열었땀어. 기래 기래제주 이제 어 누가 이래오. 내 사툼택 이. 쓸데없는 말으 하지 마오. 내 쓸데없는 말은 내 무식한게[무식한게] 어디메서 그렇게 어 좋은 말으 내 에우겟소. 그 사름덜이 어 물어보무 그거 대답은 하오. 기래 아 이 끼르끼스 어떻다는 말은 하지 마오. 아, 끼르끼스 어떤지 내 어티기 아오. 내 끼르끼스 어떤 거 내 아 오? 어 나느 에따(это) 제 알지? 내 글이 없어서 그런 거 모르는 거. 그전에 우리 아바이느 이 끼르끼스 무시기 다아 알았지만 해두. 내 그거 아오? 아바이 없는 게. 내 그렇기 이제 전 화하메서 그룽기 말했땀소.{그래 그 사름이 처음 우리 노인단을 열었어. 그래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 누가 이러오. 내 사돈댁이.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오. 내가 쓸데없는 말은, 내 무식한 것이 어디서 그렇게 어 좋은 말을 되풀이하여 말하겠소. 그 사람들이 어 물어 보면 그거 대답은 하오. 그래 아 이 키르기스 어떻다는 말은 하지 마오. 아, 키르기스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아오. 내가 키르기스가 어떤지 아오? 어 나는 음 자기가 알지? 내 글이 없어서 그런 거 모르는 것을. 그전에 우리 할아버지는 키르기스에 관한 것을 무엇이든지 다 알았지만 해도. 내가 그거 아오? 할아버지 없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이제 전화하면서 그렇게 말했소.}

@ 저이들은 알구 싶지두 않습꾸마.{저희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 아이! (쫓) 나는 그저.{아니! (쫓) 나는 그저.}

@ 끼르끼즈는 알구 싶지 않습니다.{키르기스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 아이구! 그애 나느 불세에 예, 그 그 끼르끼즈에 대해서는 그거 옴판 모른다구. 기애구 그저 그분네들 와서 내가 내 어떻게 사는 거 그거 얘:기르 하라이까데 물어보무 그거 대답은 한 다구. 그런데 나느 얘기할 게 없다구. 내 이래 낫소. (웃음) 내 무스거 알아서 그런 거 어 기 거이 조선말르느 무시기든지 모르나 이 노시말르느 뿔리찌까(политика)라 하오. 개 그거 내 어티기 아오. 그런 거사 내 모르지. 우리 아바이사 그런 거 잘 아지. 그러나 나느 그런 거 대에서는 한나투 모르오.{아이고! 그래 나는 예, 키르기스에 대해서는 그거 원래 모른다 고. 그리고 그저 그분네들 와서 내가 내 어떻게 사는 거 그거 이야기를 하라니까 물어 보면 그거 대답은 한다고. 그런데 나는 얘기할 것이 없다고. 내 이렇게 말을 해 놓았소. (웃음) 내 무엇을 알아서 그런 거 어 그것을 조선말로는 무엇이랴 하는지 모르나 이 러시아 말로는 '뿔리찌까'(정치)라 하오. 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아오. 그런 것이야 내가 모르지. 우리 할아버지야 그런 거 잘 알지. 그러나 나느 그런 거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오.}

## 2. 생업 활동(농사, 고본질)

@ 원동을 강동이라고는 아니 했습니까?{원동을 강동이라고는 안 했습니까?}

# 그렇기 그전에 그랬지. 들었지. 강도~을르 돈벌라온다구. 강도~이 이 노시아파이지. 그래.{그렇게 그전에 그랬지. 들었지. 강동(江東)으로 돈을 벌러 온다고. 강동이 러시아 땅이지. 그래.}

@ 강동을르.{강동으로.}

# 기래두 우리 원동서부터 원동서 마마 이길르 들어오길래 에따(это) 그저 엠메 먹은 사름덜 이 거저 우리 영감이나 그 사름덜으느 원동에서느 글두 모 이르구 어느 촌에서 초이래두 그저 메 호씨 이룽기 살지. 이룽게 어디 나가서 공부하기는 바쁜 처지땡다구. 우리 우리 영감이 그리 말하지. 기래매서 기래지. 우리네 여기 들어오길래 썩 낮아졌다고서리 그렇기 말합데.{그래도 우리 원동에서부터 원동에서 어머니 여기로 들어오기에 음 그저 얼마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그저 우리 할아버지나 그 사람들은 원동에서는 공부도 못하고 어느 촌에서 촌이라도 그저 몇 호씩 이렇게 살지. 이렇게 어디 나가서 공부하기는 힘든 처지였었다고. 우리, 우리 영감이 그리 말하지. 그러면서 그래지. 우리네 여기 들어왔기에 썩 나아졌다고 그렇게 말하데.}

@ 그래 원동에서 여기로 와서 사는 것이 썩 낮아졌다.{그래 원동에서 여기로 와서 사는 것이 썩 나아졌다.}

# 썩 낮아졌다구. 그렇기 말합데.{썩 나아졌다고. 그렇게 말하데.}

10103 @ 음, 그러면 아매 그 여기 우리 고렷사람들이 고본질 많이 하재임둥.{음, 그러면 할머니 그 여기 우리 고려 사람들이 ‘고본질’을 많이 하잖습니까?}

10103 # 그전에.{그전에.}

10103 @ 고본질 많이 해서 돈으 많이 벌재임둥?{고본질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10103 # 그전에 고본질 했지 시바으느 고본질의 하, 한나투 여기 없소.{그전에 고본질을 했지 시방은 고본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여기 없소.}

10103 @ 그전에 그 고본질했던 거 그거를 좀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옵소.{그전에 그 고본질했던 거 그것을 좀 상세히 말해 주십시오.}

10103 # 아아! 우리 고본질한 거느 우리 고본질 바쁘게 했어. (쫓) 우리 어: 팔년도에 우리 여기르 어: 이른 아홉해에 와서 팔십년도에 농사질했어 처암. 처암 농새질해두 받으 죄꿈 가지구 죄꿈 농사질으 하다나йка데 그 해 잘 아이데서 어 다숫 천 했어. 그때느 우리 이 쏘우나 이렇재했어. 루블리 땡땡어. 전: 러시아에 루블리 땡땡어 그 때느.{아아! 우리 고본질한 거 우리 고본질 힘들게 했어. (쫓) 우리 어 8년도에 우리 여기로 어 1979년에 와서 1980년도에 농사를 지었어, 처음. 처음 농사를 지어도 받을 조금 가지고 조금 농사를 짓다 보니 그 해 잘 안 되어서 어 5,000루블을 했어. 그 때는 우리 ‘숨’(키르기스의 화폐)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 ‘루블’이었어. 전부 러시아의 ‘루블’이었어 그 때느.}

10103 @ 소비에트가 그랬지.{소비에트가 그랬지.}

10103 # 소비에트 주권(主權)이 데다나йка데 루블리 땡땡지. 기래 다숫 천이 땡땡지. 다숫 천

으 벌어서 거저 그해 동삼우 살구 그 이듬해 또 고본질의 하구 그 이듬해에 고본질해서 야든한 해 고본질해서 잘 텃댔어. 스물 다섯 천으 벌엇댔어. 스물다섯 천이 그때 큰도이 텃댔어. 기래 이 집으 샀지. 기래구서 내 따시켄트서 와서 저쪽에 거기느 줌 아이 좋은 데오. 또로이게스라구 거기 가서 열네천으 주구 싸구. 그 담에 여기와서 그 이티만에 이 집우 샀댔어. 이티 아이지. 팔십년도에, 그래 이티 옳지. 팔십연도에 어 구십 저기 일혼아 흠해에 그 집우 싸구 일혼아흠해에 그집우 싸구서리 어 팔십년도에 싸구 어: 팔, 야든 두 해에 이 집우 샀댔어. 기래 한해르 조금 더 잇었어. 거이 두해 잇엇댔어. 그 집우 팔구서 리 이 집우 돈으 단숨에 버다나йка데 이 집우 스물다섯 천으 주구 샀지.{소비에트 주권이 되다 보니 사용 화폐가 ‘루블’이 되었지. 그래 농사를 지은 것이 5,000루블이 되었지. 5,000루블을 벌어서 그저 그 해 겨울을 나고 또 고본질을 하고 그 이듬해에 고본질을 해서 81년도에 고본질을 해서 달 되었었어. 25,000루블을 벌었어. 25,000루블은 그 때 큰돈이었지. 그래 이 집을 샀지. 그래고서 내 타슈켄트에서 와서 저쪽에 거기느 줌 안 좋은 데오. 또로이게스라고 거기 가서 14,000루블을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그 이태만에 이 집을 샀어. 이태 아니지. 1980년도에, 그래 이태 옳지. 80년도에 어 90 전기 79년도에 그 집을 사고 79년도에 그 집을 사고 사고서 어 80년도에 사고 어 팔, 82년도에 이 집을 샀어. 그래 한 해를 조금 더 있었어. 거의 두 해를 있었어. 그 집을 팔고서 이 집을 돈을 단숨에 벌다 보니까 이 집을 25,000루블을 주고 샀지.}

10103 @ 그럼 아매 그 제가 고본질이라는 게 잘 뭔지 모릅꾸마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책에서 봤습꾸마.{그럼 할머니 그 제가 고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책에 보았습니다.}

10103 # 아아, 고본질 어터게 하는 게.{아, 고본질을 어떻게 하는지.}

10103 @ 우리 고렷사람덜이 고본질의 많이 해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다른 민족보다 아주 우수하게 잘 산다구.{우리 고려 사람들이 고본질을 많이 해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다른 민족보다 아주 우수하게 잘 산다고.}

10103 # 아이구!{아이고!}

10103 @ 책에서 봤습꾸마. 겐테 고본질을 그러니까 어터게 했슴둥 전에는?{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본질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10103 # 전에는 전에는 어떻게 한 거 모르나 우리네는 가즈 시책이르 하다나이 열시해르 딱 고본질의 했어. 열시해르. 열시해르 고본질의 하는데.{전에는 전에는 어떻게 한 것을 모르나 우리네는 갓 시작을 하다 보니 열세 해를 딱 고본질을 했어. 열세 해를. 열세 해 고본질을 하는데.}

10103 @ 그러니까 어터기 하는 게 고본질하는 겐둥?{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고본질하는 것입니까?}

10103 # 에따(это) 파이르 징지, 파에.{음 파 농사를 짓지, 파.}

10103 @ 어디, 어드메 가서.{어디, 어디 가서.}

10103 # 저어기 밭에서.{저기 밭에서.}

10103 @ 남에 밭에 자기 밭에?{남의 밭입니까? 자기 밭입니까?}

10103 # 어어째! 국가밭이지. 키르기즈 국가밭에서 일하지 따아 가지구 기래구서 거기다가서리 돈으 따아 값으 물어야 데지. 국가에다 물어야 데지. 기래구 떨어진 거느 내 가지짐. 그 령기 했짐.{어째! 국가 밭이지. 키르기스스탄 국가 밭에서 일하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

고 그리고서 거기다가 돈을 땅값을 물어야 되지. 국가에다 물어야 되지. 그리고 떨어진 것(남은 것은)은 내가 가지지 뭐. 그렇게 했지 뭐.}

10103 @ 그러니까 아까 파지이 말씀하셨잖아? 그 파지이르 어떻게 했습둥?{그러니까 아까 파농사를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파농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10103 # 파지이르 재빌르 썩 시무오. 재빌르 썩다 가지구서리 따아 그거 썩 딱 궁가 농구서리 씨두 재빌르 썩 영소. 씨르 열어서 그담에는 씨 나오기만 하무 어 물으 대에서 재래와서 약으 치지. 그거 야아! 힘이 드오. 기래구 시방으는 썩 썩으 내오. 사름덜 하는 게 썩. 우리네 썩으 못 내밧소. 재빌르 그저 한 게타르 밭으 재빌르 썩 기래 했댓어. 이 스물다섯 천 할 적에는 두 겹타르(гектар) 가지구 했댓어. 기래 스물 다섯 천으 했어.{파농사를 자기가 썩 시무오. 자기가 썩다 차지하고서 땅을 그거 썩 딱 구멍을 내고서 씨도 자기가 썩 넣소. 씨를 넣어서 그 다음에는 씨 나오기만 하면 어 물을 대서 길러서 약을 치지. 그거 야! 힘이 드오. 그리고 시방은 썩 썩을 내오. 사람들 하는 것이 썩. 우리네 썩을 못 내보았소. 자기가 그저 한 헥타르 밭을 자기가 썩 그렇게 했었어. 이 25,000루블을 벌 적에는 두 헥타르를 가지고 했었어. 그래 25,000루블을 벌었어.}

10103 @ 그러면은 그렇게 파지이르 해에서 예 이제 그걸 거두재임둥? 거더서.{그러면 그렇게 파농사를 해서 예 이제 그걸 거두지 않습니까? 거두어서.}

10103 # 거두기는 학상아덜이 거두오. 학상 아덜이. 학상아덜이 글으 이를 적이무 그때는 그게 어: 팔월 쏜네즈(конец) 팔월이고 나찰라(начало) 구월이지. 기래 학상아덜이 나와서 그거 거두오. 그래 아덜이 가서 뽑지. 뽑구 자르구 커우대 영구 그렇지. 기래구 커우대 영어서는 우리 집어서는 실어 가져가지. 그렇기 이 농새르 했댓어.{거두기는 학생들이 거두오. 학생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할 적이면 그 때는 그게 어 8월, 끝이 8월이고 시작이 9월이지. 그러면 학생들이 나와서 그거 거두오. 그래 아이들이 가서 뽑지. 뽑고 자르고 자루에다 넣고 그렇지. 그리고 자루에 넣어서는 우리가 집어서 실어 가져가지. 그렇게 이 농사를 지었어.}

10103 @ 그럼 어 어디가서 파암둥?{그럼 어 어디 가서 팔니까?}

10103 # 그거 받는데 잇소. 어: 그렇기 받는 데 잇소. 국가서 그거 파이르 가져가무 마шина(машина)들이르 해서 받소. 개구 돈으 거기서 내 주지. 기래구서리 국가다가서리 돈으 밧이 값으 물어야 데지. 그랫댓어.{그것을 받는 데가 잇소. 어 그렇게 받는 데가 잇소. 국가에서 그거 파를 가져가면 자동차 들이로 해서 받소. 그리고 돈을 거기서 내 주지. 그리고 국가에다가 돈을 밧값을 물어야 되지. 그랫어.}

10103 @ 그럼 지금 이게 그 아매 콜호즈 아임둥? 그러면 아매 콜호즈에서 파지이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콜호즈(колхоз)에 가서 파지이르 할 수 있습둥? {그럼 지금 이게 그 할머니 콜호즈가 아닙니까? 그러면 할머니 콜호즈에서 파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콜호즈에 가서 파농사를 할 수 있습니까?}

10103 # 하재잉구! 하재잉구!{하고 말고! 하고 말고!}

10103 @ 땅을 빌려서.{땅을 빌려서.}

10103 # 따아 빌어서 하재잉구! 따아 떼기마 하무 다아 하짐. 아 시방도 따아 떼에가지구 하짐. 하는 게.{땅을 빌려서 하고 말고! 땅을 떼기만 하면 다 하지 뭐. 아 시방도 땅을 떼어 가지고 하지 뭐. 고본질 하는 게.}

10103 @ 떼에가지구.{땅을 떼어 가지고.}

- 10103 # 떼에가지구 해재잉구. 시바으느 그런 거 마:이 받으 가지구. 시방으느 조금 가지구 이익이 한나투 없소. 마::이 가지구 싹으 열지. 기래구서 하지. 그룽기 시방으느 그전처르 돈으 못 버오. 돈으 못 버오. 우리넨 작게 가지구 재빌르 하다나이 돈으 마이 벌었지.{떼어 가지고 하고 말고. 시방은 그런 거 많이 받을 가지고 하지. 시방은 조금 가지고 이익이 하나도 없소. 많이 가지고 싹을 넣지. 그래고서 하지. 그렇게 시방은 그전처럼 돈을 못 버오. 돈을 못 버오. 우리넨 작게 가지고 자기가 하다 보니 돈을 벌었지.}
- 10103 @ 욕심 부리지 앓구. 조금씩 조금씩 하구 열심히 하니까 돈이 둘 들왔쥬. 음. 그러문 파지이 말구 우리 고렷사람덜이 또 어떤 농사를?{욕심 부리지 앓고. 조금씩 조금씩 하고 열심히 하니까 돈이 들어왔쥬. 음. 그러면 파 농사 말고 우리 고려 사람들이 또 어떤 농사를 지었습니까?}
- 10103 # 수박지이르.{수박 농사를.}
- 10103 @ 수박지이르 했슴둥?{수박 농사를 했습니까?}
- 10103 # 어~. 수박가 파지이르 고렷사람덜이 치우라 하구. 기애구 다드배채르, 대드배채 잇재오? 그 다드배채질하는 사람덜두 잇어. 그게 도이 잘 아이 데오. 그래구 또 고치, 까지르짙는 사람덜두 둥간 사람덜이. 둥간 그게 끼따이스끼 같은 사람덜이우. 그 사람덜두[뚜] 그 까지이지이르 고치 그래 시무는 사람덜이 여기 잇어.{응. 수박과 파 농사를 고려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고. 그리고 양배추를, 양배추 있잖소? 그 양배추 농사를 하는 사람들도 잇어. 그게 돈이 잘 안 되오. 그리고 또 고추, 가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는데 화교(華僑)들이. 화교 그 사람들이 중국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오. 그 사람들도 그 가지 농사를 짓고 고추를 그렇게 심는 사람들이 여기 잇어.}
- 10103 @ 음. 그러면 그 수박지이느 어더게 함둥?{음. 그럼 그 수박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 10103 # 수박지이두 그거 받으 따아 떼에 가지구 하지. 따아 그거 국가 따아 가지구서리 돈으 물어야 데지. 가슬이무 돈으 물어야 데지. 일리(или) 도이 많은 사람우느 따아 땔 적에 돈으 물구. 그래, 그렇지. 그래.{수박 농사도 그거 받을 땅을 떼어 가지고 하지. 땅을 그거 국가 땅을 가지고 돈을 물어야 되지. 가을이면 돈을 물어야 되지. 혹은 돈이 많은 사람은 땅을 땔 적에 돈을 물고. 그래, 그렇지. 그래.}
- 10307 @ 그럼 차암부터 말씀해 주옵소. 수박:지이르 할려면은 어떻게 함둥?{그럼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수박 농사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 10307 # 수박지이르 해에서 다아 기계.{수박 농사를 해서 다 그계.}
- 10307 @ 받을 먼저 어떻게 함둥?{받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 10307 # 받으? 아 받으 그것두 트랙토르(трактор) 잇어야 데지. 트랙토르(трактор)르 싹 그거 골따아 저어서, 기래서 시무오. 시무는 거느 싹 손을르 시무우, 우리네느. 시방은 받으 마이 가지다나이 예따 토락토르(трактор)르 시문답데. 우리네느 그전에 시방 시무는 거느 나느 모르우. 그전에는 우리네 받으 한 겹타르(гектар)르 가지구 싹 손을르 시무우. 시무는 데 어떠기 시무는지 아오? 우리네 여기서 아이 시무구 우리넨 페르메스 가서, 페르미스란 그으 보르르 가서 심었어. 기계 아후간, 아후간(Афган) 알기지? 그 아후간(Афган) 그라니짜(граница) 페라미쓰라는 데르 가 심는데, 예: 첫감에는 이룽기 시무오. 어, 굽으해 농구 따아 요막씨 요룽기 짚우게 파오 요룽기. 요룽기 짚우게 해서 파지. 기래 고기다씨르 영구 어 두 알씨 영소. 두 알씨. 기애 영어서느 기계 나오기만 하무 한 알으 두구. 거저. 기랜데 그거 시무구서느 스라스(сразу) 잉게 뿌리온까(клеёнка)르, 시방 한국에서

미시기가 하는지 모르겠어. 새타얀 뿌리온까(клеёнка)르. 그런 그런 조에 잇소. 그 그 뿌리온까(клеёнка)르 쪽 덮지 머 고라아 이롭게 해놓구 나~. 요기다 앞뒤에다 그런 거 이래 시무구. 개 덮어놓구 그담에 기게 따갑아서 빨리 올라오오. 그담에느 그거 야~ 어: 어찌는가 하이 양기 궁구 뚫소, 요렇게. 한 알이 이래오. 궁구 뚫재왕겠어? 곱으 이래 쳐놓구 앞뒤엿 요거 싹 이렇게 궁구 뚫소. 궁구 뚫어 놓오무 거기서 그게 올라오무 그게 올라오기마 하무 그 담에 이마:이 올라오지 아왕겟소. 또 앞아가매 그거 싹 덮소. 그 궁기르 싹 흙을르 막소. 흙을르 막아서 고 때까지 그런 그런 것만 잇지. 수박만 잇지. 그애 이 앞두느 싹 그런 거 흙을르 덮어서 나~ 풀이 한 개두 못 나오. 못 나. 기래 그 메스또(место) 어간에 그 수박이 이쪽 수박이 잇구 메스또 어간에 그게 베엿지 무. 맨: 흙이지. 그거 지슴매오. 그러나 저 수박질두 모:지리. 사연했어. 네 해르. 모:지 바쁘오. 기래구 그 수박으느 싹 재빌르 파오. 개 땃값으느 저리 물어야 데오. 땃값은 저리 무오. 기래 가서 수박질으 네 해르 했어. 네 해 해서 기애두 에따(это) 돈으 못 버는 때느 없엇겟소. 기애 돈으 그양. 저어 우리 영갠이 일으 더 헤게없이 잘하오.{밭을? 밭을 그것도 트랙터가 있어야 되지. 트랙터로 싹 그거 고랑을 지어서, 그래서 심소. 심는 것은 싹 손으로 심소, 우리네는. 시방은 밭을 많이 가지다 보니 트랙터로 심는다데. 우리네는 그전에, 시방 심는 것은 나는 모르오. 그전에는 밭을 한 헥타르를 가지고 싹 손으로 심소. 심는 데 어떻게 심는지 아오? 우리네 여기서 안 심고 우리네는 페르메스 가서, 페르메스란 그 \*\*를 가서 심었어. 그게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알지? 그 아프간 국경 지방에 페르메스라는 데를 가서 심는데, 에 처음에는 이렇게 심소. 어 골을 해 놓고 땅을 요만큼씩 요렇게 깊게 파오, 요렇게. 요렇게 깊게 해서 파지. 그래 고기다 씨를 넣고 어 두 알씩 넣소. 두 알씩. 그래 넣어서 나오기만 하면 한 알을 두고. 그저. 그런데 그거 심고서는 이내 이렇게 비닐을, 시방 한국에서 무엇이랴 하는지 모르겠어. 새하얀 비닐을. 그런, 그런 종이가 있소. 그, 그 비닐을 쪽 덮지 고랑을 해 놓고 응. 요기다 앞뒤에다 그런 거 이렇게 심고. 그래 덮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게 뜨거워서 빨리 올라오오. 그 다음에는 그거 응 어 어찌하는가 하니 이렇게 구멍을 뚫소, 요렇게. 한 알이 이러오. 구멍을 뚫지 않겠어? 곱을 이렇게 쳐 놓고 앞뒤엿 요거 싹 이렇게 구멍을 뚫소. 구멍을 뚫어 놓으면 거기서 그게 올라오면, 그게 올라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 올라오지 않겟소? 올라오기만 하면 앓아 싹 덮소. 구멍을 싹 흙으로 막소. 흙으로 막아서 고 때까지 그런, 그런 것만 잇지. 수박만 잇지. 그래 이 앞두는 싹 그런 거 흙으로 덮어서 응 풀이 한 포기도 못 나오오. 그래 그 자리 사이에 그 수박이 이쪽 수박이 있고 그게 자리 사이에 비엿지 뭐. 맨 흙이지. 그거 김매오. 그러나 저 수박 농사도 몹시. 4년을 했어. 네 해를. 몹시 힘드오. 그리고 그 수박은 싹 자기가 파오. 그래 땅값은 그 때 물어야 되오. 땅값은 그 때 무오. 그래 가서 수박 농사를 네 해를 했어. 네 해 해서 그래도 음 돈을 못 버는 때는 없엇소. 돈을 그냥. 우리 저 영갠이 일을 더 말할 수 없이 잘 하오.}

10307 @ 그러니까 돈으 벌으셨지.{그러니까 돈을 버셨지.}

10307 # 야~ 더 헤게없이 일으 잘 하오.{응 더 말할 수 없이 잘 하오.}

10307 @ 그러면 수박이 이렇게 이렇게 싹이 나오재임둥? 이렇게 벌어나가재임둥? 예. 그럼 그 담부터는 어떻게 손질함둥?{그러면 수박이 이렇게, 이렇게 싹이 나오잖습니까? 이렇게 줄기가 벌어나가잖습니까? 예.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손질합니까?}

10307 # 그거 벌어나오는 거느 어떤 사름덜은 가만: 내빠려두오. 기램 바램이 불무 그게 이래

따로따로 구부재이오? 그러나 우리네 두울으는 거저 그거 나~ 너울이 나오짱겠어? 거저 흙데이 흙으 제에서 고 너울에다가 잎에다가 딱딱 이래 놓소. 기래무 거저 부채 같으오. 요렇게. 부채처럼 너울이 이룽기 받지 무 야. 이 너울가 이 너울이 마주 붙구 밭씨 수박은 달겠소. 기래무 그 수박 너울이 이룽기 장하무 경계 수박이 야~ 열 길로써 달기는 게 그 밑에 싹 잇소. 기래 그 수박으 처암에느 저 우리 영갸이 싹 그거 메에내다가서느 웬: 첫벌으는 메에내다가 파오. 그 진: 거 사래르 그거 메에자무 수박이 또 어티기 똥고롭소 야~. 그거 메에내오자무 어티기 바뿌오. 기애두 그거 싹 메에내다가서리 마시나(машина) 실어서느 기래 가져다 파지. 그 다음에느 그 후에느 그 수박으 음 막 마시나(машина) 들어가오. 기래구 그담에느 수박이 잘 익으무 거저 지내 수박이라 할 쉬 없소 지내. 기래 마시나(машина) 들어가무 또 거기서 이 늦은 데르 어: 기차다가서 뽀에즈다(Поезд)가 실어다가 야~ 어드메르 칩운 데르 실어가오. 그 우리네 이찍 밭씨 나~ 어: 오월 끝에 유월 첫감애 밭씨 수박이 다아 익소. 기래 다른 데느 안죽은 아이 텃지. 이거 보오! 이제 여기 수박이 이제 칠월 수박이 나오재이오? 거기느 오월 끝뜨(конец) 에따(это) 유월이 나찰라(начало)나 거기 수박이 그양.{그거 벌어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가만 내 버려 두오. 그럼 바람이 불면 그게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불지 않소? 그러나 우리네 둘은 그거 그거 웅 덩굴이 나오지 않겠어? 그거 흙덩이 흙을 쥐어서 고 덩굴에다가 잎에다가 딱딱 이렇게 놓소. 그러면 그거 부채 같소. 요렇게. 부채처럼 덩굴이 이렇게 받지 뭐 웅. 이 덩굴과 이 덩굴이 마주 붙고 벌씨 수박은 달렸소. 그러면 그 수박 덩굴이 이렇게 길면 거기에 수박이 웅 10킬로그램씩 달리는 것이 그 밑에 싹 잇소. 그럼 그 수박을 처음에는 저 우리 영갸이 싹 그거 메어 내다가 맨 먼저는 메어 내다가 파오. 그 긴 거 긴 이 랑을 그거 메자면 수박이 또 얼마나 똥그랗소 웅. 그거 메어 내오자면 얼마나 힘드오. 그 래도 그거 싹 메어 내다가서 자동차에 실어서느 가져다 팔지.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느 그 수박을, 음 막 자동차가 들어 가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박이 잘 익으면 그거 아주 수 박이라 할 수가 없소 아주. 그래 자동차가 들어 가면 또 거기서 이 늦은 데로 어 기차에 다가 기차에다가 실어다가 웅 어디로 추운 데로 실어 가오. 그 우리네 일찍 밭씨 웅 어 오월 끝에 유월 처음에 밭씨 수박이 다 익소. 그래 다른 데느 아직은 안 되었지. 이거 보 오! 이제 여기 수박이 이제 칠월에 수박이 나오짱소? 거기느 오월 말(末)이고 음 유월 초(初)이거나 하면 수박이 그냥 나오지.}

10307 @ 음.{음.}

10307 @1 스빠시바(спасибо).{감사합니다.}

10307 @ 음. 스빠시바(спасибо). (웃음).{음. 감사합니다. (웃음).}

10307 @ 아아! 그렇게 해서.{아! 그렇게 해서.}

10307 # 그룽기 수박질하지.{그렇게 수박 농사를 짓지.}

10307 @ 남보다 먼저 해서.{남보다 먼저 해서.}

10307 # 그래 거기느 덩다나이 남보다 먼저 하지. 기래구 여기 채소 오는 게 거기서 덩운 데서 오오. 덩운 데서 오오.{그래 거기느 덩다 보니 남보다 먼저 하지. 그리고 여기 채소 오는 것이 거기서 더운 데서 오오. 더운 데서 오오.}

10307 @ 그러면은 아매 그 웨농사느?{그러면 할머니 그 오이 농사는 어떻습니까?}

10307 # 웨르 아이 해밧소.{오이 농사를 안 해 보았소.}

10307 @ 안 해 보셨슴둥?{안 해 보셨습니까?}



10307 # 모 해 밧소. 그저 수박가: 파지이르 했지.{못 해 보았소. 그저 수박과 파 농사를 했지.}

10307 @ 파지이르.{파 농사를.}

10307 # 야~ 기래구 이 웨라, 웨는 야~ 작년에 야덜이 하이까데 아이 텐다고 시방 아이 하재 이오? 작년에 야덜이 웨절으 했:댓어. 아이 텐다구. 기애구 도이 많이 들어가구. 어 파는 값이 적구. 기래 아이했소.{응 그리고 이 오이랑, 오이는 응 작년에 이 아이들이 하니까 안 된다고 시방 안 하잖소? 작년에 이 아이들이 오이 농사를 했었어. 안 된다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파는 값이 적고. 그래서 안 했소.}

10103 @ 음, 음.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고렷사람들이 고본질으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첫쨌 파이구 고 담에 인제 수박이구 고담에.{음, 음.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고려 사람들이 고본질을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첫쨌는 파 농사고 고 다음에 이제 수박이고 고 다음에.}

10103 # 기래구 까지 고치질이지.{그리고 가지 고추 농사지.}

10103 @ 까지 고치 쫑는 사름두 있구.{가지 고추를 쫑는 사람도 있고.}

10103 # 그렇지.{그렇지.}

10103 @ 베[ve]는 거의 안 하구.{오이는 거의 안 하고.}

10103 # 웨는 거저 에 조선사름덜이 마이 애이 시무구. 그거 파이르 가슬하길래 돈으 빼느라 구 기래 하지.{오이는 그거 에 조선사람들이 많이 안 심고. 그거 파를 가을하기에 돈을 빼느라고 그래 하지.}

@ 음. 그럼 아매 아까 말씀하신 그 둥간이라는 거 있재임둥?{음. 그럼 할머니 아까 말씀하신 그 ‘둥간’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 둥간?{‘둥간’?}

@ 예.{예.}

# 어, 여기 둥가이 많소. 둥간 그저 말르느 누구 같은가 하무 야 저 저기 그런 중국사름 같으 우. 말이 중국사름말이 같으우. 그 사름덜이. 그렇기 말합데.{어, 여기 둥간(화교(華僑))이 많소. 둥간 그저 말로는 누구 같은가 하면 응 저 저기 그런 중국사람 같소. 말이 중국사람말과 같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데.}

@ 그럼 뭘 둥간이라 함두?{그럼 무얼 둥간이라고 합니까?}

# 어:, 중국사름인데 거기 오블라스(область), 오블라스(область) 잇습데. 거기서 둥간덜 사압 데. 그러나 그거 나느 잘 모르겠소. 우리 아바이사 그거 잘 아지. 나느 그거 잘 모르겠어. 그 래 그 둥간덜이 여기서 채소질해서 배채 잇재이오? 짐치 절구는 배채. 그 사름덜이 배채질 하오. 기래무 우리 싸서 동삼 철짐치르 절구지. 그랬댓어.{어, 중국사름인데 거기 그 사람들이 사는 주(州), 주(州)가 있데. 거기서 둥간들 살데. 그러나 그거 나느 잘 모르겠소. 우리 할 아버지야 그거 잘 알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 둥간들이 여기서 채소 농사를 해서 배추 있잖 소? 김치 담그는 배추. 그 사람들이 배추 농사를 짓소. 그러면 우리 사서 겨울 김치를 담그 지. 그랬어.}

@ 예.{예.}

10302 @ 음. 그럼, 예: 아매 저기 벼농사는 전에 옛날에 해 보셨습둥?{음. 그럼, 예 할머니 저 기 벼농사는 전에 옛날에 해 보셨습니까?}

10302 # 벼농사는 내 새애가 떼기 벼농새르 했지.{벼농사는 내 처녀 때 벼농사를 지었지.}

10302 @ 그 때애: 열일고 여덟 아홉 고 무렵에 하셨다구.{그 때에 열일고여덟아홉 고 무렵에

하셨다고.}

10302 # 열아홉 스무 살 때 베농새르 해밋소.{열아홉 스무 살 때 벼농사를 지어 보았소.}

10302 @ 고거를.{고거를.}

10302 # 그거는 오부셰(вообще) 사름덜이 마::이 그거는 꼬호즈(колхоз)서 하다나이 꼬호즈(колхоз)서 그렇기 베농새질하지. 기래다나йка데 어 새아가덜이 마:이 그거 베농새질하는 데서 어따(это) 심어 열어서 베덜이 이룽기 년들년들 하무 지슴매야 데오. 풀으. 싹 돌피가 그거 베르 싹 갈가내야 데지. 기래 지슴매다나йка데 새아가덜 마:이 그거 마:이 요구 데오. 그 지슴 맨 데 그렇기 풀으 마:이 내야 데지. 그래 그것두 험한 일이 애잇댓어.{그것은 전체 사람들이 많이, 그것은 콜호스에서 하다 보니 콜호스에서 그렇게 벼농사를 짓지. 그러다 보니까 어 처녀들이 많이 그거 벼농사를 짓는 음 심어 넣어서 벼들이 이렇게 넘실넘실 하면 김을 매야 되어. 풀을. 싹 돌피와 그거 벼를 갈라내야 되지. 그래 김을 매다 보니까 처녀들이 많이 필요하지. 그 김맨 데서 그렇게 풀을 많이 내야 되지. 그래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

10302 @ 그럼 처음에 이렇게 그 논밭에다가 베밭에다가 물을 담고 그리고 거기다 씨르 잉게 놓습둥?{그럼 처음에 이렇게 그 논에다가 논에다가 물을 담고 그리고 거기다 씨를 이렇게 놓습니까?}

10302 # 아니! 저래 씨르 이룽기 뿌리오.{아니 물을 담는 걸이 씨를 이렇게 뿌리오.}

10302 @ 아아! 뿌림둥?{아! 뿌립니까?}

10302 # 야~ 뿌리오. 씨르 뿌리오, 저래. 아이, 한국에서 보йка데 씨르 싹 왕깁데. 우리네는 싹 막 뿌리오. 기래 씨 단 데느 달구, 그래. 그렇소. 우리네 그렇기 에따(это):: 사십구연에 오십년도꺼지 그렇기 헛댓어. 사십팔년에 그렇기 베질해댓어. 아아! 우리네 새아가덜 때 새아가덜 많엿댓소. 그래서 그 베질하지. 그 지슴우느 그 새아가덜이 다아 매야 데지. 어떠가나.{응 뿌리오. 씨를 뿌리오, 곁에. 아니, 한국에서 보니까 씨를 싹 옮기데. 우리는 싹 막 뿌리오. 그래 씨가 많은 데는 많고 그래. 그렇소. 우리네 그렇게 음 1949년도에 1950년도까지 그렇게 했었어. 1948년에 그렇게 벼농사를 지었어. 아! 우리네 처녀들 때 처녀들이 많았었소. 그래서 그 벼농사를 짓지. 그 김은 그 처녀들이 다 매야 되지. 어떠하든지.}

10302 @ 으음. 그러면은 그렇게 씨르 뿌려 가지구 그게 이제 싹이 나왔재임둥? 아까 아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베돌피하구 예.{음. 그러면 그렇게 씨를 뿌려 가지고 그게 이제 싹이 나왔잖습니까? 아까 할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돌피하고 예.}

10302 # 어~ 그거 골라야 데지.{응 그거 골라야 되지.}

10302 @ 다아 그걸 갈가내야 데재임둥?{다 그걸 갈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10302 # 그래.{그래.}

10302 @ 켜데 요게 벤지 요게 돌핀지 그걸 어떻게 구분함둥?{그런데 요게 벼인지 돌피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10302 # 막: 뽑소. 그저 돌피구 베구 막 뽑아 데지오. 그저 기래오.{막: 뽑소. 그저 돌피고 벼고 막 뽑아 버리오. 그저 그러오.}

10302 @ 그래두 돌피르 많이 뽑으셨을 거 아이둥?{그래도 돌피를 많이 뽑으셨을 거 아님둥?}

10302 # 마이 그래두 치우라 돌피쩍이 죄에꿈 알기우. 그러나 모르는 거느 아덜으느 그저 막 뽑아 데지우. 그거 무스 씨두 달지 무스.{많이 그래도 전적으로 돌피쪽이 조금 알아지오.}

그러나 모른 것은 아이들은 그저 막 뽑아 버리오. 그거 무슨 뿌린 씨도 많이 모여 있지  
뒤.}

10302 @ 아아 달지.{아 모여 있지.}

10302 # 달재앙구. 그저 요렇기 왕기는 법이 없이. 거저 씨 막 거저 그렇기 많소. 어~. 기래 그  
전에 이 저 우즈벡스탄에서는 이 베씨르 아깁아 아이 하구 뿌리우.{씨가 모여 있지 않고.  
그저 요렇게 읍기는 법이 없이. 그저 씨가 막 그저 그렇게 많소. 응. 그래 그전에 이 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 법씨를 아까워하지 않고 뿌리오.}

10302 @ 아! 그랬습둥?{아! 그랬습니까?}

10302 # 야~. 아이 아깁아 하구 뿌리우.{응. 안 아까워하고 뿌리오.}

10302 @ 그럼 아매! 그러면은 그렇게 베씨르 치기 전에 논을 뭇루 잉게 갈아엎거나 그런 거  
없었습둥?{그럼 할머니! 그러면은 그렇게 법씨를 치기 전에 논을 무엇으로 이렇게 갈아엎  
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까?}

10302 # 짹 갈아서.{짹 갈아서.}

10302 @ 무스걸르?{무엇으로?}

10302 # 첫감에는 트랙토를(трактор)르 갈지. 그담에는 잉기 드럭으 잡소. 드럭으 사림 사람  
손으르 드럭으 잡소. 그래구서리네는 그 칸칸으. 시바~으는 어쩔질 아오? 드럭도 없소.  
트랙토를(трактор)르 짹 장드렉이오 시바으는. 그전에는 요거 칸으 딱딱 잡구. 그거 이렇  
기 사림이 그런 걸르 야~ 낭글르 이렇기 맨들어서 그거 짹 손으르 잉게 똑같으게 놓, 그  
거 판으 똑같으게 하오. 기래구서리 그거 씨르 칠 적에는 그거 물으 홍지와야 데지.{처음  
에는 트랙터로 갈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두렁을 잡소. 두렁을 사람 사람 손으로 잡소.  
그리하고서는 칸 칸을. 시방은 어찌하는 줄 아오? 두렁도 없소. 트랙터로 짹 긴 독이오.  
그전에는 요거 칸을 딱딱 잡아 놓고. 그거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응 나무로 이렇  
게 만들어서 짹 손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누, 그거 판을 똑같게 하오. 그리하고서 그거 씨  
를 칠 적에는 그거 물을 흐리게 해야 되지.}

10302 @ 홍지운다구?{‘홍지운다’고?}

10302 # 물으 흐리와야 데지, 짹. 영. 그렇기 흐리와농구 그담에 씨르 뿌리지.{물을 흐리게 해  
야 되지, 짹. 응. 그렇게 흐리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지.}

10302 @ 흐리와 놓는다는 게 뭇둥?{흐리게 해 놓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10302 # 어따(это) 그래구야 베씨 그 물 물에 들어가 백이지. 물으 짹 이렇기 흥 홍지와 놓지.  
아~.{음 그리하고서 법씨 그 물 물에 들어가 박히지. 물을 짹 이렇게 흐리게 해 놓지. 응}

10302 @ 아아! 그걸 그걸 흐리…….{아! 그것을 그것을 흐리게 해 놓는다고.}

10302 # 흙이 막 이렇기 흐리와농구야 그 베씨 그게 깔았으메 그 베씨두 그 흙밑으르 들어가  
지. 그 담에 썩이 올라오지.{흙이 막 이렇게, 흐리게 해 놓고야 그 법씨 그게 가라앉으며  
그 법씨도 그 흙 밑으로 들어가지. 그 다음에 썩이 올라오지.}

10302 @ 그렇지.{그렇지.}

10302 # 그래. 시방으는 무스걸르 그러는가 하이 씨알까(сеялка)라게 있어. 시바으는 저 베  
질하는 데서 그렇기 시문답데. 나느 보지느 못했지. 시방으 저 까자프스탄에서 씨알까(се  
ялка)르 심어서 만저 그런 거 예따(это) 물 아이 대구 물 아이 대구 씨알까(сеялка)르  
뿌리구 그담에 장독우느 트랙토를(трактор)르 잡는다지. 장독우느 이 사림덜이 땡기구  
베씨랑 어따(это) 그거 베썬게 애이라 비로랑 치재이오? 비로르 쳐야 데지. 그거는 꼭 비

로르 아이 치무 아이 데오, 저 베두.{그래 시방은 무엇으로 그러는가 하면 파종기(播種機)라는 게 있어. 시방은 저 벼농사를 짓는 데서 그렇게 심는다데. 나는 보지는 못 했지. 시방은 저 카자흐스탄에서 파종기로 심어서 먼저 그런 거 음 물을 안 대고 물 안 대고 파종기로 뿌리고 그 다음에 긴 독은 트랙터로 잡는다지. 긴 독은 사람들이 다니고 벼씨랑, 그거 벼씨가 아니라 비료를 치잖소? 비료를 쳐야 되지. 그것은 꼭 비료를 안 치고는 안 되오.}

10302 @ 그렇지.{그렇지.}

10302 # 비로르 알지?{비료를 알지?}

10302 @ 알죠.{알죠.}

10302 # 어~ 그 비로르 쳐야 베두 데구. 이 파이두 비로 없이 아이 데오. 꼭 비로르 쳐야 데지.{음 그 비료를 쳐야 벼도 되고. 이 파도 비로 없이는 안 되오. 꼭 비료를 쳐야 되지.}

10302 @ 그러면 흐리울 때에 어떻게 흐리웠슴둥? 손을르?{그러면 흐리게 할 때 어떻게 흐리게 했습니까? 손으로?}

10302 # 예: 이룽기 낭그 대르 해서느 그래 흐리우지. 메::출씨 그 한바닥에 예: 새아가덜 들어서서 그거 흐리와야 데지 이룽기.{예 이렇게 나뭇대기를 가지고 그래 흐리게 하지. 며칠씩 한 바닥에 예 처녀들이 들어서서 그거 흐리게 해야 되지 이렇게.}

10304 @ 어떻게 생겼슴둥? 그게 흐리우는 게, 물건이?{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게 흐리게 하는 물건이?}

10304 # 그런데 이룽소. 낭그 낭글르 이마:이 이렇게 하오 야~. 이렇게 해서 이마:이 이렇게. 기래다 여기다가서 쪽지 달구. 지다:망기. 아, 강차이잘구처리. 기래문 이게 이렇게. 개구 여기다 달지.{그런데 이룽소. 나무를 나무로 이만큼 이렇게 하오 음. 이렇게 해서 이만큼 이렇게. 그리해서 여기다가 손잡이를 달고. 기다랗게. 아, 삽자루처럼.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달지.}

10304 @ 잘기?{자루?}

10304 # 잘그 이룽게 달지. 이래무 이게 이게 흥지우지. 그래 흥지와서.{자루를 이렇게 달지. 이러면 이게, 이게 흐리게 되지. 그렇게 흐리게 해서.}

10304 @ 그거 이름이 뭘둥?{그것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10304 # 그거 나느 그거 이릅이 무시젠지 모르겠소.{그거 나는 그것이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겠소.}

10304 @ 음.{음.}

10302 # 기래서 그거 흥지와서느 그 베씨르 치구. 우리 아때느 그렇기 기랫소. 겐게 시방으느 싹 기계하랍데 기계하랍데. 우리네 내 세간살이 해서 양게 우리 영갸이 그런 끼노(кино)르 놀적에는 받으 어 받으 열다숫 쏘뜨까(сотка)씨 열다숫 쏘뜨까(сотка)씨 베르 주우. 기래무 그 베 재빌르 시무지. 저 우리 영갸이 베씨랑 잘 치우. 기래 에 베르 주무 그거 둘이서 가서 시무오. 그거 열다숫 소뜨까(сотка)르. 개 심어서느 거기서 어 쌀으 해해서 동삼우 먹지 무슨. 그랫댓어.{나는 그것이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겠소. 그래서 그거 흐리게 해서느 그 벼씨를 치고. 우리 아이 때는 그렇게 했소. 그런데 시방은 싹 그계로 하데. 우리네 내 세간을 내서 이렇게 우리 영갸이 그런 영화를 상영할 적에는 받을 어 받을 15 소트카씩 15소트카씩 벼를 주오. 그러면 그 벼를 자기가 심지. 우리 저 영갸이 벼씨랑 잘 치오. 그래 에 벼를 주면 그거 둘이서 가서 심소. 그거 15소트카를. 그래 심어서는 거기

서 어 쌀을 내서 겨울에 먹지 뭐. 그랬어.}

10302 @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제 벼씨르 치고. 에 그리고 그걸 아까 말씀하신 그 그걸 가지구.{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벼씨를 치고. 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그걸 가지고.}

10302 # 벼씨 치기 전에 썩 흐리우오. 야~ 썩 흐리와 놓소. 그담에 벼씨르 치우. 기래무 기계 물에 까라얏으무 그 흙물이 썩 벼씨에 딱딱 들어붙소. 그거 보오. 그렇소.{벼씨를 치기 전에 썩 흐리오. 응 썩 흐리게 해 놓소. 그 다음에 벼씨를 치오. 그러면 그제 물에 가라얏으면 흙물이 썩 벼씨에 딱딱 들러붙소. 그거 보오. 그렇소.}

10302 @ 잘못 적었습꾸마.{잘못 적었습니다.}

10302 # 야~ 그랬댓어? 그 흙물이 다아 벼씨에 딱딱 들어붙는단 말이오. 그 흙으 이래 깡치 일군게.{응 그랬어? 그 흙물을 다 벼씨에 딱딱 들러붙는단 말이오. 그 흙을 이렇게 밑바닥의 찌꺼기를 일어나게 한 것이.}

10302 @ 그렇지.{그렇지.}

10302 # 깡치 일군 게 다아 벼씨에 다아 들어붙어, 벼씨르 그 담에 달이바다보자무 혹시 배우구 혹시 아이 배우오. 그 깡치 썩 이래 깔얏아서. 그랬댓어. 우리네 그전에 농새질할 적에느. 아, 시방은 아이 그렇소. 시방은 따오.{밑바닥에 있는 찌꺼기를 일어나게 한 것이 벼씨에 다 들러붙어, 벼씨를 그 다음에 들여다보면 혹시 보이고 혹시 안 보이고. 찌꺼기가 썩 이렇게 가라얏아서. 그랬어. 우리네 그전에 농사를 짓을 적에는. 시방은 안 그렇소. 시방은 다르오.}

10302 @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응 달라붙지. 음. 그럼 그렇게: 해서 흐리우구 나서 벼씨르 치고 나서 에 고담에 자라나면은 이제 아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피하구 베르 갈가내서 뽕아내구 고담에 지슴매구.{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응 달라붙지. 음. 그럼 그렇게 해서 흙물을 흐리게 하고 나서 벼씨를 치고 나서 에 고 다음에 벼가 자라면 이제 할머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피하고 벼를 가려내어 뽕아내고 고 다음에 김매고.}

10302 # 그래. 다아 지슴 그렇기 매지.{그래. 다 김 그렇게 매지.}

10302 @ 고다음에.{고다음에.}

10302 # 기래구 우리네 열다섯 쏘뜨까(сотка)르, 우리 아바이느 그 열다섯 소뜨까(сотка)르 어쩐 줄 아오? 나~? 어드메 찜이 한개두 없이 그렇기 썩 많은 데느 썩 뽕아서 모조하메서리. 기래다나йка데 야아! 열다섯 소뜨까(сотка)래두 올고산 베르 두두, 베르 두두리는 게 또 어쩐 줄, 기젤르 아이 두두리고 야~ 단으 요막씨 묶소. 기래 태르 치우.{그리고 우리네 15소트카를, 우리 할아버지는 그 15소트카를 어찌했는 줄 아오? 응? 어디던지 김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썩 많은 데는 썩 뽕아서 모종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야! 15소트카래도 마음에 흡족한 벼를 털, 벼를 커는 것이 또 어쩐 줄 (아오?), 기계로 안 털고 응 단을 요만큼씩 묶소. 그래 태를 치오(개상질을 하오).}

10302 @ 아이구!{아이고!}

### 3. 출산과 육아, 통과 의례, 농사

# 무슨거 물어보겠어?{무엇을 물어보겠소?}

10214 @1 아매! 그 자석덜 날 때 아 낳을 때 있대임둥? 아 낳구 난 후에.{할머니! 그 자식들 낳을 때 아이 낳을 때 있잖습니까? 아이 낳고 난 후에.}

10214 # 어~. 몸푼 후에.{응. 몸을 푼 후에.}

10214 @1 몸푼 후에 그 먹는 거 있대임둥? 몸우 풀라구. 예, 뭘 먹는다 그라무 몸이 잘 풀린다 뭘 것이 잘 나온다.{몸을 푼 후에 그 먹는 거 있잖습니까? 몸을 풀라고. 예 뭘 먹는다 그리면 몸이 잘 풀린다 뭘 것이 잘 나온다.}

10213 # 나느 어따(əto) 몸풀 적에 에 벼원두 아이 가오. 집에서 몸 풀었어 싹. 너어 낮는데 너어 다 한나느 엔: 큰아느 어따(əto) 우리 시어마이 몸우 풀겠어. 시어마이. 두 번째 아느 나 혼자 잇었었어. 아::무 사름두 없이, 아무 사름두 없이 나 혼자 잇었지. 아이 두 번째 아느 어쨌는가 저 큰아르 어: 업어서 마마 내 어마이 잇는데르 가져갔지. 기래 가져갔는데 아이 이 속이 그렇기 아픈 같으지. 기래 속이 아픈 같아서 그거 업어 가구 집우루 오다가 아아 변소칸으르 지금우 빨리빨리 가자구서 그런데 아이 채 가지 못하구 내 그 재르 이래 무제 놓재었어? 그 재 무데에다 덜써덕 낳앗단 말이오, 큰아르. 하야! 큰아르 그렇게 몸 풀었어. 내 집에서. 그 담에 이 초매애다 싸서 덜에다가서리 이 태르 이래 앓 재이오? 이렇기. 그거 내 우리 시에미 그래이꺼 보이 그거 야 이래 매구 가셀르 베엠편데. 아 기래 나느 집에 사름이 한나투 없지 그거 어찌갓소. 가셀르 베구. 기래구서 개애다가서리 눕히구. 그담에 후서느 또 싹 기랫지 아.{나는 음 몸 풀 적에 병원도 안 가오. 집에서 몸 풀었어 싹. 넷을 낳았는데 넷 다, 하나는 가장 큰아이는 음 우리 시어머니가 몸을 풀어 주었어. 시어머니가. 두 번째 아이는 어쨌는가 하면 저 큰아이를 업어서 어머니, 내 어머니가 있는 데로 가져갔지. 그래 가져갔는데 아니 이 속이 그렇게 아픈 것 같지. 그래 속이 아픈 것 같아서 그거 업어 가고 집으로 오다가 아, 변소칸으로 지금은 빨리빨리 가자고서 하는데, 그런데 아니 채 가지 못하고 내가 그 재를 이렇게 무제 놓잖았소? 그 재 무더기에다 덜커덕 낳앗단 말이오, 큰아이를. 하! 큰아이를 그렇게 몸을 풀었어. 나는 집에서. 그 다음에 이 치마에다 싸서 들여 다가서 이 태(胎)를 이렇게 앓잖소? 이렇게. 그거 내 우리 시어머니가 그랜 것을 보니 그거 응 이렇게 매고 가위로 베데. 아 그래 나는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지 하니 그거 어찌하갓소. 가위로 베고. 그리하고서 가져다가서 눕히고. 그 다음에 후에는 또 싹 그랬지.}

10213 @ 재빌르?{손수?}

10213 # 재빌르 싹. 어 기래다나이 벼~원이랑 나는 너어 낳아두 벼~원을르 한 번두 아이 갖어. 싹 집에서 낳았었어. 기래구 그렇기 아이 앓소. 이렇게구 어떤 사름우느 지금 우리 아매덜이 말하오. 아 나느 그저 사흘씨 윙게 앓는다구. 나느 아이 앓구. 기래구서 나느 몸이 그런지 아이 그런지 윙게 절에 사름덜이 모르우. 크:게 배 많이[마이] 먹어서 배부른 거처리 그렇지. 기래 그 몸이 그럴 적에 나느 모:지 앓소. 몸이 그럴 적에. 개다나이 아덜은 영 기래오. 개다나이까더 혼자 재빌르 낳아두 무스 그렇기 앓재애인단 말이오. 그 그러 우리 아덜 거저 정말 길로로 떠서 두 길로나 데갓는지. 그런 아덜이오 싹. 그런 게

젓이 땀에서 거저 다숫달만 데무 아덜이 열길로써 데오. 열 열길로써 그렇기 가오.{손수  
 짝. 어 그렇다 보니 병원이랑, 나는 넷을 낳아도 병원으로 한 번도 안 갔어. 짝 집에서  
 낳았어. 그리고 그렇게 안 앓소.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할머니들이 말하오. 아 나는 그  
 저 사흘씩 이렇게 앓는다고. 나는 안 앓고. 그리고 내 몸이 그런지 안 그런지 이렇게 곁  
 에 사람들이 (아이를 가진 것을) 모르오. 크게 배가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것처럼 그렇지.  
 그래 그 몸이 그럴 적에 나는 몸시 앓소. 몸이 그럴 적에. 아이들은 아주 그러오(작소).  
 그렇다 보니까 혼자 스스로 낳아도 뭐 그렇게 앓지 앓는단 말이오. 그러나 보니 우리 아  
 이들 그저 정말 킬로그램으로 달아서 2킬로그램이나 될는지. 그런 아이들이오 짝. 그런  
 것이 젓이 많아서 그저 다섯 달만 되면 아이들이 10킬로그램씩 되오. 10킬로그램씩 그렇  
 게 무게가 나가오.}

10213 @ 아매 몸이 건강하셔서 그렇습꾸마.{할머니 몸이 건강하셔서 그렇습니다.}

10213 # 기래 난 젓이 해접시 이 거:오. 건 젓이오. 기래 큰아 나서는 남에 아덜이 서이 먹었  
 어. 이 젓으 먹는게 서이 남에 아덜이 먹었어. 이 젓이 너무 많아이 사람이 야 이룽기 지  
 칩데. 약해집데 젓이 너무 많아이. 그담에는 어: 두 번째 아 나이까데 남에 아 한나 먹었  
 어. 한내. 기래구서 세 번째는 저 딸이 낫실 적엔 딸이 혼자 먹었댔어. 기래구 남에 아덜  
 이 더러 먹었어. 내게 젓이 그렇기 많았댔어. 몸우 풀기마 하무 아덜이. 기래 아덜이 너  
 무 크지 뭐. 아! 아 낳을 적엔 요런 기오 짝. 지, 지같오. 기래구 미세엿지 약하다:산게.  
 그랬댔어.{그래 난 젓이 말할 수 없이 거오. 건 젓이오. 그래 큰아이를 낳아서는 남에 아  
 이들이 셋이 젓을 먹었어. 이 젓을 먹는 것이. 셋이나 남의 아이들이 먹었어. 이 젓이 너  
 무 많으니 사람이 응 이렇게 지치데. 약해지데, 젓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 두  
 번째 아이를 낳으니까 남의 아이가 하나가 먹었어.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저 딸이 태어  
 났을 적에는 딸이 혼자 먹었어. 그리고 남에 아이들이 더러 먹었어. 내게 젓이 그렇게 많  
 았았어. 몸을 풀기만 하면 아이들이. 그래 아이들이 너무 크지 뭐. 아! 아이를 낳을 적엔  
 요런 것이오 짝. 쥐, 쥐 같오. 그리고 무섭지 약하다 싶은 것이. 그랬었어.}

10213 @ 그럼 아매! 태는 잘라서 고렷사람덜이 어떻게 처리했습둥?{그럼 할머니 태는 잘라서  
 고려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10213 # 어, 태르 나서는 그 때 에따(это) 그런 짚에다가서 나아서 짚이 벧짚이 잇재이오? 고  
 기다 따르르 말아 싸서 어: 형겅이 현 현 형겅이다가서리 싸서 이룽게 우리 놔두무 제에,  
 개애다 어디다 제에뿌리무 제에뿌렛어.{어, 태를 나서는 그 때 음 그런 짚에다가 낳아서  
 짚이 벧짚이 있잖소? 고기다 따르르 말아 싸서 어 천, 현, 현 천에다가서 싸서 이렇게 우  
 리 놓아 두면 가져다가 어디다 집어던지면, 집어던졌어.}

10213 @ 태우재잉구?{태우지 앓고?}

10213 # 아이 태웁데. 야~ 제에뿌렛어 기래.{안 태우데. 응 집어던졌어 그래.}

10214 @ 그럼 몸우 풀구서는 무스거 잡수셨습둥?{그럼 몸을 풀고서는 무엇을 잡수셨습니까?}

10214 # 나느 앓재잉다나이 몸우 풀구 스라스(спазы) 아이 앓소. 어떤 사람덜은 이 속이 아프  
 다구 그렇기 기래지. 나느 아이 앓았댔어. 개:두 거저 꿀우 사람덜이 먹는다지. 꿀두 나느  
 아이 먹었댔어.{나는 앓지 앓다 보니 몸을 풀고서도 이내 아니 앓소. 어떤 사람들은 이  
 속이 아프다고 그렇게 그러지. 나는 안 앓았어. 그래도 그저 꿀을 사람들이 먹는다고 하  
 지. 꿀을 나는 안 먹었어.}

10214 @ 메엑장물은?{미역국은?}

10214 # 아 메엑장, 그전에 메엑장물, 맥:이 있는가! 어엿지 무슨. 어엿:지.{아 미역국, 그전에 미역국, 미역이 있는가! 없지 뭐. 없지.}

10214 @ 그렇지 그 시절에는.{그렇지 그 시절에는.}

10214 # 그 시절 적에는 맥이 없어. 그 시절에는 맥이 없어. 그저 시락장물이지.{그 시절 때에는 미역이 없어. 그 시절에는 미역이 없어. 그저 시래깃국이지.}

10214 @ 아아! 시락장물.{아! 시래깃국.}

10214 # 음. 배채 시래기 그 장물이지. 이 맥:이랑 없었됐어. 그때는. 시방 메엑이 흔하지. 그전에는 어: 맥이 없었됐어. 기래구 또 에 그전에는 이기르 들오, 메엑이 오기 바빴됐어. 기랫됐어. 기래다나이 맥이장물이랑 못 먹어보지. 그랫됐어.{음. 배추 시래기 그 국이지. 이 미역이랑 없었어. 그 때는. 시방 미역이 흔하지. 그전에는 어 미역이 없었어. 그리고 또 에 그전에는 여기로 들어오기, 미역이 들어오기 힘들었지. 그랫었어. 그렇다 보니 미역국 이랑 못 먹어 보지. 그랫었어.}

10214 @ 그럼 아매! 몸우 풀구서 메출만에 일으 했슴둥?{그럼 할머니! 몸을 풀고 며칠만에 일을 했습니까?}

10214 # 아이구! 메출이나 미시거나 잇소? 거저 몸우 풀구서리 구저 사흘이무 그저 다 땡기지 그저.{어이고! 며칠이나 무엇이나 잇소? 그저 몸을 풀고서 그저 사흘이면 그저 다 다니지 그저.}

10214 @ 바름우 췌우무 아이데재임둥?{바람을 쏘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10214 # 아? 바름우?{어? 바람을?}

10214 @ 바름 췌우무.{바람을 쏘이면.}

10214 # 아이구! 우리 아덜이, 이거 보우! 크게 삼월이지. 아 날이 따시겐뜨 날이 삼월이무 아 이 그런 게 낭그 앞이 짝 다지. 아이 이리두 날이 그렇기 좋지. 이 두 번째 꺼는 구월이 다나이. 가을이다나이 그렇기 날이 덥었됐어. 내 아흐레만에 물으 건너서 어어 그런 상점 우 또 잣다왔됐어. 아아 그래두, 아아 그래두 시방 아이 앓재이오? 허어! 나느 기래구 땡 겿됐어.{어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거 보오! 큰놈이 삼월이지. 아 날이 타슈켄트 날이 삼월이면 아니 그런 게 나뭇잎이 짝 나지. 아니 이렇게도 날이 그렇게 좋지. 이 두 번째 놈 은 구월이다 보니. 가을이다 보니 그렇게 날이 더웠어. 내 아흐레만에 물을 건너서 어 그런 상점을 또 잣다왔어. 아 그래두, 아 그래두 시방 안 앓잖소? 허어! 나는 그러고 다녔 어.}

10214 @ 하늘이 아매한테 건강을 주셨습꾸마.{하늘이 할머니한테 건강을 주셨습니다.}

10214 # 아이구! 모르지 어쨌는지. 그룽기 땡기다나이 나느 그거 몸우 풀구 이룽게 바람갈매 이런 게랑. 기래구 또 세 번째 나두 어 삼월에 나다나이 어 그렇게 바람갈매르, 거기 삼월달에는 거기 따시겐뜨느 모지리 덥지.{어이고! 모르지 어쨌는지. 그렇게 다니다 보니 나느 그거 몸을 풀고 이룽게 바람 막는 이런 것이랑 (모르고 살았지). 그리고 또 세 번째 아이를 낳아도 어 삼월에 낳다 보니 어 그렇게 바람 막는 것을, 거기 삼월 달에는 거기 타슈켄트는 몹시 덥지.}

10214 @ 그렇지.{그렇지.}

10214 # 아 모지리 덥지. 그러다나이 무스 그 바람갈매 무스 그런 거 몰랐됐어. 아, 기래두 나느 시방두 그렇지 야~. 그룽기 땡긴다 해두 시방두 건강하다나이 바람 아이 맞앗길래 그 이 시방두 몸이 건강하지.{응 몹시 덥지. 그렇다 보니 뭐 그 바람 막이 무슨 그런 거 몰



랐었어. 아, 그래도 나는 시방도 그렇지 응. 그렇지 다닌다고 해도 시방도 건강하다 보니 바람을 안 맞았기에 그 이 시방도 몸이 건강하지.}

10214 @ 그럼요. 그때 바람맞았으무 직금 몸이 아이 좋지.{그럼요. 그 때 바람을 맞았으면 지금 몸이 안 좋지.}

10214 # 시방 우리 아매덜이 그렇기 말하는 말이 많지. 아이구! 아이 동지선달에 몸우 풀구서 리 으음 다른, 절에 시어시덜이나 없구 그래이까데 아이 그렇게 바람 맞아구 시격질 다 아 하구 이랬다멘서리 기래서 이렇게 앓는다구 이렇기 말하는 사람덜두 우리 아매덜 말하는 게 많소. 그렇소.{시방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아이고! 아니 동지선달에 몸을 풀고서 음 다른 (사람이), 곁에 시부모들이 없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바람을 맞아도 끼니밥을 다 하고 이랬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앓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 할머니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소. 그렇소.}

10214 @ 그러면은 어::, 이 아:가, 아:가 한 살 텔 때까지 예 그때까지는 예: 그 아가 뭐 병치레 아이했슴둥?(그러면 어 이 아이가, 아이가 한 살이 될 때까지 예 그 때까지 예 그 아이가 뭐 병치레는 안 했습니까?)

10214 # 아이구! 우리 아덜으느 시방 내 그래제이오? 시집장가르 갈때꺼지 약이랑 그리 맥에 못 봤다구. 못 봤어. 기래구 우리 아덜이 췌기 건강했어. 아이 앓았됐어. 아이! 아덜으느 약이 거저 기차오. 어이구:!! 저기 약이 기차오. 그러오. 아이, 우리 아덜으느 어 시집장가르 갈때꺼지 내 아덜 야 앓아서 어찌갯는가 야 앓아서 어찌갯는가 못 그래봤어. 기랜게 우리 두채 시방 양게 아이 앓소. 개 딸으느 글썸 약하오[야카오].{아이고! 우리 아이들은 내가 시방 그러지 앓소? 시집 장가를 갈 때까지 약이랑 그리 먹여 보지 못했다고. (약을 먹여) 보지 못했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주 건강했어. 안 앓았었어. 아이! 이 아이들은 약이 그저 기가 막히오. 아이고! 저기 약이 기가 막히오. 그러오. 아이, 우리 아이들은 어 시집 장가를 갈 때까지 내 아이들 응 '앓아서 어찌하겠는가'라고 못 그래 보았어. 그런데 우리 둘째 시방 이렇게 안 앓소. 그래도 딸은 글썸 약하오.}

10214 @ 그럼 아매 아아르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오지 말라구.{그럼 할머니 아이를 낳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10214 # 우리, 난 그런 법이 없어.{우리, 나는 그런 법이 없어.}

10214 @ 이런 거 이렇게 줄치구 아이 했슴둥?(이런 거 이렇게 줄을 치고 안 했습니까?)

10214 # 아이 했됐어. 으 음.{아니 했어. 음.}

10214 @ 그럼 아무나 막 들왔슴둥?(그럼 아무나 막 들어왔습니까?)

10214 # 아 그렇재앵구. 아 동미덜이 많은 게 기래무 아 동미덜이 막 들오지. 아, 나 그 아때 사 동미덜이 어찌 많소.{아 그렇지 앓고. 아 동무들이 많은 것이 그러면 아 동무들이 막 들어오지. 아, 내가 그 아이 때야 동무들이 얼마나 많소.}

10214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14 # 여자동미덜이 많지. 기애두 그여자덜 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래지.{여자 동무들이 많지. 그래도 그 여자들이 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지.}

10214 @ 원래[월래]는 못 들어오는데.{원래는 못 들어오는데.}

10214 # 아, 그런가!{아, 그런가!}

10214 @ 예.{예.}

10214 # 아, 우리넌 아이 그렇소.{아, 우리네는 안 그렇소.}

10214 @ 들오지 말라구 여기다 이렇게 문앞에다 줄으 치입꾸마.{들어오지 말라고 여기에다 이렇게 문 앞에다 줄을 칩니다.}

10214 # 아아! 아이 우린 그런 법이 없소.{아! 아이 우리는 그런 관습이 없소.}

10214 @ 그리구 아들 나무 이 고치 있재임둥? 빨간 고치. 고치르 이렇:기 달아맴꾸마. 여기다. {그리고 아들 낳으면 이 고추가 있잖습니까? 빨간 고추. 고추를 이렇게 달아맴니다. 여기다.}

10214 # 아:: 물앞에다, 문앞에다.{아 문 앞에다, 문 앞에다.}

10214 @ 문앞에다가 이렇게. 우리집에 내가 아들낳소.{문 앞에다가 이렇게. 우리 집에 내가 아들을 낳았소 하고.}

10214 # 아:::{아.}

10214 @ 예.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우리 집 출입을 좀 삼가시오. 이런 뜻으로.{예.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우리 집 출입을 좀 삼가시오. 이런 뜻으로.}

10214 # 아아! 우리네 그런 게 없었됐어, 우리는.{아! 우리네는 그런 것이 없었어, 우리는.}

10214 @ 그렇습둥. 전혀 그런 게 없었습둥?{그렇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10214 # 아, 없었됐어. 아, 시방 우리 손네 자아 나실 적에두 그런 일이 없었됐어. 아 누기 들어오무 들어오구 아이들어오무 아이들어오구 그저 그저 그랬지. 그런 일이 없었됐어. 아! 우리네 법이 없소. 조선처리 법이 없소. 그저 마우재오.{응 없었어. 아, 시방 우리 손네 저 아이를 낳았을 적에도 그런 일이 없었어. 아 누가 들어오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고 그저 그랬지. 그런 일이 없었어. 아! 우리네 그런 관습이 없소. 조선처럼 그런 관습이 없소. 그저 러시아 사람이오.}

10214 @ 마우재 법이지.{러시아 법이지.}

10214 # 마우재 법이지. 그렇지.{러시아 법이지. 그렇지.}

10214 @1 그럼 아매 그 아 낳구 그 몸우 풀자구 할 때 그 먹디 말라구 하는 음식 없었습둥? 뭐 무스거 음식 잘못 먹으무 젓이 안 나온다. 그런 말은 없었습둥?{그럼 할머니 그 아이를 낳고 그 몸을 풀려고 할 때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없었습니까? 뭐 무슨 음식 잘못 먹으면 젓이 안 나온다. 그런 말은 없었습니까?}

10214 # 아이구! 아이 나는 옴판 몸이 그럴 적에부터 들어눕어 앓을 날부터 몸우 풀구야 일어나오. 그양:: 앓짐. 아무거 맥겍아두 야~ 먹기마 하무 다아 게와. 그래서 우리 아덜이 요롱기 조꼬망지. 이룽기 내 우쳐 다른 사름덜으느 아이 몸이 그러무 어티기 잘 먹소. 다른 사름덜으느 우리 헤~이랑 야~ 몸이 그러무 모르오. 이룽게 몸이 그런지 아이 그런지 모르지. 거저 짐작없이 먹다나이 아아덜 크지. 아 우리네 나느 앓[a?] 몸이 그럴적에 먹지 앓다나이 아덜 고룽기 잘 조꼬망지.{아이고! 아이 나는 원래 몸이 그럴 적에부터, 들어누워 앓을 날부터(진통이 있을 날부터) 몸을 풀고야 일어나오. 그냥 앓지 뭐. 아무 거 먹고 싶어도 응 먹기만 하면 다 게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렇게 조꼬망지. 이렇게 내 다른 사람들은 아니 몸이 그러면 얼마나 잘 먹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언니랑 응 몸이 그러면 모르오. 이렇게 몸이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 그저 엄청나게 먹다 보니 아이들이 크지. 아, 우리네는 나는 아, 몸이 그럴 적에 먹지 앓다 보니 아이들이 고룽게 조꼬망지.}

10214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14 # 야~. 기래 몸우 풀기마 하무 거저 나느 먹기두 잘 먹지. 게 먹는다느 게, 그전에는 먹는다느게 무시기오. 그저 짐치 밥에 시락장물이오. 다른 게 없소. 거저 고기란 그저 대애

지르 잡구야 고기 잇구 거저 그렇지. 아! 시방으느 자~에, 고기 흔하지 물고기 흔하지 무시기 미시기 흔한 게 없이 다아, 돈만 잇으무 벨게 다아 잇지 자~이. 그전에는 도~이 잇 어두, 잉게 에 자~이라는 게 없구 그 그랬었어. 그 콜호즈(колхоз)서 잡우무 거기서 고기르 들어서 기래서 가지지.{응. 그래 몸을 풀기만 하면 그저 나는 먹기도 잘 먹지. 게 먹는다는 것이, 그전에는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오. 그저 김치, 밥에 시래깃국이오. 다른 것이 없소. 그저 고기란 그저 돼지를 잡고야 고기라는 것이 있고 그저 그렇지. 아! 지금은 시장에 고기가 흔하지 물고기가 흔하지. 무슨, 무슨 흔한 것이 없이 다, 돈만 있으면 별것이 다 있지 시장에. 그전에는 돈이 있어도, 이렇게 에 시장이라는 것이 없고 그랬어. 그 콜호스에서 잡으면 거기서 고기를 들어서 그래서 가지지.}

10214 @ 그러니까 이 아이 설어서 선 다음부터 어: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데재임둥?{그러니까 이 아이를 임신해서, 임신한 다음부터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되잖습니까?}

10214 # 아이오.{아니오.}

10214 @ 무슨 음식을 조심해라 이런 말은 없었습둥?{무슨 음식을 조심해라 이런 말은 없었습니까?}

10214 # 그런 말두 없어. 다른 사름덜은 어떤지 어: 우리 동미덜으느 그런 말이 없어.{그런 말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어 우리 동무들은 그런 말이 없어.}

10214 @ 그럼 아매는 그:: 아 섰을 때 그 때 에: 주로 무슨 임석으 많이 잡수섰습둥?{그럼 할머니는 그 아이가 섰을 때 그 때 에 주로 무슨 음식을 많이 잡수섰습니까?}

10214 # 아이구! 무시게 잉게 먹구두 먹 당한게 먹자구서 기래구. 어따(это) 이 내 그런 봄에 나다나이 동삼에 어디메 개실이나 그렇기, 파시켄뜨에는 흔하오. 파시켄뜨에는 어 수박이 두 잇지 참애두 잇지 포도도 잇지 능금이두 잇지 많지 무. 그래두 거기르 가자무 어: 그런거 그전에는 이 차 이룩기 없재엿소? 기래 골로쉬(галюша)르 해에서. 그 구루소바이(грушовая), 구르소바이(грушовая) 그게 무슨 마시나라 하오?{아이고! 무엇을 이렇게 먹고도 먹자고서 그래고. 음 이 내가 그런 봄에 아이를 낳다 보니 겨울에 어디 과일이나 그렇게, 타슈켄트에는 흔하오. 타슈켄트에는 어 수박도 잇지 참외도 잇디 포도도 잇지 능금도 잇지 많지 뭐. 그래도 거기를 가려면 어 그런 거 그전에는 이 차가 이렇게 없지 않았소? 그래 고무신을 해서. 그 ‘구루소바이’(화물차) 그 게 무슨 자동차라 하오?}

10214 @ 화물차.{화물차.}

10214 # 아~ 그 차 그 차에 까비네(кабине)에 앉아서 그래 가서 먹을 거[꺼] 싸오지. 그래재 이무 이 콜호즈(колхоз)느 이룩기 무슨 개실이나 그런 게 없짐. 그래 도시르 가구야 그런 거 싸서 기래 먹짐. 개 그런 것두 종종 싸서 어디메서 먹겠소. 그렇기 먹기 바뿌지. {응 그 차, 그 차에 화물차의 앞칸에 앉아서 그래 가서 먹을 것을 사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 콜호스는 이렇게 무슨 과일이나 그런 것이 없지 뭐. 그래 도시를 가고야 그런 것을 사서 그래 먹지 뭐. 그래 그런 것도 종종 사서 어디서 먹겠소. 그렇게 먹기 힘들지.}

10214 @ 바뿌지.{힘들지.}

10214 # 그래.{그래.}

10214 @ 그 시절에는.{그 시절에는.}

10214 # 야~. 그랬었지.{응. 그랬었지.}

10301 @1 아매! 그 어제 그 베농사 지으메서 고사한 애기 하셨대임둥?{할머니! 그 어제 그 벼농사를 지으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10301 # 야~.{응.}

10301 @1 예. 그 배: 그 농새르 할 때 그 심는 배가 그 여러 종류 아임둥? 여러 가지.{예. 그  
벼 그 농사를 할 때 그 심는 벼가 그 여러 종류가 아닙니까? 여러 가지.}

10301 # 배?{배?}

10301 @1 배, 배{벼, 벼.}

10301 # 배, 낭게서 나느?{배, 나무에서 열리는?}

10301 @1 시무는 배.{심는 벼.}

10301 @ 배. 배.{벼. 벼.}

10301 @1 배.{벼.}

10301 # 배. 배.{벼. 벼.}

10301 @ 베질으 할 때.{벼농사 할 때.}

10301 # 아, 베질할 적에.{아, 벼농사를 지을 적에.}

10301 @1 예, 베질할 적에.{예, 벼농사를 지을 적에.}

10301 # 베질할 적에. 기계 또 그런 거 찰베 잇구 매베 있어. 찰쌀 알지? 찰쌀이 잇구 맵쌀 있  
어. 콜호즈(колхоз)서느 찰쌀 아이 심구우. 개인사름덜이 오고르드(огород) 주구 거기다  
가 찰베르 죄:꿈 시무지. 마이 아이 심어. 기래구 고본질으 하느 사름덜이 그 후에 글르  
후에 베질으 이 꼬호즈(колхоз)에 없구 고본으 떼에 쫓어. 내 몇 헥타르(гектор) 가진다.  
두 겹타르(гектар) 가진다. 한 겹타르(гектар) 가진다. 이래 가지무 거기 다른 쪽에다가  
다른 쪽에다가 그 베밭이 거기다가 한테다가 아이 심어. 다른 쪽에 개에다가서리 그 찰  
베르 시무지. 기계 한 곶에다 시무무 이게 서르서르 읊우메 맵쌀에 찰쌀에 썩인다고 그  
렇기 예: 말합데. 그러나 우리네는 그렇게 시무지 았구 우리네는 어 꼬호즈(колхоз)서 콜  
호즈(колхоз) 꼬호즈(колхоз)서 베르 심었지. 그랬지 예 그런 개인을르느 베, 그 꼬호즈  
(колхоз)서 시무구 글르 후에 그담에느 어 썩 떼에 쫓어, 밭으. 엠매씨 너느 엠매씨 가지  
게? 기램 나느 두 겹타르(гектар) 가지겟다. 너느 엠매르 가지겟다. 나느 한 겹타르(гек  
тар)르 가지겟다. 그렇기 그거 떼에 가지구 농새질으 헛지. 기래 그거 가지구 에따(это)  
엠매 쁘레젠트(процент)르 몇 쁘로젠트(процент)르 내 가지구 몇 쁘로젠트(процент)르  
국가다 덜에 농구. 꼬호즈(колхоз)다 덜에농구. 이렇기 농새질헛지. 기래문 그 농새질한  
돈으느 도이 았어. 그거느 우리 먹 가지다나이 베르 가지다나이 그건 도이 았엇뻬어. 그  
랬뻬어.{벼농사를 지을 적에. 그게 또 그런 거 찰벼가 있고 매벼가 있어. 찰쌀 알지? 찰쌀  
이 있고 맵쌀 있어. 콜호스에서는 찰쌀을 안 심소. 개인이 텃밭을 주어서 거기다가 찰벼  
를 조끔 심지. 많이는 안 심어. 그리고 임차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후에 그 후에 벼농  
사를, 이 콜호스에는 았고 임차농지를 떼어 주엇어. 내가 몇 헥타르를 가진다. 2헥타르를  
가진다. 1헥타르를 가진다. 이렇게 해서 (농지를) 가지면 거기 다른 쪽에다가 다른 쪽에  
다가 (심지) 그 콜호스의 논이 있는 거기다가 한테 안 심어. 다른 쪽에 가져다가 그 찰벼  
를 심지. 그게 한 곶에다 심으면 이게 서로 서로 읊으며 맵쌀에 찰쌀이 썩인다고 그렇게  
에 말하데. 그러나 우리네는 그렇게 심지 았고 우리네는 어 콜호스에서 콜호스 콜호스에  
서 벼를 심엇지. 그랬지 예 그런 개인으로는 벼, 그 콜호스에서 심고 그 후에 그 다음에  
는 어 썩 떼어 주엇어, 논을. 얼마씩, 너는 얼마씩 가지게? 그럼 나느 2헥타르를 가지겟  
다. 너는 얼마를 가지겟다. 나느 1헥타르를 가지겟다. 그렇게 그거 떼에 가지고 농사를  
지엇지. 그래 그거 가지고 음 몇 퍼센트를 몇 퍼센트를 내가 갖고 몇 퍼센트를 국가에다

바치고. 콜호스에다 들여놓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지. 그러면 그 농사를 지어서 번 것은, 돈이 없어. 그것은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다 보니, 벼를 가지다 보니 그건 돈이 없었어. 그랬었어.}

10301 @ 그러문 아매! 그 메 매벼가 그 찰벼 있재임둥? 그게 이롭게 눈으로 봐서 어떻게 구별이 뎜둥?(그럼 할머니! 그 메벼와 그 찰벼가 있잖습니까? 이렇게 그게 눈으로 보아서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10301 # 아! 따오.{아! 다르오.}

10301 @ 글썄 뭐가 땀둥?{글세 무엇이 다릅니까?}

10301 # 무시기 판가 하무 야~ 이색이 잇재오? 이색이 나오무 야~ 찰벼 이색이 그런 그 꺼스레미, 꺼스레미 있어? 꺼스레미. 보기에 불주구레:하지. 이짜거느 노루구 좀 시주구레하구. 이거는 좀 불주구레:하지. 이따가 다른 데 가서두 물어 보오. 찰벼가 매메 하앙: 알긴 다구. 하앙 알긴다구.{무엇이 다른가 하면 응 이삭이 있잖소? 이삭이 나오면 응 찰벼 이삭이 그런 그 까끄라기. 까끄라기, 까끄라기 있어? 까끄라기. 보기에 불그스레하지. 이쪽 것(매벼)는 노르고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이것(찰벼)는 좀 불그스레하지. 이따가 다른 데 가서도 물어 보오. 찰벼와 매벼는 항상 잘 알 수 있다고. 항상 보면 알 수 있다고.}

10301 @ 고거 가지구.{고거 가지고.}

10301 # 야~ 그거 가지구 꺼스레미 가지구 아오.{응 그거 가지고 까끄라기 가지고 아오.}

10301 @ 아! 불주구레하구 누루구. 그러면은 이 키는 차이 없슴둥?{아! 하나는 불그스레하고 누르고. 그러면 이 키는 차이가 없습니까?}

10301 # 차이 없어. 키는 차이 없어. 베 찰벼 매벼 차이 없소.{차이 없어. 키는 차이가 없어. 벼는 찰벼고 매벼고 차이가 없소.}

10318 @ 그럼 아매! 그:: 그거를 나중에 가을에 어떻게 그걸 베엿슴둥?{그럼 할머니! 그 그것을 나중에 가을에 어떻게 그것을 베엿습니까?}

10318 # 싹 난을르 빼구. 이 찰베느 싹 난을르 빼오, 난을르. 난을르 빼구 이: 구런 거 매베느 국가서 싹 그런 거 말로지우까(МОЛОТИЛКА)라는데 잇어, 거두는 게. 거두는 말로지우까(МОЛОТИЛКА) 잇어.{싹 낫으로 베고. 이 찰벼는 싹 낫으로 베오, 낫으로. 낫으로 베고 이 그런 것은 매벼는 국가에서 싹 그런 거, 탈곡기라고 벼를 베는 기계가 있어, 거두는 것이. 거두는 탈곡기가 있어.}

10318 @ 몰로지우까(МОЛОТИЛКА){탈곡기.}

10318 # 야~ 말로지우까(МОЛОТИЛКА) 잇어. 어 그걸르 빼에서처리 두두리우 거기서. 이래 빼 메서리처리 두두리우. 그리우. 기래무 한짝을르느 씨 씨알이 그런 이 통재에 떨어지구 어 짚우느 두우루 나가구. 그 그렇기, 그렇기 기랫어.{응 탈곡기라고 있어. 어 그것으로 베어서 터오, 거기서. 이렇게 베는 것처럼 터오. 그러오. 그러면 한쪽으로는 씨 씨알(벼알)이 그런 이 통에 떨어지고 어 짚은 뒤로 나가고.}

10302 @ 그러면 베느 어디다 어디메다 심슴둥?{그러면 벼는 어디다 어디에다 심습니까?}

10302 # 꼬호즈(КОЛОЗ)서 밭에다 시무지 꼬호즈.{콜호스에서, 밭에다 심지, 콜호스.}

10302 @ 무슨 밭에다? 베밭이, 논밭이?{무슨 밭에다? '베밭(논), 논밭(논)?}

10302 # 베밭이 잇지.{논이 잇지.}

10302 @ 베밭이.{논.}

10302 # 아~ 베밭이 잇짐.{응 논이 잇지 뭐.}

10302 @ 베밭이 큼둥?{논이 큼니까?}

10302 # 어우! 몇 헥타르(гектар) 데지. 크재잉구! 아이 목하밭이두 몇 헥타르(гектар) 데지. 아 그런 거 에따(это) 께남(конопля)우 밭이두 몇 헥타르(гектар) 데지. 꼬호즈(колхоз) 밭이 크:지 무슨. 그래 그거 그래 시무지. 그래구야 국가르 들어가구야 이 목하르 저어서 그전에는 목하르 저어서 딸린(Сталин) 때에는 목하르 저어서 제일 일등 쳇지, 목하르. 목하르 일등쳇지. 그랬지. 기래 베 같은 거는 국가다 주구 꼬호즈(колхоз) 해원덜두 농가 두 주구 그랬지. 그래 우리 같은 거는 그거 베질하기만 하무 어 우리 아바이는 끼노(кин)에서 노다나이 그 베르 거저 죄끔 가지우. 죄끔 가지구 그리구 오구르드(огород)르 가지구.{어이구! 몇 헥타르 되지. 크고 말고! 아니 목화 밭도 몇 헥타르가 되지. 아 그런 거 음 삼[麻] 밭도 몇 헥타르가 되지. 콜호스 논이 크지 뭐. 그래 그거 그렇게 심지. 그렇게 하고서야 국가로 들어가고서야 이 목화 농사를 지어서, 그전에는 목화 농사를 지어서, 스탈린 때에는 목화 농사를 지어서, (목화 농사를) 제일 일등으로 쳇지, 목화를. 목화 농사를 제일로 쳇지. 그랬지. 그래 벼 같은 것은 국가에다 바치고 (그 나머지는) 콜호스 회원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그랬지.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벼농사를 짓기만 하면 어 우리 할아버지는 영화를 상영하다 보니 그 벼를 그저 조금 가지오. 조금 갖고 그리고 텃밭을 갖고.}

10302 @ 그렇지.{그렇지.}

# 기래서 저기서 떨어지는 거 몇 뿌로젠트(процент)르 꼬호즈(колхоз) 주구 몇 뿌로젠트(процент)르 우리 가지구. 기랩 신용 벤벤하지 무. 그렇기 우리 일했지. 우리 아바이는 저녁에 끼노(кино)르 놀구 낮에가 실어오구 일리 정습 후에는 시가이 잇으무 그 베밭으 달아갔지. 우리 이 아덜두 고사해했어. 우리 본래 잘 사지 못하다나이 아덜두 짝 일해야 데지. 기래길래 우리 아덜이 일으 못하는 일이 없소. 꼬호즈(колхоз) 일하라마 꼬호즈(колхоз) 일하구 무스거 어디메 가서 어 재비 글 이르는 일 하라마 우리 딸으는 몇 콤비나뜨(комбинат) 랍, 그런 거 갈그 내재이오? 갈그 나는 거기 나바란까(лаборантка), 나바란까(лаборантка) 싹 줄으 하메서리 그거 어 채밀알으 싹 싹줄으 하나 어 갈그, 갈그 내무 그게 어느 쏘트(сорт) 나가는게랑 그거 잉게 싹 쏸또라(контора) 다아 적는 일으 그런 일으 했됐어. 우리 딸은.{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거 몇 퍼센트를 콜호스에 주고 몇 퍼센트를 우리가 갖고. 그럼 신용이 넉넉하지(튼튼하지) 뭐. 그렇게 우리 일했지. 우리 할아버지는 저녁에 영화를 상영하고 낮에 가서 실어오고 혹은 점심 후에는 시간이 있으면 그 논으로 달려갔지. 우리 이 아이들도 고생했어. 우리 본래 잘 살지 못하다 보니 아이들도 싹 일해야 되지. 그래 우리 아이들이 일을 못하는 일이 없소. 콜호스 일을 하라면 콜호스 일을 하고 뭐 어디 가서 어 자기 공부를 하라면, 우리 딸은 몇 콤비나트에서, 그런 거 가루를 내잖소? 가루가 나는 거기 조교, 조교 싹줄을 하면서 그거 어 밀 알을 싹 싹줄을 하거나 어 가루를, 가루를 내면 그게 어느 종류 나가는 것(등급을 매기는 것)이랑 그거 이렇게 싹 사무실에서 다 적는 일을, 그런 일을 했었어. 우리 딸은.}

@ 따님이.{따님이.}

# 음. 기래구 또 우리 큰아는 이 이 푸룬세(Фрунзе)에서 이 그전에는 옛날에는 비쉬케크라 아이하구 푸룬세(Фрунзе)라 했됐어. 그 쟁재리 같은 싸말료뜨(самолёт) 잇재이우? 우에 발랭개비 도는. 그 싸말료뜨(самолёт) 탕됐어 내 아들이. 야~. 그런 거 탕됐어. 딸아들은 그거 필하구 그거 글으 일것지. 일했지 여기서. 개구 둘째사 저어 보에느이(военный)이다나이 저

기서 어전 서른 두해 데이 그양 거기 있지.{음. 그리고 또 우리 큰아이는 이 이 비슈케크에서 이 그전에는 옛날에는 비슈케크라 안 하고 '푸룬세'라고 했었어. 그 잡자리 같은 비행기가 있잖소? 위에 팔랑개비가 도는. 그 비행기를 탔었어 내 아들이. 응. 그런 거 탔었어. 만아들은 그거 졸업하고 그거 공부를 했지. 일했지 여기서. 그리고 둘째야 저어 군사학교이다 보니 저기서 이젠 서른 두 해 되니 그냥 거기 있지.}

@ 음. 그렇지.{음. 그렇지.}

# 아~ 그렇지. 기래 우리 아덜두 어 십년제르 글으 이를 때꺼지는 꼬호즈(КОЛОЗ)에 잇다나이 까테. 고상 모지리 했어. 목하르 뜯어야테지 이 에미 같이 그 밭에서 그거 지슴매:야 데지. 목해르 그거 싹 옆테서 앉아가메 그거 목하르 이룽기 딱 한 대씨 드오. 기계 두 대 서두 아 이 데오. 기래 딱 한 대씨 세우구 거기 여가리에 풀으 다 뽑구 두 헥타르(гектар)씨 가지구 그거 옆테가메 그거 속우자무 기계 어떻겟소. 거 속어두 제 때 딱 속어야 데오. 늦어두 아이 테구. 늦으무 아이 데지. 목하 잘 데지 애잉지. 자라재잉지. 그러.{음 그렇지. 그래 우리 아이 들도 10년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까지는 콜호스에 있다 보니. 고생을 몹시 했어. 목화를 뜯어야 되지. 이 어미와 같이 그 밭에서 그거 김을 매야 되지. 목화를 그거 싹 옆드려서 앉 아가며 그거 목화를 이렇게 딱 한 포기씩 드오. 그게 두 포기가 서도(자라도) 안 되오. 그래 딱 한 포기씩 세우고 거기 가장자리에 난 풀을 다 뽑고 두 헥타르씩 가지고 그거 옆드려 가 며 그거 속아내자면 그게 어떻겟소. 거 속아도 제 때 딱 속아야 되오. 늦어도 안 되고. 늦으 면 안 되지. 목화 잘 되지 않지. 자라지 않지. 그렇소.}

10307 # 저 그런 거 파 시무는 것두 물 제때 대구 이룽기 그런 걸르 후치질으 자알 해애야 골 때: 좋아야 물두 잘 들어가구 개 기래길래 우리네는 농새르 해애두 우리네 농새질하는 데 사람이 열씨하오. 열호씨, 열호씨 하데 늘:쌍 우리 아바이는 일드으 제엿어. 일드으 제엿땀어. 기래구 파밭에 풀이 없지. 그 풀이 가슬할 임시에는 그게 풀이 잘 자라오. 기 래기만 하무 그 가슬으, 이 루꾸(Лук)르 가슬할 적에, 아오? 알기오? 루꾸(Лук)르 켈 적 에, 그 가슬할 적에 풀이마 잇으무 캐기 아주 바뿌단 말이지. 다른 사름덜으는 젊은 아덜 으는 그거 지슴매기 싫에서 놔:두짐. 아 기래구 어 싹군으, 싹군으 적지. 기래구서리 예: 가슬할 적에 그거 키 넘어가기마 하무 한짝을르 도끼르 찍으메서리 기라메서 가슬하오 파이. 기래무 그 가슬할 사름은 기계 엠매나 바뿌오. 우리네 내배다보기마 하무 맨 루꾸 (Лук) 조르르 섰소. 그렇기 우리 아바이는 풀이 못 나기 하오. 마감에 엔: 마감 번으 꼭 매야 데지. 지슴우 그렇기 땀땀어. 깨다나이 그:: 열코에서두 늘상 일드으 제엿땀어.{저 그런 거 파 심는 것도 물을 제 때 대고 이렇게 그런 것으로 하며 후치질을 잘 해야 고랑 이 좋아야 물도 잘 들어가고 그래 그렇기에 우리네는 농사를 지어도 우리네 농사를 짓는 데 사람이 열씩 짓소. 열 호(戶)씩, 열 호씩 하되 늘상 우리 할아버지는 일등을 했어. 일 등을 했었어. 그리고 파밭에 풀이 없지. 그 풀이 가슬할 무렵에는 그게 풀이 잘 자라오. 그렇기만 하면 그 가슬을, 이 파를 가슬할 적에, 아오? 알 수 있겠소? 파를 켈(뽑을) 적 에, 그 가슬할 적에 풀만 있으면 캐기가 아주 힘들단 말이지. 다른 사름들은 젊은 아이들 은 그거 김매기 싫어서 놓아 두지 뭐. 아 그리고 어 싹군이, 싹군이 적지. 그리고서 예 가슬할 적에 그거 키가 넘어가기만 하면 한 쪽을 도끼로 찍으면서 그러면서 가슬하오 파 를. 그러면 그 가슬하는 사름은 그게 얼마나 힘드오. 우리네 내다보기만 하면 맨 파가 조 르르 섰소.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는 풀이 못 나게 하오. 마지막에 맨 마지막 번을 꼭 매 야 되지. 김을 그렇게 땀었어. 그렇다 보니 그 강낭콩에서도 늘상 일등을 했었어.}

10307 @ 빠르브이(первый).{일등.}

10307 # 야~ 그렇게 일했었소. 기래다나이 이 어 열세 해르 했는데 네 해르 그런 거 수박질으  
했어. 기래구 어 아홉 해르 그런 파지이르 하구.(응 그렇게 일했었소. 그렇다 보니 이 어  
열세 해를 농사를 지었는데 네 해를 그런 거 수박 농사를 지었어. 그리고 어 아홉 해를  
그런 파농사를 짓고.)

10307 @ 아홉 해르.{아홉 해를.}

10307 # 아홉 해르 그런 파지이르 했어. 기래두 파지이르 해서 돈으 못 번 때 없구.{아홉 해를  
그런 파 농사를 했어. 그래도 파 농사를 해서 돈을 못 번 때는 없고.}

# 돈으 일없게 벌길래 아:덜으느 서방 시집으 다아 가네느 조끔 조끔씨느 다아 농가 짓밧어,  
우리 아:덜으. 기래두 맏아들이 제::일 쫘어. 맏아들으 제일 쫘밧어. 맏아들으느 마시나(маши  
на)르 싸쫘지. 돈으 집우 쌀 적에 이룽기 원조르 해쫘지. 기래구 마감 우리 아바이 어전으  
그 해 마감 돈으 벌어가지구 와서 그 이듬해 베~이 들었지. 기래 들어실 적에 돈으 구십천  
쫘서 한칸들이 두 칸들이 하구. 그래구 우리 아들이 세상 떠났밧어. 쫘. 그 때느 우리 아들  
이게 세칸들이 집이 잇었지. 두칸들이 집이 잇었지. 한칸들이 집이 잇었지. 집이 서이 잇었  
밧어. 그담에 이 밧집이 잇재이오? 이게 우리 아들이 쫘다가 만 집이우. 기랜 이집우 세칸들  
이가 바깥소. 개 집이 너이 잇었밧어. 너어 잇구 마시나(машина) 너이 잇었어. 기래 제에실  
적에 한나 팔밧밧어. 마시나르 한나 팔구 돈으느 못 밧밧어. 어 숨이 없다나이 돈으 못 밧구  
부인네 돈으 밧밧지. 그 돈으. 기래구 한나는 본래 그 마시나(машина)르 쌀적에 우리 둘채  
아들 이름으로 싸구. 둘채 아들이. 그 그거느 조선말르 무시기라 할까? 에따(это) 이룽기 에  
따(это) 로파레(лотерея)르 우리는 여기서는 이룽기 로파레(лотерея)라 하오. 무스거 이룽  
게 놀음 놀음 노재이오? 놀음 놀아 이룽기 이 로파레(лотерея)라구서 이룽게 잇지. 그럼 거  
기 마시나(машина)두 내오구 마따찌기(мотоцикл)두 내오구 자행고도 내오구 이런 이그라  
(игра)르 놀지. 기랜데 우리 아들이 그거 맞힌 게 마시나(машина)르 밧쫘지. 아, 그게 놀리  
제베뜨이(ноль девятка) 그전에 놀리제베뜨이(ноль девятка) 큰 좋은 마시나(машина)라  
해밧밧소. 놀리제비야뜨이 그 마시나르 밧쫘짐. 기래 우리 둘채 마시나(машина)르 탈 줄 몰  
랏밧어 그때. 우리 맏아들은 마시나(машина)르 탈 줄 알아두 둘채느 몰랏밧어. 그래 그 마  
시나(машина)르 맏이 기래짐. 그거 나르 달라구. 나르 달라하이까데 에 그 마시나(маши  
на)르 헤이르 쫘지. 기랜데 그 부인에 오래비 그 마시나(машина)르 나르 달라구. 내 너르 어  
따(это) 기계 아홉 천 바이 그때 아홉천 바이. 그때 노시아 돈으 쫘 쓸 때지. 아홉 천 바이  
밧지. 기래 아홉 천 반으 어 내 헤이게서느 아홉 천 반으 그거 가쫘지 돈으. 기래구 그 처넌  
이느 안까이 오래비느, 스무 천 주마. 스무천 주마라구.{돈을 괜찮게 벌기에 아이들이 시집장  
가를 다 가면 조끔 조끔씩은 다 나누어 주었어,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맏아들에게 제일  
많이 주었어. 맏아들을 제일 많이 주었어. 맏아들은 자동차를 사 주었지. 돈을, 집을 살 적에  
이렇게 원조를 해 주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할아버지 이젠 그 해 마지막으로 돈을  
벌어 가지고 와서 그 이듬해 병이 들었지. 병이 들었을 적에 돈을 90,000숨을 주어서 한 칸  
들이 집을 두 칸들이로 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 쫘. 그때느 우리 아들에게  
세 칸들이 집이 잇었지. 두 칸들이 집이 잇었지. 한 칸들이 집이 잇었지. 집이 세 채나 잇었  
어. 그 다음에 이 단독주택이 있잖소? 이 집이 우리 아들이 짓다가 만 집이오. 그런데 세 칸  
들이 집과 바꾸었소. 그래 집이 넷이 잇었어. (집이) 넷이 잇고 자동차가 넷이 잇었어. 그리  
고 지었을 적에 하나는 팔밧어. 자동차를 하나 팔고 돈은 못 밧밧어. 어 숨이 없다 보니 돈



을 못 받고 부인네가 돈을 받았지. 그 돈을. 그리고 하나는 본래 그 자동차를 살 적에 우리 둘째 아들 이름으로 사고. 둘째 아들. 그, 그것은 조선말로 무엇이랴 할까? 음 이렇게 음 복침(福籤)을 우리는 여기서는 이렇게 ‘로파레이’라 하오. 이렇게 무슨 놀이, 놀이를 놀잖소? 놀이를 놀아 이렇게 이 ‘로파레이’라고 이렇게 있지. 그럼 거기 자동차도 내걸고 오토바이도 내걸고 자전거도 내걸고 이런 놀이를 놀지.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거 맞힌 것이 자동차를 맞추었지. 아, 그게 ‘놀리제베뜨이’, 그전에 ‘놀리제베뜨이’ 큰 좋은 자동차라 했었소. ‘놀리제베뜨이’ 그 자동차를 맞추었지 뭐. 그래 우리 둘째는 자동차를 탈 줄을 몰랐었어 그때. 우리 맏아들은 자동차를 탈 줄을 알아도 둘째는 몰랐어. 그래 그 자동차를 맏이가 그러지 뭐. 그거 나를 달라고. 나를 달라고 하니까 에 그 자동차를 형을 주었지. 그런데 그 부인의 오라비가 그 자동차를 나를 달라고. 내가 너를, 음 그게 9,500루블 그때 9,500루블. 그때는 싹 러시아 돈을 모두 쓸 때까지. 9,500루블이 되었지. 그래 9,500루블을 내 형으로부터 9,500루블을 그거 가졌지, 돈을. 그리고 그 처남은, 아내의 오라비는 20,000루블을 주마. 20,000루블을 주마 하고.}

@ 음.{음.}

# 기래 아이 줏어. 스무천두 아이받구 제 동새애르 제에 값에 헤~이 줏지. 우리 둘째 제 헤~이르 줏지 그 마시나(машина)르. 기래 주메서리 미시기라 했는가 나느 마시나(машина)르 탈 줄으 모르재인가구. 기래이까데 어 낡은 마시나(машина)르 내 그거 배우게서리. 그거 우리 아들으느 이룩기 에팔르두 타다가 그담에느 무슨 일으 했는가 거기서 나오구 마시나(машина)르 마사진 고치는 일으 그 일으 했됐어. 마감에 어느 그게 어느 해갯는가 하이 에 야든, 야든 아홉해 때부터 넬(нет)!, 야든 일곱해 때부터 이래 마시나(машина) 고치는 일으 했지. 이기 마시나(машина) 고치는 데 딱 한나됐어. 이 이 푸룬제는 딱 그거이 한나 됐지, 마시나(машина) 고치는 게. 기래 어 내 너르 낡은 마시나(машина)르 고쳐서 너르 주구 이 새 마시나(машина)르 내 가지갯다구. 기랬지. 기래 어전으 그 마시나(машина)르 어 그룽기 타구 땡기다가 태구 땡기다가 기계 에 노메르(номер)랑 싹 스웨르로프(свердлов). 스웨르로프(свердлов) 아오?{그래 안 줏어. 20,000루블도 안 받고 제 동생에게 제 값에 형이 주었지. 우리 둘째가 제 형에게 주었지, 그 자동차를. 그래 주면서 무엇이랴 했는가 하면, 나는 자동차를 탈 줄을 모르잖는가 하고. 그러니까 어 낡은 자동차를 내가 그거(운전을) 배우게끔. 그거 우리 아들은 이렇게 홀로 따로 타다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거기서 (일하는 데서) 나오고 자동차를, 부서진 자동차를 고치는 일을, 그 일을 했었어. 마지막으로 어느, 그게 어느 해이갯는가 하니 에 80, 89년부터, 아니! 87년부터 이렇게 자동차 고치는 일을 했지. 여기 자동차를 고치는 데가 딱 하나 생겼지. 이 이 푸룬제에는 그게 하나가 생겼지, 자동차 고치는 것이. 그래 어 내 너에게 낡은 자동차를 고쳐서 너에게 주고 이 새 자동차를 내가 가지갯다고. 그랬지. 그래 이젠 그 자동차를 어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타고 다니다가 그게 에 번호판이랑 싹 스웨르로프. 스베르로프를 아오?}

@ 음.{음.}

# 노시아오 기계. 스웨르로프(свердлов). 고로드(Город) 스베르(свердлов), 시방 예까제레나부르그(Екатеринбург)라 하오. 시방 예까제레나부르그(Екатеринбург)라 하오. 그래 그기 노메리(номер)구 어 우리 아들이 거기서 그거 마시나(машина)르 그거 다아 오푸메니(отметить) 하다나이 에 기계 우리 둘째 아들 이림이지. 켉스 빠스뽀르따(техпаспорт)르 아오? 켉스 빠스뽀르따(техпаспорт) 책이, 책이. 이렇게 음: 마시나(машина)에 그 빠스뽀르따 잇

구야. 마시나(машина)르 타구 땡기재이오? 그 빠스뽀르따 이림이 우리 둘째 아들 이림이지. 빠왈리(Пак Валерий)구. 큰거느 유리(Юрий)요. 빠유리(Пак Юрий). 기래 그 빠스뽀르뜨르 제 동생: 이름우 가지구서 그양 도베르노시(доверенность), 도베르노시(доверенность) 그 노시아말르. 고려말르 무시기라 하는 지 모르겠소. 그 도베르나시(доверенность)르 해 가지구 스베르로프스끼이 도베르노시(свердловский доверенность)르 가지구 우리 아들이 그 몇 해르 타다가서리 마감에 어전으 그거 모:지리 타게 데이까데 우리 맏아들이 그러지. 에따(это), 구십, 구십 삼년도에 구십 삼년도에 니 가을에 오나라. 구월달에 오나라. 오기마 하무 내 네 마시나(машина)르 데비 주겟다구.{러시아오, 그계. 스베르로프. 도시(都市) 스베르(로프), 지금 에카테레나부르크라 하오. 지금 에카테레나부르크라 하오. 거기 번호고 어 우리 아들이 거기서 그거 자동차를 그거 다 신고를 취소하고 보니 에 그계 우리 둘째 아들 이림이지. 운전면허증을 아오?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이렇게 음 자동차에 그 면허증이 있고 응.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소? 그 면허증 이름이 우리 둘째 아들 이림이지. 하나는 박왈리고. 큰아들은 유리요. 박유리. 그래 그 면허증을, 제 동생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도베르노시’(위임장), ‘도베르노시’(위임장) 그 러시아 말로. 고려말로느 무엇이라 하는지 모르겠소. 그 위임장을 해 가지고 스베르로프시에서 허가한 위임장을 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 몇 해를 타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그거 몹시 타게 되니까 우리 맏아들이 그러지. 음, 90, 93년도에 93년도에, 네 가을에 오나라. 9월 달에 오나라. 오기만 하면 내가 네 자동차를 도로 주겟다고.}

@ 음.{음.}

# 싹 고쳐서. 기앤데 제끄 빠스뽀르따(техпаспорт)느 그 아르 쫓지. 제 동생애르 쫓지. 제끄, 제쓰 빠스뽀르따(техпаспорт)르. 가을에 오무 제 죽을 게 알겟던지 어쨌던지 어쨌 제 싹스 빠스뽀르따(техпаспорт)르 동생:르 쫓던지. 그거 아이 주기마 하무 안까이 그거 팔짐. 기래 우리 집이 와서 그 우리 메느리 이래지. “마마! 그 마시나(машина) 싹스 빠스뽀르따 마마게 잇소?”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모른다.” “기래 그 싹스 빠스뽀르따(техпаспорт) 어디메 잇소?” “내 어찌 아야?”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말하지. 전화르 하지. 기래 내 이랬지. “왈레라(Валера)! 니 유리 싹스 빠스 싹스 빠스뽀르따(техпаспорт)르 어쨌?” “마마! 그계 유리 싹스 빠스뽀르따(техпаспорт) 아이오.” 기계 도큐멘뜨(документ) 뽀무쓰 내: 도큐멘뜨(документ)라구. 그 마시나(машина) 도큐멘뜨(документ) 뽀무쓰 내게라구. 기래 야 리따(Рита) 그거 찾는다. 그 마시나(машина)르 팔겟단다. 기래 마마! 그 마시나(машина)르 군대, 구인 잇재오? 군대. 거길르 그계 나온 마시나(машина)이 내 에따(это) 그 사람이 그 마시나(машина)르 팔아두 돈으느 받아두 내 그 마시나(машина)르 가진다구. 그러나 돈으느 난 아이 준다구. 그러나 법률르 내 법률르 싹 그래두 군대 멜리찌오네르(милиционер)나 한가지우. 저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기래 법률르 내 그 마시나(машина) 돈으 아이 주구 찾는다구. 그룽기 우리 둘째아들은 말하짐 야~. 기래 어: 나는 그런 거 모르지. 우리 아바이사 그런 거 자라스베라이(разбираю) 하지 무. 그러나 나는 모르다나이 거저 들은 말은 내 이룽기 하오. 들은 말은 내 이룽기 하오. 야~. 기래,{싹 고쳐서. 그런데 면허증은 그 아이를 주었지. 제 동생아이를 주었지. 면, 면허증을. 가을에 오면 제 죽을 것을 알았던지 어쨌던지 어쨌 면허증을 동생에게 주었던지. 그거 안 주기만 하면 아내가 그거 팔지 뤼. 그래 우리 집에 와서 그 우리 며느리 이러지. “어머니! 그 자동차 면허증이 어머니에게 잇소?”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모른다.” “그래 그 면허증이 어디에 잇소?” “내가 어찌 아냐?”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말하지. 전화를 하지. 그래 내가 이랬지. “왈레라! 니 유리의

면허증을 어쨌니?” “어머니! 그게 유리 면허증이 아니오.” 그게 내 서류라고. 그 자동차 서류가 내 것이라고. 그래 응 리따가 그거 찾는다. 그 자동차를 팔겠단다. 그래 어머니! 그 자동차를 군대, 군인(軍人) 있잖소? 군대(軍隊). 거기서 그게 나온 자동차이니, 내가 음 그 사람이 그 자동차를 팔아도 돈은 받아도 내 그 자동차를 가진다고. 그러나 돈은 난 안 준다고. 그러나 법으로 내가 법으로 싹 그래도 군대 경찰(헌병)이나 한가지요. 저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래 법으로 내 그 자동차 돈을 안 주고 찾는다고. 그렇게 우리 둘째 아들은 말하지 뭐 응. 그래 어 나는 그런 거 모르지. 우리 할아버지야 그런 거 잘 알지 뭐. 그러나 나는 모르다 보니 그저 들은 말은 내 이렇게 하오. 들은 말은 내가 이렇게 하오. 응. 그래.}

10304 @1 아매! 그 아까 그 농새질 하는 거 여쭙봤대임둥? 그 농새질을 할 때 그 쟁기 쟁기 있대임둥? 쟁기 무스거 무스거 있슴둥?{할머니! 그 아까 그 농사짓는 거 여쭙어 보았잖습니까? 그 농사를 지을 때 그 농기구 농기구가 있잖습니까? 농기구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10304 # 쟁기 우리집에 있소. 기계 다아 쟁기 있소. 호미두 있구 그런 거 풀우 이래 찍어 빼는 것두 있구. 아 기래구 또 가새도 있어. 그거 빼는 가새두 우리집에 있어. 이따가 내 나래만에 베울게지. 그런 가새두 있구. 그런 걸르 베에구 그런 걸르 지슴매구. 호밀르 지슴매구. 호미 그 한국에 호미 있어? 요렇게 조끄만 게 야. 호미 지슴매는 거. 그랬었어.{농기구가 우리집에 있소. 그게 다 농기구가 있소. 호미도 있고 그런 거 풀을 이렇게 찍어 빼는 것도 있고. 아 그리고 또 가위도 있어. 그거 빼는 가위도 우리집에 있어. 이따가 내가 조금 있다가 보여줄게. 그런 가위도 있고. 그런 걸로 파를 베고 그런 것으로 김을 매고. 호미로 김매고. 한국에 호미 있어? 요렇게 조끄만 것이 응. 호미, 김매는 거. 그랬어.}

10304 @1 아매! 그러무 지슴맬 때 쓰는 쟁기두 있구.{할머니! 그러면 김맬 때 쓰는 농기구도 있고.}

10304 # 야~. 기래구서리 윙게 파는 게. 파는 쟁기두 있소. 파이, 파이 어떤 때느 물이 올라가지아윙갓어? 기래무 그렇게 파에 잘 데기마 하무 지재빌르 술술술술 이룽기 빠지지 야~. 파에 잘 데무, 그러나 물이 넘어나지 아윙갓어. 기래무 기계 빠지기마 하무 또 이룽게 파는 게 있어. 그런게 또. 셋쟁길르 맨든 게.{응. 그리고 이렇게 파는 것. 파는 농기구도 있소. 파, 파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때는 물이 올라가지 않겠어? 그러면 그렇게 파가 잘 되기만 하면 제 저절로 술술술술 이렇게 빠지지 응. 파가 잘 되면, 그러나 물이 넘치지 않겠어. 그러면 그게 빠지기만 하면 또 이렇게 파는 것이 있어. 그런게 또. 쇠로 된 농기구로 만든 것이.}

10304 @1 그거 이름이 무스검둥?{그거 이름이 무엇입니까?}

10304 # 아, 그거는 우리네는 까빠르까(кабарка)라 하오, 여기서. 그 파는 건 까빨까(кабарка)라 하오. 기랜게 어 조선말르네 그거 미시기라구 하는지 내 잘 모르겠소. 기래구 그 어 파에르 베는 가새두 있소. 그건 가새라 하오, 여기두. 개구 지슴매는 거는 호미라 하오. {아, 그것은 우리네는 파종기라 하오, 여기서. 그 파는 것은 파종기라 하오. 그런데 어 조선말로로는 그거 무엇이냐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소. 그리고 그 어 파를 베는 가위도 있소. 그건 가위라고 하오, 여기서도. 그리고 김매는 것은 호미라고 하오.}

10308 @ 아매 그 파이크 이룽기 뽐, 뽐지 않슴둥?{할머니 그 파를 이렇게 뽐, 뽐지 않습니까?}

10308 # 어, 뽐는 게 그 물이 잘 아이 들어가지 아윙갓소? 기래무 그 파에 이룽기 씨 달아두 이룽기 올라가오. 세 군씨 올라가오. 기래무 팔십 뽐로젠뜨(процент)르, 팔, 잘 데무 팔

십 프로센트(процент) 나오오. 그러나 시방, 시방 파이들이 야~ 파이 그닥지 못해서 거저 신: 프로센트(процент) 나오무 그게 잘 난다 하오. 그전에는 우리네는 팔십씨 낫됐소. 그렇기 수확이 잘 낫됐소. 기랜게 시방으는 그렇기 잘 아이 데오. 그렇소. 기래 그 뽑을 적에는 정말 두 손 가지구서르 뽑우무 이룽기 두 골따 가지구서리 나가오. 두 골따 해서 한골따에다 이래 놓짐. 책:책 놓소. 기래 놓기만 하무 예엔 처암 뽑을 적에는 해 따 갑아서 팔월달에 팔월 거저 그름끼무 뽑소 시작이르 하오. 팔월 달에 야. 아, 그저 스무날 스물댓셋날 시작이르 하지. 그거 뽑지. 기램 해 따갑아서 그거 잃기 뽑아서는 제 앞으로 댕소. 이래 제 앞으로 댕소. 기래매서르 나가지. 기래구두 그거 자를 적에는 거저 재비차레 나가며 자르기두 그렇기 훅소. 고거 딱딱 자르기두 훅소. 기래무 그 두 고랑 한 골따~ 하지. 씨 잘 아이 불구 잘 이이 데무 세 골따~ 한 골따~ 하오. 개 우리네는 그렇기 해에 못 밧소. 그양:: 두 골땅 한 골땅 해애두 이룽기 높우기 제에집데.{어, 뽑는 게 그 물이 잘 안 들어가지 않겠소? 그러면 그 파 이렇게 씨가 \*달려도 이렇게 올라가오. 세 곳씩 올라가오. 그러면 80퍼센트, 8, 잘 되면 80퍼센트 나오오. 그러나 시방, 시방 파들이 응 땅이 농사가 잘 안 되어서 그저 50퍼센트 나오면 그게 잘 난다 하오. 그전에는 우리네는 80퍼센트씩 낫았소. 그렇게 수확이 잘 낫았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되오. 그렇소. 그래 그 뽑을 적에는 정말 두 손을 가지고서 뽑으면 이렇게 두 고랑을 가지고서 나가오. 두 고랑을 해서 한 고랑에다 이렇게 놓지 댕. 착착 놓소. 기래 놓기만 하면 맨 처음 뽑을 적에는 해가 뜨거워서 팔월달에 팔월 그저 그름께면 뽑소. 시작을 하오. 팔월 달에 응. 아, 그저 스무날 스물댓셋날 시작을 하지. 그거 뽑지. 그럼 해가 뜨거워서 그거 이렇게 뽑아서는 제 앞으로 댕소. 이렇게 제 앞으로 댕소. 그러면서 나가지. 그렇게 하고도 그거 자를 적에는 그저 자기 차레 나가며 자르기도 그렇게 쉽소. 고거 딱딱 자르기도 쉽소. 그러면 그 두 고랑 한 고랑을 하지. 씨 잘 안 불고 잘 안 되면 세 고랑 한 고랑 하오. 그래 우리네는 그렇게 해 보지 못했소. 그냥 두 고랑 한 고랑 해도 이렇게 높게 농사가 지어지데.}

10304 @ 그럼 아매! 베질할 때 에 베밭을 먼저 갈아서 번지재임둥? 무스거 가지구 번짐둥?{그럼 할머니! 벼농사를 지을 때 에 논을 먼저 갈아서 흙을 갈아엎잖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갈아엎습니까?}

10304 # 트랙토르(трактор) 가지구서르 밭으 갈지. 트랙토르(трактор)르 밭으 갈구 꼬호즈(колхоз) 꺼는 에따(это) 번지라 하오. 그런 거 이룽기 농구서르 야. 이룽기 너르오. 너른 거 세르 메와가지구서리 그거 밭으 거저 물안에서 고누지. 물안에서. 시방으는, 시방으는 저 까자흐스탄에서 베질하는 게 한나투 그렇기 아이 하오. 마른 거 베르 씨알까(сеялка) 잇재이오? 씨알까(сеялка)에다가 베르 마른 베르 열지. 그담에는 밭으 지내 이게 거저 요룽기 요룽 상판이 전부[전부] 뺌드삿소. 어 상판처르 이래 뺌드산 밭에다 씨알까(сеялка)르 대구 그거 시무지. 그전에는 싹 손을르 첫땀어. 그전에 옛날에는 우리 빠빠두 내 아버지 때애두 싹 손을르 채밀이 보리 이 베 물안에서 싹 그룽기 손을르 첫땀어. 기래 손을르 칠 적에는 앞에서 사림이 이룽게 어디꺼지 베 이래 뿌리와나갓다구 하재이오? 그러나 이룽게 뿌리는 사림이 그거 못 보지. 어디메꺼지 씨 나간 거. 기래서 거기다 꼬재르 꼽소. 앞이루 나가매서리 어디꺼지 씨 들어왔다 이래매서. 기래무 또 경계 가서 또 씨르 뿌리는 사림이 거기 가 씨르 뿌리짐. 우리 아버지와랑 그렇게 헛땀소. 켜게 시방은 까자흐스탄에서 하는 게 싹 씨알까(сеялка)로 시문다구. 기래 베씨 많다나이 마암대르 그저 열

구서 뿌리지. 그래 그러지. 그 어 우리 어 시헤이랑 말하는 게 어 북조선에서랑 싹 손을 르 이룽기 그 시무재이무 어 더 앞서서 트락토를(трактор)르 잉게 싹 모조한다지. 모조~그룽기. 저기 한국에서두 이룽기 베씨 베르 시무지 거기서두?{트랙터를 가지고 논을 갈지. 트랙터로 논을 갈고 콜호스의 논은 음 번지라 하오. 그런 것을 이렇게 대고서(번지를 가지고서) 응. 이렇게 너르오. 너른 것인데 소를 매워서 논을 물 안에서 평평하게 고르지. 물 안에서. 시방은, 시방은 저 카자흐스탄에서 벼농사를 짓는데 한 사람도 그렇게 안 하오. 마른 거 벼를, 파종기(播種機)가 있잖소? 파종기에다가 벼를, 마른 벼를 넣지. 그 다음에는 논을, 이게 그저 요렇게 요렇게 상의 윗부분처럼 아주 반듯하오. 어 상의 판처럼 이렇게 반듯한 논에다 파종기를 대고 그거 심지. 그전에는 싹 손으로 씨를 쳤었어. 그 전에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도 내 아버지 때에도 싹 손으로 밀, 보리를 치고, 그리고 이 벼를 물 안에서 싹 그렇게 손으로 쳤었어. 그래 손으로 칠 적에는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어디까지 벼를 이렇게 뿌리며 나갔다고 하잖소? 그러나 이렇게 뿌리는 사람이 그거 못 보지. 어디까지 씨를 뿌리며 나갔는지를. 그래서 거기다 꼬챙이를 꽂소. 앞으로 나가면서 어디까지 씨가 들어왔다 이러면서.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씨를 뿌리는 사람이 거기 가 씨를 뿌리지 뭐. 우리 아버지랑 그렇게 했었소. 그런데 시방은 카자흐스탄에서 하는 것이 싹 파종기로 심는다고. 그래 벼씨가 많다 보니 마음대로 그저 넣고서 뿌리지. 그래 그러지. 그 어 우리 어 시형이랑 말하는데 어 북한에서랑 싹 손으로 이렇게 그 심지 않으면 어 저 앞서서 트랙터로 이렇게 싹 모조한다지. 모종을 그렇게. 저기 한국에서도 이렇게 벼씨를 벼를 심지, 거기서도?}

10304 @ 기젤르 하압꾸마.{기계로 합니다.}

10304 # 기젤르 하지:?(기계로 하지.)

10304 @ 따락토르(трактор).{트랙터.}

10304 # 트락토를(трактор)르. 그래 그전에 어 우리 시헤이 저기 북조선에서 갔다와서 그렇기 싹 모조한다지. 이기는 아이 모조하오. 그런 거 씨알깁(сеялка)르 막 뿌리지.{트랙터로. 그래 그전에 어 우리 시형이 저기 북한에 갔다와서 (말하기를) 그렇게 싹 모조한다지. 여기는 모종을 안 하오. 그저 그런 거 파종기로 막 뿌리지.}

10304 @ 그럼 아매! 그 베밭이 말구 채밀이나, 옛날에, 보리 같은 거 시물려면은 이걸 갈아서 번지재임둥? 무스걸르 했습둥? 그러니까 옛날에?{그럼 할머니! 그 논 말고 밀이나, 옛날에, 보리 같은 것을 심으려면 이걸 갈아엮잖습니까? 무엇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10304 # 아이! 트락토를(трактор)르 하지.{아이! 트랙터로 하지.}

10304 @ 트락톨르(трактор).{트랙터로.}

10304 # 트락톨르(трактор) 가지. 기래구.{트랙터로 갈지. 그리고.}

10304 @ 그러면 가대기라든가 뭐 이런 걸르 아이함둥?{그러면 가대기(극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안 합니까?}

10304 # 그런 가대기 있지. 가대기 있지. 그 가닥으르 어떤 건 둘이 차구 어떤 건 서이 가대기 있지. 가대기 있지. 그렇게 트락토를(трактор)르 갈구. 그 다음에는 걸기라는 게 있소. 이 셋쟁기르 이룽기 싹 박은 게. 기래 내 기래재이오. 어제 말해재임데? 아, 그 걸기르 농자 무 세 혼자느 못 땡기지. 기래 거기 세 잔덜이에 앉아 땡게야 데오. 세 잔더리에 앉아. 그래 세르 꼬구 땡기자무 맥이 없지. 기래 이 세두 어저느 말으 알아 듣는단 말이지. 아,

일러루 가무 일러루 가구, '절러루!' 하무 절러루 가구. 이래메 세 말으 알아듣는단 말이오. 세르 타구서리 곱지르 지구 이작으르 가구 저작으르. 기래 따이 그저 그전에는, 시바~으느 트랙토를(трактор)르 그래다나이까제 따이 반드삿소. 그전에는 따이 반드사지 못했소.{그런 가대기가 있지. 가대기가 있지. 그 가대기로 어떤 건 들이 차고 어떤 건 셋이 가대기 있지. 가대기가 있지. 그렇게 트랙터로 갈고. 그 다음에는 썬레라는 것이 있소. 이 쇠연장(쇠로 된 살)을 이렇게 짝 박은 것이. 그래 내가 그러잖소. 어제 말하지 않데? 아, 그 썬레를 대고 갈자면 소가 혼자는 못 다니지. 그래 거기 소 잔등에 앉아 다녀야 되오. 소의 잔등에 앉아. 그래 소를 끌고 다니자면 힘이 없지. 그래 이 소도 이제는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지. 아, 이리로 가자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하면 저리로 가고. 이러며 소가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오. 소를 타고서 고삐를 쥐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래 땅이 그저 그전에는, 시방은 트랙터를 쓰다 보니 땅이 반듯하오. 그전에는 땅이 반듯하지 못했소.}

10304 @ 저기 예, 그건 잘 들었습꾸마. 그러면은 가대길르 이룽기 번저 농구 그리구 나서.{저기 예, 그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대기로 이렇게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나서.}

10304 # 걸길르 썬 그저 반듯이 만들어야 데지.{썬레로 썬 그저 반듯이 만들어야 되지.}

10304 @ 반듯이 만들어야지. 밭 같은 경우, 베밭이 말구.{반듯이 만들어야지. 밭 같은 경우, 논 말고.}

10304 # 응, 채밀밭이.{응, 밀밭.}

10304 @ 채밀밭이 같은 경우는 감자밭 같은 건 심어 놓오무 여기 이 기슴이, 지슴이 나재임둥?{밀밭 같은 경우는 감자밭 같은 건 심어 놓으면 여기 이 김, 김이 나잖습니까?}

10304 # 지슴, 그 예따 그런 건 지슴 아이 매오. 채밀이 보리 지슴 아이 매오.{김, 그 음 그런 건 김을 안 매오. 밀, 보리는 김을 안 매오.}

10304 @ 음. 아니 옛날에. 옛날에 그거를 잉게 뭇르 잉게 갈아엎어서 덮는 거 있재임둥? 무스 걸르 갈아엎었습둥?{음. 아니, 옛날에. 옛날에 그것을 이렇게 무엇으로 이렇게 갈아엎어서 덮는 것이 있잖습니까? 무엇으로 갈아엎었습니까?}

10304 # 그래구 또 기계 또.{그리고 또 기계 또.}

10304 @ 후치?{후치?}

10304 # 후치 아이구.{후치 아니고.}

10304 @ 음.{음.}

10304 # 그 베씨르 치지애잉갓소. 어 채밀이랑 시무기맘 손을르 뿌리지애잉갓소? 기래무 또 이룽게 어 걸기르 고쳐 놓습데. 걸기라구 이런 거 고쳐 놓소.{그 벼씨를 치지 않겠소? 어 밀이랑 심기만 하면 손으로 뿌리지 않겠소? 그러면 또 이렇게 어 썬레를 다시 놓데. 썬레라고 이런 거 다시 놓소.}

10304 @ 걸기는 베밭에서 쓰는 거구.{썬레는 논에서 쓰는 것이고.}

10304 # 어우! 네:트(нет)!{어우! 아니오!}

10304 @ 그러면은?{그러면?}

10304 # 그게 마른데서 쓰는 기우. 기계 걸기.{그것이 마른 데서 쓰는 것이오. 그게 썬레.}

10304 @ 걸기?{썬레가?}

10304 # 기계 걸기 마른 데서 쓰오. 베밭에는 번지라구 하오.{그게 썬레가 마른 데서 쓰오. 논에서 쓰는 것은 '번지'라고 하오.}

10304 @ 아, 번지는 판판하게 하는 게 번지지.{아, 번지는 판판하게 하는 것이 번지지.}

10304 # 뽀뽀히 어, 뽀뽀히 하는 게 번지지.{판판하게 어, 판판하게 하는 것이 번지지.}

10304 @ 걸기느, 덩어리르 부수는 게 걸기구.{썩레는, 덩어리를 부수는 게 썩레고.}

10304 # 부시우는 게 걸기지.{부시는 것이 썩레지.}

10304 @ 그렇습지.{그렇지요.}

10304 # 기래두 채밀이 시무구는 그 걸기르 놓소. 그 걸기르. 그럼 채밀으 어디가서 해미피우 갯소. 그전에는 이 그런 게 없지. 씨알까(сеялка)라는 게. 그 베르 시무구 채밀으 시무는 그게 없었던 말이지. 옛날에는 그게 없었댔어. 우리 아아 때 우리 아버지 손으르 칠 적에 느 기계 없었댔소. 에 그라구 우리네 커서, 어 커서느 까자스판에서는 우리 까자스판에서 떠나서 이 따시켄뜨르 와실 적에는 우리 헤~이네 거기 잇다나이 에따(эТо) 우리 헤~이네 우리 아즈바이 말하는 게. 기래구 거기서는 물으 대애두 거저 트랙이 어방 뜨게 없지무. 장드레기 해서 거저 물으 대구 그렇기. {그래도 밀을 심고서는 그 썩레를 놓소. 그 썩레를. 그럼 밀을 어디가서 \*\*피우겠소. 그전에는 이 그런 것이 없지. 파종기라는 것이. 그 벼를 심고 밀을 심는 그것이 없었던 말이지. 옛날에는 그것이 없었어. 우리 아이 때 우리 아버지 손으로 칠 적에는 그것이 없었소. 에 그러고 우리네 커서, 어 커서는 카자흐스탄에서는 우리 카자흐스탄을 떠나서 이 타슈켄트로 왔을 적에는 우리 형이 거기에 있다 보니 음 우리 형네 형부가 말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는 물을 대도 그저 두렁이 어림을 할 수가 없지 뭐. 독을 해서 그저 물을 대고 그렇게.}

10304 @ 장드레기 뭇둥?{'장드레기'이 무엇입니까?}

10304 # 이룩기 걸어 땡기는 트랙이지. 걸어, 사람이. 이래 이룩게 베르 시무무 이 기다란 물으 꼴뚝 채우지 이룩기. 기래무 이게 장드랙이 있어야 데지.{이렇게 걸어 다니는 두렁이지. 걸어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벼를 심으면 이 기다란 물을 가득 채우지. 그러면 이게 독이 있어야 되지.}

10304 @ 아아! 장드랙이.{아! 독.}

10304 # 걸어 땡기구. 어 그래구 그길르 어따(эТо) 베씨 그런 거 비로르 치자무 그 조꼬만 술기 땡게야 데지. 그렇기 드럭으 장드럭으 둥기 크기 한다지.{걸어 다니고. 어 그리고 그길로 음 벼씨 그런 것이나 비료를 치자면 그 조그마한 수레가 다녀야 되지. 그렇게 두렁을 독을 그렇게 크게 한다지.}

10304 @ 그렇쥬.{그렇쥬.}

10304 # 아~ 그렇기 한다지.{응 그렇기 한다지.}

10304 @ 그러면. 아매! 예. 그러면은 그 흙을 잃게 팔 때느 무스거 가지구 파서 잃게 땡둥?{그러면. 할머니! 예. 그러면은 그 흙을 이렇게 팔 때는 무엇을 가지고 파서 이렇게 땡니까?}

10304 # 무스거 뜯 적이?{무엇을 뜯 적에?}

10304 @ 흙으.{흙을.}

10304 # 흙으 무스 어디다 그릴 적이?{흙을 뭐 어디다 그릴 적에?}

10304 @ 그냥 땅으 팔 때. 무스거 팜둥?{그냥 땅을 팔 때. 무엇으로 팜니까?}

10304 # 따아 팔 때 강차일르 파지. 강차일르.{땅을 팔 때 삽으로 파지. 삽으로.}

10304 @ 아, 강차일르.{아, '강차이'(삽)으로.}

10304 # 으응.{응.}

10304 @ 다시 뭇로?{다시 한 번 무엇으로?}

10304 # 강차이.{삽.}

10304 @ 강차이.{삽.}

10304 # 강차이. 강차이라구 우리 저 한제에두 잇어 그 강차이. 따아 파자구 강차이르 파지. 우리 지금 밭으 파는게 싹 강차일르 파오. 이 육전 작년에는 아바이 상세나이까데 놔 놔 더라. 고라 지을 줄 몰라서 놔더라. 아, 그거 그 자리에다가 우리 절에 시무자구. 그래 올 해 싹 그 제자리에다 심었어. 기래이까데 에 이게 배채랑 제자리에 시무이 파재일구 시 무이 못 쓰겠어. 기래구 저쪽, 아덜이 야덜이 저쪽으느 파구 심은 데는 났어. 기래 아매! 이 손네 이라지. 아매! 아이 판 것가 이 판 거 우리 짐작해 보구 기래구 새해르 싹 파자 구. 아이 판 게 못 하오.{삽. 삽이라고 우리 저 한테에도 잇어, 그 삽이. 땅을 파자고 할 때 삽으로 파지. 우리 지금 밭을 파는 게 싹 삽으로 파오. 이 밭을, 작년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냥 놔두라고 했지. 고랑을 지을 줄 몰라서 그냥 놔두라고 했지. 아, 그거 심었던 그 자리에다가 그냥 우리 심자고. 그래 올해 싹 그 제자리에다가 심었어. 그러니 까 에 이게 배추랑 제자리에다가 심으니, 파지 앓고 심으니 못 쓰겠어. 그리고 저쪽, 아 이들이 이 아이들이 저쪽에 파고 심은 데는 났어. 그래 할머니! 이 손녀가 이러지. 할머니! 안 판 것과 이 판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고 그리고 새해가 되면 싹 파자고. 파지 앓 은 곳이 (판 곳만) 못 하오.}

10304 @ 그렇지.{그렇지.}

10304 # 나~. 따아느 파야 기계 잘 데지. 따 아이 파무 잘 아이 데오. 이 요만:안 육전두. 요만 안 육전두 파야 데오.{응. 땅은 파야 그게 잘 되지. 땅을 안 파면 잘 안 되오. 이 요만한 밭도. 요만한 밭도 파야 되고.}

10304 @ 그럼 아매 지금 말씀하신 게 걸기 말씀 하셨구, 번지, 강차이.{그럼 할머니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씨레를 말씀하셨고, 번지, 삽.}

10304 # 후, 후치.{‘후치’.}

10304 @ 후치.{‘후치’.}

10304 # 트랙토르(трактор) 후, 트랙토리, 그리구 트랙토르(трактор)에다느 후치르 맞차야 밭으 갈지.{트랙터, 트랙터, 그리고 트랙터에다느 후치를 맞추어야 밭을 갈지.}

10304 @ 말씀하셨구. 예: 고답에 호미 말씀하셨구.{말씀하셨고. 예 고 다음에 호미 말씀하셨고.}

10304 # 나~.{응.}

10304 @ 또 다른 거 좀 얘기해 주옵소. 다른 것 좀.{또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 좀.}

10304 # 어, 그래구서리 에 그 루꾸(лук)랑 딱 따에 백이무 그 까빨까(кабарка)라는 게 잇소. 까빨까(кабарка)라구 잇소.{어, 그리고서 에 그 파랑 딱 파가 땅에 박히면(자리 잡고 자 라면) 그 ‘까빨까’라는 농기구가 잇소. ‘까빨까’라고 잇소.}

10304 @ 까빨까(кабарка){‘까빨까’.}

10304 # 야~ 저기 나래만에 갈 적에 보오. 그런 셋쟁기 요런 게 야 고룽기 야 쪽지 잇는 게. 그걸르 파무 루꾸(лук)르 이 쪽지 이거 잎우 지구 그걸르 파무 빨리 파진단 말ियो. 그 래.{응 저기 조금 있다가 갈 적에 보오. 그런 쇠로 된 농기구가 요런 것이 응 그렇게 응 손잡이가 잇는 것이. 그것으로 파면, 파를, (한 손으로) 이 손잡이 이거 쥐고, (한 손으로) 잎을 쥐고 그것으로 파면 빨리 파진단 말ियो. 그래.}

10304 @ 무스거 시물 때 그걸 씹둥?{무엇을 심을 때 그것을 씹니까?}



10304 # 그거 예따(это) 루꾸(лук)르 팔 적이 쓰지. 루꾸(лук)르 뽕을 적이 그거 쓰지. 다른 데는 기계 요구 없소. 예 톨리꼬(тоliko) 루꾸(лук)르 팔 적이 그런 것두 루꾸(лук)르 팔 적이. 그거 어 애장간이라구 아오? 애장간 아지? 거기두 잊지? 애장가이. 이 무스 기계랑 댄드는 애장가이 잊지. 그 애장간에 가 싹 댄들어 오지. 저 호미랑 싹 그 애장간에 가 낫이랑 싹 애장간에 가서 해오지. 그래오.{그거 음 파를 팔 적에 쓰지. 파를 뽕을 적에 그거 쓰지. 다른 데는 그게 필요 없소. 예 오직 파발을 팔 적에 그런 것도 파발을 팔 적에. 그거 어 야장간이라고 아오? 야장간 알지? 거기(한국)에도 잊지? 야장간. 이 무슨 기계를 만드는 야장간이 잊지. 그 야장간에 가서 싹 만들어 오지. 저 호미랑 싹 그 야장간에 가서 낫이랑 싹 야장간에 가서 만들어 오지. 그러오.}

10304 @ 다(да). 다(да). 그럼 또 판 게 무스거 있겠슴둥? 그거 말구 또 베밭이나 논밭에서 쓰는 쟁기는 또 뭐가 있슴둥?{예. 예. 그럼 또 판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거 말고 또 논이나 논에서 쓰는 농기구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10304 # 없어. 그거 낫이지.{없어. 그거 낫이지.}

10304 @ 없슴둥?{없습니까?}

10304 # 낫밖에 없지. 낫을르, 쫼바인 돌아댕기메 빼재이오. 빼다가서리 요령기 요런 데르 들어 못가지. 쫼바인 들어 못 가무 이거 싹 낫을르 빼야 데지. 낫을르 빼에서 단으 묶었다가 쫼바인 돌아갈 적에는 그거 거기다, 거 또 일하는 사람이 잊지. 그 앞에 댕기메서리. {낫밖에 없지. 낫으로, 쫼바인이 돌아다니며 벼를 베잖소? 베다가 요렇게 요런 데를 들어가지 못하지. 쫼바인이 못 들어가면 이거 싹 낫으로 베어야 되지. 낫으로 베어서 단을 묶었다가 쫼바인이 돌아갈 적에는, 그거 거기다 (터는데), 거 또 일하는 사람이 잊지. 그 쫼바인 앞에 다니면서.}

10318 @ 그럼 단으 단은 어느 정도로 묶슴둥?{그럼 단을 단은 어느 정도로 묶습니까?}

10318 # 아, 그 쫼바인 두두리는 단은 크게 하지. 앙기 크게 하오. 크게 해아서.{아, 그 쫼바인이 터는 단은 크게 하지. 이렇게 크게 하오. 크게 해서.}

10318 @ 뗏 잎이나 함둥?{뗏 줌이나 합니까?}

10318 # 뭇시기?{무엇?}

10318 @ 단을 질을 때 뗏 잎이나 앙게 놓슴둥?{단을 지을 때 뗏 줌이나 놓습니까?}

10318 # 아이, 마이 그건. 그건 내야 이래 다아. 그전에는 그전에 이 어따(это) 쫼바인이 없구 그럴 적에는 도리깨르 아오? 도리깨? 그전에 내 아:때는 도리꺄르 베르 두두렛소. 그담에 도리꺄르 베르 두두리다가 그담에는 이롭게 태르 쳇지. 그 담에는 이제 와서느 싹 쫼바인으로르 두두리오. 시바~으느 채밀이 보리니 싹 쫼바인. 기랜게 시방은 야 그전에는 지재~이라는 거 아오? 지재~이르 심엇땡어. 시방 어딘 촌에서 지재~이르 시무는지 그건 모르겄소. 이 도시에서 사다나이. 그전에 꼬호즈(колюз)서 살 적에는 꼬호즈(колюз) 지재이르 심엇땡어. 그전에 우슈또베, 우슈또베르 아오? 그 우슈또베에서느, 원도서 올적에 차조이르 아오? 한국에두 차조이 잊지? 그 차조이 그전에는 이기 찹쌀이 없을 적이 차조이 그게 그렇기 여기서는 크:게 쳇땡어. 게 어전 찹쌀이 잇다나이. 치우라 중국에서 찹쌀이 오오. 치우라 치우. 게 여기서는 찹쌀이 잇어두 따시켄뜨에서 찹쌀으 조끔 시무지. 그러나 마~이 오는 거느 중국에서 찹쌀이 오오. 그렇기 오오.{아니, 많이 그건. 그건 나야 이렇게 다. 그전에는 그전에 이 음 쫼바인이 없고 그럴 적에는, 도리깨를 아오? 도리깨? 그전에 내가 아이 때는 도리깨로 벼를 털었소. 그 다음에 도리깨로 벼를 털다가 그 다음

에는 이렇게 태를 쳤지(개상질을 했지). 그 다음에는 이제 와서는 짝 콤파인으로 터오. 시방은 밀 보리니 하는 것은 짝 콤파인으로 털지. 그런데 시방은 응 그전에는, 기장이라는 것을 아오? 기장을 심었어. 시방 어디는, 촌에서 기장을 심는지 그건 모르겠소. 이 도시에서 살다 보니. 그전에 콜호스에서 살 적에는 그전에 콜호스에서 기장을 심었어. 그전에 우슈토베, 우슈토베를 아오? 그 우슈토베에서는, 원동에서 올 적에는, 차조를 아오? 한국에도 차조가 있지? 그 차조가 그전에는 여기 찹쌀이 없을 적에 차조가 그게 그렇게 여기서는 아주 많이 뿌렸어. 그게 이제 찹쌀이 있다 보니. 전적으로 중국에서 찹쌀이 오오. 전적으로 중국에서 치지(뿌리지). 그래 여기서는 찹쌀이 있어도 타슈켄트에서 찹쌀을 조금 심지. 그러나 많이 오는 것은 중국에서 찹쌀이 오오. 그렇게 오오.}

10318 @ 그럼 아매! 그: 전에 직금 말구. 베르 말려서 음 털 때 알을 털 때 이렇기 마악 서너 사람이 발르 밟아서 마악 돌아가게 한 담에 거기다 대구서 터는 건 없었습둥?{그럼 할머니! 그 전에 지금 말고. 벼를 말려서 음 털 때 알을 털 때 이렇게 막 서너 사람이 발로 밟아서 막 돌아가게 한 다음에 거기다 대고서 터는 것은 없었습니까?}

10318 # 어이구! 그렇기 터는 거는 까프까즈(Кавказ)에서 기랬어. 이 우리 우즈벡스탄에서는 아이 그랬어. 까프까즈(Кавказ)에서는 그랬어. 까프까즈(Кавказ)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짝 오래비네 야 짝 그렇기 기래구. 그래구 거기서는 또 절에 기계에다서리 그 기기 귀게 다가서리 열어무 베 나오메 한쪽은 쌀이 나오메 그런 기계 잇었됐어. 우리 마마, 아 내 어머니 오래비 그런 기계르 만들었단 말이지. 그 카프카즈에는 우리 어마이랑 가서 베질 했됐어.{어이구! 그렇게 터는 것은 카프카스에서 그랬어. 이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안 그랬어. 카프카스에서는 그랬어. 카프카스에서는 우리 어머니 오래비네 짝 그런 기계가 있었어. 우리 어머니, 아 내 어머니 오래비가 그런 기계를 만들었단 말이지. 그 카프카스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가서 벼농사를 지었어.}

10318 @ 음.{음.}

10318 # 개 나느 거기르 베질할 적이 내 못 가 봤어. 기래 우리 어머니는 기래지. 통쌀으는 짝 팔구 싸래기는 먹구. 그랫다지. 그렇기 농새질했다지. 우리 어 어머니는 거기 가서. 저어 다섯째 동새 넷째 동새에 데리구 가서.{그래 나느 거기를 벼농사를 지을 적에 나느 못 가 봤어. 그래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 통쌀은 짝 팔고 싸라기는 먹고. 그랫다고 하지. 그렇게 농사를 지었다고 하지. 우리 어 어머니는 거기 가서. 저 다섯째 동새, 넷째 동새를 데리고 가서.}

10304 @ 그럼 아매! 이 꼭지니 꼭지니 하는 그런 쟁기는 없었습둥?{그럼 할머니! 이 ‘꼭지’, ‘꼭지’ 하는 그런 농기구는 없었습니까?}

10304 # 어째!{어째!}

10304 @ 아이 췌습둥?{안 췌습니까?}

10304 # 꼭지 있어. 어 깍지.{괭이 있어. 어 괭이.}

10304 @ 그 어느때 췌습둥? 그거?{그 어느 때 췌습니까 그거?}

10304 # 그 깍지르 할 적에는 어 수박질할 적에 치우라 쓰게 데지. 수박질할 적에. 기래구 어 파질 할 적에 어 그거 깍지 없이는 이래 물 대기 바쁘단, 힘이 든단 말이지. 그거 깍지 잇어야 데지. 그 깍지 잇기마 하무 이롭게 한 이래 엠매 가다가서 그거 또 그거 아랄르 물으 대길래바 그거 또 드 드럭 드럭이라는 거 또 하지. 그 드럭, 드럭이라구 거 못 밧스 게야.{그 괭이를 쓸 적에는 어 수박 농사를 지을 적에 항상 쓰게 되지. 수박농사를 지을

적에. 그리고 어 파농사를 지을 적에 어 그거 팽이 없이는 이렇게 물을 대기가 힘들단, 힘이 든단 말이지. 그거 팽이가 있어야 되지. 그 팽이가 있기만 하면 이렇게 한, 이렇게 얼마를 가다가 그거 또 그거 아래로 물을 대기 위하여 또 두렁, 두렁이라는 것을 또 하지. 그 두렁, 두렁이라고 그거 못 보았을 거야.}

@ 봤습꾸마.{봤습니다.}

# 봤어? 어디서 보겠어. 도시에서는 없지. 촌으로 가구야 그거 보지. 촌으로 가. 이 시방 우리 이렇게 여기서 이래 사는 게 어전으 댕 해르 내 농새질으 어전으 어:: 아흔, 아흔두해, 아흔 아흔 구십 구연도에 구, 아이오! 다아(да)! 구십 일 일년도에. 옴소! 구십일년도에 마감했어. {봤어? 어디서 보겠어. 도시에는 없지. 촌으로 가야만 그걸 보지. 촌으로 가야. 이 시방 우리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젠 댕 해를 농사를 이젠 어 90, 92년, 90, 90, 99년도에 9, 아니오! 그래! 91년도에. 옴소! 91년도에 끝냈어.}

@ 음.{음.}

# 기래구 구십 일, 삼년도에, 일년도에 농새 일으 하구 삼년도에 난 이랬지. 아이구! 나는 농새 질 가재두 아이 밭에 그런 배앰이두 잇지. 기래구 그런 바르나(ворона)라구서리 그거는 무스 같은가 하무 야~. 어 이렇기 밭이랑 잇는 게 그런 게 이막씨 크오. 밭에, 이렇게 크게 잇소. 어 파밭에. 나는 (쫓) 새해는 아이 가겠소. 어, 아바이 가서 혼자 지라마 쟁구, 나는 아이 가겟다구. 배앰이 기래 나는 너무, 다른 사름덜으는 이래 따에다가서리 이래 막으 치지. 나는 이기 막으 치자무 이기 높우게 하오. 이 밑에다 싹 약으 치오. 두스드(дуст) 치지. 백개미 없지. 두스드(дуст)나 치구 기라마 거기르 뱀이 못 들어오지. 기래구서리 에따(это) 약이 스비니, 스베니라구 그런 약이 잇엇댓어. 그 약으는 야 음: 냄새랑 없소. 두스드(дуст)는 냄새나오. 기래 그거 기래 막이, 막두 요렇게 크게 크게 애이 치우 요렇기. 거저 둘이서 잇게 사 그렇기 치지. 기래구서르 나는, 나는 아이가겟다구. 어, 아흔세 해 때느 아이 가겟다구. 나는 배앰이두 무섭지 그 바란(ворона)두 무섭지 아이 가겟다구. 기래기마 하무 이래오. 그럼 내 혼자 가겟다구. 그 아흔 세해 때 우리 아바이 상, 베~이 들었어 삼월에. 삼월에 베~이 들었어. 그래 바램이 지나가다나이 그 담에는 그저 꿈쩍 못했지.{그리고 91년, 93년도에, 91년도에 농사 일을 하고 93년도에 난 이랬지. 아이구! 나는 농사를 지으러 가자고 해도 밭에 아니, 그런 뱀도 있지. 그리고 그런 까마귀라고서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응. 어 이렇게 밭이랑 있는데 그런 것이 이만큼씩 크오. 밭에, 이렇게 큰 것이 있소. 어 파밭에. 나는 (쫓) 새해는 안 가겠소. 어, 할아버지 가서 혼자 지으려면 짓고, 나는 안 가겟다고. 뱀이 그래서 나는 너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땅에다 막을 치지. 나는 여기 막을 치자면 여기 높게 하오. 이 밑에다 싹 약을 치오. 살충제를 치지. 개미가 없지. 살충제나 치고 그러면 거기를 뱀이 못 들어오지. 그리고서 음 약이 '스비니, 스베니'라고 그런 약이 잇엇어. 그 약은 응 음 냄새가 없소. 살충제는 냄새가 나오. 그래 그거 그래 막, 막도 요렇게 크게 크게 안 치오 요렇게. 그저 둘이서 잇게야 그렇게 치지. 그리고서 나는, 나는 안 가겟다고. 어, 93년도에는 안 가겟다고. 나는 뱀도 무섭지, 그 까마귀도 무섭지 안 가겟다고. 그러기만 하면 이러오. 그럼 내가 혼자 가겟다고. 그 93년도에 우리 할아버지 병이 들었어, 삼월에. 삼월에 병이 들었어. 그래 중풍이 지나가다 보니 그 다음에는 그저 꿈쩍을 못했지.}

10304 @ 그럼 아매 예. 그러면은 그:: 뭐 검부레기라든가 이런 거 굵, 굵는 거 있재임둥?{그럼 할머니 예. 그러면 그 뭐 검불이라든가 이런 거 굵는 것이 있잖습니까?}

10304 # 각재.{갈퀴.}

10304 @ 그건 뭇둥?{그것은 무엇입니까?}

10304 # 각재. 각재, 각재는 다 있어. 우리 농새질하다나이 각재랑 다 있어. 각재 잇지 호미 잇지 강차이 잇지. 다아 있어. 그 농새질하던기.{갈퀴. 갈퀴, 갈퀴는 다 있어. 우리 농사를 짓다 보니 갈퀴랑 다 있어. 갈퀴 잇지 호미 잇지 삽 잇지. 다 있어. 그 농사를 짓던 것이.}

10304 @ 음. 아까 그 파지이할 때 물으 댈 때 이렇게 드럭 질구 할 때 쓰던 거 그건 뭐라구 했죠? 꼭지라구 했나?{음. 아까 그 파농사를 지을 때 물을 댈 때 이렇게 두렁을 짓고 할 때 쓰던 거 그런 무엇이라고 했죠? 팽이라고 했나?}

10304 # 각지라 하지. 그거 각지지. 께, 그거 각지라구 하지. 우리 고렷사람들은 그거 각지라 하지. 우리네는 거저 께뜨멘이라구.{팽이라고 하지. 그것은 팽이지. 그거 팽이라고 하지. 우리 고려 사람들은 그것을 팽이라고 하지. 우리네는 그거 ‘께뜨멘’이라고.}

10304 @ 께르멘?{‘께르멘’?}

10304 # 께뜨멘(кетмень).{‘께뜨멘’(팽이).}

10304 @ 께뜨멘(кетмень).{‘께뜨멘’(팽이).}

10304 # 야~ 께뜨멘이라구 하오. 개 우리 조선사람들으는 그거 각지라 하지. 우리네 원도에 이 실 적에 그런 각지 없었댜. 이 까자끄스판에 들어오이 까자끄덜이 그런 거 쓰짐. 기래 우리 우리 아바이 이래지. “야아! 이게 각지 원도에서 잇엇더무 어찌 좋앗겠는가.”구 기랜게 원도에는 없지. 원도에는 미시게 잇엇는가 하이 에따(это) 강차이르 꾸부려서 잘그 꾸부려서 잘그 맞차서 기래 포지강차이라구 그렇기 말하지. 그런 소리 들엇어? 포지강차이라는 소리 들엇댜? 그런 한국에두 잇을 게야 포지강차이라구.{응 ‘께뜨멘’(팽이)이라고 하오. 그래 우리 조선사람들은 그거 ‘각지’(팽이)라고 하지. 우리네 원동에서 잇을 적에 그런 팽이가 없엇어. 이 카자흐스탄에 들어오니 카자흐인들이 그런 거 쓰지 뉘. 그래 우리 우리 아버지 이러지. “야! 이게 팽이 원동에서 잇엇더라면 어찌나 좋앗겠는가.”하고 그런데 원동에는 없지. 원동에는 무엇이 잇엇던가 하면 음 삽을 꾸부려서 자루를 꾸부려서 자루를 맞추어서 그래 ‘포지강차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그런 소리 들엇어? ‘포지강차이’(땅을 파 일구는 데 쓰는 삽)라는 소리를 들엇어? 그런 것이 한국에도 잇을 게야, ‘포지강차이’라고.}

10304 @ 포지강차이.{‘포지강차이’.}

10304 # 음. 그렇기 우리 원도에서는 그렇기 말했어. 포지강차이라구 그러나 여기 들어와서는 각지라 하지. 그런 각지두 이 아바이 씨던 게 잇소. 내 쓰던 것두 잇구. 각재두 잇구 호미두 잇구. 그 그런 거 파이르 파는 그것두 잇구 자르는 것두 잇구.{음. 그렇게 우리 원동에서는 그렇게 말했어. ‘포지강차이’라고 그러나 여기 들어와서는 ‘각지’(팽이)라고 하지. 그런 팽이도 이 할아버지가 쓰던 것이 잇소. 내가 쓰던 것도 있고. 갈퀴 있고 호미도 있고. 그 그런 거 파를 파내는 그것도 있고. 파를 자르는 것도 있고.}

10304 @ 가새 잇구.{(파를 자르는) 가위 잇고.}

10304 # 야~ 가새 다 잇어.{응. 가위며 다 잇어.}

10304 @ 루꾸(лук).{파.}

10304 # 가새, 베는 게.{가위, 베는 것.}

10304 @ 베는 게 잇구.{베는 게 잇고.}

# 그 앞운 베에야 테지. 그래 국가서 말하오. 그 파에르 벨 적에, 이게 파대가리 아이오? 이렇

기. 이막씨 크기마 하무 이 쪽지르 다숫 단지 만한 거 더 질게 베지 말라구. 이 다숫 단지 만한 거 내놓구 베라구. 이렇기 말하지. 기래 그렇게 베오. 더어 질게 베기마 하무 기게 어: 그런 거 티째르 티째르 맞지. 그렇기 했었어.{그 앞은 베어야 되지. 그래 국가에서 말하오. 그 파를 벨 적에, 이게 파 대가리 아니오? 이렇게. 이만큼씩 크기만 하면 이 쪽지를 다섯 단지만큼 하게 그 이상을 더 길게 베지 말라고. 이 다섯 단지만큼 되게 하고 그보다 긴 것을 베라고. 이렇게 말하지. 그래 그렇게 베오. 더 길게 제기만 하면 그게 어 그런 거 퇴짜를 퇴짜를 맞지. 그렇게 했었어.}

@ 무슨 짜르?{무슨 '짜'를?}

# 티, 아이 받침. 기래구 프로첸트(Процент)르 마이 제하구. 티째 티째르 맞지. 기래다나이 어 그거 어떻게 하나 딱 짜르게 하지. 지내 작게 하무 말이 없소. 질게 하무 말이 있지. 기게 그 근식한다구. 이게 질게 베기마 하무 기게 근식한다구. 저울에 근식한다구. 그렇기.{퇴짜. 안 받지 뭐. 그리고 퍼센트를 많이 제하고(어기면 경작자에게 돌아오는 몫을 많이 제하고). 퇴짜 퇴짜를 맞지. 그래다 보니 어 그거 어떻게 하거나 딱 짧게 하지. 너무 작게 하면 말이 없소. 길게 하면 말이 있지. 그게 그 '근식하다'고 하지. 저울에 '근식하다'고. 그렇게.}

@ 근식한다구.{'근식한다'고.}

# 근식한다구. 기래 만일에 이래, 이래 이 쪽이 작재얹겟소? 작으무 그게 노르마(норма)지. 노르마(норма)지 그게. 고만:하게 베지. 다숫단지 만하게 베지. 그러나 더 질게 베무 기게 조금 베스(без) 무겁아진다지. 많:안[마아난] 게 아 기게 땃 후대씨 이렇기 질기 보무 기게 베스(без) 얼마 가겟소. 그렇지. 기래서 딱 그저 잘게 하지. 더 작게 하는 건 말이 없소. 그렇소. 기게 일하는 것두 기게 국가서두 어 싹 그래 얘:기르 해 주지. 그렇게 베라. 이렇게 해라 이렇지.{'근식한다'고. 그래 만일에 이래, 이래 이 쪽이 작지 않겠소? 작으면 그게 평균이지. 평균이지 그게. 고만하게 베지. 다섯 단지만큼 하게 베지. 그러나 더 길게 베면 그게 조금 무거워진다지. 많은 것이 아 그게 몇 후대씩 이렇게 길게 보면 그게 얼마나 가겟소. 그렇지. 그래서 딱 잘게 하지. 더 작게 하는 것은 말이 없소. 그렇소. 그게 일하는 것도 그게 국가서도 어 싹 그렇게 얘기를 해 주지. 그렇게 베라고. '이렇게 해라' 이렇지.}

## 제2편 어 휘

### 2.1. 농 경

#### 2.1.1. 경 작

20101	벼	베
20102	이삭	이사기라 하구
20103	볍씨	베 씨
20104	못자리	*(+직파(直播)함)
20105	모판	*(+직파(直播)함)
20106	쟁기	가대기(+발갈이), 가다그(+대격형), 가다기라구,
20107	보습	보서피라두{보습이라고도}
20108	벗	△
20108-0-1	-이	△
20109	극쟁이	가대기
20110	씨레	△
20111	번지	번지
20112	모내기	*(+직파(直播)함)
20113	흙덩어리	흑땡지라, 흑땡~이
20114	고무래	국뽕길르{고무래로} cf. 가텔르{가래로}, 가래라구(+고무 래 대응으로 곡식을 펼 때, 벗짚을 모을 때 사용함)
20114-1	고무래(곡식)	국뽕기느(+지금은 없고 옛날에 사용함) cf. 소보칠르(+쌀을 다듬을 때 사용){삼태기로}
20114-2	고무래(재)	까꾸래라구(+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것)
20114-3	고무래(흙)	국뽕기르
20114-4	고무래(미는 것)	*
20114-5	고무래(당기는 것)	*
20115	쇠스랑	각째, 차으재라구(+[č̣hai̯ɛ]), 차으재(+날이 네 개라 함)
20116	곡괭이	각째
20117	괭이	*
20118	삽	강차이
20119	호미	호미쳐르(+생긴 모양이 한국의 호미와 다름){호미처럼},

	호미르(+대격형)
20120 농기구	쟁기라구
20121 김	지슴, 지시미
20122 김매다	지슴 맨다구, 기슴 맨다
20123 애벌 매다	아시기슴, 아시지시미, 아시지슴
20123-1 두벌 매다	두벌기슴, 두벌지시미, 두벌찌슴(+[tuβəlč'isim])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세벌기슴, 세벌찌슴
20124 논두둑	장드러기(+차량과 농기계가 다닐 수 있게 폭을 넓게 해서 만든 논둑), 간드레기라구, 드러그(+대격형), 드러기(+주격형), 강뜨러기라구, 간뜨러기
20124-1 논두렁	드러기(+주격형), 드러그(+대격형)
20125 밭둑	장두기
20126 밭두둑	등더기, 등더그(+대격형)
20127 밭고랑	골쓰(+대격형), 골씨
20128 밭이랑	*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 cf. 골쓰 판다구
20128-2 이랑밟기	*
20129 보리	보리
20129-1 가을보리	*
20129-2 봄보리	△ cf. 이른 보메 시무는 보리라 하오{이른 봄에 심는 보리라 하오}
20130 보리쌀	보리싸리
20131 가을갈이	△(+바트 간다하지)
20132 감부기	△
20133 두엄	더.어미, 더어무(+대격형), 더어미라{두엄이라}

## 2.1.2. 타작

20134 거름	걸금 낸단 사름덜뚜 이쑤, 걸기미라구 하지
20201 추수하다	가을한다, 가슬한다
20202 벧단	베따이
20202-1 벧단(한 줌정도)	태빠판(+돌 개상으로 타작할 때 묶은 벧단)
20202-2 벧단(타작할 정도)	큰베판(+도리깨로 타작할 때 묶은 벧단)
20202-3 벧단(한 아름정도)	베따이라
20203 가리(積)	가리르(+대격형)
20204 가리다(積)	가리르 가려야{가리를 가려야}, 가리자무{가리자면}, 가리구{가리고}
20205 벧가리	베까리
20206 낱가리	→나까리느{낱가리는}
20207 타작	△

20208 벼훑이	△
20208-1 그네	*
20209 개상 태	태빼또리(+돌을 사용하여 타작함)
20209-1 자리개	△ cf. 태빼르 치는 바이, 바예{줄예}
20209-2 자리개질	태르 친다구(+다), 두두린다(+소)
20210 도리깨	도리꺄르{도리깨로}
20210-1 도리꺄장부	잘기라
20210-2 도리꺄열	도리깨 아드리라구(+몹쓸 아들을 "도리깨 아들만도 못하다"고 표현함,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도리꺄열이 하나로 되어 있다 함){도리꺄열이라고}
20210-3 도리꺄꼭지	△(+자연 발화에서 "도리꺄 마구리"라 함)
20211 벧짚	베찌피
20211-0-1 -을	베찌푸
20211-0-2 -에	베찌페
20212 새째기	△(+베때라 하지){벧대라 하지}
20213 쪽정이	쭈구래기라구두{쪽정이라고도}
20214 티	→티 나라와따
20215 까끄라기	꺼스레미라구, 끄스레미
20216 풍구	풍채
20217 원두막	농마기
20218 허수아비	헤재비라구두 하오(+다른 고려인들이 사용한다 함), 새저리
20219 흥년	송녀이
20220 머슴	농구이라구 cf. 머시미라(+남의 집에서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머슴이라}, 머스무(+대격형)
20221 낚	싸꾸이라구{샷꾼이라고}
20221-0-1 -을	△
20222 품앗이	△(+서르서르 돌바본단 말이오)
20223 품샷	쌍닐한 도이라 하지(+다, [s'aɲnilʰan]){샷일한 돈이라 하지}, 싸글르{샷으로}
20223-0-1 -으로	싸글르(+다), 품싸글르(+소){품샷으로}

###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바~에, 바에
20302 디딜방아	발바~에라{디딜방아라}
20303 방앗공이	바에 더무리
20304 방아확	바에 호바기지{방아확이지}
20305 물레방아	물바~에
20306 연자방아	성매



20307 절구	절기
20308 절구통	절기지
20309 절굿공이	절기 덩무리라구{절굿공이라고}
20310 절구질	절기지르(+대격형)
20311 겨	제 나오지
20312 보릿겨	보리제지{보릿겨지}
20313 왕겨	아시제(+처음 방아를 찧었을 때 나오는 겨), 두벌제라(+두 번째 방아를 찧었을 때 나오는 겨)
20314 등겨	세벌제(+[sebərč'e], 세 번째 방아를 찧었을 때 나오는 겨)
20315 검불	→검부제기라(+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말함){검불이라}, 검부르느{검불은} cf. 북떼기라(+벼나 보리에서 나오는 조각을 말함)
20316 껍질	껍찌 cf. 송치(+씨가 있는 과일의 속을 말함)

## 2.1.4. 곡물

20401 곡식	곡씨기, 곡씨기, 곡썰기
20402 찹쌀	찹싸리
20403 멥쌀	매싸리
20404 쌀보리	*
20405 조	조이두
20406 차조	차조이 이꾸{차조 있고}, 차조일르{차조로}
20407 메조	매조이 이꾸{메조 있고}
20408 좁쌀	좁싸리
20409 잘다	잘다구
20410 조이삭	조이 이사그느{조 이삭은}
20411 수수	밥쭈끼
20411-1 붉은색 수수	찰밥쭈끼
20411-2 장목수수	비쭈끼라{장목수수라}, 비쭈끼
20411-3 찰수수	찰밥쭈끼
20411-4 메수수	메밥쭈꾸느{메수수는}
20412 수수깥	밥쭈때지{수수깥이지}, 밥쭈때지
20413 옥수수	옥쭈끼라, 옥쭈꾸(+대격형)
20413-1 찰옥수수	찰옥쭈끼(+다, [čʰal.oks'uk'i]), 차록씨(+소), 차록쭈꾸느{찰옥수수는}
20413-2 메옥수수	메옥쭈끼느{메옥수수는}
20414 귀리	기미리 cf. 유미리
20415 메밀	매미리
20416 콩	코~이
20417 콩깍지	콩각때기라{콩깍지라}

20418 메주	메지르(+대격형)
20418 메주	메지 코~이지{메주 콩이지}
20419 매달다	다라 매서{매달아서}
20420 띄우다	떠우짐{띄우지 뒤}
20421 곰팡이	곰태기
20422 강낭콩	열코이오{강낭콩이오}, 열코~오느{강낭콩은}
20423 콩기름	콩지리미두, 콩지리미라{콩기름이라} cf. 해자부리 지름 (+키르기스스탄에서 주로 짬){해바라기 기름}, 모카 지름(+우즈베키스탄에서 주로 짬){목화 기름}
20424 깨	깨지름, 깨지르무느{깨 기름은}, 깨지리미
20424-1 참깨	참깨라
20424-2 들깨	들깨라
20425 고소하다	고소:하긴 고소:하오

## 2.1.5. 채소

20501 채소	→채소는, 채소라지
20502 나물	나무리지, 나무르 켈라{나물을 캐러}
20502-1 "나물(밭 재료)"	나무새터르나(+집에서 심는 것만 가리킴){남새들이나}, 나무리라
20502-2 "나물(밭 반찬)"	채시 cf. 고사리채, 미나리채라, 영지채{부추채}
20502-3 "나물(들 재료)"	나무리라
20502-4 "나물(들 반찬)"	△
20502-5 "나물(산 재료)"	산나무리지
20502-6 "나물(산 반찬)"	△
20503 푸성귀	△
20504 다듬다	검줄한다구, 검줄해애 댄다구{다듬어야 된다고}
20505 반찬	해애미라 하지{반찬이라 하지}, 해애미느{반찬은}
20506 무	무끼, 무끼라 하오{무라 하오}, 무수라
20507 썰다	쏘오라서{썰어서}
20508 무청	무수이피지, 무꾸이피지
20509 시래기	시래기(+배추 잎만 말린 것을 말함) cf. 시락장무리라 {시래깃국}
20510 무말랭이	*
20511 장다리무	씨무끼라구, 노오배, →장다리(+구)
20512 배추	배채
20513 고갱이	△ cf. 소그 소기라 하지
20514 오이	베두(+[vedu]), 웨르{오이를}, 무레
20515 오이지	베짐치(+[vejimčh]), 웨짐치

20516 오이소박이	*
20517 가지(茄子)	까지오{가지오}
20518 호박	호바기, 구든 호바기라{늙은 호박}, 애호배기라{애호박}
20519 고구마	*
20520 감자	감제지
20521 우영	우버~이, →우병니피{우영잎}, 우병니피오{우영잎이오}
20522 파	파이지
20523 고추	고치
20524 시금치	실굼치, 실굼치르(+대격형)
20525 미나리	미나리부터&, 미나리보구&{미나리보다}, 미나리채르&, 미나리르&, 미나리&(+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자란다고 함)
20526 부추	염지
20527 상추	불기, 불구(+대격형), 불계다{상추에다}, 불구 만저{상추먼저}
20528 마늘	마느리짐{마늘이지 뭐}
20529 생강	△
20530 냉이	나시짐{냉이지 뭐}, 나시오
20531 달래	달리
20532 도라지	도라지
20533 더덕	*

## 2.2. 음식

###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이파비라{쌀밥이라}
20602 찬밥	무근 바비라(+[mugʰn])
20602-1 더운밥	해빠비라{더운밥이라}
20603 조밥	조이바비라{조밥이라}
20604 누룽지	가마치보구{누룽지보다}, 가마치
20605 눌은밥	바까마치라{눌은밥이라}
20606 숯농	숯누무르, 숯누우르{숯농을}, 숯누~이, 숯누부터
20607 뜸물	뜸무리, 뜸무르(+대격형)
20608 김(蒸氣)	지미 cf. 밥찌미
20609 갱죽(羹粥)	국쨌기(+[kukč'ügi]), 국쨌기(+요즘에는 돼지 고기도 넣는다 함)
20610 싱겁다	승겍쩨{싱겁지 뭐}, 승겍따구

20611 국수	국씨르, 국씨보구(+[kʉks'boɽu]), 국씨느, 국쓰느
20612 칼국수	칼구기, 칼구기두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 cf. 국씨르 눌러 한다지
20613 건더기	깡치라
20613-1 국물	장무르(+[čaŋmuri], 속격형)
20614 고명	추미르(+고명과 꾸미의 구분이 없음)
20615 꾸미	추미라(+고명과 꾸미의 구분이 없음)
20616 미역	메에기, 메에기르(+대격형), 메에기 장무리{미역국}
20617 김(海苔)	찌미라&
20618 수제비	뜨더꾸기(+돼지고기를 삶은 물에 계란을 풀고 감자와 밀가루 반죽을 떼어 넣은 후 끓여 먹음), 뜨더꾸그(+대격형)
20619 끼니	시거기라, 시거기, 시거으느{시격은} cf. 식쌔르(+대격형)
20620 미음	암주기라구, 안주그(+대격형)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끄레서, 안주그 끄레 메긴다구 cf. 암죽찔한다지, 안죽찔한다구
20621 엿기름	쌩찔구미지(+다), 보리질구미라(+소)
20622 식혜(食醯)	바깼지라구, 박깼지르(+대격형), 바깼지르(+대격형)
20623 식해(食?)	밥씨캐, 밥씨캐에다가서리{밥식해에다가} cf. 반차느(+물고기로 한 음식을 말함)
20624 달다(甘)	다라서, 달짐{달지 뭐}, 다오
20625 가루	갈기 cf. 갈그내능거{가루를 내는 거}
20625-0-1 -에	갈게다, 갈게다
20625-0-2 -을	갈그
20625-0-3 -도	갈기두, 갈그두, 가르두
20626 밀가루	채밀깼기
20627 밀기울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0628 미숫가루	미시깼기라, 미시깼그(+대격형)

##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지레라(+구), 지러이라(+구), 간자아(+대격형), 간장(+신)
20702 된장	덴장, 덴자~이구, 덴자아느{된장은} cf. 북짜이랑거(+된장에 고수풀 가루, 후추, 화학 조미료를 넣고 끓인 것. 주로 두부에 얹어 먹는다고 함){북장이란 거}
20703 고춧가루	고치깼기
20704 고추장	고치자아느{고추장은}, 고치장, 고치자이
20705 소금	소곰
20706 김치	배채짐치라, 짐치느
20707 김장	*

20708 깍두기	*
20709 나박김치	*
20710 담그다	절군다 하지
20710-0-1 -고	절구능거뚜{담그는 것도}, 절구라구, →당구구
20710-0-2 -어라	절거서, 절거야, →당가라, →당갓능가
20711 양념	양녀미라, 양녀미랑
20712 버무리다	버무렁거{버무린 거}
20713 버섯	버스시라
20713-0-1 -이	버스시
20714 콩나물(재료)	질구미라
20714-1 콩나물(반찬)	질곰채
20714-2 숙주(나물)	녹띠질구미라
20715 두부	드비, 드비르(+대격형)
20716 비지	드리, 드리르(+대격형)
20716-1 비지떡	*
20717 달걀	달가리라
20718 가래떡	* cf. 떠꾸기(+한국 사람에게 들었다 함)
20718 가래떡	* cf. 떠꼭때라(+가래떡을 썬 떡국의 재료)
20719 시루떡	시리떠기
20720 송편	* cf. 쌀베고재라{쌀보교재라}
20721 빗다	△ cf. 벤세르 싸라구
20722 흰떡	*
20723 고물	곰물두 여쿠{고물도 넣고}, 고무르(+대격형)
20724 팔죽	오구래지, 오구래르(+대격형)
20725 새알심	오구래라(+팔죽과 새알심의 구분이 없음)
20726 백설기	* cf. 골미떠기지(+절편과 비슷한 떡), 찰떼기
20727 튀밥	△, cf. 옥썬꾸 티우능게지, 옥씨 티웅게라하지
20728 술	수우리지, 수우리오
20729 막걸리	* cf. 청지{청감지}
20730 소주	토지라
20731 부침개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것을 먹어 봤다고 함)

###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가매모기, 가매모그(+대격형)
20802 가마솥	가매(+밥을 지을 때 쓰는 큰 가마솥), 소티라(+국을 끓이는 데 쓰는 작은 가마솥), cf. 납 가매오, 무세가매오
20802-0-1 -을	쿵가매구(+밥을 지을 때 쓰는 가마솥)
20802-0-2 -에	소테다{솥에다}
20803 아궁이	부수깨지(+보통 함경도 방언은 부엌을 가리키지만 제보

20803-0-1 -이	자는 아궁이로 인식), 부어깨다, 부우깨지
20804 그을음	부어깨 크기만하무 끄스레미라, 끄스러무느{그을음은} cf. 가매 미꾸베 재 르 글거 데제라{가마솥 밑의 재를 긁어서 버려라}
20805 불쏘시개	부살개, 불살개르(+대격형)
20806 연기	내구리라
20806-1 내(煙氣)	내구리라
20807 그을리다	→끄스러따
20808 부지깥이	부수땡기빠깨{부지깥이밖에}
20809 부삽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0810 냅다	맵따, →내구러서
20811 냄비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0812 그릇	그르시라
20812-0-1 -을	그르스 까세라{그릇을 가시다}
20813 뚜껑	더깨라 cf. 가매 덕깨라
20814 주발 뚜껑	시끼더깨라구
20815 사발 뚜껑	시끼더깨
20816 술뚜껑	가매뜨베
20817 밥주걱	박쭈기
20818 숟가락	수리, 술루{숟가락으로}
20819 젓가락	저릴르{젓가락으로}, 저레{젓가락에}
20820 종지	→종지느(+여기서는 간장을 담지 않고 차를 마실 때 쓴 다 함), 간장 담는 그르시라 cf. 병사레다{병에다}
20821 보시기	*
20822 뚝배기	△ cf. 지그르시오{질그릇이오?}
20823 접시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0824 조리	제리(+가재를 잡을 때도 썼다 함)
20825 이남박	쌀무람바기
20826 바가지	바가지르(+대격형)
20827 행주	새앵지두(+마른 행주), 물쭈세미라(+젖은 행주)
20828 행구다	헤운다구, 헤우능거{행구는 거}
20829 설거지	거둔다하지, 시거그 거둔다구서르, 거두매르 하능거느(+ 집 청소를 한다의 의미)
20830 개숫물	자시무리, 가심무리랑게{개숫물이라는 게}
20831 찌꺼기	→깡치라, 깡치짐{찌꺼기지 뭐}
20832 화로	하르또이, 하르또이르(+대격형)
20833 화롯불	도목뿌리라
20834 부젓가락	△
20834-0-1 -이	△
20834-1 불숟가락	△

20835 다리쇠	*
20836 석쇠	적썰빠께{석쇠밖에}
20837 도시락	△
20838 바구니	바구미 cf. 캉재느(+바구니처럼 생긴 그릇), 강주리라 {광주리라}
20839 뒤주	→두지, →두지라
20840 찬합	*
20841 강판	채카리라
20842 개다리소반	사~이지

## 2.3. 가옥

###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바~이(+부모의 거처) cf. 암빠~이구(+여덟 칸으로 된 집에서 부르는 말, 제보자는 의미를 정확히 모름), 고바~이(+조부모의 거처), 정지라구(+밥을 짓는 ‘부수개’ 의 아궁이 위에 구들로 된 곳)
20902 벽	어간베기
20903 다락	*
20904 벽장	*
20905 감추다	→꼼치운다구
20906 흙	그미 생게따구(+사물에 생긴 흙) cf. 허무리 생게따구 (+얼굴에 생긴 흙)
20907 돌쩌귀	문쩌기, 저기라구두
20907-1 암짝	△
20907-2 수짝	△
20908 미닫이	밀채
20909 여닫이	무~이라 하지{문이라 하지}, 무느 다드라구{문을 닫으라고}
20910 덧문	*
20911 열다	열구 이따, 여러라
20912 문고리	문쪽찌르, 문쪽찌라구 하지 cf. 문걸개(+문 잠금장치), 무누걸개
20913 자물쇠	자물썰라(+한국에서 쓰는 말이라고 함)
20914 갇히다	개끼와 이따{갇혀 있다}
20915 열쇠	세때, 세때지, →열썰라구두 하구
20916 잠그다	채바찌(+[čʰɛvacʰi]), 세르 채우지 cf. 여능 게지(+반의 어){여는 것이지}
20917 구멍	궁구 뚫찌{구멍을 뚫지}, 궁기 뚫버지오{구멍이 뚫어지}

	오}, 궁기보구
20917-1 쥐구멍	지구네르, 지구넌드리 만터라구, 지궁기라구서, 지궁구 마그라구{쥐구멍을 막으라고}, 지궁기더라구
20918 찢다	쫘는다구두 하구, 쪼저데지라구{찢어 버리라고}, 쪼저데 제라{찢어 버려라}
20919 구들	구들더깨, 구드리(+[kuduri])
20920 흙받기	△
20921 흙손	△
20922 흙칼	바람질하는 카리라 하오, 흑카레 떠서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나무카리라 하는지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세쟁기 카리오
20923 바르다	발르라구, 바른다구, 발라라 cf. 바람질한다 하지, 흑 찢해애라
20924 장판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0925 종이	조에, 조에라 하구, 조에느
20926 도배	△
20927 구석	구서게 세우란 마르 아이하구, 구서기, →구서기라구두 하오
20928 굽도리	△(+러시아 어, плитус)
20929 깨끗하다	깨까자더라구서(+다), 깨까채서 조타지(+다), 깨까자다구 (+다), 깨끄타다두 하구(+소, 제보자는 이 말을 더 많이 쓴다고 했으나 비격식 발화에서는 ‘깨까자다’를 더 많이 씀.), 깨끄태서 조타구(+소)
20930 문지방	문투기, 문투그(+대격형)
20930-0-1 -에	문투게 안찌 말라구, 문투게 서지 마라라
20931 틈	문찌물루{문 틈으로}, 찌미 나따구두
20932 가장자리	가운데라구두 하구, 함파네다가서리, 여가리라{가장자리 라} cf. 여파리라{옆이라}
20933 가운데	가분데구(+[kaβundegu]), 함파이라 하구{복판이라 하오}
20934 시렁	덩때라(+[təŋt'era]), 덩때라
20935 살강	덩때지
20936 선반	덩때라 cf. 달그 덩때라구 하오{횃대라고 하오}
20937 서랍	뽀비, 뽀비라
20938 경대	세께이라 하구
20939 거울	세께이라
20940 걸다	거러라, 건다하지, 걸구 cf. 걸게따{걸렸다}, 걸게 이따 구두{걸려 있다고도}
20941 호롱	등자이라 하오{등잔이라 하오}, 등피라구두 하구(+이 방 언에서는 남포등을 가리킴, 그러나 제보자는 등피가 본 래 남포에 씌우는 유리라는 것을 알고 있음)



## 2.3.2. 건물

21001 지붕	지버이 너르다, 지버~이, 지병 우에다(+[čibɔŋ]) {지붕 위 에다} cf. 오고로드(огород)라 하오(+ "밭"의 러시아 어)
21001-0-1 -에	지버에
21002 기와	재애, 재애오, 마다에서
21003 기와집	재애찌비지
21004 수키와	넙께 한다는
21004 수키와	넬편다
21005 암키와	△
21006 대들보	△, cf. 지두이
21007 서까래	→세까다리
21008 추녀	△, cf. 기계 모서리우 {그게 모서리오}
21009 처마	△
21010 오두막	초마기라(+3월부터 9월까지 밭농사를 지을 때 밭 근처 에 짓는 조그마한 온돌 집), 초막 지을라 간다구, 툴리 마그 진는다구
21011 초가집	△(+원동에서는 벗짚이 없어서 매자기를 엮어 지붕을 이었음)
21012 이엉	엥기, 영기, 영기느, 엥기라 하오, 엥기르 옌다구 {이엉을 인다구}
21012-0-1 -에서	엥기에서, 엥기에 무리 만타
21013 용마름	용말기, 용말귀(+[yɔŋmalgʷi]), 용말기 튼다구서, 용말그 (+대격형), 용말기르, 용말게다 {용마름에다}
21014 기스락	△
21015 낙숫물	△
21015-1 기스락물	△, cf. 어즈러분무리 {더러운 물}
21016 사닥다리	새다파리라구두 하구(+다), 새다리라구(+소)
21017 용마루	용말기지
21018 토방	바다~이, 바다에다가 노오라구, 바당부터
21019 댕돌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1019-1 섬돌	*
21020 마루	*
21020-0-1 -에	*
21021 뒹마루	*
21022 기둥	지두이라 하지
21023 주춧돌	*(+기둥 밑에 돌을 괴지 않고 시멘트를 바름)
21023-0-1 -을	*
21024 굴뚝	구새 노푸다구, 구샬르

### 2.3.3. 마당

21101 뜰	*, cf. 바티라구{밭이라고}
21102 마당	△
21103 넓다	가~이 너르다{강이 넓다}, 너분 지르느{넓은 길은}, 넓따구(+공간의 크기가 클 때 씀) cf. 운동자이 넓따구{운동장이 넓다고}, 너르구(+평면의 면적이 클 때 씀) cf. 지부느 너르구 조타구{집은 넓고 좋다고}
21103-0-1 -어서	가~이 널저노~오이
21104 넓히다	너르게 한다구, 널저노~오이
21105 곳간	두지까이라 하지(+원동에서는 없었고 중앙아시아에 와서 지었음), 두지까네다
21106 외양간	오양까느, 오양까이라 하지, 세구리라구두 하구
21107 마구간	오양까이구(+말, 소, 양이 자는 곳을 통칭)
21108 광	사랑까~이나(+광과 헛간의 통칭으로도 쓰임), 싸라~이라 하구(+광과 헛간의 통칭으로도 씀), 사랑까느
21109 헛간	허더까네다가느{헛간에다가는}, 허더까이라 하오{헛간이라 하오}, 허더까느느{헛간은}
21110 쓰레기	△ cf. 문지르 쓰러라{먼지를 쓸어라}
21111 장독대	△
21112 장독 뚜껑	△ cf. 더깨
21113 변소	풍까이라구서(+노, 50~70세 사이에 주로 씀), 벤소까이라 하오(+노, 제보자의 연령층에서 주로 씀), 뚜알레뜨 라구두 하구(+유, 변소의 러시아 어)
21113-1 똥장군	△ cf. 요가이라 하오
21114 울타리	세줄장재라(+쇠줄로 만든 울타리), 장재라구(+나무로 만든 울타리)
21115 담	토대미라구, 토다무 싸아라구{담을 쌓으라고}
21115-0-1 -에	토다메 올라가따
21115-0-2 -도	토담두 어꾸{담도 없고}
21116 사립문	△ cf. 대무이라 하지, 첼무이(+집에 들어올 때 여는 첫째 문, 원동에서 썼음)
21117 뒤꼍	두에~이라구, 두에이라구, 두야~이, 두에느르{뒤꼍으로}
21117-0-1 -에	두에네서 논다구
21118 바깥	바가티라구, 한지르 나가가라{바깥으로 나가거라}
21118-0-1 -에	바가테서두 노라라
21119 모퉁이	→모태라(+‘모퉁이’, ‘곶’, ‘근처’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제보자는 ‘곶’, ‘근처’의 의미로만 씀)
21120 모서리	모소리

##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초~이라 하지(+다), 마으르느(+주로 국영 집단 농장 근처에 형성되었음), 마으리라 해애쏘(+소, 원동에서 주로 썼음)
21202 윗마을	우초이라, 우에 초~이, 우쪼게 초이라 cf. 아래 초이라
21203 이웃	저테쩍 사리미라구, 저테찌비라, 여페쩍 사리미 (+[sarimi])
21203-0-1 -이	저테찌비지
21203-0-2 -에	저테찌베 이따
21204 마을가다	→마시도리르 한다구, 마시도릴 간다구
21205 우물	구룽무리, 구룽무래서
21206 두레박	드레라, 드레오 cf. 쟁트리라 하오(+우물이나 샘 주위에 나무로 짠 "井"자 모양의 틀), 무르 질른다{물을 걷는다}, 용드레라능게{용두레라는 게}
21207 샘(泉)	삼치무리
21208 가(邊)	역, 여기
21208-0-1 -을	여그르 가지 마라라, 구룽물려그르{우물가로}
21208-0-2 -에	여게, 여가레
21209 물지게	지게, 지게에
21210 가게	상점, 상저미, 공이사라구서, 공리사라 하오{구판장이라 하오}
21211 싸다	눅따구 cf. 싸오라구 하지(+이 지역에서 "싸다"는 "賈"의 의미로 쓰임)
21212 비싸다	비싸다구
21213 흥정	흥저어 하지{흥정을 하지}
21214 중매인(거간꾼)	△
21215 잔돈	잔돈두 만쿠, 잔도~이라 하지
21216 에누리	△ cf. 눅께 달라구{싸게 달라고}
21217 거스름돈	승처이라 하오{거스름돈이라 하오}, 승처느 받는다구
21218 거스르다	△
21219 꾸다(借)	꾸지(+구술 발화에서 채록) cf. 끼우라구{빌리라고}, 끼바달라구(+[k'ivadallagu]){빌려달라고}, 끼와달라구
21219-0-1 -어야	꿔야 데지,꿔서,껴서
21220 구두쇠	따꼽째라 cf. 모지 구따(+ "인색하다"의 의미임), 저 사리미 따꼽따
21221 맡기다	→매께다구서리
21222 나머지	△
21223 덤	△
21224 몫	△

21224-0-1 -을	△
21225 빛	비디 만타구
21225-0-1 -을	비드 저따하지
21225-0-2 -에	△
21226 이자(利子)	변또이, 벤또이라 하오
21227 심부름	→심바람 시킨다{심부름 시킨다}, 심바라무 시킨다구
21228 두름	물꼬기 다래라구서, 다래르(+대격형)
21228-1 축	*
21228-2 꿔	*, cf. 한다래 두다래
21228-3 접	*, cf. 무지라 하오{무더기라 하오}
21228-4 찜	싸미라 하오, 바늘 사미라
21228-5 두름	*, cf. 한 다이 두 다이{한 단 두 단}
21228-6 단/뭇(작은 묶음)	한따이라 하지
21228-7 단/뭇(서너 개 묶음)	무꾸따이
21228-8 툇	*
21228-9 모슌	한쭌썩 빠진다구
21229 켄레	항커리라 하오
21230 마지기	*, cf. 쏘뜨갈르(+러시아 어 сотка, 1 쏘뜨까는 10m²){쏘 뜨까로}, 객따리{헥타르}(+러시아 어. гектар. 10 쏘뜨까 는 1 헥타르)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
21231 꾸러미	*
21232 그루	△
21233 포기	폐글르느{포기로는}, 함폐기 두폐기
21234 저울	저우리지
21235 자루(包袋)	조만지(+작은 것, 1kg~3kg 정도의 무게), 커우대(+큰 것, 한 커우대는 10kg, 나일론으로 만듦)
21235-0-1 -을	조만지르
21235-0-2 -에	조만제다{주머니에다}
21236 하나	한나
21236-1 한-개	항개
21236-2 한-되	*, cf. 쌀또바기라{쌀 뒷박이라}
21236-3 한-말	*
21237 둘	두울
21237-1 두-개	두개
21237-2 두-되	*
21237-3 두-말	*
21238 셋	서어
21238-1 세-개	세개
21238-2 세-되	*

21238-3 세-말	*
21239 넷	너어
21239-1 네-개	네개
21239-2 네-되	*
21239-3 네-말	*
21240 다섯	다스
21240-1 다섯-개	다스개
21240-2 다섯-되	*
21240-3 다섯-말	*
21241 여섯	여스
21241-1 여섯-개	여스개
21241-2 여섯-되	*
21241-3 여섯-말	*
21242 일곱	일곱
21242-1 일곱-개	일곱.깨
21242-2 일곱-되	*
21242-3 일곱-말	*
21243 여덟	야듭(+[yadirp]), 야듭, 야들비지, 야들
21243-1 여덟-개	야들개
21243-2 여덟-되	*
21243-3 여덟-말	*
21244 아홉	아웁
21244-1 아홉-개	아웁.깨
21244-2 아홉-되	*
21244-3 아홉-말	*
21245 열	열
21245-1 열-개	열:깨, 여얼깨
21245-2 열-되	*
21245-3 열-말	*
21246 스물	스물
21246-1 스무-개	스무개
21246-2 스무-되	*
21246-3 스무-말	*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개	서릉개
21247-2 서른-되	*
21247-3 서른-말	*
21248 마흔	마은
21248-1 마흔-개	마웅개
21248-2 마흔-되	*

21248-3 마흔-말	*
21249 쉼	쉼:(+[f̥ü:n]), 신:
21249-1 쉼-개	형:개([f̥ü:ŋgɛ])
21249-2 쉼-되	*
21249-3 쉼-말	*
21250 예순	육십
21250-1 예순-개	육씨개
21250-2 예순-되	*
21250-3 예순-말	*
21251 일흔	칠십
21251-1 일흔-개	칠씨개
21251-2 일흔-되	*
21251-3 일흔-말	*
21252 여든	팔십
21252-1 여든-개	팔씨개
21252-2 여든-되	*
21252-3 여든-말	*
21253 아흔	구십
21253-1 아흔-개	구씨개
21253-2 아흔-되	*
21253-3 아흔-말	*
21254 백	백
21254-1 백-개	백개
21254-2 백-되	*
21254-3 백-말	*
21255 이백	양배기라, 양배깨지
21256 한둘	*
21256-1 한두-개	*
21256-2 한두-되	*
21256-3 한두-말	*
21257 두셋	두서이
21257-1 두세-개	두세개
21257-2 두세-되	*
21257-3 두세-말	*
21258 두서넛	두서넛
21258-1 두서너-개	더:서너개
21258-2 두서너-되	*
21258-3 두서너-말	*
21259 서넛	서너어
21259-1 서너-개	서너어개 cf. 서너너더깨

21259-2 서너-되	*
21259-3 서너-말	*
21260 네댓	너덜
21260-1 네댓-개	너더깨
21260-2 네댓-되	*
21260-3 네댓-말	*
21261 대여섯	대애여슨
21261-1 대여섯-개	대애여스깨 cf. 대애일구깨
21261-2 대여섯-되	*
21261-3 대여섯-말	*
21262 예닐곱	예·일구깨
21262-1 예닐곱-개	예·일구깨
21262-2 예닐곱-되	*
21262-3 예닐곱-말	*
21263 일여덟	이라들깨
21263-1 일여덟-개	이라들깨
21263-2 일여덟-되	*
21263-3 일여덟-말	*
21264 여덟아홉	*
21264-1 여덟아홉-개	*
21264-2 여덟아홉-되	*
21264-3 여덟아홉-말	*
21265 여남은	여라무
21265-1 여남은-개	여라무개, 야라무개
21265-2 여남은-되	*
21265-3 여남은-말	*

## 2.4. 의복

###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초매라하지 cf. 함복.오시라구 하오
21302 길이	지리, 초매지리 cf. 너비
21303 저고리	조고리(+[čoxori])
21304 색동저고리	까치조고리라
21305 두령이	택빠지라구(+가슴 윗부분만 가림), 압초매라
21306 무늬	△
21307 고쟁이	짹빠지느&, 가비라구& cf. 소구티라 하오{속옷이라 하

	오}, 속초매라 하오, 소부티{속옷}
21308 바지	바지라 하지
21309 두루마기	두루매기라& cf. 소조고리르 입쏘{숨 저고리를 입소}
21310 의복	우티라구(+다), 오시라구두 하지(+소)
21311 구겨지다	꾸게져따 하오, 꾸게징거{구겨진 거}
21312 옷고름	고르미, 고름 다라따구, 고리미라 cf. 고름다리저고리라구
21313 단추	단치
21314 동정	△
21315 겹	거치, 거치두
21315-0-1 -에	거치에
21315-0-2 -을	거츠 씨츠라구
21316 홑옷	하부께르, 하부우티느
21317 겹옷	저부티라 하지, 접.우티라구, 접께라구서르
21318 잠방이	△, cf. 짜른바지라구
21319 누더기	△, cf. 파이난 우티라 하지{해진 옷이라 하지}, 누데기 느(+여러 번 기운 이불만을 가리킴), 누덩니부리라구 {누덕이불이라고}
21320 거지	비령배
21321 구걸	비러서 어더오지{구걸해서 얻어 오지}
21322 조끼	등거리라 하오, →쪼끼느(+한국어라 함)
21323 내의	→송내보그느, 송내보가지, 송내보그
21324 껌입다	찌이부라구느{껴입으라고는}
21325 소매	소매라, 진소매라{긴 소매라}
21326 주머니	엽차개구 cf. 조만지르(+주로 밀가루 등을 담는 "자루 (袋)"를 가리킴), 댜배쌈지라구, 주먼지라지(+주로 밀가 루 등을 담는 "자루(袋)"를 가리킴)
21327 호주머니	까르만, 까르마네다{호주머니에다}
21328 허리띠	허리띠라구 cf. 리멘띠라구서(+러시아 어 "ремен(가 죽)"에 "띠"가 결합된 것){가죽띠라고서}
21329 땡기	*
21330 도포	*
21331 샷갓	사까지, 사까즈(+대격형)
21331-0-1 -에	사까제
21332 고깔	△
21333 사모	*
21334 유건	감티, 감티라 하구 cf. 죽째이라(+[čukč'εʷra]) {죽장(竹 杖)이라}
21335 대님	△
21336 감발	감바리지



21337 쥘신	머커리라(+총이 네 개인 쥘으로 만든 신)
21338 미투리	메커리지
21338-1 (쥘신을) 삼다/만들다/트다/결다	맨든다 해애쏘
21339 나막신	*
21340 설피	*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멩지오
21401-1 명주실	느베시리, 느베고토리 시리라 하지{누에고치 실이라 하지}
21402 목화	모카
21402-1 목화다래	모카송치
21403 무명	△
21403-1 무명실	△
21404 씨아	*
21405 자새	*
21406 물레	*
21407 베	배우티{베옷}, 벨르{베로}
21408 길쌈	△ cf. 배르 찐다구{베를 찐다고}
21409 골무	골미
21410 반질고리	지뚜깨라구서, 지뚜짱주리(+버들로 틀어서 만듦) cf. 태 석똥고리(+딸이 시집가서 처음 친정집 나들이를 할 때 "태석"이라는 음식을 만들어 담아왔다고 붙여짐), 여똥 고리구(+ "옛"을 담아 오는 동고리), 동고리라 해쏘, 동고 리라(+버들이나 싸리로 결어서 동급납작하게 만든 그 릇, 반질고리의 대응으로 쓰기도 함)
21411 가위	가새
21411-0-1 -을	가새르
21411-0-2 -에	가새애
21412 마르다(裁)	마른다 하오
21412-0-1 -고	마르구
21412-0-2 -어라	말가라
21413 형쥘	형거쥘배기
21413-0-1 -을	형건쥘배기르
21413-0-2 -에	형건쥘배게
21414 바늘	바늘르{바늘로}
21415 꿰다	깨라구
21415-0-1 -고	깨구 이따구, 깨지 마라라
21415-0-2 -어라	깨에라

21416 바느질	바느지란다
21417 재봉틀	마서이, 마서느느{마선은}, cf. 전기 마서이라 하구{전기 재봉틀이라 하고}, 발마서이오{발재봉틀이오}
21418 끈	진, 지이라 하지, 지다만 지느 가져오라구
21419 노끈	노내끼이라 하오 cf. 오래기(+실, 형짚, 종이, 새끼 따 위의 길고 가느다란 조각)
21420 참바	바이지, 바이라 하지
21421 매듭	매들비라 하지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매애폐 하지
21422 보자기	보이라 하지
21423 이불	이부리(+[iβuri]), 이부르 더꾸{이불을 덮고}
21424 솜	소이, 소캐라구두 하구
21425 포근하다	△
21426 홑이불	하부르 더꾸(+[haβuri]){홑이불을 덮고}
21427 겹이불	점니부르(+대격형)
21427-1 솜이불	소이부리지(+[soiβuriji]), 소캐이부리지
21428 누비이불	다 이부리라 하오
21429 베개	베개
21430 베갯잇	베개이스{베갯잇을}
21430-0-1 -에	베개이세
21431 목침	목띠기, 목떼기라
21432 퇴침	*
21433 방석	→방서기 올쏘, 방서그 까라라
21434 담요	탄재느
21435 빨래하다	시처야 데지, 빨래질 한다지
21436 빨랫방망이	방칠르(+빨랫방망이로)
21437 빨래터	*
21438 빨랫줄	바주리
21439 다리미	다려이, 다려늘르{다리미로}
21439-1 다림질	다련질 한다, 다련지르 하지
21440 인두	윤딜르{인두로}
21441 다듬잇방망이	*
21442 다듬잇돌	*
21443 다듬이질	*

## 2.5. 민속

##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설라리라 하지, 설라르(+대격형)
21502 설	△
21503 선달 그림날	서딸그름나리지
21504 묵은세배	*
21505 올해	오레
21505-0-1 -는	오레두
21505-1 작년	장녀이, 장녀네
21505-2 재작년	장년그러께
21505-3 내년	맹녀이, 맹녀네{내년에}
21505-4 후년	후연, 후여이라 하구, 후여니라구
21505-5 내후년	*
21506 작은설	*
21507 옷	유끼(+이 지역에서는 콩으로 옷가락을 대신함)
21507-0-1 -을	유꾸
21507-0-2 -에	유께 안자따
21507-1 옷놀이	*
21508 옷가락	*
21508-1 도	떨까지
21508-2 개	캐
21508-3 걸	컬, 커리
21508-4 옷	중, 승
21508-5 모	목떼기지
21509 단동	*
21509-1 외동무니	*
21509-2 두동무니	*
21509-3 석동무니	*
21509-4 녁동무니	*
21509-5 막동	*
21509-6 단동무니	*
21510 보름	보르메{보름에}
21510-1 삭망	*
21511 추석	치서기, 치서게느
21512 망월	*
21513 쥐불놀이	*
21514 자치기	*
21514-1 작은막대	*
21514-2 긴막대	*
21515 수수께끼	수수께끼라 하오

21516 호미씻이	*
21517 꿩과리	△
21518 장구	새장귀두
21519 곁두리	*
21520 무당	* cf. 강사본다지{관상을 본다지}
21520-1 박수	*
21521 고수레	*
21521-1 고수레!	*
21522 점쟁이	점치개라 하지 cf. 점우 치지
21523 상여(喪輿)	상디
21524 굴건	*
21525 제사	제센나리{제삿날이}, 제세르 cf. 사네 가서 사~아 디리 우.{제사 때 산에 가서 상을 드리오.}
21526 제기	*
21527 귀신	기시나라구, 기시이라 하지
21528 도깨비	도깨비

##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곱찌
21602 굴레	굴레
21603 멍에	멍지, 세멍지{소 멍에}
21604 길마	* cf. 안재{안장}, 안자이라지{안장이라지}, 안자아(+대격형)
21605 부리망	꾸레기라
21606 구유	구시지, 세구시라 하오
21607 작두	작띠
21608 꼴	새라구
21609 여물	△
21610 쇠죽	*
21611 쇠죽바가지	*
21612 수레	술계다 여어서{수레에다 넣어서}, 말술기라 하구, 세술 기라 하구
21613 끌다	끄서라, 끄서다 달라구{끌어다 달라고}
21613-0-1 -고	끄스구 가자무{끌고 가자면}
21614 바퀴	바키
21615 새끼(繩)	새'끼
21615-1 새끼(짐승의)	새끼'
21616 망태기	중태라구두 하구
21617 떡둥구미	*
21618 거적	*

21619 가마니	*
21619-1 가마니틀	*
21620 돛자리	△
21621 자리틀	*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결다	*
21622 왕골	*
21623 삼태기	*
21623-1 쪼 삼태기	*
21623-2 싸리 삼태기	*
21624 명석	* cf. 푸~이라 하오(+가로 5m, 세로 6m 가량의 천막인 이것을 펴고 곡식을 말림)
21625 어레미	얼게미라구(+ "쌀채"보다 구멍이 이 넓은 것)
21625-1 고운채	채
21625-2 굵은채	쌀채라 하오
21626 대장장이	애재
21627 대장간	애장가~이, 애장가네서
21628 풀무	풍기라구
21629 모루	*
21630 모루채	망치
21631 갈퀴	깍째
21632 집게	찌꺼
21633 장도리	△
21633-1 노루발	*
21634 톱	토비라 하지 cf. 손토비(+손에 쥐고 켄 때 쓰는 작은 톱), 캐마우재라구(+두 사람이 나무를 켄 때 쓰는 큰 톱)
21634-0-1 -에	토베 노기 스러따지
21635 도끼	도깰르{도끼로}
21636 자루(柄)	→잘기라구두 하구, 자르지(+[čarɕji]), 도꾸자르(+[tok' uʃarɕ])
21636-0-1 -을	자르르(+[čarɕri])
21636-0-2 -에	도꾸자르에(+[tok' uʃarɕe])
21637 갈고리	까꾸래라 하구
21638 췌기	새애기라, 새애기라구
21639 송곳	송고디, 송고들르{송곳으로}
21639-0-1 -에	송고데
21640 뽕죽하다	뽕:조가키{뽕죽하게}
21641 솥돌	수뚜리
21641-0-1 -에	수뚜레 카르 간다구, 수뚜레다
21642 맷돌	맷토리구, 맷토리우

21642-1 수쇠  
 21642-2 암쇠  
 21643 지게  
 21644 발채  
 21645 지게 작대기  
 21646 막대기  
 21647 몽둥이

목찌지구  
 목찌지라 하오  
 쪽찌게라 하오  
 오재기, 오재기르 노쿠야{발채를 놓아야}  
 쪽찌개대라구(+?제)  
 막때라  
 몽데이라구, 몽테지

###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21702 광주리  
 21703 소쿠리  
 21704 함지  
 21705 풀비  
 21705-1 귀알  
 21706 독  
 21706-0-1 -에  
 21707 물독  
 21708 항아리  
 21709 단지  
 21710 물동이  
 21711 따리  
 21712 웅기  
 21713 표주박  
 21714 키(箕)  
 21715 떡살  
 21716 다식판  
 21717 시루  
 21717-0-1 -을  
 21717-0-2 -에  
 21718 시룻밑  
 21718-0-1 -에  
 21719 시룻변  
 21720 부싯돌  
 21720-0-1 -을  
 21721 부시  
 21722 부싯깃  
 21723 담배  
 21724 담뱃대

비요{빗자루요}, 비라 해두{빗자루라 해도}  
 강주리  
 \*  
 함지  
 △ cf. 부디 가툼걸르{붓 같은 걸로}  
 \*  
 둥기라 하지  
 물뚱게다  
 물뚱기라구두 하구  
 항새리  
 단지라구  
 물또에  
 따바리라 하오  
 △, 오지그르시가 지그르스{오지그룻과 질그룻을}  
 바가지라구두 하구  
 치오?{키오?}  
 \*  
 \*  
 \*(+제보자는 가마로 알고 있음) cf. 시리따리{시루 다리}  
 \*  
 \*  
 \*, cf. 시르뽀 피오{시루 보 펴오}  
 \*  
 \*  
 부수또리라구, 부수또리라 하지  
 부수또르 가제오나라  
 부수 처서, 부수친다 하오  
 →부수지치라구 cf. 부살개{불쏘시개}  
 담배, 담배라구두 하구(+대 혹은 종이에다 말아서 펴)  
 대토~이라구서

21725 담배설대	대, 대지
21726 담배통	대토~이라, 대토~올르{대통으로}
21727 물부리	*
21728 담배쌈지	담배쌈지
21729 부채	부채라 하오
21730 토시	토시
21731 벼루	△
21732 가락지	가락찌구, 가락지(+구슬이 없는 것), 반지라 하오(+구슬이 있는 것)
21733 비녀	*, cf. 비네(+음운 조사 시에 나옴)
21734 참빗	참비시
21734-0-1 -을	참비스
21734-0-2 -에	참비세 이 이따구
21735 얼레빗	얼게라구
21736 세숫대야	세시소래라구
21737 비누	비느리
21738 도투마리	*
21739 활대	*
21740 잉앗대	*
21741 부티	*
21742 도롱이	*

## 2.6. 인체

###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매구
21802 이마빼기	이맨대기느{이마빼기느}
21803 눈자위	→눈자시 cf. 눈똥재
21804 검은자위	검정자시
21805 흰자위	흰자시지
21806 눈꺼풀	눈딱찌라 하지
21807 거적눈	→거정누이라구
21808 눈썹	눈썸비라 하구
21808-0-1 -이	눈썸비 마~이 빠져따지
21809 속눈썹	눈싸부레
21809-0-1 -이	눈싸부레 지다구서{속눈썹이 길다고서}
21810 눈두덩	△

21811	안경	오치끼라구두(+다), 앵경이라두 하구(+소), 앵겨~으느
21812	안경집	앵경지비라 하지
21813	돋보기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1814	주름살	주루미라구
21814	주름살	주루미
21814-0-1	-이	이매주루미라구{이마 주름살이라고}
21815	엳되다	△ cf. 나이 어레 베운다구{나이 어려 보인다고}
21816	수염	세에미, 세에무(+대격형) cf. 택세에미라{턱수염이라}
21817	구레나룻	구리세에미라구
21817-0-1	-을	구리세에무 까까라
21818	코	코이 cf. 콤말기, 코이 사쿠망게 기하다구{콧날이 선 게 곱다고}
21818-0-1	-이	코이라 하지
21819	콧수염	운췌에미라 하오
21820	코딱지	코따대라구서르{코딱지라고서}
21821	콧구멍	코꽁개
21821-0-1	-을	코꾸~야, 코꾸내 씨츠라구, 코꽁가 씨츠라구서
21821-0-2	-에	코꾸야에서
21822	콧물	콤무리
21823	입술	임녀기라구 cf. 임주이라구서{인중이라고서}
21823-0-1	-에	임녀게 바바리 부터따{입술에 밥알이 붙었다}
21824	다물다	다무러라라구두 하구{"다물어라"라고도 하고}, 이부 다 다라
21825	어금니	검니 cf. 양니라 하오{사랑니라 하오}, 치애라 하구(+성 인들의 이(齒)를 가리킴), 이빠리라 하구(+아이들의 이 (齒)를 가리킴)
21826	덧니	버덩니라구 하오 cf. 버드러져따 해서
21827	휘파람	헤빠름 분다구, 헤빠리미라구
21828	침	추미지
21829	삼키다	추무 녕군다구{침을 삼킨다고}
21830	가래(痰)	가래라 하오
21831	빨다	반는다구, 추무 바다라{침을 빨어라}
21832	혀	세(+성인들의 혀를 가리킴), 세때지(+아이들의 혀를 가 리킴)
21833	혓바늘	쓰르느(+혀 끝에 새빨강게 돋아난 것){혓바늘은}, 쓰리 라 하지
21834	귓볼	△ cf. 기띠라구서(+아이들의 귀를 가리킴), 기(+성인들 의 귀를 가리킴){귀}, 기뿌리라 하지(+귀 뒤를 가리킴)
21835	귀고리	월경타느 께에따구서리, 월경타~이라구, 월게타이라 하 오, 월쟁타~아 께에따구, 췌르기라 하오(+러시아 어)



21835-1 귀걸이	△
21836 귀지	기채, 기채르 파라구
21837 귀이개	기우비개라 하오
21838 소리	소리 친다구
21839 엇듣다	△
21840 귀청	기채 떠러지개따구
21841 귀밑	△
21841-0-1 -을	△
21842 관자놀이	△
21843 기미	재미 나와따 cf. 버지미라 하구{버짐이라 하고}, 지미사 {점이야}, 지미두{점도}, 버스시라 하구{검버섯이라 하고}
21844 주근깨	주그잉깨 도다따구(+[čugɐʷŋkʰɛ])
21845 턱	태기(+존), 택시무(+비){턱이면}, 태그 들라구{턱을 들라 고} cf. 끄시라구두 하지{턱빠라고도 하지}
21846 턱수염	턱썰에미라구서
21847 뺨	뺨미라구두 하구(+성인들에게 쓰는 말로 생각하며, 뺨 과 볼을 같은 것으로 인식함)
21847-1 볼	볼태기(+ "뺨"의 낮춤말로 인식함)
21848 가름하다	△ cf. 질쭈:마다구{기름하다구}, 나티 버들립 가따구(+얼 굴이 가름한 사람을 표현할 때 씀)
21849 보조개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1850 머리카락	머리라 하지(+머리카락 전체를 가리킴), 머리끼두(+땅에 떨어진 머리카락), 머리오리(+머리카락 한 올을 가리킴)
21851 비듬	머리비느리
21852 기계충	△
21853 정수리	△ cf. 머리 우이라구{머리 위라고}
21854 대머리	△ cf. 머리 짹 빠져따구, 번들리매라 하오{번대이마라 하오}
21855 고수머리	양머리라 하오
21856 가르마	머리그미라구 cf. 오룽그미라 하구{오른쪽 가르마라 하 고}, 바룽그미라 하구{가운데 가르마라 하고}, 뱅그미라 하구{왼쪽 가르마라 하고}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금우 낸다구
21857 가마	가매라 하오
21857-1 가마(鼎)	가매다
21857-2 가마(轎)	가매라구
21857-3 가마(질그릇)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1857-4 가마(가마니)	*
21858 뒤통수	두띠라 하오
21858 뒤통수	디띠

21859 뒷덜미  
21860 목  
21861 먹살

더수기라 하오  
모기라구, 모그 진다{목을 켜다}  
△, cf. 달그 모가지르 벤다구

## 2.6.2. 상체

21901 어깨  
21902 밀치다  
21903 겨드랑  
21904 등  
21905 가슴  
21906 결리다  
21907 갈비뼈  
21908 허파  
21909 쓸개  
21910 콩팥  
21910-0-1 -에  
21910-0-2 -을  
21911 팔  
21912 팔꿈치  
21913 팔짱끼다  
21914 손뚝  
21915 오른손  
21916 왼손  
21917 다르다  
21917-0-1 -아서  
21917-1 틀리다  
21918 왼손잡이  
21919 엄지손가락  
21920 집게손가락  
21921 가운데손가락  
21922 약손가락  
21923 새끼손가락  
21924 생인손  
21925 사마귀  
21926 손아귀  
21927 손목  
21928 뺨  
21929 허리  
21930 지팡이

어깨  
어께르 민다구{어깨로 민다고}  
재개미라(+[čɛɣemira])  
드~이, 잔더리라구두 하구  
가시미라 하오, 가슴두 너르다, 가스무 페라  
→케운단 말두 이쑈  
갈비때 애이오?  
폐라 하오  
여리지  
곰파치라구  
곰파체  
곰파츠  
파리  
팔뚜꾸비  
팔찌어 지른다구, 팔찌어 질거따구, 팔찌어 질러따구  
소토비라구  
오른소이라 하구  
벤소이(+[vensoi])  
따게 생게따구, 따다 하오, 따구, 다르다구(+[taridagu])  
달가따구{다르다고}  
올채이타는게{옳지 않다는 게}  
벤재라 하오(+[venjɛ])  
엄지소까라기라구, 엄지가락  
△  
장소까래기라 하구, 장소이  
△  
새끼소까래기라 하구, 새끼소이  
생손 알른다구  
사마기라  
소내기 세다  
숨모기  
뺨 재인다구{뺨을 켜다고}  
허리라구두 하구 cf. 구술빼라구두{척추빼라고도}  
지페, 지페르

21931	옆구리	여꾸리라 하오
21932	간지럽다	깐질군다구서, 깐질구지 마라라, 깐지러바서(+[k'anʃirəbasə]) , 깐지러바서(+[k'anʃirəbasə]) , 간지럽다구 △
21933	간지럼	△, cf. 가는 허리라구서리, 허리 가느다 △
21934	잔허리	
21935	근육	△
21936	배꼽	배뿌기라 하오
21937	목물	*

### 2.6.3. 하체

22001	복사뼈	발꾸마리
22002	발가락	바까래기라 하오
22003	발바닥	발빠다기
22004	발톱	발토비 지다지{발톱이 길다지}, 발토부 까끄라구, 발토 비라 하오
22005	냄새	내앰새 나지
22006	고린내	쿠린내라(+대변에서 나는 냄새)
22007	굳은살	장아리 배게따구
22008	정강이	성무이라 하오
22009	종아리	종아리라구 cf. 오그미우(+ "다리"의 존칭어)
22010	장딴지	장딴지라 하오
22011	회초리	헤채리
22012	무릎	무러피
22012-0-1	-을	무러푸
22012-0-2	-에	무러페
22013	오금	△
22014	엉덩이	엉치라 하오
22015	궁둥이	궁둥머리르 바라(+비), 궁디라구 아이하지(+비), 다 엉치 라 하지
22016	볼기	신다리
22017	명	이무러따{명이 들었다}
22018	명울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2019	가랑이	바지 가다리라 cf. 다리 암빼라 하오{허벅지라 하오}
22020	사이	가달 새{가랑이 사이}
22021	살	△
22021-0-1	-이	△
22021-0-2	-을	△
22022	사타구니	사채기라구&
22023	가래툫	△

22023-0-1 -을	△
22024 허벅다리	신다리르 드러가오{넓적다리로 들어가오}
22025 넓적다리	신다리느(+다), 넓떡따리라 하오(+소)
22026 가부좌(跏趺坐)	올방재 틀구 안는다구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	올방재르 틀구 안는다구

##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용가미라 하오
22102 기침	지치미라구(+다), 기치미라구(+소), 지춤 진는다구
22103 재채기	재채기르 한다구
22104 사례	△
22104-1 (사례) 들리다/만나다/걸리다	개깁다 하지{사례들린다 하지}
22105 딸꾹질	패기르 한다구
22106 트림	트름한다
22107 콧보	얼그망채라 하구(+아이들과 얘기할 때 씀) cf. 억썸억썸 얼거따구(+성인들과 얘기할 때 씀)
22108 천연두	마느래라능게{천연두라는 게} cf. 질라깨 마느래라구(+ 제보자의 할머니가 말했다 함)
22109 여드름	△
22110 학질	학쩔(+[hakč'ir])
22110-1 하루거리	학찌리무{학질이면}
22110-2 이틀거리	*
22110-3 매일 앓는 학질	학찌리라 하오
22111 홍역	홍지이라 하오, 홍진 한다구
22112 볼거리	→도투베~이라구두 하오 cf. 옌지채라구{연주창(連珠瘡) 이라고}
22113 땀띠	땀때라 하오
22114 두드러기	알라리게르(+러시아 어){알레르기를}
22115 버짐	버즘, 버지미라 하오
22115-1 마른버짐	마른 버지미 이꾸
22115-2 진버짐	저즌 버지미 이쏘, 저즌 버즈무느{진버짐은}
22115-3 도장 버짐	버지미라 하오
22116 문둥이	△, cf. 문둥벼어 하는 사리미라구
22116-1 문둥병	문둥베~이
22117 부스럼	부시레미라 하지
22117-1 종기	△
22118 고름	고리미라 하구, 고르미라 하구
22119 곰기다	곰기구, 곰기무{곰기면}
22120 난쟁이	난재애라, 난재라 하구, 소영국 사름이라 cf. 소형구기

	라 하는지
22121 사팔뜨기	누누 햅튼다 하오
22122 언청이	입때지개
22123 소경	세계~이, 세거어느{소경은}, 세경두 이꾸, 눈뵝째라 하구
22123-1 당달봉사	뜬세계에라 하오
22124 애꾸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음)
22125 눈곱	눈꼽째기
22126 다래끼	께에지라 하오
22126-1 다래끼(눈 위쪽)	다라치라구두 하구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아래 다라치 나따
22127 절름발이	쩔루배라 하오
22128 곱사등이	등곱째라 하오
22129 귀머거리	기멕째
22130 말더듬이	떠드베기, 땀땀비
22131 병어리	버버리지
22132 잠꾸러기	잠꾸레기
22133 졸리다	자부럽따, 자부러바서
22134 하품	하푸무 한다구
22135 졸음	자부레미 온다구
22135-0-1 -을	자부러무 참지 모탄다구, 자부럼 참지 모탄다구
22135-0-2 -에	△
22136 잠꼬대	잡쓸한다구

## 2.7. 육아

22201 입덧	△
22201-0-1 -을	△
22202 갓난아이	가즈난 어르나라, 가즈난아(+[kazinana], 태어나서 둘 때 까지 부름)
22203 어린아이	어르나(+대략 4~5세 정도의 아이), 크나라 하지(+[kʰɯnara], 대략 5세 이상의 아이)
22204 경기(驚氣)하다	△, cf. 푸~우 일군다
22205 눅히다	누피지
22206 계집아이	게지배라구두 하구(+비), 제지배더리(+비), 엠나더리라 하구(+비), 새아가느(+대략 15세 이상의 여자 아이), 새 애기느(+시집갈 때가 된 여자 아이 또는 처녀를 가리킴)
22207 예쁘다	곱따구(+다), 예뿌다구두 하구(+소)
22208 사내아이	선느나두(+대략 4세 이상의 남자 아이), 총각 아더리라 하구(+대략 12살 이상의 남자 아이), 청녀이라 하구(+ "총각"보다 더 나이를 먹은 남자 아이)

22209 아우 타다	제아래르 탄다구
22209-1 아우보다	제동새르 바따구, 동생가느 본다구, 형제가느 본다구두
22210 야위다	예비지, 예베에따구{야위었다고}
22211 쌍둥이	쌍디이, 쌍디두 조쿠, 쌍둥애덜으, 쌍디이더르 데려오라지
22212 오줌	오줌 찐다지
22213 똥	또오 눈다구두 하구{똥을 눈다고도 하고}, 똥싸개르 한 다 하오 cf. 두우 본다 하구
22214 기저귀	△
22215 뉘다(排便)	니우라구서리, 니우지, 니와라
22216 방귀	방기라 하오
22216-1 꺾다	끼무, 끼구, 방기르 꺾따, 꺾에따 하오
22217 구린내	쿠린내 나지
22218 구리다	쿠리다구두 하지
22219 포대기	하부리라 하오(+숨을 두지 않은 포대기), 하불루 싸 어 버때쏘
22220 기지개	지지개 쓰기마 하무{기지개를 켜기만 하면}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지지개 쓴단 말이오
22221 거짓말	거지뿌레르 한다구, 거짐말 한다 하구, 부끼 cf. 열린다 {속인다}
22222 남부끄럽다	남부꾸럽따구, 내미부꾸럽따구
22223 겁쟁이	겁띠라구 하오
22224 불쌍하다	불싸하다
22225 죄암죄암	죤:죤:
22226 곤지곤지	송고송고
22227 따로따로	서마서마
22228 도리도리	도리도리
22229 짹짹	짜짹기 짜짹기
22230 부라부라	디디:장 디디:장, 디디재라 cf. 곤디곤디(+아이를 손바 닥 위에 세우면서 하는 말)
22231 걸음마	거르마: 거르마 이래오
22232 아장아장	아장:아장
22233 넘어지다	자빠져따구두(+아무렇게나 넘어진 것), 어푸러져따구(+ 앞으로 넘어진 것), 너머가따 하오(+옆으로 넘어진 것), 자뿌러지짐{자빠지지 뭐}, 번저져따구(+뒤로 넘어진 것), 어퍼져따(+앞으로 넘어진 것), 낭매르 해따구(+존), 대배 져따구(+비)
22234 곤두박질	꼰디박질 하오, 가꾸루 떠러져따지, cf. 떠러져따지(+발 부터 떨어진 것)
22235 안기다	앵기운다 하오

22236 바람개비	뽕랭개비라 하오
22237 호드기	우레
22238 숨바꼭질	꿈치올래기라
22239 소꿉놀이	바꿈재르 노라때쏘
22240 사금파리	깨:지개, 마사지개
22241 연	여이라 하오 cf. 영꼬리
22241-1 방패연	연
22241-2 가오리연	여느 떠운다
22242 걸리다	걸기무{걸리면}
22243 고누	*
22244 땅뽕기	*
22245 팽이	빠라 하오, 빠르 친다 하오 cf. 채찌기라 하오
22246 딱지치기	*
22247 구슬	구수리라구
22248 그네	굴기, 굴기르 떠구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떠구
22249 밀신개	△, cf. 널쭌그 노쿠서리
22250 굴렁쇠	구불개라
22251 굴리다	구부리지
22251-0-1 -고	구부리구, 구부리메 놀지
22251-0-2 -어야	구부레라
22252 자전거	재앵고라 하오, 재앵고라구(+[čɛʰɛŋgoragu])
22253 목말	몽매르 탄다
22254 말타기	말태기라구
22255 달음박질	달름지리우{달음박질이오}
22256 썰매	파리, 쪽빨기느(+원동에서 썰)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탄다
22256-2 송곳	△
22257 엮살	엮사르 쓴다 하오
22257-1 (엮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엮사르 쓴다구
22258 부아	부애난다구, 부애르 일군단 말이오

## 2.8 친족

### 2.8 친족

22301 아버지	빠빠라 하지(+지금 주로 썰), 아버지(+원동에서 주로 썰음)
22301-1 아버지(호칭)	아버지:

22302 어머니	제에미라 해찌(+원동에서 주로 썼음), 마마(+지금 주로 씀), 어머니라 해쏘
22302-1 어머니(호칭)	제에마(+원동에서 주로 썼음), 마마라 하지(+지금 주로 씀)
22303 할아버지	아바이라구, 하나바지라 해찌
22303-1 할아버지(호칭)	아바이라구, 하너부지라 하오
22304 할머니	아매, 애매(+자연 발화에서 채록), 하너머니
22304-1 할머니(호칭)	하너머니:, 아매라구서
22305 남편	나그내, 남제이라구(+친구들과 대화할 때 씀), 남페이구(+친구들과 대화할 때 씀)
22305-1 남편(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cf. 아바이라 하지(+제보자는 자식들과 대화할 때 남편의 호칭으로 씀)
22306 아내	부인네라 하지(+이름을 부르기도 함), 양까이란 마르(+친구들과 대화할 때 씀){아내란 말은}
22306-1 아내(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cf. 애매(+제보자의 남편이 자식들과 대화할 때 씀)
22307 형	행님이라 아이 하오(+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22307-1 형(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08 아우	동새애라, 애끼라구서& cf. 오래비라구(+남동생)
22308-1 아우(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09 누나	누베라구
22309-1 누나(호칭)	누베라, 누인니미라두
22310 누이	지하누이구, 지하누비르, 동새애라 함때
22310-1 누이(호칭)	동새애라구(+주로 이름을 부름)
22311 자식	자세기, 자서그느
22312 맏아들	마다드리라구 하지
22313 맏딸	마따리라구 하지
22314 막내	막띠라 하지, 점먹따리라구두 하구 cf. 막똥따리{막내딸}
22315 오빠	오라바이라구
22315-1 오빠(호칭)	오라바이라 해야 데지(+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22316 언니	서애라구(+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22316-1 언니(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17 아버지	애비라구서리(+원동에서 썼으며, 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22317-1 아버지(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18 어미	△(+주로 이름을 부름)
22318-1 어미(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19 손자	손재
22320 손녀	손네라 하지
22321 사위	싸이라 아이 하구 이름 부르오(+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22321-1 사위(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22 외손자	베손재(+[vesonjɛ], 소), 손재(+다) cf. 송군더리라구, 베가라 하무{외가(外家)라 하면}
22323 외손녀	손네(+다), 베손네(+[vesonnye], 소)
22324 꾸짖다	꾸즈럼친다구
22324-0-1 -고	꾸즈럼치구 이따구
22324-1 나무라다	→나무린다
22325 총각	총개기라구, 총가그느
22326 처녀	새애기라 하구
22327 혼인	혼세느
22327-1 혼인식	혼세나라라구두 하구, 잔첸날이라구
22328 혼인 잔치	잔चे cf. 혼세임세기라 하구
22329 장가가다	서바아 간다구
22329-1 시집가다	시지부 간다구
22330 혼숫감	혼세우티까미라구두, 우티까미라 하지
22331 함	웨(+[kwe]), 게, 게짜기라 하지, cf. 치마단(+ "트렁크"의 러시아 어, 지금은 이것을 주로 씀)
22332 접사돈	△
22333 새색시	△(+주로 이름을 부름)
22333-1 새색시(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34 시아버지	시아바이 cf. 가시애비란 말으(+장인(丈人))
22334-1 시아버지(호칭)	△(+시아버지가 젊으면 이름을 주로 부름)
22335 시어머니	시어마이지, 가스어마이라구
22335-1 시어머니(호칭)	마마라 하지(+이름을 부르기도 함)
22336 비위	△, cf. 성지르 잘 마주무
22337 아주버니	시형, 세행두
22337-1 아주버니(호칭)	아즈바이라구(+[ajibairagu], 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22338 서방님	시애끼
22338-1 서방님(호칭)	새워이라구(+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22339 도련님	시애끼지
22339-1 도련님(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40 형님	형니미라
22340-1 형님(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41 시누이	스느비라 하오
22341-1 시누이(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41-2 아가씨	지하스느비지(+주로 이름을 부름)
22341-3 아가씨(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42 올케	올찌세미
22342-1 올케(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43 매형	매비

22343-1 매형(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44 매제	△ cf. 동생애 남폐이라구
22344-1 매제(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45 큰아버지	마디마다바이라구
22345-1 큰아버지(호칭)	맘마다바이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둘째마다바이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세째마다바이라
22346 큰어머니	맘마다매
22346-1 큰어머니(호칭)	마다매:(+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둘째마다매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세째마다매
22347 큰집	큰지비
22348 작은아버지	아즈바이(+[ajibai])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아즈바에:(+[ajibae:])
22349 작은어머니	아재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아재
22350 삼촌	삼추이라 하오
22350-1 삼촌(호칭)	아즈바이(+[ajibai])
22351 아저씨	아즈바이(+[ajibai], 아버지보다 나이가 아래일 때)
22351-1 아저씨(호칭)	아즈바에:(+[ajibae:])
22352 아주머니	아재오
22352-1 아주머니(호칭)	아재(+아버지보다 나이가 아래일 때)
22353 조카	조캐라구
22354 조카딸	여조캐라 하구
22355 고모	마다매라 하오(+아버지의 누나), 아재라 하오(+아버지의 여동생)
22355-1 고모(호칭)	마다매라구(+아버지의 누나), 아재라구(+아버지의 여동생)
22356 고모부	마다바이구(+아버지 누나의 남편), 아즈바이라구 하지(+아버지 여동생의 남편)
22356-1 고모부(호칭)	마다바이(+아버지 누나의 남편), 아즈바이(+아버지 여동생의 남편)
22357 고종	모사추이라 하오
22358 이모	마다매라(+어머니의 언니), 아재라(+어머니의 여동생)
22358-1 이모(호칭)	마다매(+어머니의 언니), 아재(+어머니의 여동생)
22359 이모부	마다바이(+어머니 언니의 남편), 아즈바이(+어머니 여동생의 남편)
22359-1 이모부(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60 이종	베사추이라 하구(+[vesačhuira])
22361 외삼촌	마다바이(+어머니의 오빠), 아즈바이(+어머니의 남동생)
22361-1 외삼촌(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62 외숙모	마다매(+어머니 오빠의 부인), 아재(+어머니 남동생의 부인)
22362-1 외숙모(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63 외종	베사추이우(+[vesač <sup>h</sup> uiu]), 웨사추이 cf. 예가페이라 하오{외가 편이라 하오}
22364 외할아버지	에하나부지, 에하나바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에크라바이라 하오
22365 외할머니	에할미
22365-1 외할머니(호칭)	에크나매
22366 장인	가스아바이라 하오
22366-1 장인(호칭)	가스아바이, 아바이
22367 장모	가스어마이라지
22367-1 장모(호칭)	가스어마이, 어마이
22368 처남	쳐내미라 하오
22368-1 처남(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69 처남댁	쳐냄대기라구서, 처나미대기라구
22369-1 처남댁(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70 할아버지	보토리라 하오
22371 할머니	가비라 하구
22372 계모	이부대미라구
22372-1 계부	이부대비라구
22373 아저씨	이우찌아바이거나
22373-1 아저씨(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74 아주머니	아매라
22374-1 아주머니(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75 사나이	스나덜이라구
22376 영감	영개미라구두
22376-1 할망구	노동여~이라구 cf. 두상짜기(+할아버지를 낮추어 하는 말)
22377 나이	나이
22377-0-1 -를	나아
22378 환갑	항가비라 하지
22378-1 환갑 잔치	항갑짜~아 채린다구
22379 사투리	*

## 2.9 동물

###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22402 민물고기  
 22403 피라미  
 22404 지느러미  
 22405 아가미  
 22406 창자  
 22407 송사리  
 22408 헤엄  
 22409 떼기  
 22410 자라  
 22411 거북  
 22412 미꾸라지  
 22413 개구리  
 22414 올챙이  
 22415 두꺼비  
 22416 거머리  
 22417 다슬기  
 22418 우렁이  
 22419 고둥  
 22420 달팽이  
 22421 새우  
 22421-1 새우(민물 대)  
 22421-2 새우(민물 소)  
 22421-3 새우(바다 대)  
 22421-4 새우(바다 소)  
 22422 새우젓  
 22422-0-1 -이  
 22423 가재  
 22424 갈치  
 22425 고등어  
 22426 가오리  
 22427 가자미  
 22428 멸치  
 22429 명태  
 22429-1 동태  
 22429-2 황태  
 22429-3 노가리  
 22429-4 북어  
 22429-5 생태  
 22430 조기

물꼬기  
 민물꼬기 아이오 cf. 바당물꼬기  
 \*  
 날개라 하지  
 수메  
 배애리  
 \*  
 헤에간다구  
 메사기라 하오  
 자래는  
 거부기  
 \*  
 메그락찌라 하구, 개구리라 하오  
 올채  
 두테비라 하오  
 거마리라 하오  
 골배오  
 골배  
 골배지  
 골배느  
 새비느  
 \*  
 \*  
 왕새비  
 새비  
 새비저시라구  
 새비저시라구  
 가재  
 \*  
 고도에&  
 \*  
 가재미, 가재미르  
 \*  
 멘따이, 멩태라 하오  
 멩태  
 \*  
 \*  
 △, cf. 멩탈 두두레 멩는다구{멩태를 두드려 먹는다고}  
 \*  
 \*

22431 도미	*
22432 뱀장어	배앰고기, 배앰미고기라구
22433 낚시	낙씨
22434 미끼	미끼 엽따구, 미끄(+대격형), 미끄 단다 하오
22435 낚싯대	낙씨때지
22436 열레	△ cf. 싯토이지(+연줄을 감을 때 씀)
22437 조개	조개느, 바당물조개오 cf. 밥조개라 하오{주격이라 하오}
22438 소라	꼴배오

##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벌기라 하오, 벌거지더리라 하지
22502 날벌레	벌기라 하오
22503 파리	파리라 하구
22503-1 쉬파리	시파리
22504 쉬슬다	시르 쓰러따 하지, 아르 쓸키마하무
22505 가시	구데기라 하지
22506 진딧물	드미
22506-1 (진딧물이) 끼다/얹다/생기다	친다
22507 잠자리	잠:재리라 하오
22508 방아깨비	메뚜기
22508-1 암컷	암캐구, 양캐구
22508-2 수컷	수캐구
22509 메뚜기	메띠기가{메뚜기와}
22510 여치	메띠기우 cf. 지뚜레미, 기뚜레미두, 기똥미 애일까?{귀뚜라미 아닐까?}, 설싸이나(+귀뚜라미)
22511 사마귀	△
22512 벌	버리오, 꿀빠리라 하지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꿀치기르 한다구
22513 땅벌	올빠시, 강가이라구두 하구
22514 나비	내비두 이찌
22515 하루살이	하르사리
22516 풍뎡이	*
22517 모기	모기라 하오
22518 장구벌레	△
22519 매미	*
22520 개똥벌레	개똥벌기라 하오
22521 반딧불	개똥부리라구
22522 거미	거미
22523 굼벵이	굼베지

22524 구더기	구데기라 하오
22525 노래기	△
22526 그리마	*
22527 지네	△
22528 개미	개애미지, 배깨미라구두 하구
22529 바구미	△
22530 진드기	두~에
22531 벼룩	베리기 말구
22532 이	이 만타 하지, 이짐{이지 뭐}
22532-1 서캐	써개라구
22532-2 빈대	빈대빠께 업쏘
22533 송충이	*
22534 귀뚜라미	기뚜레미, 기뚜리라구두 하구, 설싸이라 하구
22535 누에	느베
22536 고치	느베 고치라구두
22537 번데기	느베 벌거지라 하구 cf. 분두지(+고치를 틀지 못하는 누에)
22538 지렁이	지레라 하오
22539 회충(蛔蟲)	거시느 cf. 총배기
22540 소금쟁이	△
22541 방개	△

### 2.9.3. 가축

22601 가축	즘시이부터, 즈시이라 하오, 즈스으 치기르 한다구 cf. 날쫄시이라구서{날짐승이라고서}
22602 암소	암세라 하구
22603 송아지	새애지라구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마나라구두 하구(+ "두세", "마냐", "조야", "벨까(흰색 송아지)" 등의 송아지 이름을 부름)
22605 황소	수세
22606 길들이다	지르 디리지, 지르 디리구야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 (+주로 말보다는 고삐를 이용해 소를 부름) cf. 올라서라(+곧게 길을 가지 않을 때 말을 함), 네레서라(+곧게 길을 가지 않을 때 말을 함), 곱찌르 자바댕게야{고삐를 잡아당겨야}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위: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려)	* (+주로 말보다는 고삐를 이용해 소를 부름)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려)	* (+주로 말보다는 고삐를 이용해 소를 부름)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 (+주로 말보다는 고삐를 이용해 소를 부름)
22607 쇠고기	세고기 cf. 대애지고기

22608 고기(肉)	고기느
22609 들치	들썰라 하오 cf. 어썰 들썰텐는가(+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하는 말){어썰 들치가 됐는가}
22610 꼬리	꼬리지, 꼬리라 하오 cf. 달그 꼬랑대라 하구
22611 망아지	매애지라구
22612 당나귀	당나기
22613 갈기	모래기지, 모래기 만타 하지
22614 돼지	도티라구두, 대애지라구두 하구 cf. 수리라구두 하구(+ 수돼지), 수태지라 하구, 암태·지라구서
22614-1 멧돼지	메때·지라 하오, 메또티라 하오
22615 주둥이	주두리라구서
22616 돼지 머리	도투고리지, 대애지 대가리라구두 하구
22617 돼지우리	도투구레서 살지, 도투구르 저어야데지{돼지우리를 지어 야 되지}
22617-1 오래오래	쪼을쪼을쪼을(+지금은 이름을 지어 주고 대부분 이름을 부름)
22618 개(犬)	개라하오
22618-1 수캐	수캐구
22618-2 암캐	암캐구
22619 강아지	개애지
22620 염소	염세
22621 고양이	고애지, 고내 cf. 고애새끼지
22621-1 수고양이	수코애구
22621-2 암고양이	암코내구
22622 토끼	토끼지
22623 거위(鵞)	게사이
22624 암탉	암탈기라 하구
22625 병아리	배우리라 하지
22626 모으다	모다야 데지, 모다드오, 모둔다지
22627 수탉	수탈기
22627-0-1 -이	수타기
22628 벼슬(鷄冠)	베시라 하오
22629 부리	부부리
22630 모이	머거리 준다(+다), 요리라능거느(+소)
22630-0-1 -을	요르(+소)
22630-1 모이다	모다든다지
22631 닭털	달그터리지
22632 닭똥	달그또이지
22633 어리	달그둥지라 하오
22634 닭장	달그구리라

22635 등우리  
22636 날개  
22637 깃  
22637-0-1 -을

등지라하구  
날개  
지치라구두  
지츠 빼라구서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22702 살쾡이  
22703 여우  
  
22704 원숭이  
22705 사슴  
22706 노루  
22706-0-1 -이  
22706-0-2 -를  
22707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22709 족제비  
22710 뱀  
22711 도마뱀  
22712 구렁이  
22713 살모사  
22714 생쥐  
22715 박쥐  
22716 거꾸로  
22717 다람쥐  
22718 새(鳥)  
22719 꿩지  
22720 솔개  
22721 독수리  
22722 제비(燕)  
22723 두루미  
22724 소쩍새  
22725 꿩  
22726 장끼  
22727 까투리  
22727-1 꺼병이  
22728 종달새  
22729 빼꾸기

버민지  
슬기이꾸  
여끼오, 여끼부터, 여끄부터, 여끄 자부라 하지, 여끄게  
다, 여끼게다  
잔내비라  
사스문, 사시미  
놀가지 가트우  
놀가지 만타지  
놀가지르 자부라구  
고순도치지, 고순도치르 자부라구, 고순도치에다  
뚜두지, 뚜두지르  
쪽제피 cf. 오소리 달그 잠는다구, 향가리{담비}  
배애미  
도마배미쳐르, 도마배미라 하오, 도마배미르  
구레에느, 구레에게 물게따 하지 cf. 미추리느{물뱀은}  
\*  
지라 하오, 지지  
→빨찌라구두 하오  
가꾸루 달기구  
다람지라 하오 cf. 서피 업쏘{청설모 없소}  
날쫘시이, 날쫘짐시이라구, 새라하지  
꿩지르, 꼬리라 하지  
△  
닥쭈리, 닥쭈리느  
제비지  
하기라, 두루미라  
\* cf. 갈매기(+[kalmegi]), 갈매기(+[karmegi])  
뀌이오  
수뀌이오  
가투리라 하오  
뀌어배우리라  
예조리라  
버쭈썰



22730 기러기  
 22731 뜸부기  
 22732 올빼미  
 22733 까치  
 22734 딱따구리  
 22735 뎃  
 22735-0-1 -을  
 22736 올가미

기레기, 기려기, 기러기  
 △  
 \* cf. 부엉새라 하오{부엉이라 하오}  
 까치오  
 \*  
 차끼라구 cf. 이리랑, 승내~이랑{승냥이랑}  
 차꼬  
 몽노~이라 하구, 몽노~오 나서느{올가미를 놔서는}

## 2.10. 식물

###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22802 철쭉꽃  
 22803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22805 봉선화  
 22806 파리  
 22807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22809 시들다  
 22810 질경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22811 빨기  
 22812 비름  
 22813 쇠비름  
 22814 씀바귀  
 22815 고들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22816 고사리  
 22817 고비  
 22818 도깨비바늘  
 22819 도꼬마리  
 22820 억새  
 22821 갈대

천지꼬지라 해애쑈  
 \*  
 므슨들레  
 \*  
 봉주왜, 봉채꼬지, 물봉채 가트우, 물봉주왜 꼬지 가트우  
 까리라 하오, 파리  
 해재부리  
 꼬뿌데  
 스드러따구, 말라들지  
 배째개라 하오  
 배째개라 하오  
 △  
 \*  
 도투푸리라구  
 대애지푸리라 하구  
 세투리지  
 \*  
 \*  
 \*  
 고사리라 하지, 고사리 가트오  
 고비  
 →닥싸리  
 떼꼬리  
 △  
 까리

22822	이끼	△ cf. 물까매
22823	아주까리	피마재라는
22824	담쟁이	△ cf. 너울푸리라구
22825	수세미	수세미라구두 하구
22826	덩굴	너우리
22827	덤불	△
22827-1	가시덤불	△
22828	잔디	잔디라

## 1.10.2. 나무

22901	소나무	솔랑기
22902	솔방울	△
22903	관솔	△
22904	솔가리	솔리피라 하지, 솔라무이피라 하지
22905	그러모으다	끄러서모두라구, 끄러모다라, 끄러모두라 하지
22906	뽕나무	뽕·낭기라 하구
22907	오디	오디
22908	도토리	바아미라 하오
22909	떡갈나무	바암낭기라 합때
22910	상수리	△
22911	옻	*
22911-0-1	-으로	*
22912	버드나무	버들낭그느, 버드리, 수양버드리오
22913	느티나무	*
22914	그림자	그름재라 하오
22914-1	그늘	그느레 가 세에야{그늘에 가 쉬어야}
22915	숲	△, cf. 산쏘기라구서리
22915-0-1	-을	△
22915-0-2	-에	△
22916	시원하다	시워:나다구, 선서:나다구
22917	절레	△
22918	쭉	*
22918-0-1	-에	*
22919	가지(枝)	아치, 나무아치
22920	끝	그티지
22920-0-1	-이	그티지
22920-0-2	-을	막끄트 다까라
22920-0-3	-에	마끄테 벌기 이따
22921	삭정이	△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꺼끄라{꺾어라}
22922 나무	낭기 만타구, 나무더리 만타구
22922-0-1 -을	낭그
22922-0-2 -에	낭게, 나무에 걸게따지
22923 나무하다	나무할라간다구
22924 그루터기	나무글거리라 하오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베 글거리라구 하구{벼 그루터기라 하고}, 밥씨 글거리 라구 하구{수수 그루터기라 하고}
22925 등걸	드덜기, 나무드덜기
22926 장작	장재기지
22927 패다	패야테지, 패애테지
22928 부스러기	부스레기라구두(+나무 조각뿐만 아니라 음식에서 나오 는 조그마한 조각도 가리킴)
22929 숯	수티
22929-0-1 -이	수티라 하오
22929-0-2 -을	수투 개애오라 하지
22929-0-3 -에	수테 부리 부터따
22930 불잉걸	△
22931 짝	싸기 나는 거느(+보리와 콩을 길렀을 때 나오는 짝만 카리킴) cf. 씨가시 나따지{씨앗이 났다지}
22932 잎	이피지, 나무이피지
22932-0-1 -을	나무이푸 따라구
22932-1 잎사귀	입싸기
22933 가랑잎	△ cf. 나무이피라 하지
22934 뿌리	뿌리

###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능그미라 하오, 능기미라 하오
23002 돌배	돌빠라 하오
23003 복숭아	복쭈애
23004 꽃감	*
23005 홍시	*
23006 고욤	*
23007 살구	살기
23008 앵두	*
23009 자두	노리(+이 지역에서는 자두를 "노리", "머지", "왜애지" 세 개로 부름)
23010 오얏	왜애지라구&
23010-0-1 -을	*

23011 석류	△
23012 모과	*
23013 과일	개시리라 하오
23014 쪽지	쪽찌
23015 밤	*
23015-1 밤송이	*
23015-2 풋밤	*
23015-3 알밤	*
23015-4 쌍동밤	*
23016 보늬	*
23017 호두	가라토시
23018 가래(楸子)	*
23019 개암	깨애미
23020 머루	떨기, 떨구라 하오, 떨기라구서리
23021 다래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
23023 으름	*
23024 참외	차매
23025 딸기	달기라, 땅딸기짐
23025-1 "딸기(밭 채배)"	*
23025-2 "딸기(밭 야생)"	땅딸기짐
23025-3 "딸기(들 채배)"	*
23025-4 "딸기(들 야생)"	*
23025-5 "딸기(산 채배)"	*
23025-6 "딸기(산 야생)"	달기라(+[targira])
23026 뱀딸기	*
23027 마름(菱)	*

## 2.11. 자연

###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상꼭때기라 하지
23102 기슭	지슬기라
23102-0-1 -에	산찌슬게 가따 와따
23103 골짜기	골채기
23104 메아리	△, cf. 우러난다하지

23105 고향	가아무 친다구, 악세질 말라하지(+비)
23105-1 (고향) 치다/지르다/하다	가아무 친다구두 하지
23106 묘	사~이오(+다), 사느르 가짐(+다), 모이라구 하지(+소)
23107 뫼자리	산·자리르
23107-1 광중	*
23108 구덩이	구더~이(+[kud̥y])
23109 비탈	△, cf. 네리매기라구 하지
23110 가파르다	→강아다구두 하구
23111 언덕	언더기(+ "더기"보다 약간 높음), 더기(+언덕보다 낮음) cf. 등가리
23112 낭떠러지	양차~이(+[yaŋčh̥äy])
23113 들(野)	뜨리라구두 하지
23113-0-1 -에	뜨레서 논다구
23114 벌	벌파이
23115 갈림길	가달찌르
23116 헤어지다	갈라져따구 하지
23117 바위	바이또리
23117-0-1 -을	바이또르 마사따구
23117-0-2 -에	바이또레
23118 돌(石)	돌, 도리지, 돌째기
23118-0-1 -을	돌짜기더르
23118-0-2 -에	돌째기에
23119 자갈	짜작또리라구두
23120 모래	모새
23120-0-1 -를	모새르
23121 진흙	증태, 증타~아(+대격형)
23121-1 찰흙	개질홀기

##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무르 먹찌, 무르 마시지
23202 거품	더푸미 나지
23203 개운하다	거뿌나다구 하지
23204 도랑	도라아(+대격형), 도랑무르, 도랑무리
23204-1 붓도랑	테시또래애지, 테시또라아(+대격형)
23205 독	장드럭뚜 이꾸
23206 잠기다	쟁게따
23207 개울	개인, 개이네{개울에}, 개이느르{개울로}
23208 내(川)	개인, 개이네{내에}
23209 미역 감다	모여한다, 모여간다(+[moyəganda]), 모여한다

23210 발가숭이  
 23211 목욕하다  
 23212 수채  
 23213 개골창  
 23214 시궁창  
 23215 웅덩이  
 23216 수렁  
 23217 늪  
 23217-0-1 -에  
 23218 배(船)  
 23219 나루터  
 23220 돛  
 23220-0-1 -에  
 23221 돛대  
 23222 돛배  
 23223 돛 줄  
 23224 닻줄  
 23225 거루  
 23226 상앗대  
 23227 개(필)  
 23228 물  
 23228-0-1 -으로  
 23229 밀물  
 23230 썰물  
 23231 가라앉다  
 23232 그물  
 23233 해녀

△  
 모여한다, 모요기라지  
 △, cf. 자시무리  
 \*  
 웅더이(+[uŋdəy])  
 웅더이(+[uŋdəy])  
 수깨구더이(+[suk'egudəy])  
 느피  
 느페  
 차니  
 △, cf. 찬·머리라 하깁는지, 찬재~이(+[čʰanj̃ɛy], 뱃사공)  
 도치, 도트(+대격형), 도츠(+대격형)  
 도체  
 도때  
 △  
 →돈뿌리지  
 다트(+대격형)  
 차이라구  
 △  
 \*  
 \*  
 \*  
 \*  
 \*  
 \*  
 까란찌무{가라얏지 뉘}, 까란즌{가라얏은}  
 그무리  
 \*

### 2.11.3. 시후

23301 새벽  
 23302 새벽밥  
 23303 아침  
 23304 아침밥  
 23305 점심  
 23306 저녁  
 23307 설빏하다  
 23308 노을  
 23308-0-1 -을  
 23309 불그레하다

새바기  
 →새박빠비  
 아침  
 조바이, 조바느 바드라구  
 정슴  
 지낙, 저녁  
 △  
 너부리  
 너부르  
 불그치그레:하다

23310	해거름	△
23311	땅거미	△
23312	봄	보미
23313	여름	여르미구
23314	더위	덤따, 더비 데다구, 더비
23315	추위	치비 업따
23316	가을	가으르(+대격형)
23316-0-1	-에	가으레 하지
23317	겨울	동사메느
23317-0-1	-에	동사메
23318	얼음	어르무 여어라
23319	오늘	오늘, 오느리
23320	내일	내일
23321	모레	모레
23322	글피	글페
23323	그글피	→그글페
23324	어제	어제
23325	그저께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그그저께
23327	훗날	후제
23328	하룻날	초하른날
23329	이튿날	이튼날
23330	사흘날	사흔날, 새미리지
23331	나흘날	나은나리지
23332	닷셋날	다쎄나리지, 초다쎄나리지
23333	엿셋날	여쎄나리라구
23334	이렛날	이렌나리지
23335	여드렛날	야드렌나리
23336	아흐렛날	아으렌나리, 아으렌날 만나자
23337	열흘날	여를라리지
23338	하루	할라리, 할리, 하르똥안, 할랄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흘
23341	나흘	나흘
23342	닷새	다쎄
23343	엿새	여쎄
23344	이레	일레
23345	여드레	야드래
23346	아흐레	아흐레
23347	열흘	여를

23348 한나절  
 23348-1 반나절  
 23349 그름  
 23349-1 그름께  
 23350 지금  
 23351 아직  
 23352 이제  
 23353 이미  
 23354 요즈음  
 23355 금방

반나레  
 \*  
 그름, 그름나리  
 그름께  
 시전  
 안죽(+[anǰik]), 안죽(+[anǰik]), 안죽(+[anǰuk]), 안죽(+[anǰuk])  
 시장  
 발써  
 이제가네, 이쎬  
 곱만

##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23401-0-1 -이  
 23401-0-2 -을  
 23402 따스하다  
 23403 아지랑이  
 23404 응달  
 23405 양달  
 23406 비(雨)  
 23407 가랑비  
 23408 이슬비  
 23409 안개  
 23410 눈개  
 23411 무지개  
 23412 소나기  
 23413 갑자기  
 23414 홍수  
 23415 번개  
 23416 천둥  
 23417 벼락  
 23418 무섭다  
 23419 함박눈  
 23420 싸락눈  
 23421 발자국  
 23422 진눈깨비  
 23423 우박  
 23424 고드름  
 23425 햇무리

베티 cf. 비체, 비치  
 베티  
 베트  
 따따:사다  
 △  
 \*  
 \*  
 비지(+제보지는 비를 굵기에 따라서 '소낙비', '바', '눈개'로만 인식)  
 △ cf. 해뻘(+해가 비치면서 내리는 비)  
 △  
 양개 께따  
 즌새  
 무지개, 무지개 서따  
 소낙뻘이찌, 소낙뻘라 하지, 소내기 울매  
 불썰르, cf. 썩쓰개 비온다(+바람도 불고 구름이 갑자기 몰려와 내리는 비)  
 무리져따  
 병개  
 소내기 운다  
 베래기, 베래그  
 무서어바서  
 누이  
 싸랑누이  
 발짜기  
 능개뻘  
 박째  
 고조리  
 해머리르 예에따



23426 달무리	다리 머리르 예에따
23427 둥글다	또웅그라타
23428 은하수	* cf. 칠성베리{북두칠성}, 삼태장베리
23429 금성	새빠리
23430 가뭄	가무리
23431 마르다	말라들지, 마르지
23431-0-1 -어서	말라따
23432 위	우, 울(+대격형), 우우루{위로}, 우이(+자연 발화에서 채록)
23433 아래	아래짐{아래지 뭐}
23434 왼쪽	엔짹
23435 오른쪽	오른짹
23436 결	저티
23436-0-1 -에	저테
23437 회오리바람	돌개바르미
23438 북풍	북쪽빠르미
23439 남풍	남쪽 바람
23440 동풍	동쪽빠르미
23441 서풍	서쪽빠르미

## 제3편 음운

### 3.1. 음운체계

####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테(+이 지역은 선행 음절의 모음이 전설 모음인 경우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나지 않음. 이형태 '-가'는 없음.)

31001-0-2 테(輪)-보다

테보구

31002-0-1 태(胎)-이/가

태

31002-0-2 태(胎)-보다

태보구

31003-0-1 때(群)-이/가

때라 하지 cf. 땀무리라구(+새 때를 가리킬 때 씀)

31003-0-2 때(群)-보다

새때보구

31004-0-1 때(時)-이/가

살 때

31004-0-2 때(時)-보다

그때부터, 때부터

31005-0-1 틀(機)-이/가

배트리라 하지{베틀이라 하지}

31005-0-2 틀(機)-보다

배틀부터

31006-0-1 털(毛)-이/가

터리(+[tʰɔ̞ri])

31006-0-2 털(毛)-보다

터리부터

31007-0-1 글(文)-이/가

그르(+대격형)

31007-0-2 글(文)-보다

글부터

31008-0-1 걸(옷)-이/가

\*

31008-0-2 걸(옷)-보다

\*

31009-0-1 기(旗)-이/가

기라 하오, 기

31009-0-2 기(旗)-보다

기보구

31010-0-1 귀(耳)-이/가

기라 하오

31010-0-2 귀(耳)-보다

기두, 기부터

31011-0-1 시(生時)-이/가

두시에, 열뚜시에, 두세, 네세

31011-0-2 시(生時)-보다

한시부터

31012-0-1 쉬(蠅卵)-이/가

시를 쫓치, 시만타 하지

31012-0-2 쉬(蠅卵)-보다

시파리라{쉬파리라}, 시부터

31013-0-1 쇠(鐵)-이/가	세
31013-0-2 쇠(鐵)-보다	세부터
31014-0-1 외:국(外國)-이/가	베구기(+[vegugi]), 베구구루{외국으로}, 웨구구루
31014-0-2 외:국(外國)-보다	베국뽀다, 베국보구, 베국싸르문{외국 사람은}
31015-0-1 왜국(倭國)-이/가	*
31015-0-2 왜국(倭國)-보다	*
[보충]	
31016 쉬:다(休)-더라	시구, 세에라
31017 쇠:다(설을~)-더라	센다구, 세에라
31018-0-1 베(布)-이/가	배르 짜지, 배애(+처격형)
31018-0-2 베(布)-보다	배부터
31019-0-1 배(船)-이/가	배지
31019-0-2 배(船)-보다	배부터
31020-0-1 배(腹)-이/가	배라하지, 배애(+처격형), 배르
31020-0-2 배(腹)-보다	배부터
31021-0-1 (떡)메-이/가	땡멜르
31021-0-2 (떡)메-보다	땡메부터
31022-0-1 매(鞭)-이/가	매르 친다 cf. 매르 따린다
31022-0-2 매(鞭)-보다	매부터
31023-0-1 메:다(擔)-더라	메엔다
31023-0-2 메:다(擔)-어서	메에야
31024-0-1 매:다(繫)-더라	맨다
31024-0-2 매:다(繫)-어서	매애라
31025-0-1 떼:다(分離)-더라	뎌다
31025-0-2 떼:다(分離)-어서	떼라구
31026-0-1 때:다(炊)-더라	때앤다, 때지
31026-0-2 때:다(炊)-어서	때애라
31027-0-1 베:다(切斷)-더라	베에구, 베엔다
31027-0-2 베:다(切斷)-어서	베에라
31028-0-1 배:다(孕胎)-더라	선다(+사람에게 씀), 가제따(+짐승에게 씀)
31028-0-2 배:다(孕胎)-어서	배애따(+짐승에게만 씀)
31029-0-1 세:다(算)-더라	헤에보라구, 헤에지
31029-0-2 세:다(算)-어서	헤에라
31030-0-1 새:다(漏泄)-더라	샌다, 비샌다, 새애지
31030-0-2 새:다(漏泄)-어서	새애서
31031-0-1 뒤(後)-이/가	두이구
31031-0-2 뒤(後)-보다	두에 서라
31032-0-1 되(升)-이/가	데바기라 cf. 대지{(쌀을) 되지}, 대구{(쌀을) 되고}
31032-0-2 되(升)-보다	데박뚜 망쿠, 데배기라구
31033-0-1 게:(蟹)-이/가	게라하오, 게

31033-0-2 계:(蟹)-보다	△
31034-0-1 개:(犬)-이/가	개라하지
31034-0-2 개:(犬)-보다	△

###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여래애
31035-0-2 여럿(多)-보다	여래보구
31035-0-3 여럿(多)-을/를	여래르
31036-0-1 물결(波)-이/가	멀기친다
31036-0-2 물결(波)-보다	→물껴리라
31036-0-3 물결(波)-을/를	△
31037-0-1 예:의(禮儀)-이/가	여이바르다
31037-0-2 예:의(禮儀)-보다	여이 자란다{예의 잘 안다}
31037-0-3 예:의(禮儀)-을/를	*
31038-0-1 계:획(計劃)-이/가	게으기, 게흐기, 게혀기
31038-0-2 계:획(計劃)-보다	△
31038-0-3 계:획(計劃)-을/를	게혀그
31039-0-1 규칙(規則)-이/가	*
31039-0-2 규칙(規則)-보다	*
31039-0-3 규칙(規則)-을/를	*
31040-0-1 휴일(休日)-이/가	신다
31040-0-2 휴일(休日)-보다	△
31040-0-3 휴일(休日)-을/를	시이무 시인다
31041-0-1 교통(交通)-이/가	* cf. 게후르 간다, 게우르 간다{교회를 간다}
31041-0-2 교통(交通)-보다	* cf. 땡길 세에 조타구
31041-0-3 교통(交通)-을/를	*
31042-0-1 효:자(孝子)-이/가	효자라구
31042-0-2 효:자(孝子)-보다	효자보구
31042-0-3 효:자(孝子)-을/를	효자르
31043-0-1 웬일(何事)-이/가	△ cf. 웨 완능가?
31043-0-2 웬일(何事)-보다	△
31043-0-3 웬일(何事)-을/를	△
31044-0-1 궤:(絜)(櫃)-이/가	게짜기
31044-0-2 궤:(絜)(櫃)-보다	게보구, 게느
31044-0-3 궤:(絜)(櫃)-을/를	게르
31045-0-1 왜란(倭亂)-이/가	*
31045-0-2 왜란(倭亂)-보다	*
31045-0-3 왜란(倭亂)-을/를	*
31046-0-1 헛대(鷄架)-이/가	덩때 cf. 해때뽀이

31046-0-2	헛대(鷄架)-보다	△
31046-0-3	헛대(鷄架)-을/를	△
31047-0-1	원망(怨望)-이/가	* cf. 원쭈르{원수를}
31047-0-2	원망(怨望)-보다	*
31047-0-3	원망(怨望)-을/를	*
31048-0-1	권:투(拳鬪)-이/가	△
31048-0-2	권:투(拳鬪)-보다	△
31048-0-3	권:투(拳鬪)-을/를	△
31049-0-1	의논(議論)-이/가	이노난다, 상노난다
31049-0-2	의논(議論)-보다	△
31049-0-3	의논(議論)-을/를	△
31050-0-1	무늬(紋)-이/가	*
31050-0-2	무늬(紋)-보다	*
31050-0-3	무늬(紋)-을/를	*
31051-0-1	왕(王)-이/가	와이라구
31051-0-2	왕(王)-보다	△
31051-0-3	왕(王)-을/를	△
31052-0-1	과자(菓子)-이/가	△ cf. 당계라구
31052-0-2	과자(菓子)-보다	△ cf. 가연{과연}, 께시리{과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

### 3.1.3 장모음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이'리라구
31053-0-2	일(一)-보다	일'보구
31054-0-1	일:(事)-이/가	이'리만타
31054-0-2	일:(事)-보다	일'보구
31055-0-1	매(鞭)-이/가	매'르
31055-0-2	매(鞭)-보다	매보구'
31056-0-1	매:(驚)-이/가	매'르
31056-0-2	매:(驚)-보다	매'보구
31057-0-1	밤(夜)-이/가	바'미지
31057-0-2	밤(夜)-보다	밤'보구
31058-0-1	밤:(栗)-이/가	바아무'
31058-0-2	밤:(栗)-보다	바아'미보구
31059-0-1	눈(眼)-이/가	누'이지
31059-0-2	눈(眼)-보다	눔보구'
31060-0-1	눈:(雪)-이/가	누'이구
31060-0-2	눈:(雪)-보다	눔보다, 눔보구'
31061-0-1	말(馬)-이/가	마리'

31061-0-2 말(馬)-보다	마리'보구
31062-0-1 말(斗)-이/가	*
31062-0-2 말(斗)-보다	*
31063-0-1 말:(言)-이/가	마'리지, 마'르
31063-0-2 말:(言)-보다	말'보구
31064-0-1 손(客)-이/가	나그'내
31064-0-2 손(客)-보다	△
31065-0-1 손(手)-이/가	소'이지, 소'~이지
31065-0-2 손(手)-보다	숨'보구
31066-0-1 손:(孫)-이/가	송'군더리
31066-0-2 손:(孫)-보다	송군보구'
31067-0-1 배(梨)-이/가	배르', 배'르
31067-0-2 배(梨)-보다	배보구', 배'보구 cf. 배(腹)보구'
31068-0-1 배:(倍)-이/가	배'르
31068-0-2 배:(倍)-보다	배'보구
31069-0-1 벌(罰)-이/가	버'르 세운다
31069-0-2 벌(罰)-보다	버'리보구'
31070-0-1 벌:(蜂)-이/가	꿀'빠리, 버'리
31070-0-2 벌:(蜂)-보다	버리보구'
31071-0-1 솔(松)-이/가	소'리 적따, 소'르
31071-0-2 솔(松)-보다	솔'보구, 솔보구'
31072-0-1 솔:(刷)-이/가	△
31072-0-2 솔:(刷)-보다	△
31073-0-1 줄(鉉)-이/가	주'루
31073-0-2 줄(鉉)-보다	줄보구'
31074-0-1 줄:(연장)-이/가	△
31074-0-2 줄:(연장)-보다	△
31075-0-1 돌:(石)-이/가	도'리지, 부수또'리지
31075-0-2 돌:(石)-보다	돌'보구'
31076-0-1 담(牆)-이/가	토'담
31076-0-2 담(牆)-보다	담보구'
31077-0-1 담:(膽)-이/가	여'리지 cf. 쓰'거봉계{쓴 계}
31077-0-2 담:(膽)-보다	△ cf. 대재애 실하다(+대답하다는 뜻)
31078-0-1 들:(野)-이/가	뜨'르
31078-0-2 들:(野)-보다	뜰'보구'
31079-0-1 달-(懸)-고	거러'라
31079-0-1 달-(懸)-더라	걸'지
31080-0-1 달-(甘)-더라	다다구, 달다'구
31080-0-1 달-(甘)-고	달메서리
31081-0-1 달:-(熱)-고	달가'따

31081-0-1	달:-(熱)-더라	달'구이따
31082-0-1	갈:-(換)-더라	간'다
31082-0-1	갈:-(換)-고	갈'구
31083-0-1	갈:-(磨)-고	간'다
31083-0-1	갈:-(磨)-더라	갈'구
31084-0-1	갈:-(耕)-더라	간'다, 골쓰뻔다
31084-0-1	갈:-(耕)-고	갈'구인는다
31085-0-1	걸:-(收)-고	거더'찌, 거꾸'인는다
31085-0-1	걸:-(收)-더라	거더'서
31086-0-1	걸:-(步)-더라	걸'떠라, 걸'른다
31086-0-1	걸:-(步)-고	걸'찌
31087-0-1	적:-(書)-고	저꾸'인는다
31087-0-1	적:-(書)-더라	저거'야
31088-0-1	적:-(小)-더라	△
31088-0-1	적:-(小)-고	자'꾸

## 3.2. 음운과정

### 3.2.1 활용

32001-0-1	막:-(防)[ㄱ]-지	막찌
32001-0-2	막:-(防)[ㄱ]-고	마꾸
32001-0-3	막:-(防)[ㄱ]-더라	막떠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마그이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마가서
32002-0-1	흐르:-(流)[ㄴ]-지	흐르지, 흐른다
32002-0-2	흐르:-(流)[ㄴ]-고	흐르구
32002-0-3	흐르:-(流)[ㄴ]-더라	흐르더라
32002-0-4	흐르:-(流)[ㄴ]-으니까	흐르이
32002-0-5	흐르:-(流)[ㄴ]-아/어(왔/었다)	흘러
32003-0-1	오:-(來)[ㄴ]-지	오지, 온다
32003-0-2	오:-(來)[ㄴ]-고	오구, 오라구
32003-0-3	오:-(來)[ㄴ]-더라	오더라
32003-0-4	오:-(來)[ㄴ]-으니까	오이 조타
32003-0-5	오:-(來)[ㄴ]-아/어(왔/었다)	와따, 오나라
32004-0-1	듣:-(聞)[ㄷ 변]-지	드찌
32004-0-2	듣:-(聞)[ㄷ 변]-고	들꾸
32004-0-3	듣:-(聞)[ㄷ 변]-더라	들른다지

32004-0-4	듣-(聞)[ㄷ 변]-으니까	드르라구
32004-0-5	듣-(聞)[ㄷ 변]-아/어(왔/었다)	드러라
32005-0-1	많:-(多)[ㄴᄇ]-지	망쿠
32005-0-2	많:-(多)[ㄴᄇ]-고	마안타구
32005-0-3	많:-(多)[ㄴᄇ]-더라	마안터라
32005-0-4	많:-(多)[ㄴᄇ]-으니까	마나이
32005-0-5	많:-(多)[ㄴᄇ]-아/어(왔/었다)	마나두, 마내서
32006-0-1	말-(任)[ㅌ]-지	마찌
32006-0-2	말-(任)[ㅌ]-고	△
32006-0-3	말-(任)[ㅌ]-더라	△
32006-0-4	말-(任)[ㅌ]-으니까	마트이, 마튼
32006-0-5	말-(任)[ㅌ]-아/어(왔/었다)	마타가지구, 마타따
32007-0-1	알:-(知)[ㄹ]-지	안다, 아지
32007-0-2	알:-(知)[ㄹ]-고	알구
32007-0-3	알:-(知)[ㄹ]-더라	알더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아이·
32007-0-5	알:-(知)[ㄹ]-아/어(왔/었다)	아라따
32008-0-1	감:-(閉眼)[ㄱ]-지	감찌 양쿠
32008-0-2	감:-(閉眼)[ㄱ]-고	감꾸
32008-0-3	감:-(閉眼)[ㄱ]-더라	감떠라
32008-0-4	감:-(閉眼)[ㄱ]-으니까	가무이
32008-0-5	감:-(閉眼)[ㄱ]-아/어(왔/었다)	가마라
32009-0-1	벗-(脫)[ㅍ]-지	빠찌
32009-0-2	벗-(脫)[ㅍ]-고	빠짜구
32009-0-3	벗-(脫)[ㅍ]-더라	빠째이쿠
32009-0-4	벗-(脫)[ㅍ]-으니까	빠스이
32009-0-5	벗-(脫)[ㅍ]-아/어(왔/었다)	빠서따
32010-0-1	올-(可)[ㄹᄇ]-지	올채이타, 올타
32010-0-2	올-(可)[ㄹᄇ]-고	올케
32010-0-3	올-(可)[ㄹᄇ]-더라	올터라
32010-0-4	올-(可)[ㄹᄇ]-으니까	오르이
32010-0-5	올-(可)[ㄹᄇ]-아/어(왔/었다)	오래서
32011-0-1	입-(着衣)[ㅍ]-지	입짜구
32011-0-2	입-(着衣)[ㅍ]-고	△
32011-0-3	입-(着衣)[ㅍ]-더라	입떠라
32011-0-4	입-(着衣)[ㅍ]-으니까	이부라구, 이부이
32011-0-5	입-(着衣)[ㅍ]-아/어(왔/었다)	이버라, 이버야
32012-0-1	바꾸-(換)[ㅍ]-지	바꾸지 말라
32012-0-2	바꾸-(換)[ㅍ]-고	바꾸자
32012-0-3	바꾸-(換)[ㅍ]-더라	바꾸더라



32012-0-4	바꾸-(換)[ㄷ]-으니까	바꾸이
32012-0-5	바꾸-(換)[ㄷ]-아/어(왔/었다)	바까라
32013-0-1	덮-(覆)[ㅍ]-지	덮찌
32013-0-2	덮-(覆)[ㅍ]-고	더꾸이따
32013-0-3	덮-(覆)[ㅍ]-더라	덮떠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더꾸이
32013-0-5	덮-(覆)[ㅍ]-아/어(왔/었다)	더퍼라
32014-0-1	묻:- (問)[ㄷ 변]-지	물찌
32014-0-2	묻:- (問)[ㄷ 변]-고	물꾸
32014-0-3	묻:- (問)[ㄷ 변]-더라	물떠라
32014-0-4	묻:- (問)[ㄷ 변]-으니까	물른다
32014-0-5	묻:- (問)[ㄷ 변]-아/어(왔/었다)	무리바라
32015-0-1	낫:- (癒)[ㅅ 변]-지	날찌
32015-0-2	낫:- (癒)[ㅅ 변]-고	나꾸
32015-0-3	낫:- (癒)[ㅅ 변]-더라	나떠라
32015-0-4	낫:- (癒)[ㅅ 변]-으니까	나스이
32015-0-5	낫:- (癒)[ㅅ 변]-아/어(왔/었다)	나사따
32016-0-1	닫-(閉)[ㄷ]-지	다찌마라
32016-0-2	닫-(閉)[ㄷ]-고	다꾸이따
32016-0-3	닫-(閉)[ㄷ]-더라	△
32016-0-4	닫-(閉)[ㄷ]-으니까	다드이, 다드라구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다다라
32017-0-1	쫓-(追)[ㅈ]-지	쫓추지 cf. 똥구다(+이 말을 더 일반적으로 사용함)
32017-0-2	쫓-(追)[ㅈ]-고	쫓추구
32017-0-3	쫓-(追)[ㅈ]-더라	△
32017-0-4	쫓-(追)[ㅈ]-으니까	쫓추이
32017-0-5	쫓-(追)[ㅈ]-아/어(왔/었다)	쫓차라
32018-0-1	베:- (枕)[ㅂ 변]-지	베지, 베엔다, 벤다
32018-0-2	베:- (枕)[ㅂ 변]-고	베구
32018-0-3	베:- (枕)[ㅂ 변]-더라	베더라
32018-0-4	베:- (枕)[ㅂ 변]-으니까	베이
32018-0-5	베:- (枕)[ㅂ 변]-아/어(왔/었다)	베에라
32019-0-1	깨:- (破)[ㄱ]-지	깨지 마라라
32019-0-2	깨:- (破)[ㄱ]-고	깨구
32019-0-3	깨:- (破)[ㄱ]-더라	깨더라
32019-0-4	깨:- (破)[ㄱ]-으니까	깨이
32019-0-5	깨:- (破)[ㄱ]-아/어(왔/었다)	깨애타
32020-0-1	펴-(伸)[ㅍ]-지	△
32020-0-2	펴-(伸)[ㅍ]-고	폐구
32020-0-3	펴-(伸)[ㅍ]-더라	폐더라

32020-0-4	펴-(伸)[ ㄱ ]-으니까	페이
32020-0-5	펴-(伸)[ ㄱ ]-아/어(왔/었다)	페라구, 페따
32021-0-1	박-(明)[ ㄹ ]지	박찌
32021-0-2	박-(明)[ ㄹ ]-고	바꾸
32021-0-3	박-(明)[ ㄹ ]-더라	박떠라
32021-0-4	박-(明)[ ㄹ ]-으니까	발그이
32021-0-5	박-(明)[ ㄹ ]-아/어(왔/었다)	발가따
32022-0-1	삼-(烹)[ ㄹ ]-지	삼찌
32022-0-2	삼-(烹)[ ㄹ ]-고	삼꾸
32022-0-3	삼-(烹)[ ㄹ ]-더라	삼떠라
32022-0-4	삼-(烹)[ ㄹ ]-으니까	사무라구
32022-0-5	삼-(烹)[ ㄹ ]-아/어(왔/었다)	삼마라
32023-0-1	음-(吟)[ ㄹ ]-지	*
32023-0-2	음-(吟)[ ㄹ ]-고	*
32023-0-3	음-(吟)[ ㄹ ]-더라	*
32023-0-4	음-(吟)[ ㄹ ]-으니까	*
32023-0-5	음-(吟)[ ㄹ ]-아/어(왔/었다)	*
32024-0-1	뵈-(踏)[ ㄹ ]-지	뵈찌
32024-0-2	뵈-(踏)[ ㄹ ]-고	뵈꾸
32024-0-3	뵈-(踏)[ ㄹ ]-더라	△
32024-0-4	뵈-(踏)[ ㄹ ]-으니까	뵈부이
32024-0-5	뵈-(踏)[ ㄹ ]-아/어(왔/었다)	뵈바라
32025-0-1	하-(爲)[ ㅏ 변 ]-지	하지
32025-0-2	하-(爲)[ ㅏ 변 ]-고	하구
32025-0-3	하-(爲)[ ㅏ 변 ]-더라	하더라
32025-0-4	하-(爲)[ ㅏ 변 ]-으니까	하이 조타
32025-0-5	하-(爲)[ ㅏ 변 ]-아/어(왔/었다)	해애라, 해애따
32026-0-1	맏-(結)[ ㅈ ]-지	△
32026-0-2	맏-(結)[ ㅈ ]-고	△
32026-0-3	맏-(結)[ ㅈ ]-더라	△
32026-0-4	맏-(結)[ ㅈ ]-으니까	△
32026-0-5	맏-(結)[ ㅈ ]-아/어(왔/었다)	매체따, 매애따
32027-0-1	엷-(無)[ ㅈ ]-지	엷찌, 엷따
32027-0-2	엷-(無)[ ㅈ ]-고	어꾸
32027-0-3	엷-(無)[ ㅈ ]-더라	엷떠라
32027-0-4	엷-(無)[ ㅈ ]-으니까	엷쓰이
32027-0-5	엷-(無)[ ㅈ ]-아/어(왔/었다)	엷써서
32028-0-1	앉-(坐)[ ㅈ ]-지	안찌
32028-0-2	앉-(坐)[ ㅈ ]-고	앙꾸
32028-0-3	앉-(坐)[ ㅈ ]-더라	안떠라

32028-0-4	앉-(坐)[ㄴㅅ]-으니까	안즈이
32028-0-5	앉-(坐)[ㄴㅅ]-아/어(앉/었다)	안자따
32029-0-1	비비-(刮)[ㅣ]-지	부비지
32029-0-2	비비-(刮)[ㅣ]-고	부비구
32029-0-3	비비-(刮)[ㅣ]-더라	부비더라구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부비이(+[pubii]), 부비이
32029-0-5	비비-(刮)[ㅣ]-아/어(앉/었다)	부베따
32030-0-1	끄-(消)[ㅡ]-지	끄지
32030-0-2	끄-(消)[ㅡ]-고	끄구
32030-0-3	끄-(消)[ㅡ]-더라	끄더라
32030-0-4	끄-(消)[ㅡ]-으니까	끄이
32030-0-5	끄-(消)[ㅡ]-아/어(앉/었다)	꺼따
32031-0-1	꺾-(折)[ㄱ]-지	꺾찌 말라
32031-0-2	꺾-(折)[ㄱ]-고	꺾꾸, 꺾니구
32031-0-3	꺾-(折)[ㄱ]-더라	꺾떠라, 꺾니더라
32031-0-4	꺾-(折)[ㄱ]-으니까	꺾끄이
32031-0-5	꺾-(折)[ㄱ]-아/어(앉/었다)	꺾꺼따, 꺾네따
32032-0-1	신:- (履)[ㄴ]-지	신찌
32032-0-2	신:- (履)[ㄴ]-고	싱꾸
32032-0-3	신:- (履)[ㄴ]-더라	신티라
32032-0-4	신:- (履)[ㄴ]-으니까	시느이
32032-0-5	신:- (履)[ㄴ]-아/어(앉/었다)	시너라
32033-0-1	보-(視)[ㅂ]-지	보지
32033-0-2	보-(視)[ㅂ]-고	보구
32033-0-3	보-(視)[ㅂ]-더라	보더라
32033-0-4	보-(視)[ㅂ]-으니까	보이
32033-0-5	보-(視)[ㅂ]-아/어(앉/었다)	본다
32034-0-1	추-(舞)[ㅈ]-지	추지(+[chʰʌji])
32034-0-2	추-(舞)[ㅈ]-고	추구(+[chʰʌgu])
32034-0-3	추-(舞)[ㅈ]-더라	춘다(+[chʰʌnda])
32034-0-4	추-(舞)[ㅈ]-으니까	추이(+[chʰʌi])
32034-0-5	추-(舞)[ㅈ]-아/어(앉/었다)	쳐따(+[chʰæt'a])
32035-0-1	피우-(吸煙)[ㅍ]-지	피우지
32035-0-2	피우-(吸煙)[ㅍ]-고	피우구
32035-0-3	피우-(吸煙)[ㅍ]-더라	피우더라
32035-0-4	피우-(吸煙)[ㅍ]-으니까	피우이
32035-0-5	피우-(吸煙)[ㅍ]-아/어(앉/었다)	피운다
32036-0-1	서-(立)[ㅅ]-지	서이찌
32036-0-2	서-(立)[ㅅ]-고	서구
32036-0-3	서-(立)[ㅅ]-더라	서더라

32036-0-4	서-(立)[ㄴ]-으니까	서이
32036-0-5	서-(立)[ㄴ]-아/어(왔/었다)	서따
32037-0-1	기-(匍腹)[ㅣ]-지	기지, 긴다
32037-0-2	기-(匍腹)[ㅣ]-고	기구
32037-0-3	기-(匍腹)[ㅣ]-더라	기더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기이
32037-0-5	기-(匍腹)[ㅣ]-아/어(왔/었다)	게에땡긴다, 게에서간다
32038-0-1	이-(戴)[ㅣ]-지	이지
32038-0-2	이-(戴)[ㅣ]-고	이구
32038-0-3	이-(戴)[ㅣ]-더라	인다
32038-0-4	이-(戴)[ㅣ]-으니까	이이
32038-0-5	이-(戴)[ㅣ]-아/어(왔/었다)	에에라(+다), 이에라, 에라, 예에라
32039-0-1	아니-(否)[ㅣ]-지	아이지
32039-0-2	아니-(否)[ㅣ]-고	아이구, 아이길래
32039-0-3	아니-(否)[ㅣ]-더라	아이더라구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아이이까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아에서
32040-0-1	되-(升)[ㄴ]-지	대지
32040-0-2	되-(升)[ㄴ]-고	대구
32040-0-3	되-(升)[ㄴ]-더라	대더라
32040-0-4	되-(升)[ㄴ]-으니까	대йка데
32040-0-5	되-(升)[ㄴ]-아/어(왔/었다)	대에서
32041-0-1	있-(有)[ㅍ]-지	이찌
32041-0-2	있-(有)[ㅍ]-고	이꾸
32041-0-3	있-(有)[ㅍ]-더라	이따구, 이떠라구
32041-0-4	있-(有)[ㅍ]-으니까	이스~이
32041-0-5	있-(有)[ㅍ]-아/어(왔/었다)	이서라
32042-0-1	놓-(放)[ㅎ]-지	노치
32042-0-2	놓-(放)[ㅎ]-고	노쿠
32042-0-3	놓-(放)[ㅎ]-더라	노터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노오이, 논는다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놔아따
32043-0-1	훔-(扱)[ㅍ]-지	훔찌(+[ɸulč'i])
32043-0-2	훔-(扱)[ㅍ]-고	훔꾸(+[ɸulk'u])
32043-0-3	훔-(扱)[ㅍ]-더라	훔떠라(+[ɸult'əra])
32043-0-4	훔-(扱)[ㅍ]-으니까	훔트이(+[ɸultʰii])
32043-0-5	훔-(扱)[ㅍ]-아/어(왔/었다)	훔터따(+[ɸultʰət'a])
32044-0-1	곱:- (麗)[ㅂ 변]-지	곱찌
32044-0-2	곱:- (麗)[ㅂ 변]-고	곱꾸
32044-0-3	곱:- (麗)[ㅂ 변]-더라	곱떠라

32044-0-4 곱:-(麗)[ㄹ 변]-으니까 고부이까데  
 32044-0-5 곱:-(麗)[ㄹ 변]-아/어(왔/었다) 고바따  
 32045-0-1 쥐:-(握)[ㄱ]-지 지지  
 32045-0-2 쥐:-(握)[ㄱ]-고 지구  
 32045-0-3 쥐:-(握)[ㄱ]-더라 지더라  
 32045-0-4 쥐:-(握)[ㄱ]-으니까 지이 아프다  
 32045-0-5 쥐:-(握)[ㄱ]-아/어(왔/었다) 제에따  
 32046-0-1 가-(去)[ㅈ]-지 가지  
 32046-0-2 가-(去)[ㅈ]-고 가구  
 32046-0-3 가-(去)[ㅈ]-더라 가더라  
 32046-0-4 가-(去)[ㅈ]-으니까 가~이  
 32046-0-5 가-(去)[ㅈ]-아/어(왔/었다) 가야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명는다, 먹찌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거서, 머거라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뜯찌 마라라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뜯더라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가트다, 가트지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태두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야따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타서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흐튼다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흐트러져따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난다, 날구 이따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라간다, 나라서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울지, 운다, 우재이오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러따  
 32054-0-1 "일:-(洶)-지 -고 -더라" 일구  
 32054-0-2 "일:-(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야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엉게, 얼구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러따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넘찌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나지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품치웅건, 수무라구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품치와라, 수머라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혈쿠, 혈터라, 혈하무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허래서  
 32059-0-1 "눅:-(臥)-지 -고 -더라" 눅찌 마라라  
 32059-0-2 "눅:-(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버라  
 32060-0-1 "집:-(縫)-지 -고 -더라" 집찌 말구  
 32060-0-2 "집:-(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버 이버라

32061-0-1 "밉:-(憎)-지 -고 -더라" 밉따  
 32061-0-2 "밉:-(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밉버서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노푸다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파서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지꾸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어따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부꾸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서따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운는다, 우끼두, 우찌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서, 우서바라  
 32066-0-1 "짓:-(吠)-지 -고 -더라" 진는다, 지꾸  
 32066-0-2 "짓:-(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서라  
 32067-0-1 "꽂:-(插)-지 -고 -더라" 꼬꾸 이따  
 32067-0-2 "꽂:-(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바라  
 32068-0-1 "낱:-(産)-지 -고 -더라" 나지, 나더라구서리  
 32068-0-2 "낱:-(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아따  
 32069-0-1 "땅:-(辯)-지 -고 -더라" 판는다지, 따꾸  
 32069-0-2 "땅:-(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아라  
 32070-0-1 "끊:-(切)-지 -고 -더라" 끄니지, 끄니지 마라라  
 32070-0-2 "끊:-(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네라, 끄네따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이럽따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이르라구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거라  
 32073-0-1 "떨:-(澁)-지 -고 -더라" 땀찌  
 32073-0-2 "떨:-(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땀버서  
 32074-0-1 "옮:-(遷)-지 -고 -더라" 오르지  
 32074-0-2 "옮:-(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라따  
 32075-0-1 "뚫:-(貫)-지 -고 -더라" 뚫찌  
 32075-0-2 "뚫:-(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뚫버야  
 32076-0-1 "꿇:-(跪)-지 -고 -더라" 끌구  
 32076-0-2 "꿇:-(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꺼라  
 32077-0-1 "닿:-(扨 연필 심이)-지 -고 -더라" 무디지  
 32077-0-2 "닿:-(扨 연필 심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드러지지, 다스려져따, 다스려지구  
 32078-0-1 "닿:-(煎 술에서 장이)-지 -고 -더라" △ cf. 골린다구두 하구 끄린다구두 하오  
 32078-0-2 "닿:-(煎 술에서 장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짜다, 짜갑따, 짜다구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짜가바서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말구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라따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쓰라구, 쓰지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라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오르구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라간다, 올라가따구  
 32083-0-1 "바쁜-(忙)-지 -고 -더라" 다사하다, 바쁘다구  
 32083-0-2 "바쁜-(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빠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고푸지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폅서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싸구이따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싸따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끼는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께에따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다듬는다, 다듬찌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드마라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전딘다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데서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마르지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가야 텐다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끼더라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께따, 께에따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마시지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세라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세다, 세더라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세서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두드리구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두레라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케구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케라  
 32097-0-1 "썰-(바람을)-지 -고 -더라" 썰우구  
 32097-0-2 "썰-(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썰와라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새구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새서, 새 찌  
 32099-0-1 "쉬-(饅)-지 -고 -더라" 시구  
 32099-0-2 "쉬-(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세에서, 쉼에서  
 32100-0-1 "희-(白)-지 -고 -더라" 히다  
 32100-0-2 "희-(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헤에서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보꾸구 cf. 다까라(+이 지역에서 주로 씀)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보까라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안찌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나라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무찌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더라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불구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라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빨구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라라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죽떠라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거따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걸른다, 걸찌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러라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가무더라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무러라따, 가무러따구두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자불구, 자분다, 자부럽따(+구술 발화에서 채록)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부러바서, 자부러따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쓸구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러라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감찌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마라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굽찌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구버라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무겁따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거바서, 무거바서(+[mugəβasə])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인는다, 이꾸이따, 이찌마라라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서노쿠, 이서따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빈는다, 비찌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서라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검따, 검꾸, 캄꾸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아마타, 까아매서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연는다구, 여꾸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여어따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골른다, 골치, 골꾸이따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아라  
 32120-0-1 "엎-(載)-지 -고 -더라" 엉꾸이따, 언는다  
 32120-0-2 "엎-(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언저 나아따



32121-0-1 "귀찮-(囑)-지 -고 -더라" 귀채이타  
 32121-0-2 "귀찮-(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귀채에서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바르구, 고르구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발가내라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마알가타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가서  
 32124-0-1 "끓-(騰)-지 -고 -더라" 공계따, 공꾸  
 32124-0-2 "끓-(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골마따  
 32125-0-1 "끓-(太)-지 -고 -더라" 굴따, 국꾸  
 32125-0-2 "끓-(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거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엽따  
 32126-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열버서  
 32127-0-1 "썰-(春)-지 -고 -더라" 썰른다  
 32127-0-2 "썰-(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러서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일터라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따  
 32129-0-1 "핥-(舐)-지 -고 -더라" 할쿠인는다  
 32129-0-2 "핥-(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라서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짜르구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짤가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놀라더라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놀라따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자구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가라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모하개따, 모타더라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태따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모른다, 모르더라  
 32134-0-2 "모르-(不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몰라서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아푸다, 아푸더라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파서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크지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커따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까구, 깐다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라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쭈구, 쭈구(+[s'ɨgu])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라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마춘다, 마추구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차라  
 32140-0-1 "데우-(燂)-지 -고 -더라" 데운다, 데우지  
 32140-0-2 "데우-(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데와라

32141-0-1 "아:-(盖 지붕을)-지 -고 -더라" 옌다, 예지말라  
 32141-0-2 "아:-(盖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예에라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갈기지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게  
 32143-0-1 "기다라-(待)-지 -고 -더라" 기다린다  
 32143-0-2 "기다라-(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다레따구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헨다, 헤구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헤라, 헤에무 헤라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빼지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애라  
 32146-0-1 "켜:-(툽을)-지 -고 -더라" 케지, 켜다  
 32146-0-2 "켜:-(툽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케라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데다구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데에서, 대에서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시구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쉼에따  
 32149-0-1 "할퀴-(搔)-지 -고 -더라" 허비구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허베에따  
 32150-0-1 "눌:-(燂)-지 -고 -더라" 누르구  
 32150-0-2 "눌:-(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르러따  
 32151-0-1 "깨닫-(覺)-지 -고 -더라" 깨다르지  
 32151-0-2 "깨닫-(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다라따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마랍따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라바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부끄럽따, 부끄럽떠라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끄러바서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가참따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차바서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기푸다, 지푸길래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퍼서  
 32156-0-1 "긋:-(劃)-지 -고 -더라" 끄찌  
 32156-0-2 "긋:-(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꺼라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시찌 마라라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쳐라  
 32158-0-1 "쫓:-(搗)-지 -고 -더라" 찢는다, 찢쿠  
 32158-0-2 "쫓:-(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찢어라  
 32159-0-1 "값:-(搔)-지 -고 -더라" △  
 32159-0-2 "값:-(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가 나따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굶떠라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굶머따

32161-0-1 "닭:-(-似)-지 -고 -더라" 담떠라  
 32161-0-2 "닭:-(-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담마따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실쏘, 슬쏘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스투하지  
 32163-0-1 "끓:-(-𩚑)-지 -고 -더라" 콜터라  
 32163-0-2 "끓:-(-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라서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부께따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서라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타구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타라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마른다구, 마르더라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라따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쓰겁따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거바서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섭찌, 썩따, 슬푸지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설버 울지, 슬퍼서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방갑따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방가바서, 방가와서  
 32170-0-1 "쏘:-(-蜚 벌이)-지 -고 -더라" 쏘더라, 싸구 이따구  
 32170-0-2 "쏘:-(-蜚 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싸따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주더라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줘따구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키운다, 재래운다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와라, 재래와두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가두지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다라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마순다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사야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농구지 말구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농가준다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얼리더라, 소기지 마라라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얼레따, 소게따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끼운다, 끼우더라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끼와따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떤다, 띠더라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떼에따  
 32179-0-1 "괴:-(-滄)-지 -고 -더라" 개피더라  
 32179-0-2 "괴:-(-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개페따  
 32180-0-1 "여위:-(-癯)-지 -고 -더라" 예비더라  
 32180-0-2 "여위:-(-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예베따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맵찌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맵바서  
 32182-0-1 "뀌-(尻)-지 -고 -더라" 낀다, 끼구이따  
 32182-0-2 "뀌-(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께에따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고친다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체라  
 32184-0-1 "싣-(載)-지 -고 -더라" 싣쿠  
 32184-0-2 "싣-(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라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더바라  
 32186-0-1 "뺨-(粉碎)-지 -고 -더라" 갈그넨다  
 32186-0-2 "뺨-(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그내애라  
 32187-0-1 "파랑-(碧)-지 -고 -더라" 푸루다구, 파아라타  
 32187-0-2 "파랑-(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푸루러, 파아래서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따다, 따게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서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푼다, 푸라구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퍼 다마따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눈다, 누구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따구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어즈라다, 데럽따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데러바서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거두지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더라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끌른다, 끌터라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러따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이긴다, 이기더라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게따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뿌신다(+‘그릇을 가신다’의 의미), 뿌시더라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세라(+‘그릇을 가신다’의 의미)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자뿌러져따, 자빠지더라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빠져따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일거세운다, 일군다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거세와라, 일귀라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자바깡긴다, 땡기구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땡게라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데지구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데제라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훔치구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훔체가따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지이라구 하지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제에라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 cf. 예운다, 예우구(+구구단을~)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 cf. 만나따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cf. 만나서  
 32204-0-1 "씩-(腐)-지 -고 -더라" 썩찌  
 32204-0-2 "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거서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즐구, 즐다(+‘땅이 질다’의 의미)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즈러서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까부린다, 까부리구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부레서  
 32207-0-1 "드물-(稭)-지 -고 -더라" 드무다, 드물구  
 32207-0-2 "드물-(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무러서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쫄구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쫄라따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시무지 말라구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싱거라, 심머따, 심거따, 시무라구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 cf. 어른만지구, 어른만제따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사무렵따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무러바서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해깁따구, 세깁따구(+자연 발화에서 채록)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해까바서  
 32213-0-1 "젓:-(撈)-지 -고 -더라" 저꾸  
 32213-0-2 "젓:-(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서라, 저스무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두껍따구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꺼바서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무르구 cf. 흥기와져따, 흐제따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거따구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끄닌다, 끄니더라, 부찌른다구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러져따, 끄네떠라, 부찢거따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배우지, 배운다 cf. 이른다, 일거따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배와라  
 32218-0-1 "다리-(熨)-지 -고 -더라" 다리지, 다린다  
 32218-0-2 "다리-(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레라  
 32219-0-1 "후비-(窰 귀를)-지 -고 -더라" 우빈다, 기채르 파낸다  
 32219-0-2 "후비-(窰 귀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베라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아리다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레서

32221-0-1 "그리-(畵)-지 -고 -더라" 그린다, 그리구  
 32221-0-2 "그리-(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레따  
 32222-0-1 "저리-(癡)-지 -고 -더라" 저리지  
 32222-0-2 "저리-(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레서, 저리메  
 32223-0-1 "불리-(憎)-지 -고 -더라" 불군다, 퍼지운다  
 32223-0-2 "불리-(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거라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따따:사다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따:새서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끄리지 마라라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레라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옌다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예에라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꾸긴다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게따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빈, 비더라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베에따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시기라구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게서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맨다, 매구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애라구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매라구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애따, 매애쏘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띤다(+이 지역에서 '뛰다(走)'는 '달다'형을 씀)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떼에따(+이 지역에서 '뛰다(走)'는 '달다'형을 씀), 노피 떼따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담떠라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마라  
 32234-0-1 "가렵-(癢)-지 -고 -더라" 가랴따, 가랴꾸  
 32234-0-2 "가렵-(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라바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때린다, 때리구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때레라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어둡찌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드바서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잡꾸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바따, 제에따, 부짜바찌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찬다, 차구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따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모자라기두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자래서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부루구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러따, 부룬다능게오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찌운다, 찌우구 cf. 부서노쿠, 분는다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와따  
 32242-0-1 "쫌:- (啄)-지 -고 -더라" 쫌는다, 쫌꾸, 쫌떠라  
 32242-0-2 "쫌:- (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쫌사따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두구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도따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시킨다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게라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뿌린다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레라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모두지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다따, 모다서  
 32248-0-1 "만지-(搦)-지 -고 -더라" 만지구  
 32248-0-2 "만지-(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제따  
 32249-0-1 "쪼:- (曬)-지 -고 -더라" 쪼운다  
 32249-0-2 "쪼:- (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쪼와라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비탄다, 탄다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타라라  
 32251-0-1 "돕:- (助)-지 -고 -더라" 돕제인다  
 32251-0-2 "돕:- (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도바준다  
 32252-0-1 "썸-(咀)-지 -고 -더라" 썸는다, 썸꾸  
 32252-0-2 "썸-(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썸버라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미끄럽따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끄러바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대운다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대와따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누른다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눌러따  
 32256-0-1 "주무르-(揉)-지 -고 -더라" 주무루구  
 32256-0-2 "주무르-(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물거라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메꾼다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메꺼라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고소:하지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소:해서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네린다, 네리운다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네리와라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구불지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구부레라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만듭쑈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드러라  
 32262-0-1 "늡-(老)-지 -고 -더라" 늡뚜라  
 32262-0-2 "늡-(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늡거서  
 32263-0-1 "알-(痛)-지 -고 -더라" 알른다지, 알쿠인는다  
 32263-0-2 "알-(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라따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따른다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라간다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싸구, 싸온다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싸라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치운다, 치우구, 거둔다, 거두라구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치와라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32216 참고)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6 참고)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다치지 마라라(+‘건드리다’의 의미), 상하구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치와따(+‘건드리다’의 의미), 사해따, 빼서쩌따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느려지다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려져따  
 32270-0-1 "무치-(和 나물을)-지 -고 -더라" 메운다, 메우지  
 32270-0-2 "무치-(和 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메와라  
 32271-0-1 "죄-(締)-지 -고 -더라" 제따, 제운다  
 32271-0-2 "죄-(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제에라, 제와라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판다, 팔구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라라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뽑는다, 뽑꾸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뽑바라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디빈다, 드빈다, 드비구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베라, 드베야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절구구, 당구구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절거따, 당가따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후리구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후레따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주꾸 이따, 지구 이따  
 32278-0-2 "줍-(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어따, 주어라, 제에따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애끼우구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애끼와따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찌부렌능가, 찌불구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부레따, 찌부런나



-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아깝찌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까바서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반갑찌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반가바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찌다, 찌구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어라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노라채이치, 노오라타구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오래서, 노르러서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푸루지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푸루러, 푸루이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서거푸다, 서투럽따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투라바서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게그르다 cf. 베돌째(+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말함)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게글거서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따따:사다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따:새서  
 32290-0-1 "춡-(寒)-지 -고 -더라" 춡꾸  
 32290-0-2 "춡-(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치바서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딱따, 따갑찌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가바서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미지그러하다, 띠띠부레:항거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지그러하이, 미지그러해에서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차갑찌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가서, 차가바서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불부다구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버서  
 32295-0-1 "알밋-(憎)-지 -고 -더라" 요소하다, 미깡스렵따  
 32295-0-2 "알밋-(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깡스러바서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가투:하다, 비스:타다, 비저:가다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저:개서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섭꾸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설버서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베롭따(+[veropt'al]), 웨롭따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베로바서(+[v'erobasə])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땅따나다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땅따내서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느떠라  
 32303-0-2 "늦-(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저따  
 32304-0-1 "남:--(餘)-지 -고 -더라" 지떠라  
 32304-0-2 "남:--(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터따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지친다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체따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자뿌러지개 해따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뿌러지개 해에서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쭈굴때레따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굴때레서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전저본다, 재~애본다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저바라, 재~에본다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에운다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에와라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문지르구, 문지른다  
 32310-0-2 "문지르-(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문질거라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가르친다, 가르치길래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르체라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가르친다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르체라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전준다, 전주구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저라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비기르뜬다, 비기르뜨구이따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기르떠라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달기구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게라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보느 받는다  
 32316-0-2 "본받-(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본바다라, 보느 바다라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어즐구구, 어즈럽따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즐거따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달른다, 달치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라라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우게 쏜다, 우게르 쓰구이따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게르 써서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두두버린다, 두두버리구, 주~얼거린다구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두버레두, 주~얼거레서

32321-0-1 "지꺠이-(騷)-지 -고 -더라" 지지버리지  
 32321-0-2 "지꺠이-(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지버레서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다닌다, 땡긴다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땡게라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떨구지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떨거따, 떨거찌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깨지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애나찌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시쿠지, 시쿠다, 시쿠구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쿠러서  
 32326-0-1 "솟-(湧)-지 -고 -더라" 소스지, 손는다  
 32326-0-2 "솟-(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사올라오지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조타하지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아해서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빠알가타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알개서  
 32329-0-1 "끌-:(曳)-지 -고 -더라" 끄는다, 끄그지  
 32329-0-2 "끌-:(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서따  
 32330-0-1 "넓-(廣)-지 -고 -더라" 너르지  
 32330-0-2 "넓-(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널거서, 너버서  
 32331-0-1 "하얗-(白)-지 -고 -더라" 히구, 히다구, 하아야타  
 32331-0-2 "하얗-(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헤에서, 하아애서

##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구기
32332-0-2 국(羹)-을/를	구그
32332-0-3 국(羹)-에(서)	구게
32332-0-4 국(羹)-으로	구그느
32332-0-5 국(羹)-도	국뚜
32333-0-1 논(沓)-이/가	놈파이라구, 노이라구
32333-0-2 논(沓)-을/를	놈빠트
32333-0-3 논(沓)-에(서)	놈빠테서
32333-0-4 논(沓)-으로	놈빠트르
32333-0-5 논(沓)-도	놈빠뚜
32334-0-1 쌀(米)-이/가	싸리
32334-0-2 쌀(米)-을/를	싸르
32334-0-3 쌀(米)-에(서)	싸레
32334-0-4 쌀(米)-으로	싸를르, 쌀르
32334-0-5 쌀(米)-도	쌀두

32335-0-1 봄(春)-이/가	보미
32335-0-2 봄(春)-을/를	보무
32335-0-3 봄(春)-에(서)	보메
32335-0-4 봄(春)-으로	보물루
32335-0-5 봄(春)-도	봄두
32336-0-1 집(家)-이/가	지비라
32336-0-2 집(家)-을/를	지부
32336-0-3 집(家)-에(서)	지베서
32336-0-4 집(家)-으로	지부루
32336-0-5 집(家)-도	집뚜
32337-0-1 옷(衣)-이/가	우티, 오시
32337-0-2 옷(衣)-을/를	우티르
32337-0-3 옷(衣)-에(서)	우티에
32337-0-4 옷(衣)-으로	우틸르
32337-0-5 옷(衣)-도	우티두
32338-0-1 방(房)-이/가	바~이
32338-0-2 방(房)-을/를	바아
32338-0-3 방(房)-에(서)	바~에서
32338-0-4 방(房)-으로	바~알~르
32338-0-5 방(房)-도	방두
32339-0-1 낮(晝)-이/가	나티라구
32339-0-2 낮(晝)-을/를	나즈
32339-0-3 낮(晝)-에(서)	나제
32339-0-4 낮(晝)-으로	나즐르두
32339-0-5 낮(晝)-도	나뚜
32340-0-1 낮(顔)-이/가	나티라, 나치라구두
32340-0-2 낮(顔)-을/를	나츠
32340-0-3 낮(顔)-에(서)	나체
32340-0-4 낮(顔)-으로	나트느
32340-0-5 낮(顔)-도	나치두
32341-0-1 부엌(廚)-이/가	부수깨라구
32341-0-2 부엌(廚)-을/를	부어깨르, 부수깨르
32341-0-3 부엌(廚)-에(서)	부수깨애다, 뷔어깨애다
32341-0-4 부엌(廚)-으로	부수깨는
32341-0-5 부엌(廚)-도	부수깨두
32342-0-1 밭(田)-이/가	바티
32342-0-2 밭(田)-을/를	바트
32342-0-3 밭(田)-에(서)	바테
32342-0-4 밭(田)-으로	바트르
32342-0-5 밭(田)-도	바티두

32343-0-1	앞(前)-이/가	아피지
32343-0-2	앞(前)-을/를	아푸
32343-0-3	앞(前)-에(서)	아페
32343-0-4	앞(前)-으로	아푸루
32343-0-5	앞(前)-도	압뚜, 아푸두
32344-0-1	넋(魂)-이/가	*
32344-0-2	넋(魂)-을/를	*
32344-0-3	넋(魂)-에(서)	*
32344-0-4	넋(魂)-으로	*
32344-0-5	넋(魂)-도	*
32345-0-1	흙(土)-이/가	홀기
32345-0-2	흙(土)-을/를	홀그
32345-0-3	흙(土)-에(서)	홀게
32345-0-4	흙(土)-으로	홀글르
32345-0-5	흙(土)-도	흑뚜
32346-0-1	여덟(八)-이/가	야들비
32346-0-2	여덟(八)-을/를	야들부
32346-0-3	여덟(八)-에(서)	야들베서
32346-0-4	여덟(八)-으로	야들부느
32346-0-5	여덟(八)-도	야듭뚜
32347-0-1	돌(週歲)-이/가	돌씨
32347-0-2	돌(週歲)-을/를	돌쓰 센다
32347-0-3	돌(週歲)-에(서)	△
32347-0-4	돌(週歲)-으로	△
32347-0-5	돌(週歲)-도	△
32348-0-1	값(價)-이/가	갑씨
32348-0-2	값(價)-을/를	갑쓰
32348-0-3	값(價)-에(서)	△
32348-0-4	값(價)-으로	△
32348-0-5	값(價)-도	갑쓰부터
32349-0-1	속:(內)-이/가	소기
32349-0-2	속:(內)-을/를	소그
32349-0-3	속:(內)-에(서)	소게서두
32349-0-4	속:(內)-으로	소글르
32349-0-5	속:(內)-도	속뚜
32350-0-1	돈:(錢)-이/가	도이
32350-0-2	돈:(錢)-을/를	도느
32350-0-3	돈:(錢)-에(서)	도네서
32350-0-4	돈:(錢)-으로	도늘르
32350-0-5	돈:(錢)-도	돈두

32351-0-1 발(足)-이/가	바리
32351-0-2 발(足)-을/를	바르
32351-0-3 발(足)-에(서)	바레서, 바레다
32351-0-4 발(足)-으로	발르
32351-0-5 발(足)-도	발두
32352-0-1 짐(荷物)-이/가	지미
32352-0-2 짐(荷物)-을/를	지무
32352-0-3 짐(荷物)-에(서)	지메서
32352-0-4 짐(荷物)-으로	지무느
32352-0-5 짐(荷物)-도	짐두
32353-0-1 입(口)-이/가	이비 너르다
32353-0-2 입(口)-을/를	이부
32353-0-3 입(口)-에(서)	이베서
32353-0-4 입(口)-으로	이불루
32353-0-5 입(口)-도	입뚜
32354-0-1 낫(鎌)-이/가	나디
32354-0-2 낫(鎌)-을/를	나드
32354-0-3 낫(鎌)-에(서)	나데
32354-0-4 낫(鎌)-으로	나들르
32354-0-5 낫(鎌)-도	나뚜
32355-0-1 강(江)-이/가	가~이 너르다
32355-0-2 강(江)-을/를	가~아
32355-0-3 강(江)-에(서)	가~에서
32355-0-4 강(江)-으로	가~을르, 가~으르
32355-0-5 강(江)-도	△
32356-0-1 젓(乳)-이/가	저지
32356-0-2 젓(乳)-을/를	저즈
32356-0-3 젓(乳)-에(서)	저제
32356-0-4 젓(乳)-으로	저즐르
32356-0-5 젓(乳)-도	저뚜
32357-0-1 꽃(花)-이/가	꼬지
32357-0-2 꽃(花)-을/를	꼬즈, 꼬츠
32357-0-3 꽃(花)-에(서)	꼬제 가서
32357-0-4 꽃(花)-으로	꼬출르
32357-0-5 꽃(花)-도	꼬뚜
32358-0-1 팥(赤豆)-이/가	패끼
32358-0-2 팥(赤豆)-을/를	패끼르
32358-0-3 팥(赤豆)-에(서)	패끼에서
32358-0-4 팥(赤豆)-으로	패깰르
32358-0-5 팥(赤豆)-도	패끼두

32359-0-1	옆(側)-이/가	여피
32359-0-2	옆(側)-을/를	여푸
32359-0-3	옆(側)-에(서)	여페 서파
32359-0-4	옆(側)-으로	여폴루
32359-0-5	옆(側)-도	엽뚜
32360-0-1	쌔(賃金)-이/가	싸기라구
32360-0-2	쌔(賃金)-을/를	싸그
32360-0-3	쌔(賃金)-에(서)	싸게서
32360-0-4	쌔(賃金)-으로	싸글르
32360-0-5	쌔(賃金)-도	쌉뚜
32361-0-1	닭(鷄)-이/가	달기
32361-0-2	닭(鷄)-을/를	달그
32361-0-3	닭(鷄)-에(서)	달게서
32361-0-4	닭(鷄)-으로	달그느
32361-0-5	닭(鷄)-도	닥뚜
32362-0-1	밖(外)-이/가	바가티라구두 하구
32362-0-2	밖(外)-을/를	바가트 쓸라
32362-0-3	밖(外)-에(서)	바가테
32362-0-4	밖(外)-으로	바가트르
32362-0-5	밖(外)-도	바가티두

## 제4편 문 법

### 4.1. 대명사

#### 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내
40101 나	내라구
40101-0-1 내-가	내 머거따구
40101-0-2 내	내게라구{내 것이라고}
40101-0-3 나-를	나르 차자와따구
40101-0-4 나-에게	나르 다우{나를 다오}, 내게다 써따{나에게다 썼다}, 내 게다 도따구{나에게다 뒀다고}
40101-0-5 나-와	내가 가치 가자{나와 같이 가자}
40101-0-6 나-는	나는 cf. 내마 안다{나만 안다}
40101-0-7 나-도	나두 안다구
40102 저/제-가	내(+이 방언에서 '저/제'는 이인칭 평대 대명사로 쓰임)
40102-0-1 저-가	*
40102-0-2 저-의	*
40102-0-3 저-을/를	*
40102-0-4 저-에게	*
40102-0-5 저-와/과	*
40102-0-6 저-는	*
40102-0-7 저-도	*
40103 우리	우리 아부집니다(+이 방언에는 '우리'의 낮춤말이 없음, '-히니다'의 사용은 표준어의 영향으로 보임)
40104 저희	우리 아부집니다(+이 방언에는 '우리'의 낮춤말이 없음, '-히니다'의 사용은 표준어의 영향으로 보임) cf. 내 아 부지이꾸마
40105 너	너느, 니
40105-0-1 -가	네 아푸야?(+이 방언에서는 주격조사 "-가"가 없음){너 아프냐?}
40105-0-2 -의	네 이미리 미시게야?(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니 이리 미 미시게야?(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니 채기다{너의



40105-0-3 -을/를  
40105-0-4 -에게  
40105-0-5 -와/과  
40105-0-6 -는  
40105-0-7 -도  
40106 자네

40107 당신

40108 너희

40109 개

40109-1 애

40109-2 재

40110 자기

40111 당신

책이다}

너르

니게르{너에게로}

네가, 네가 가치 가개따구{너와 같이 가겠다고}

너는, 너느

너두 머거라{너도 먹어라}

\*(+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cf. 너두 바부 머거라, 싸이 바부 머그라구

귀래라 하압떼(+원동에서 제보자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를 때 썼음, 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거래

너어 마마{너희 어머니}, 너어 아부지야?{너희 아버지냐?}

가아, 가아라 하지

야아, 야아는

자아, 자아라구

제말마{자기 말만}

\*(+"재비 빠~아네서"와 같이 주로 재귀사를 씀)

## 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구와쑤?, 누구바쑤?(+[nuguvas'o]), 뉘기오?(+[n'wigio]), 니기오?

40112-0-1 누-가

누기

40112-0-2 누구-의

누기게야?, 네에게~야?, 뉘기 마산냐?{누가 부렸냐?}

40112-0-3 누구-를

누기르 주자구{누구를 주자고}

40112-0-4 누구-에게

누기게

40112-0-5 누구-와

누기가 가~야? cf. 누우 가치 가능가?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미시게~야?, 무어시야?, 무어시오?, 미시켄두?

40113-0-1 무엇-이

무시쟁가, 미시쟁가구

40113-0-2 무슨

무순 일 하능가

40113-0-3 무엇-을

무스그, 무스거 먹쨌는가:구{무엇을 먹쨌는가 하고}

40113-0-4 무엇-과

므스거까(+[mʌsigək'a])

## 3) 그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어디메르{어디로}, 어디메를{어디를}, 어디르

40115 언제

언제 오겐냐?

40116 어느

→어느게 존냐?{어느 게 좋냐?}, 어떻게 싸겐냐?

40117 왜

니 어쨌 우야?

40118 얼마나

엠매나, 엠매

40119 어떻게

어떠키 해앤냐?, 어떠케

#### 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이게 무시게냐?
40121	그것	그게 미시쟁가구
40122	저것	저게라 하구
40123	여기	잉게라구두 하구, 여기르 오나라, 영게르 오나라
40124	거기	경게라구두 하구
40125	저기	정게, 저기
40126	이리	영게르 오오(+다), 여기르 오오(+다), 잉겔르 가라구(+다), 일루 가가라(+소, 한국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라 함){이리로 가거라}
40127	그리	경겔르 가라구(+다), 그리르(+소){그리로}
40128	저리	정게르 가가라(+다), 절루 가가라(+소), 절리라는 말이(+소)

## 4.2. 조사

### 1) 격조사

40201	-이/가	갑씨 세다{값이 비싸다}, 갑씨 이따구, 코이
40203	-을/를	기메태기르, 기르, 무르 준다
40205	-에게/게	저 사름게 쥐판 말이오
40206	-보고/더러	→누기한테, 누기라구, 누기르보구(+?조)
40208	-에	지부루 가지(+다, 질문지의 질문문으로는 처소격 "-에"가 나타나지 않음), 지베 간다(+소)
40209	-에	훈나레 만나자, 어느때애
40210	-에서	큰지베서(+[kʰənʝibesə])
40211	-에서	서우레서 만나자
40212	-에서	영게서
40213	-으로	참쌀르
40214	-으로	지폴루두
40215	-으로	새끼르
40216	-으로	어드르 가오?, 어디를 가오?
40217	-와/과	수바까 차매르
40218	-와/과	내가 가치 가자
40219	-보다	형보구, 헤~이보구
40220	-처럼	대애지처름, 대애지처리
40221	-만큼	네마·이, 네처름
40222	-만큼	머글마:이
40223	-아/야	봉나마!

40224 -아/야  
 40225 -아/야  
 40226 -아/야  
 40226-1 -예  
 40227 -아/야  
 40227-1 -요  
 40228 -이랑  
 40229 -커녕

봉내미!  
 영수야!  
 누인니미!  
 \*  
 아바이!  
 \*  
 수우리랑 고기랑  
 뱅냐~아커야느

## 2) 보조사

40230 -은/는

담배는 아이 피운다, 수우르는 마세두 담배는 아이 피  
 운다

40231 -만

→마팔마{만팔만}

40232 -도

키두 크구 잉기두 잘나따{키도 크고 낫도 잘났다}

40233 -마다

날마당

40234 -부터

오늘부터

40235 -까지

내일까지(+질문에 대한 최초 발화와 구술 발화 및 자연  
 발화에서는 주로 "-꺼지"를 씀) , 내일꺼지두, 내일꺼지  
 물두 업따구, →마실 물조차두 업따(+표준어의 영향으  
 로 보임)

40236-1 -할라

→비꺼지 오는데

40237 -이야/야

→마리사

40238 -을랑

소리르

40239 -이라도

부재라 해·두·(+다), →부재래두(+소)

40240 -밖에

니빠께 업따구

40241 -가지고

싸가지구 간다지 cf. 보올르 매애가지구 간다해두

## 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오라구

40243 알았어-요

\* cf. 머깨쓰꾸마

40244 했지-요?

\* cf. 잡싸쏘?, 누기 매애쏘?{누가 받을 댔소?}

## 4.3 종결어미

40301 -아라

안자라(+[anjara])

40302 -게

안자라 cf. 오~오 하오{응응 하오}

40303 -으오

안쏘

40304 -으십시오

안줍쏘 cf. 오웁쏘

40305 -세요	안줍쑈
40306 -자	가자
40307 -세	가기오(+다른 고려인들은 사위에게 하오체를 쓰기도 한다 함), 가자(+제보자는 주로 사위에게 해라체를 씀)
40308 -으오	가기입쑈(+다), 가기오(+소)
40309 -십시다	가깁쑈
40310 -세요	가깁쑈
40311 -니	오~야?, 오나?
40312 -나	오~야?(+제보자는 주로 사위에게 해라체를 씀), 오오?(+다른 고려인들은 사위에게 하오체를 쓰기도 한다 함)
40313 -오	오오?
40314 -습니까	오옴드?
40315 -나요	오옴두?, 오옴드?, 오오?(+사위가 장모와 친밀도가 높을 때 씀)
40316 -니	가~야?
40317 -나	가오?(+다른 고려인들은 사위에게 하오체를 쓰기도 한다 함), 가~야?(+제보자는 주로 사위에게 해라체를 씀)
40318 -시오	가암드?(+[kaamdɨ])
40319 -십니까	가암드?
40320 -세요	가암드?, 가오?(+소, 사위가 장모와 친밀도가 높을 때 씀)
40321 -는다	멍는다
40322 -네	멍는다
40323 -오	먹쑈
40324 -습니다	먹쓰꾸마
40325 -네요	먹쓰꾸마
40326 -다	작따
40327 -네	작따
40328 -소	작쑈
40329 -으 십니다	작쓰꾸마, 작쓰끄마(+[čaks'ik'ɨma])
40330 -으세요	작쓰꾸마
40331 -아	* cf. 아푸야?, 아푸~야?, 알랴?
40332 -지	* cf. 베이 다 나산냐?
40333 -이다	생지이다
40334 -이니	생지이~야?, 생지이야?
40335 -이네	생지이다
40336 -인가	생지이~야?, 생지이야?
40337 -이오	생지이오
40338 -이오	새이리오?
40339 -입니다.	생지이꾸마, 새이리꾸마
40340 -입니까	생지임두?, 생지임드?

40341 -이시지요  
 40342 -이시지요  
 40343 -이냐?  
 40344 -인가?  
 40345 -이오?  
 40346 -입니까?  
 40347 -인가요?  
 40348 -이야?  
 40349 -이어요?  
 40350 -습니다  
 40351 -습디다  
 40352 -는구나/구나  
 40353 -는구먼/구먼  
 40354 -일세  
 40355 -으마  
 40356 -음세  
 40357 -올라

생진나리오  
 생지이오?  
 미시게야?  
 미시게~야?, 미시게야?  
 미시게오?, 미시기오?  
 미시젼두?  
 미시젼두?, 미시게오?(+소)  
 미시게오?  
 미시게오?  
 만쓰끄마  
 만썸떠구마 cf. 만썸떼(+하오체)  
 →멍는구나  
 →멍능구만, →멍능구마느  
 오람마니오  
 주마  
 주마  
 \*

####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40402 -으면서  
 40403 -어/-어서  
 40404 -으니 /-으니까  
 40405 -관데  
 40406 -다가  
 40407 -거든  
 40408 -더라도  
 40409 -으려고  
 40410 -도록  
 40411 -을수록  
 40412 -듯이  
 40413 -지

바부 잡쑈꼬(+[čaps'ɔk'o])  
 보메  
 치바서  
 따따:사~이  
 이럴래  
 →오다가  
 →만나거든  
 먹떠래두  
 먹짜구  
 →죽뚜라 일한다  
 가두라{갈수록}, 배우두라{배울수록}, 할싸룩(+주 제보자는 "-두라"를 쓰고, 보조 제보자1은 "-르사룩"을 씀){할수록}  
 물쑈두 한다구, 물쑈두 쓴다구  
 →먹찌

#### 4.5 주체존대

40501 -셔  
 40502 -쑈소

\*(+이 지역에서는 주체 존대 "-시-"를 쓰지 않음)  
 \*(+이 지역에서는 주체 존대 "-시-"를 쓰지 않음, "해애쑈?", "해애쑈두?", "해애쑈드?"만 씀)

## 4.6. 시제

40601	웃는다	운는다
40602	기어간다	게에간다구두 하구
40603	크다	크다구두
40604	생일이다	생지이다
40605	오고 있다	오구 이따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머건냐?
40607	왔었다	와따(+다), →와서따(+소)
40608	먹더라	먹떠라
40609	먹더냐	먹떠~야?, 먹떠야?
40610	만나는 친구	만나는
40611	만난 친구	만난
40612	만났던 친구	만나편
40613	만날 친구	만날
40614	큰 아이	큰 아라구{큰 아이라고}
40615	크던 아이	크던 아라구
40616	컸던 아이	커편 아라구
40617	마시지 않겠다	아이 마시개따구, 양캐따구
40618	비가 오겠다	오개따

##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아이 머거따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아이 조타, 조채이타구{좋지 않다고}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아이 깨까자더라구, 아~이 깨까자더라구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서바아 아이 가따{장가를 안 갔다}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몸만나바쑈{못 만나 봤소}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만나 모빠따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뚜대이쿠 잔다구{먹지도 않고 잔다고}
40706-1	먹도 않고	먹뚜대이쿠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몸마신다구두, 아이 마시오
40708	맞잖소?/안 맞소?	마췌이오?, 아이 올쏘?, 아이 올라?

## 4.8 사동과 피동

###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가따, 살구구 이따
40802	늘리다	늘구구, 늘거따
40803	말리다1	말리운다지
40804	말리다2	말긴다구
40805	열리다	열구구 이따, 열거따구
40806	녹이다	노기구 이따지
40807	신기다	싱긴다
40808	보이다	베운다구
40809	알리다	알게따, 알기와따 하지, 알기구야
40810	입히다	이핀다구두
40811	얹히다	안체따구두 하구, 안치구
40812	벗기다	빼께다구두 하구
40813	웃기다	우깁다구
40814	씩히다	씩긴다지
40815	숨기다	꼼치운다지, 꼼치와 나야{숨겨 봐야}
40816	끓기다	궁기구 이따, 궁계라
40817	깨우다	깨와라, 깨운다구서리
40818	돋우다	도꾸구 이따구, 도까라

#### 4.8.2. 피동

40819	잡히다	재피우구, 재피와따구두 하오 cf. 부뜰기와따구
40820	깎이다	깨끼와다
40821	끼이다	끼바찌(+[k'ivač'i]), 끼와찌
40822	떼이다	애끼와찌(+다), 떼와따구(+소)
40823	채이다	세계 채와따
40824	단히다	대계찌, 대끼구 이따구
40825	들리다	디깁다, 디끼구 이따, 아이 디끼지
40826	엮히다	어페따
40827	바뀌다	배끼와따구
40828	씹히다	씨피와따구
40829	엮히다	→언치와따라구두 cf. 걸키와따구두, 절리와저따구
40830	찍히다	찌깁다
40831	눌리다	눌리와따
40832	실리다	실계와따지
40833	끓기다	끄너저찌
40834	끓히다	오리와따 하오(+ "끓히다"는 잘 안 쓰임)

####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시풍계{싶은 계}
40902	싶다	명능가트더이(+다){먹는 것 같더니}, 십떠이(+소)
40903	보다	이버 보오{입어 보오}
40904	버리다	머거 치와라구두(+다), 머거 버레라(+소)
40905	대다	울기두 운다(+다), 우러 댄다(+소) cf. 울기만 운다구, 울기마 운다
40906	-나/는가 보다	울까따구 cf. 비 오겐는 모애이라구
40907	-나/는가 보다	자능갑따, 자능까트다, 자능까따
40908	-나/는가 보다	치붕까트다 cf. 치분 모애이라구, 차가분 모애~이다구

## 4.10. 부사

41001	실컷	슬:큰
41002	많이	마이, 마~이
41003	너무	지내, cf. 지제이 나지{주정 부리지}
41004	조금	조끔, 제끔
41005	자주	자주루 땡기지
41006	빨리	빨리 와꾸나
41007	얼른	얼릉(+다), 얼씨덩(+소), 데까당명는단 말두(+소)
41008	기어코	기여:나
41009	가끔	가끔
41010	먼저	만저 가가라
41011	나중에	좁 이따가 달라구(+다), 차차(+다), →나주에(+소) cf. 죄외꿈(+[čöök'om])
41012	가득	꿀똑 채와라
41013	몽땅	다아 가제오나라(+ "몽땅"은 쓰이지 않음)
41014	모조리	씩 베에따구(+다), 곡식이 널기무 모조리 썩 쓰러라, 모조리 쓰러라, 모조리 베에라(+소)
41015	혼자	혼자 이슬까?(+다), 하분자라구두 하오(+소)
41016	항상	늘쌍두 쓰오(+다), 항상(+소) cf. 한니르 이란다{한평생을 일한다}
41017	똑똑히	똑또기 씨라 cf. 꼬께 씨라{곧게 씨라}
41018	겨우	→제에구나
41019	늘	늘:
41020	저절로	절루, 재빌르, 제절루
41021	자꾸	자꾸
41022	설마	간대르사 cf. 간대르사 나르 열레쓰까?
41023	하마터면	재뻔.해떠무
41024	함께	가치 가따(+다), 함께라구서르(+소)
41025	결핍하면	퍼뜩하무(+[pʰətʰigʰamu])



41026 공연히	→고~여:이, 고여:이
41027 그냥	그양 빙게 와따 하오{그냥 빈 손으로 왔다 하오}
41028 매우	모지리
41029 곧장	고께
41030 벌써	발써
41031 가장	제:이리 박따
41032 가만히	가마:이
41033 미리	미루 아라따{미리 알았다}
41034 이따금	*

## 4.11. 관용적 표현

### 1) 관용어구

41101 여보	아바이(+이 지역에서는 주로 이름을 부름)
41102 여보세요	이보옵쑤
41103 들어가세요	폐나이 이스라구
41104 수고하세요	잘이쑤, 잘가오, 잘이쑤쑤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오람마네 만나쑤, 오람마네 바쑤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주로 러시아어로 인사함)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알령하심두?(+주로 러시아어로 인사함) cf. 얼려~이 가시오!
41108 여기 있습니다	어쑤!(+[əs'q])
41109 예	예:
41110 아니	아~이오, 아~이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이럽따
41112 내버려 뒀	나아두라구, 나아두라서리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 cf. 잘 사나 구차하나 다아 마시나르 타구 땡긴다{잘 사나 구차하나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 2) 속담

41114 밭 빠진 독에 물 붓기	깨어진 항새리에 물부뚜 한다구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늘 도동니미 자라서 세 도동니미 텨다능게
41116 아니 뎌 굴뚝에 연기 나라	불때재인 구새서는 내구리 아이 난다구

<Abstract>

## **2009 Research on Regional Dialect of Overseas Collective Diaspora Korean**

—on Bishkek in Kirgizstan

This report contains (1)narrative discourse(only four hours), (2)vocabulary, (3)phonology, (4)grammar research material which were surveyed from the Korean on Bishkek in Kirgizstan. This survey proceeded from July 2<sup>nd</sup> to July 17<sup>th</sup> in 2009, for about 59 hours. This materials may show the real state of the Korean language "*Koryeo-mal*" of the Koreans who were residents in Kirgizstan.

Kirgizstan are located in south-western area of Central Asia, with China to the east, Kazakhstan and Uzbekistan to the north. In Kirgizstan, there are 20 thousand Koreans who forced to emigrated from the Russian Far-East by Soviet Russian. They had lived in Uzbekistan or Kazakhstan at the beginning of diaspora.

The majority of the Koreans in Kirgizstan live on Bishkek, the capital city of Kirgizstan and in the neighbouring area to Bishkek. They call their mother country "*Koreo*"(Korea), call their mother tongue "*Koreo-mal*"(the Korean Language spoken in Central Asia), and call themselves as "*Koreo-saram*"(the Korean). The Koreans from seventy years up can speak Korean fluently, but sixty years down cannot speak Korean well. It is very difficult to speak Korean in their sixties. So they usually speak Russian. The elderly Korean usually speak Russian, and they speak Russian with the members of thrir family, because their family members speak only Russian. But They mostly speak Korean with "*Koreo-saram*".

We interviewed six Koreans on Bishkek, and selected three of them as informants. An, Tashja, main informant, whose ancestors resided in Onseong-gun of Hambuk province which belongs to the Yukcin-dialect area. The other informant Pak, Ok-Sun, whose ancestors resided in Puryeong-gun of Hambuk located at the border of the Yukcin and the North-eastern dialect. Pak, Pjotr, whose ancestors resided in Kilju-gun of Hambuk which belongs to the North-eastern dialect. All three informants do not show the dialect of ancestors. They speak koine "*Koreo-mal*" which has developed gradually by the regional dialects of Hambuk-province in North Korea. The sentence endings are similar to the Yukcin-dialect, and Phonology is similar to the North-eastern dialect.

Key-words; Kirgizstan, Bishkek, diaspora, *Koryeo-mal*"(the Korean Language), "*Koreo-saram*"(the Korean), Yukcin dialect, North-eastern dialect.